바른에듀케이션

인문논술 기본서

유형별 인문논술 기본서

여덟 가지 유형, 한 권으로 익히는 대학 논술의 기본기

Ⅰ 요약단순형
Ⅱ 요약종합형
Ⅲ 공통쟁점추론형
Ⅳ 적용분석형
Ⅴ 논증평가형
Ⅵ 문제해결형
Ⅶ 자료해석형
Ⅷ 자기견해진술형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 책을 펴내며

대학 인문논술은 길고 어려운 글을 읽고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답안을 써내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출제되는 문항은 끝없이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요약하라, 비교하라, 공통 쟁점을 찾으라, 이론을 적용하라, 주장을 평가하라, 문제를 해결하라, 자료를 해석하라, 자기 견해를 세우라. 수십 년의 기출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문항이 이 여덟 가지 요구 가운데 하나이거나 그 조합입니다. 이 책은 그 여덟 가지를 한 단원씩 다룹니다.

단원마다 짜임은 같습니다. 먼저 대학이 왜 그 능력을 묻는지 밝히고, 핵심 해법을 표와 예로 익힙니다. 그다음 시범 문항에서 해법이 답안이 되는 과정을 단계마다 보여 주고, 단계 훈련에서 학생이 그 과정을 손으로 따라 합니다. 실전 세 문항은 시간을 재고 혼자 쓰며, 채점표로 스스로 채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중·하 세 학생의 답안을 나란히 놓고 어디서 점수가 갈리는지 확인합니다.

이 책의 제시문은 모두 새로 썼습니다. 실존하는 학자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글은 그 출처를 밝혔고, 교재가 지은 장면과 가상의 수치는 그렇다고 적었습니다. 예시답안은 모두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자기 말로 다시 세웠으며, 분량과 원고지 규칙을 지켰습니다. 학생이 베껴야 할 것은 답안이 아니라 답안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채점표의 배점은 내용 5, 구성 2, 표현 2, 형식 1로 모든 단원이 같습니다. 이는 바른에듀케이션 수업용 기준이며, 대학별 실제 채점 기준은 『합격 포인트』 시리즈에서 확인합니다. 채점표에서 거듭 강조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 잘못은 한 영역에서만 깎는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자기 답안의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답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들의 태도 변화를 통해 미래를 바꾼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술은 그 태도를 기르기에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남의 글을 끝까지 정확히 읽는 태도, 숫자 앞에서 정직한 태도, 맞서는 생각 앞에서 자기 자리를 정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이 책이 그 길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에듀케이션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차례

I	**요약단순형** 한 편의 글을 정확하게 줄이는 힘		**5**
1	왜 요약부터인가	대학이 요약을 묻는 이유	6
2	핵심 해법	세 원칙 · 줄이는 기술 · 4단계 · 세 가지 방식	7
3	시범	한 편의 글을 네 단계로 함께 줄여 보기	10
4	단계 훈련	빈칸을 채우며 함정 피하기	13
5	실전	단문 · 중문 · 장문 요약, 원고지 답안	16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23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24
II	**요약종합형** 여러 글을 하나의 틀로 묶는 힘		**29**
1	왜 묶어 읽는가	대학이 비교와 분류를 묻는 이유	30
2	핵심 해법	비교의 세 원칙 · 두 가지 서술 방식 · 관점분류 3단계	31
3	시범	두 제시문을 네 단계로 함께 비교해 보기	35
4	단계 훈련	네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나누기	39
5	실전	두 제시문 비교 · 세 제시문 비교 · 네 제시문 분류	42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51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52
III	**공통쟁점추론형** 여러 글을 꿰뚫는 하나의 물음 찾기		**57**
1	왜 공통점을 찾는가	대학이 공통 쟁점을 묻는 이유	58
2	핵심 해법	추론 4단계 · 추상화 사다리 · 공통점의 두 갈래	59
3	시범	두 제시문에서 공통 속성을 함께 찾아보기	62
4	단계 훈련	세 제시문의 공통 문제 찾기	65
5	실전	공통 핵심어 · 공통 요인 · 공통 주제와 차이	68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77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78
IV	**적용분석형** 빌려 온 이론으로 사례와 현상 읽기		**83**
1	왜 적용하고 분석하는가	대학이 적용과 분석을 묻는 이유	84
2	핵심 해법	적용분석 4단계 · 렌즈 분해 · 대응표 · 원인분석	85
3	시범	이론 하나로 두 선수의 표정 설명하기	88
4	단계 훈련	질문이 사라진 교실의 원인 찾기	91
5	실전	적용설명 · 원인과 대안 · 두 대상 비교	94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103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104

V	**논증평가형** 주장의 근거를 따져 비판하고 반박하기		**109**
1	왜 논증을 평가하는가	대학이 비판적 사고를 묻는 이유	110
2	핵심 해법	논증평가 4단계 · 숨은 전제 · 비판의 네 갈래 · 유형별 개요	111
3	시범	관찰 하나로 이론을 버려야 하는가	115
4	단계 훈련	상관과 인과를 가려 비판하기	118
5	실전	복합형 비판 · 타당성 검토 · 반박	121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130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131
VI	**문제해결형** 원인을 찾아 실행할 수 있는 대안 세우기		**137**
1	왜 문제를 해결하는가	대학이 문제 해결력을 묻는 이유	138
2	핵심 해법	문제해결 4단계 · 간명화 · 대안의 수준 · 대안 점검표	139
3	시범	구경꾼이 된 축제를 되살리는 방안	143
4	단계 훈련	모둠 과제의 무임승차 해결하기	146
5	실전	대안 활용 · 조건 충족 · 원인과 대안	149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158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159
VII	**자료해석형** 표와 그래프를 읽고 제시문과 이어 쓰기		**165**
1	왜 자료를 해석하는가	대학이 자료 해석을 묻는 이유	166
2	핵심 해법	자료해석 4단계 · 수치 표현 · 흐름과 변화 · 제시문 잇기	167
3	시범	접속의 격차와 활용의 격차	171
4	단계 훈련	독서율 표로 주장 뒷받침하기	174
5	실전	설명 · 해석 비교 · 평가	177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186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187
VIII	**자기견해진술형** 제시문을 논거로 삼아 내 입장을 세우기		**193**
1	왜 견해를 묻는가	대학이 자기 견해를 묻는 이유	194
2	핵심 해법	견해 진술 4단계 · 입장 세우기 · 제시문을 논거로 · 반론	195
3	시범	학교의 평가는 경쟁인가 협력인가	199
4	단계 훈련	어린이 출입 금지는 정당한가	202
5	실전	입장 선택 · 상황 판단 · 조건부 입장	205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214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215

I

요약단순형

한 편의 글을 정확하게 줄이는 힘

요약은 모든 논술의 첫 관문입니다. 비교도, 비판도, 자기 견해도 제시문을 정확하게 줄여 낸 다음에야 시작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글의 뼈대를 찾아내고,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남은 핵심을 내 말로 다시 세우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익힙니다.

학습 목표

1. 제시문에서 논지와 논거를 찾아 논리적 관계로 이을 수 있다.
2. 예시·일화·비유처럼 덜어 낼 부분, 입장 소개처럼 줄여 남길 부분, 반드시 살릴 부분을 가를 수 있다.
3. 제시문의 문장을 옮기지 않고 핵심어를 살려, 정해진 분량에 맞춰 요약문을 쓸 수 있다.

이 단원의 흐름

1	왜 요약부터인가	대학이 요약을 묻는 이유	6
2	핵심 해법	세 원칙 · 줄이는 기술 · 4단계 · 세 가지 방식	7
3	시범	한 편의 글을 네 단계로 함께 줄여 보기	10
4	단계 훈련	빈칸을 채우며 함정 피하기	13
5	실전	단문 · 중문 · 장문 요약, 원고지 답안	16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23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24

1 왜 요약부터인가

논술 시험지는 언제나 제시문을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두 글을 비교하라는 문제도, 한 입장을 비판하라는 문제도, 자기 견해를 쓰라는 문제도 결국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잡아야 풀 수 있습니다. 요약이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은 답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요약은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유형의 첫 단계입니다.

대학이 요약을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 공부는 읽기에서 시작합니다. 강의 교재와 논문을 읽고 그 핵심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토론에 참여할 수도, 보고서를 쓸 수도 없습니다. 요약 문항은 대학에서 공부할 기초 체력이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요약을 묻는 논제의 모습

논제의 형태	무엇을 요구하는가
제시문 (가)를 ○○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글 전체의 논지와 핵심 논거를 분량에 맞춰 압축
제시문 (가)의 논지와 그 근거를 정리하시오.	주장과 이유를 구분해 둘의 관계를 드러내기
제시문 (가)의 내용을 '○○'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시오.	지정된 핵심어를 축으로 내용을 다시 세우기
제시문 (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를 평가하시오.	요약이 다음 문항의 첫 단계로 들어가는 복합형

■ 채점자는 무엇을 보는가

기준	확인하는 것
빠짐없음	논지와 핵심 논거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는가
관계	요점들이 나열되지 않고 이유·조건·결론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가
재구성	제시문의 문장을 옮기지 않고 핵심어를 살려 자기 말로 다시 세웠는가
객관성	요약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감상이 섞이지 않았는가
형식	정해진 분량과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는가

요약은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글쓴이의 논리를 있는 그대로 세워 주는 일. 그 성실한 태도가 바른 답안의 출발점입니다. 정확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기르는 것은 글솜씨이기 전에 바로 그 태도입니다.

2 핵심 해법

이 단원에서 쓰는 말

논지	글쓴이가 끝내 말하려는 주장. 글 전체가 이 한 문장을 위해 쓰였다.
논거	논지를 받치는 이유나 근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글쓴이의 대답이다.
핵심어	논지와 논거를 이루는 개념어. 요약에서도 그대로 살려 쓴다.
버릴 층위	예시·일화·비유·반복처럼 요약에서 덜어 내야 할 부분. 통념이나 비판 대상 같은 입장 소개는 글쓴이의 주장과 가른 뒤, 필요한 만큼만 짧게 남긴다.
압축률	제시문 분량 ÷ 답안 분량. 이 단원의 문항은 대개 4:1 안팎이다.

(1) 요약의 세 원칙

가. 요점을 찾아 논리로 잇는다

요점은 논지와 논거입니다. 문단마다 요점을 찾았다면, 이제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따져서 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것의 이유인지, 조건인지, 결론인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요점을 문단 순서대로 늘어놓기만 하면 요약이 아니라 목록이 됩니다.

나. 핵심어는 살리고, 문장은 옮기지 않는다

핵심어는 그대로 써야 합니다. '핸디캡 원리'를 굳이 다른 말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내 말로 다시 세웁니다. 이 교재의 점검 기준은 간단합니다. **제시문의 어느 한 문장과 띄어쓰기를 빼고 10자 이상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이 있으면 고쳐 씁니다.**

구분	문장
원문	현대인은 열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지금 당장 알지 못하지만,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발췌 ×	현대인은 원리를 지금 당장 알지 못하지만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알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원문을 잘라 붙였을 뿐, 이해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재구성 ○	현대인의 앎은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알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어 있다. (핵심어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시 세웠다)

다. 의견과 감상을 넣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야 할 것이다'처럼 평가하거나 당부하는 말은, 글쓴이의 말이 아니라면 쓰지 않습니다. 요약문에서 요약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2) 줄이는 네 가지 기술

기술	하는 일	시범 글(3절)에서 보면
지우기	예시·일화·비유·반복·꾸밈말을 지운다.	지하철·스마트폰·통장 이야기를 통째로 지운다.
묶기	여러 사례를 그것들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 하나로 묶는다.	의사의 처방, 엔지니어의 다리, 기상청의 예보 → '전문가에 대한 신뢰'
다시 배열하기	글의 서술 순서가 아니라 논리의 순서로 다시 배열한다.	셋째 문단에 있는 논지를 요약문의 첫 문장으로 올린다.
바꿔 말하기	긴 설명을 핵심어나 짧은 개념 표현으로 바꾼다.	제사·주문·귀신 달래기 → '신비에 기대던 태도'

(3) 요약 4단계

단계	할 일
STEP 1 독해	문단마다 역할(문제 제기·입장 소개·양보·논거·예시·논지)과 요점을 여백에 적는다. 논지와 논거를 가려내는 단계다.
STEP 2 구조화	버릴 층위를 지우고, 남은 요점들을 화살표로 이어 글의 '지도'를 그린다. 무엇이 무엇의 이유인지가 한눈에 보여야 한다.
STEP 3 개요	논지 한 문장, 논거 두세 개를 핵심어 중심으로 적는다. 쓰기 전에 한 번 '써 보는' 단계다.
STEP 4 서술	요약 방식을 정해 쓰고, 분량(공백 포함)과 발췌 여부, 의견이 섞였는지를 점검한다. 분량의 80% 지점에서 마무리 문장을 준비한다.

(4) 요약의 세 가지 방식

요약하는 방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세 가지이고, 무엇을 먼저 보여 주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방식	쓰는 법	장점	주의할 점
논리전개 유지형	제시문의 전개 순서대로 문단별 요점을 압축한다.	어려운 글도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다.	논지가 묻히고 '줄여 쓰기'에 그치기 쉽다.
대상-주장-근거형	무엇에 대해(대상), 무엇을 주장하고(주장), 왜 그런지(근거)를 차례로 쓴다.	쟁점과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상 소개가 길어지거나 평론처럼 흐르기 쉽다.
논지-논거형	논지를 첫 문장에 쓰고, 그 논거를 이어서 쓴다.	핵심이 가장 선명하다. 고득점에 유리하다.	논지를 잘못 잡으면 답안 전체가 무너진다.

처음에는 논리전개 유지형으로 안전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 대상-주장-근거형을 거쳐 논지-논거형으로 옮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글을 세 방식으로 쓴 예는 3절 시범에 있습니다.

(5) 자주 빠지는 함정

함정	이렇게 피한다
입장 소개를 글쓴이의 주장으로 착각하기	'흔히 ~라고 한다', '~라고 보는 입장은', '이 입장에 따르면' 같은 표현으로 소개되는 말은 글쓴이의 주장이 아닐 수 있다. 글쓴이가 그 입장에 동의하는지 끝까지 읽고 확인한다.
양보를 논지로 착각하기	'물론 ~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에서 논지는 '그러나' 뒤에 있다. 양보한 부분을 요약의 첫 문장으로 쓰면 논지를 거꾸로 쓰게 된다.
사례를 논거로 착각하기	사례는 논거를 보여 주는 그림일 뿐이다. 요약에는 사례가 아니라, 사례가 보여 주는 원리를 쓴다.

(6) 관계를 드러내는 연결 표현

요약문이 목록처럼 읽히는 까닭은 대개 문장과 문장을 잇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점 사이의 관계를 한 단어로 보여 주는 표현을 익혀 두면, 같은 내용으로도 훨씬 논리적인 요약문이 됩니다.

관계	쓸 수 있는 표현	이럴 때 쓴다
논지 제시	~의 핵심은 ~에 있다 / 글쓴이는 ~라고 주장한다	첫 문장에서 논지를 분명히 밝힐 때
이유	~기 때문이다 / 그 근거로 ~을 든다 / ~라는 점에서	논거를 논지에 매달 때
조건	~할 때에만 / ~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글쓴이가 '언제나'가 아니라 '이럴 때'라고 말할 때
양보	물론 ~이지만 / ~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글쓴이가 일부를 인정한 뒤 반박할 때
남의 주장	~라고 보는 입장은 / 변증법론자들은 ~라고 본다	비판 대상의 주장을 글쓴이의 주장과 가를 때
결론	따라서 / 결국 / 그러므로	논거를 모아 논지로 되돌아갈 때

3 시범 — 한 편의 글을 네 단계로 줄이기

시범 300자 내외

다음 글을 3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1,278자

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그 열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목소리를 실어 오는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어떻게 빵 한 덩이와 맞바뀌는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불안 없이 열차에 몸을 싣고, 전화를 걸고, 돈을 쓴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정말 옛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② 흔히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지식도 함께 늘어난다고 여긴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해마다 늘어나고 도서관과 인터넷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정보가 쌓여 있으니,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 삶을 떠받치는 조건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양을 따져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수백 년 전의 농부는 자신이 쓰는 쟁기를 손수 고쳤고,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풀이 독이 되는지 스스로 알았다. 그가 기대어 사는 도구와 관습은 대부분 그의 손과 눈이 닿는 곳에 있었다. 이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의존하는 것들 가운데 그 작동 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③ 그렇다면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현대인은 열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지금 당장 알지 못하지만,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세상의 어떤 현상도 원리적으로는 계산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는 것은 아직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일 뿐 신비로운 힘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믿음이 현대인의 삶을 떠받치고 있다.

④ 이 믿음은 일상의 행동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 필요 없이, 그것을 아는 누군가가 있고 그 지식이 검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행동한다. 의사의 처방을 따르고, 엔지니어가 설계한 다리를 건너고, 기상청의 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기는 일은 모두 이런 신뢰 위에서 이루어진다. 지식은 사회 곳곳에 나뉘어 저장되어 있고, 개인은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 쓸 수 있으면 충분하다.

⑤ 옛사람들은 알 수 없는 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주문을 외웠다. 가뭄이 들면 하늘에 비를 빌었고, 병이 들면 귀신을 달랬다. 오늘날 그 자리는 계산과 기술이 대신한다. 세계는 더 이상 달래고 빌어야 할 신비의 대상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과학이 가져온 변화의 핵심은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데 있지 않다. 세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신비에서 계산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다.

— 막스 베버의 '지성화'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STEP 1 독해 — 문단의 역할과 요점

문단	역할	살릴 요점	버릴 층위
①	문제 제기	현대인은 정말 옛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가?	지하철·스마트폰·통장의 예
②	통념 소개 → 반박	한 개인이 제 삶의 조건에 대해 실제로 아는 것은 오히려 적다.	학교·도서관 이야기(양보), 옛 농부의 사례. 통념은 필요할 때만 짧게 대비
③	논지	과학이 준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언제든 알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곧 모든 현상은 원리상 계산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열차의 예(①과 겹침)
④	논거(믿음의 증거)	그 믿음 위에서 지식을 사회에 나누어 맡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의사·다리·예보의 사례
⑤	결론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신비에서 계산으로 바뀌었다.	제사·주문·기우제의 사례

함정 확인

②의 첫 문장은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라 **반박할 통념**이고,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는 **양보**입니다. 글쓴이의 목소리는 '그러나'에서 시작해 ③에서 완성됩니다. 통념을 글쓴이의 주장처럼 옮기면 논지가 정반대가 됩니다. 다음 쪽 유지형처럼 '흔히 ~보지만'으로 통념임을 밝혀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STEP 2 구조화 — 글의 지도 그리기

통념 과학이 발전하면 개인의 지식도 는다 ← 글쓴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반박

논거 1 한 개인이 제 삶의 조건에 대해 실제로 아는 것은 옛사람보다 오히려 적다

↓ 그렇다면 과학이 준 것은 무엇인가

논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언제든 알 수 있다는 가능성' — 모든 현상은 원리상 계산할 수 있다는 믿음

↓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

논거 2 지식을 사회 곳곳에 나누어 맡기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 위에서 행동한다

↓ 결국

결론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신비에서 계산으로 바뀌었다

STEP 3 개요

논지 과학이 준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언제든 알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논거 1 개인이 제 삶의 조건에 대해 실제로 아는 것은 옛사람보다 적다.
논거 2 모든 현상을 원리상 계산할 수 있다고 믿기에, 지식을 나누어 맡기고 신뢰로 행동한다.
결론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신비에서 계산으로 바뀌었다.

STEP 4 서술 — 같은 글, 세 가지 요약

세 답안의 내용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을 먼저 보여 주느냐입니다. 유지형은 글이 전개되는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대상-주장-근거형은 글이 다루는 대상을, 논지-논거형은 글의 논지를 앞세웁니다.

논리전개 유지형 공백 포함 325자

현대인은 일상에서 의지하는 기술의 원리를 대부분 모르면서도 아무 불안 없이 그것을 쓴다. 흔히 과학이 발전하면 개인의 지식도 늘어난다고 보지만, 한 사람이 제 생활의 조건에 관해 실제로 아는 것은 옛사람보다 오히려 적다. 과학의 발전이 준 것은 앎의 분량이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 알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 곧 모든 현상을 원리상 계산하고 해명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 덕분에 사람들은 지식을 사회 곳곳의 전문가에게 나누어 맡기고 그들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결국 과학이 가져온 핵심 변화는 세계를 신비로운 힘의 영역이 아니라 계산과 예측의 대상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대상-주장-근거형 공백 포함 294자

이 글은 과학의 발전이 현대인의 앎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다룬다. 글쓴이는 과학이 개인에게 준 것이 지식의 분량이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 알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먼저 현대인이 자기 생활을 지탱하는 기술과 제도에 대해 아는 것은 옛사람보다 적다는 점을 든다. 또한 현대인은 어떤 현상이든 원리상 계산하고 해명할 수 있다고 믿기에, 지식을 사회 전체에 나누어 맡기고 전문가를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로써 글쓴이는 과학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신비에서 계산으로 옮겨 놓았다고 본다.

논지-논거형 · 모범 요약 공백 포함 318자 · 압축률 약 4:1

과학의 발전이 현대인에게 가져다준 것은 지식의 분량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실제로 한 개인이 제 생활을 지탱하는 기술과 제도에 대해 아는 것은 옛사람보다 오히려 적다. 그럼에도 현대인은 모든 현상을 원리상 계산하고 해명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믿음 위에서 지식을 사회 곳곳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그 결과 세계는 빌고 달래야 할 신비가 아니라 계산하고 예측할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과학이 일으킨 변화의 핵심은 앎의 증가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신비에서 계산으로 넘어간 데 있다.

모범 요약의 문장	어디서 왔나
첫째 문장	③의 논지를 맨 앞으로 올렸다 (다시 배열하기)
둘째 문장	②의 반박만 남기고 농부 사례는 지웠다 (지우기)
셋째 문장	③의 믿음과 ④의 신뢰를 한 문장으로 이었다. 의사·다리·예보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로 묶었다 (묶기)
넷째·다섯째 문장	⑤의 제사·주문 사례를 '신비'라는 말로 바꾸어 결론을 맺었다 (바꿔 말하기)

4 단계 훈련 — 함정을 피해 요약하기

단계 훈련 200자 내외

다음 글을 200자 내외로 요약하려 한다. 아래 활동 ①~⑤를 차례로 해결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793자

① 현대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수의 전문가와 지도자, 곧 엘리트에게 크게 기대고 있다. 정책은 관료와 전문가가 설계하고, 기업은 몇몇 경영진이 이끌며, 여론의 흐름조차 소수의 언론인과 지식인이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다수의 뜻에 따른 지배를 원리로 삼는 민주주의는 엘리트의 힘이 커지는 사회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② 엘리트의 존재와 민주주의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세 가지를 근거로 든다. 첫째, 엘리트는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체된다. 둘째,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다. 셋째, 대중은 선거를 통해 어떤 엘리트에게 권한을 맡길지 스스로 고른다. 이 입장에 따르면 엘리트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대중이 고른 대리인일 뿐이다.

③ 이 설명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 그러나 세 근거는 모두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할 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엘리트가 자기 자리를 자녀에게 사실상 물려주고, 교육과 인맥의 격차가 그 자리로 가는 길을 좁히며,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처음부터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로만 채워진다면 교체도, 개방도, 선택도 이름뿐이다. 문은 달려 있지만 열쇠는 몇몇 사람만 가진 집과 다를 바 없다.

④ 결국 엘리트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지는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다. 엘리트의 교체가 실제로 일어나고, 그 자리로 가는 길이 실제로 열려 있으며, 대중의 선택이 실제로 의미를 가질 때에만 둘은 함께 갈 수 있다.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절차의 껍데기만 남는다.

—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STEP 1 **활동 ① 문단마다 역할과 요점을 쓰시오.**

역할 보기: 문제 제기 / 입장 소개 / 반박 / 논지

문단	역할	요점
①		
②		
③		
④		

STEP 1 **활동 ② 함정 찾기**

(1) ②문단의 세 근거는 누구의 주장인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표현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

(2) 글쓴이는 이 입장에 동의하는가? ③문단에서 근거가 되는 표현을 찾아 쓰시오.

STEP 2 **활동 ③ 버릴 층위 세 곳을 찾아 쓰고, 버리는 이유를 쓰시오.**

STEP 3 **활동 ④ 개요를 완성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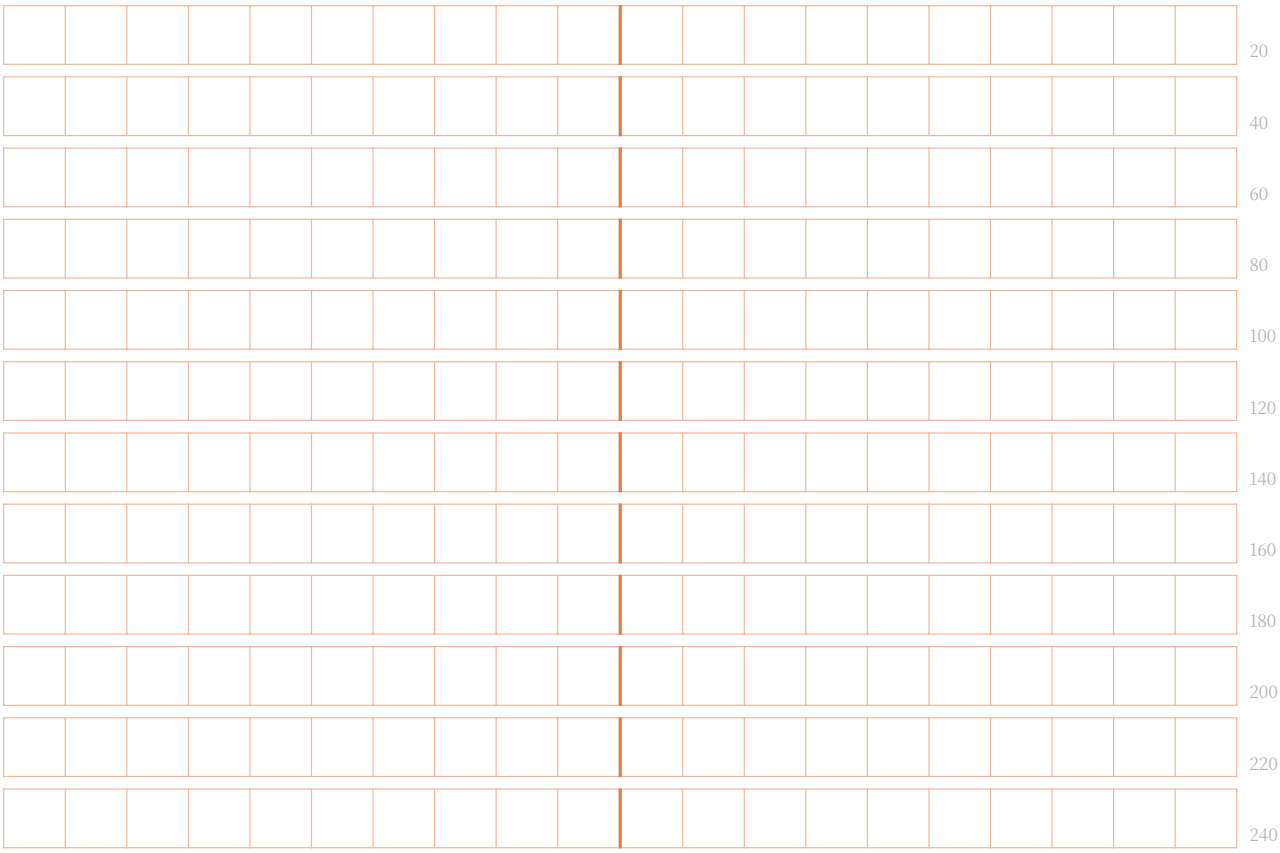
논지

논거 1

논거 2

STEP 4 **활동 ⑤ 2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20칸 × 12줄 = 24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5 실전

이제 시간을 재고 혼자 씁니다. 제시문은 점점 길어지고 버릴 층위는 점점 촘촘해집니다. 해설은 7절에 있으니 다 쓴 뒤에 확인하십시오.

문항	제시문	답안	시간	이번에 새로 요구하는 것
연습 1 단문	1,076자	250자	15분	지정된 핵심어('핸디캡 원리')를 축으로 개념들을 분류해 정리하기
연습 2 중문	1,392자	350자	20분	흩어진 사례를 상위 개념으로 묶어 논리 흐름만 남기기
연습 3 장문	1,798자	450자	25분	비판 대상의 주장과 글쓴이의 반박을 가르고, 양보를 논지로 착각하지 않기

연습 1 · 단문 요약 250자 내외 · 제한 시간 15분

제시문에 나타난 신호의 유형을 '핸디캡 원리'를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자연에는 언뜻 보기에 손해만 될 것 같은 행동이 있다. 가젤은 사자를 발견하면 곧장 달아나는 대신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오르곤 하는데, 이는 귀중한 시간과 힘을 허비하는 일처럼 보인다. 수컷 공작의 크고 화려한 꼬리 역시 포식자의 눈에 띄기 쉽고 움직임을 둔하게 만든다. 생존에 불리한 이런 특징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왔을까?

이스라엘의 생물학자 자하비는 '핸디캡 원리'로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했다. 신호란 자신이 지닌 어떤 속성을 상대에게 알리는 행동이나 형태를 말한다. 그런데 비용이 들지 않는 신호는 누구나 흉내 낼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없다. 신호가 믿을 만하려면 그 속성을 실제로 갖춘 개체만 감당할 수 있는 비용, 곧 핸디캡이 따라야 한다. 가젤의 도약은 '나는 이렇게 힘을 낭비하고도 너보다 빨리 달아날 수 있다'는 신호이고, 힘이 약한 가젤이 이를 흉내 냈다가는 잡아먹히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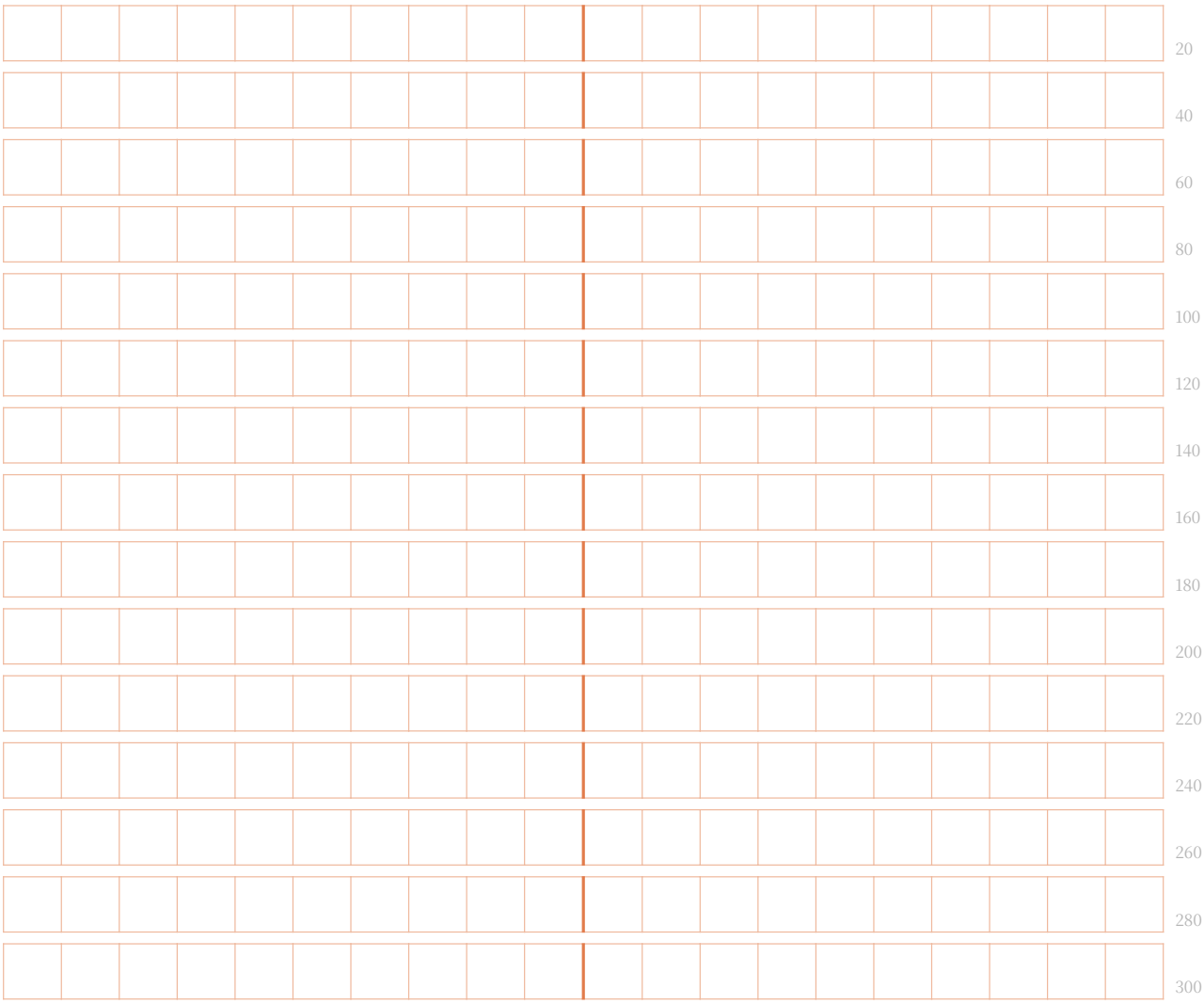
이처럼 그 속성을 실제로 갖춘 쪽만 만들어 낼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신호를 '평가신호'라 한다. 평가신호는 다시 둘로 나뉜다. 하나는 큰 비용을 치르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고비용신호'다. 값비싼 시계를 차는 일은 큰돈을 쓸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재력의 신호가 된다. 다른 하나는 신호와 속성이 안에서부터 이어져 있어 그 속성 없이는 아예 신호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지표신호'다. 어려운 곡을 막힘없이 연주하는 일은 숙련된 솜씨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그 자체로 실력의 지표가 된다.

반면 신호와 속성 사이에 아무런 내적 연결 없이 사회적 약속에 따라 의미가 정해지는 신호도 있다. 이를 '관례신호'라 한다. 초보자도 값비싼 등산 장비를 갖추면 전문 산악인처럼 보일 수 있고, 어려운 철학책을 들고 다니면 학식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장비나 책을 사는 데 돈은 들지만, 그 돈은 등반 실력이나 학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같은 행동이라도 무엇을 알리려 하느냐에 따라 신호의 종류가 달라진다. 비싼 장비는 재력을 알리는 신호로는 고비용신호이지만, 실력을 알리는 신호로는 관례신호에 불과하다. 결국 신호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비용의 크기가 아니라 신호와 속성 사이의 연결이다.

— 자하비의 '핸디캡 원리'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연습 1 답안지 · 250자 내외 20칸 × 15줄 = 30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연습 2 · 중문 요약 350자 내외 · 제한 시간 20분

제시문을 35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문화'라는 말만큼 넓게 쓰이는 낱말도 드물다. 한 문화 이론가가 '문화'를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낱말 가운데 하나로 꼽았을 정도다. 한때 문화는 정신을 가꾸고 교양을 쌓는 일을 가리켰지만, 오늘날에는 한 사회가 함께 지니는 가치와 생활 방식 전체를 뜻하게 되었다. 밥을 먹는 방식, 인사하는 법, 일하는 습관까지 모두 문화라 불린다. 기성세대에게는 낯선 젊은 세대의 옷차림이나 말투도 그들의 취향을 담고 있는 한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는다.

완전히 고립되거나 완전히 굳어 있는 문화는 없다. 문화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바뀌기도 하고, 다른 문화와 만나거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바뀌기도 한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음식이 몇십 년 만에 우리 밥상의 일부가 되고, 불과 철의 사용이나 인쇄술과 컴퓨터의 발명이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이 그 예다. 거꾸로 우리 노래와 드라마가 바다를 건너가 다른 사회의 일상에 스며들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다고 해서 문화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문화의 한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촘촘히 얽혀 있어서, 하나가 바뀌려면 그것을 받아들일 사회적 조건이 함께 무르익어야 한다. 무엇보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게 퍼져 있고,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화상 회의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었지만 많은 회사가 이를 거의 쓰지 않았다. 중요한 일은 얼굴을 맞대고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 윗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 보고하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이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전자 결재가 도입된 뒤에도 한동안 서류를 들고 결재권자를 찾아가는 일이 이어진 것도 같은 까닭이다.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야 화상 회의는 비로소 일상이 되었다. 기술보다 먼저 바뀌어야 했던 것은 일과 예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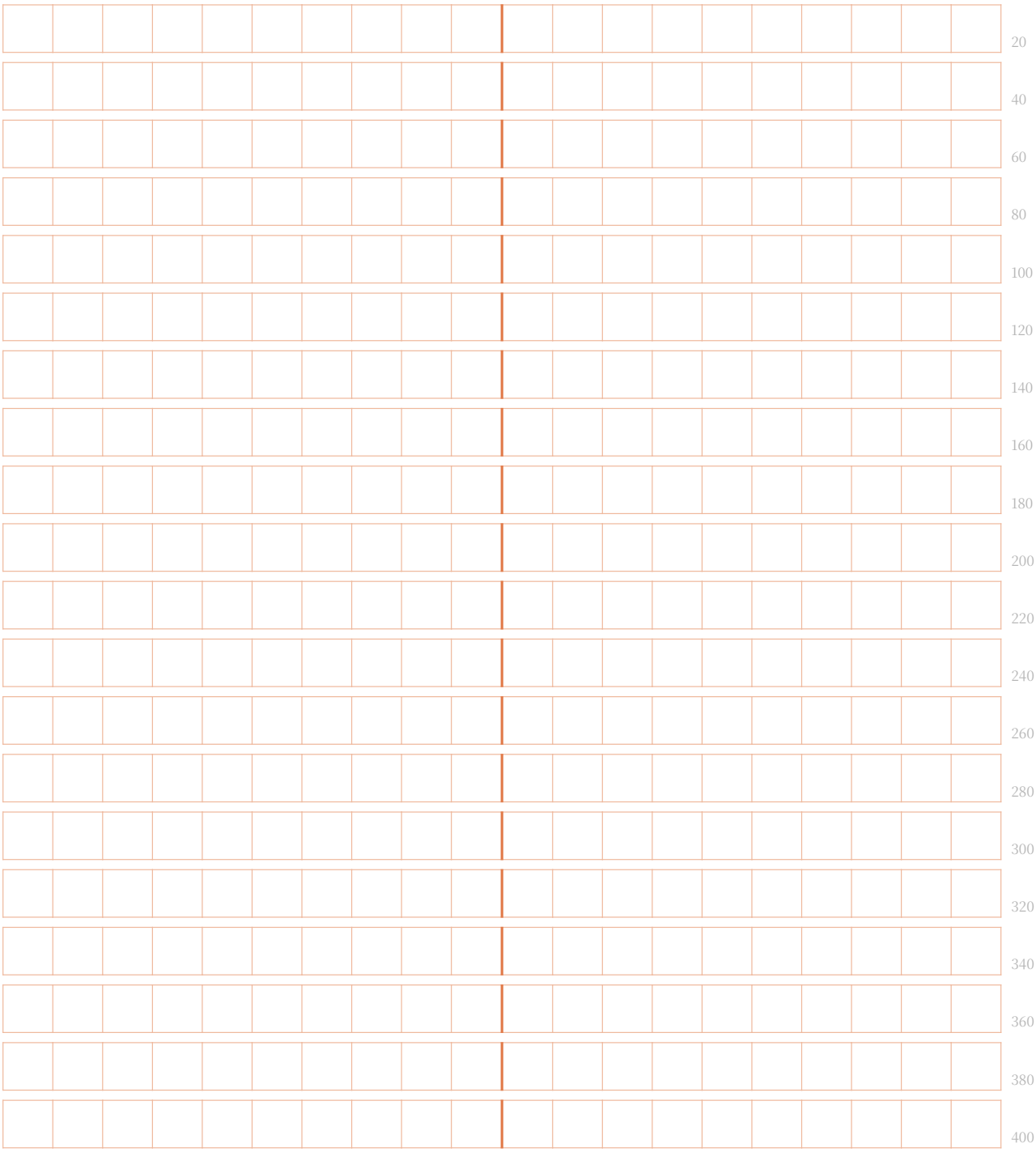
문화는 때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조선 말의 단발령처럼 위에서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한 경우가 그 예다. 그러나 이처럼 계획된 변동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낳기 쉽다. 단발령은 오히려 거센 반발을 불러 의병이 일어나는 불씨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물이 귀한 어느 지역에 펌프가 보급되자 물 긷는 데 드는 시간은 크게 줄었지만, 우물가에 모여 소식을 나누던 여성들의 만남도 함께 사라졌다는 사례도 있다.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바꾼 한 가지가 공동체를 이어 주던 다른 끈을 끊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를 계획적으로 바꾸려 할 때는 그 변화가 문화 전체의 그물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따져 보고, 그 변화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의 뜻을 폭넓게 모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뜻에서 시작한 변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뿌리내리지 못한다. 문화는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만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의 문화 변동 내용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연습 2 답안지 · 350자 내외 20칸 × 20줄 = 40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연습 3 · 장문 요약 450자 내외 · 제한 시간 25분

제시문의 논지와 그 근거가 드러나도록 45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변증법은 생각이나 역사가 정립, 반정립, 종합의 세 단계를 거치며 나아간다고 보는 이론이다. 먼저 어떤 생각이나 이론, 혹은 운동이 나타난다. 이것이 정립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그렇듯 정립에도 한계와 약점이 있어서, 머지않아 그에 맞서는 생각이 생겨난다. 이것이 반정립이다. 둘의 다툼은 양쪽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걸러 낸 새로운 해결, 곧 종합에 이를 때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그 종합 역시 한계가 드러나면 다시 새로운 정립이 되어 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 역사를 이렇게 보는 이들은 한 시대의 제도가 그 안의 갈등 때문에 무너지고, 그 갈등을 품어 안은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는 과정을 변증법의 틀로 설명한다.

변증법을 따르는 이들은 이 과정을 움직이는 힘을 '모순'에서 찾는다. 그들에 따르면 모순은 생각을 앞으로 밀어 올리는 원동력이므로 피할 이유가 없고, 세계 어디에나 있으므로 피할 수도 없다. 나아가 그들은 서로 모순되는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전통 논리학의 원리, 곧 '모순율'마저 버려야 하며, 변증법이야말로 새로운 논리학이라고 주장한다.

모순이 진보를 낳는다는 말에는 분명 맞는 구석이 있다. 과학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론은 기존 이론의 모순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 화성의 궤도를 관측한 값이 행성은 원을 그리며 돈다는 당시의 이론과 맞지 않자, 케플러는 그 어긋남을 해결하려고 애쓴 끝에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모순이 생산적인 것은 우리가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애쓸 때뿐이다. 모순을 발견했을 때 이론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모순은 새로운 생각을 낳는다. 만약 모순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누군가 우리 이론의 모순을 지적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고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모순을 용인하는 순간 모든 비판은 힘을 잃고, 모순이 낳는다던 진보도 함께 멈춘다. 모순의 생산성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모순을 용인하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셈이다.

모순을 받아들이면 과학이라는 활동 자체가 무너진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서로 모순되는 두 진술을 함께 참으로 인정하면, 논리적으로는 그로부터 어떤 진술이든 끌어낼 수 있다. '오늘 비가 온다'와 '오늘 비가 오지 않는다'를 모두 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달은 치즈로 되어 있다'는 주장까지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정에서 한 증인이 '그 시각 나는 집에 있었다'와 '그 시각 나는 집에 없었다'를 함께 주장한다면, 그 증언으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무엇이든 증명할 수 있는 체계는 사실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체계와 같다. 참과 거짓을 가를 수 없다면 실험도, 관찰도, 반박도 모두 의미를 잃는다.

다음 쪽에 이어짐 →

제시문 (이어서)

또한 모순은 진술과 진술 사이에서 생길 뿐 사실의 세계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흔히 양전기와 음전기, 빛과 어둠처럼 서로 맞서는 것들을 두고 모순이라 부르지만 이는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모순은 '이 물체는 지금 양전기를 띠고 있다'와 '이 물체는 지금 양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처럼, 같은 대상에 대해 같은 시점에 서로를 부정하는 두 진술 사이의 관계다. 이에 맞먹는 사실, 곧 한 물체가 같은 순간에 양전기를 띠면서 동시에 띠지 않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정립과 반정립이 부딪칠 때 필요한 것은 모순을 끌어안는 일이 아니라, 모순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모순을 거부하는 태도야말로 비판과 지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모순을 끝까지 문제 삼는 사람만이 더 나은 생각에 이를 수 있다.

— 칼 포퍼의 변증법 비판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메모 **쓰기 전에 — 문단의 역할부터, 개요는 그다음**

문단	역할	요점
1		
2		
3		
4		
5		
6		

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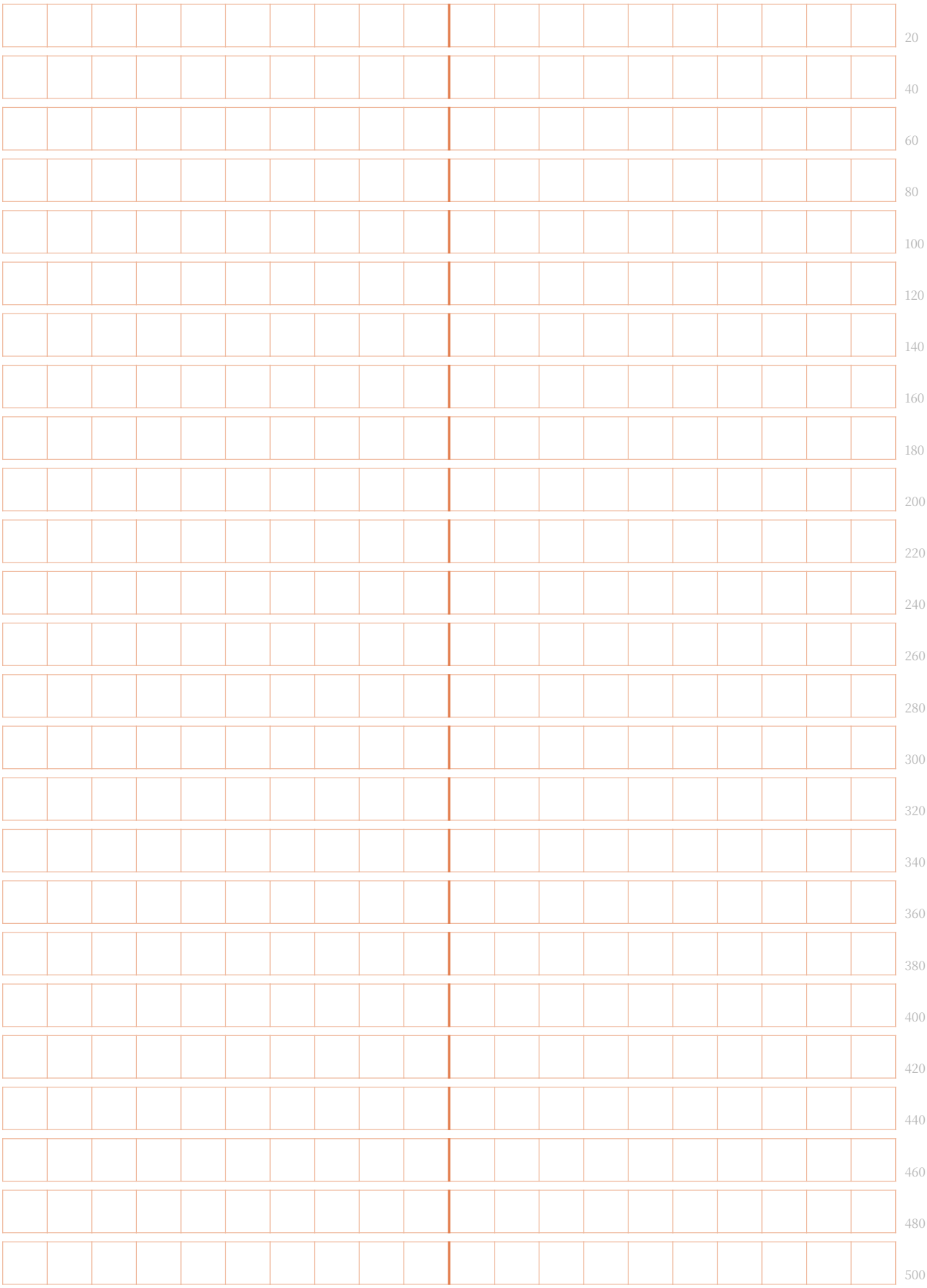
논거 1

논거 2

논거 3

연습 3 답안지 · 450자 내외 20칸 × 25줄 = 50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답안을 다 썼으면 먼저 스스로 채점합니다.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점수를 잃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세 번 넘어진다면, 그 자리가 바로 다음 수업의 과제입니다.

영역	배점	만점 기준	이럴 때 깎인다
내용	5	논지를 정확히 잡았다(2). 핵심 논거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3).	논지를 거꾸로 쓰면 내용은 1점(다른 내용 감점은 더하지 않는다). 핵심 논거가 하나 빠질 때마다 −1.
구성	2	요점들이 이유·조건·결론의 관계로 이어져 한 편의 글이 된다.	문단별 요점을 나열만 했다 −1. 비판 대상이나 배경 소개가 지나치게 길다 −1.
표현	2	핵심어를 살려 자기 말로 다시 세웠고, 문장이 정확하다.	10자 이상 그대로 옮긴 구절이 두 곳 이상 −1. 의견·감상·당부가 섞였다 −1.
형식	1	분량이 ±10% 안에 있고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다.	분량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원고지를 잘못 썼다 −1.

한 가지 잘못은 한 영역에서만 깎습니다. 논지나 논거를 틀리게 잡은 잘못은 내용에서, 요약에 섞인 의견·감상·당부는 표현에서 깎습니다. 이 채점표는 바른에듀케이션 수업용 기준입니다. 대학별 실제 채점 기준은 『합격 포인트』 시리즈에서 확인합니다.

■ 제출 전 자기 점검

- ☐ 논지를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썼다. 첫 문장이든 끝 문장이든, 읽는 사람이 찾지 않아도 보인다.
- ☐ 논거를 논지와 '이유'의 관계로 이었다. 문단 순서대로 늘어놓지 않았다.
- ☐ 예시·일화·비유를 지웠다. 사례 대신 사례가 보여 주는 원리를 썼다.
- ☐ '흔히 ~라고 한다', '~라고 보는 입장'을 글쓴이의 주장으로 쓰지 않았다.
- ☐ 양보한 부분('물론 ~지만')을 논지로 쓰지 않았다.
- ☐ 제시문과 10자 이상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이 없다.
- ☐ '의미가 있다', '~해야 할 것이다' 같은 내 평가나 당부를 넣지 않았다.
- ☐ 분량을 지켰다. 공백을 포함해 세었고, 문단 첫 칸을 비웠다.

7 답안 비교와 해설

연습 3에 대한 세 학생의 답안입니다. 형광 표시는 제시문의 한 문장과 10자 이상(띄어쓰기 제외)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세 답안을 가른 것은 문장 솜씨가 아니라 **읽기와 판단**이었습니다.

상 · 10점 학생 A — 대상-주장-근거형 공백 포함 425자

> 이 글은 모순을 진보의 원동력으로 보는 변증법적 관점이 타당한지를 다룬다. 변증법론자들은 정립과 반정립이 부딪쳐 종합에 이르는 과정이 모순에 의해 움직이므로, 모순은 유익하고 불가피하며 모순율도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 글쓴이는 모순이 진보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모순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모순이 새 생각을 낳는 것은 그것을 없애려는 의지가 있을 때뿐이고, 모순을 용인하면 지적받은 결함을 고칠 까닭이 없어져 비판도 진보도 멈추기 때문이다. 또한 모순되는 진술을 동시에 인정하면 임의의 진술이 모두 증명되어 참과 거짓의 구별이 무너지고, 실험과 반박이 의미를 잃어 과학이 성립할 수 없다. 나아가 모순은 진술 간의 관계일 뿐 실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글쓴이는 모순을 끝내 거부하는 자세가 비판과 진보의 전제라고 결론짓는다.

내용 변증법론자들의 주장, 글쓴이의 양보, 세 가지 반박, 결론이 모두 들어 있다. 양보를 '인정하면서도'로 정확하게 처리했다.

구성 대상 → 비판 대상의 주장 → 글쓴이의 주장 → 근거 셋 → 결론의 흐름이 분명하다.

표현 제시문 문장을 옮긴 곳이 없다. 핵심어(모순율, 정립, 반정립)는 살리고 문장은 새로 세웠다.

점수 내용 5 · 구성 2 · 표현 2 · 형식 1

더 나아지려면 첫 문장이 글의 화제를 소개하는 데 그쳐 글쓴이의 주장이 셋째 문장에서야 나온다. 450자 안에서는 논지를 첫 문장에 두면 그만큼 근거를 더 담을 수 있다.

중 · 5점 학생 B — 논리전개 유지형 공백 포함 419자

> 이 글은 변증법과 모순에 관한 글이다. 변증법은 정립, 반정립, 종합의 세 단계로 생각이나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어떤 생각이 나타나면 그에 맞서는 생각이 생겨나고, 둘의 다툼은 새로운 해결인 종합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며, 종합은 다시 새로운 정립이 된다. 역사도 이렇게 제도가 무너지고 새 제도가 들어서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변증법론자들은 모순은 생각을 앞으로 밀어 올리는 원동력이므로 피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모순율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순이 진보를 낳기도 하는데, 케플러가 화성 궤도의 어긋남을 해결하다가 타원 궤도를 발견한 것이 그 예다. 하지만 모순을 용인하면 비판이 힘을 잃는다. 또 모순되는 두 진술을 모두 참으로 인정하면 무엇이든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과학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모순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내용 세 반박 가운데 '모순은 사실의 세계에는 없다'가 빠졌다. 양보의 조건(모순을 없애려 할 때만 생산적이다)도 빠져서, '모순이 진보를 낳기도 하는데 … 하지만'의 두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비판이 왜 힘을 잃는지 그 이유도 없다.

구성 첫 문장을 포함한 앞의 네 문장, 곧 답안의 절반 가까이를 화제 소개와 변증법 설명에 썼다. 비판 대상은 짧게 소개하고 글쓴이의 반박에 분량을 몰아야 한다. 특히 첫 문장 '이 글은 변증법과 모순에 관한 글이다'는 아무 정보가 없는 문장이다.

표현 역사의 예, 케플러의 예처럼 버려야 할 층위를 그대로 남겼다. '모순은 생각을 앞으로 밀어 올리는 원동력이므로 피할 이유가 없다'처럼 제시문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긴 곳이 있다.

점수 내용 2 · 구성 1 · 표현 1 · 형식 1

하 · 2점 **학생 C** 공백 포함 336자

> 모순은 진보를 낳는다. 과학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론은 기존 이론의 모순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변증법은 정립, 반정립, 종합의 세 단계를 거치며 나아간다고 보는 이론으로, 모순을 원동력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모순을 용인하면 비판이 힘을 잃는다고 한다. 또 '오늘 비가 온다'와 '오늘 비가 오지 않는다'를 모두 받아들이면 '달은 치즈로 되어 있다'는 주장도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는 빛과 어둠처럼 서로 맞서는 것이 많으므로 글쓴이의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다. 우리는 모순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내용 첫 문장 '모순은 진보를 낳는다'는 글쓴이가 양보한 부분을 논지로 착각한 것이다. 글의 논지와 정반대다. 또 빛과 어둠은 글쓴이가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예인데, 거꾸로 글쓴이를 반박하는 근거로 썼다. 반박의 이유는 빠지고 사례만 남았다.

구성 자기 주장, 제시문 내용, 자기 의견을 오가며 늘어놓아 하나의 논리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표현 답안의 절반 가까이가 제시문을 그대로 옮긴 구절이고, '비'와 '치즈'의 예처럼 버릴 층위까지 옮겨 적었다. '의미가 있다', '지나친 면이 있다',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는 요약하는 사람의 평가와 의견이다.

형식 450자 내외 문항에 336자다. 분량이 범위(405~495자)에 미치지 못한다.

점수 내용 1 · 구성 1 · 표현 0 · 형식 0

세 답안이 알려 주는 것

학생 C는 양보를 논지로 읽었다. 읽기에서 이미 길을 잃었다.

학생 B는 논지의 방향은 바르게 잡았지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다. 그 바람에 정작 필요한 반박 하나와 양보의 조건을 담지 못했다.

학생 A는 '누구의 말인가'를 정확히 갈랐다. 비판 대상의 주장과 글쓴이의 주장을 가르는 것, 요약의 실력은 바로 거기서 갈린다.

단계 훈련 해설

문단	역할	요점
①	문제 제기	엘리트의 힘이 커진 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가?
②	입장 소개	양립론의 세 근거: 엘리트의 교체, 진입로의 개방, 대중의 선택
③	반박	세 근거는 가능성일 뿐이다. 세습, 격차, 후보의 동질화가 있으면 이름뿐이다.
④	논지	양립은 원리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다. 세 조건이 실제로 작동할 때에만 양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 **활동 ② (1)** 글쓴이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의 주장이다. 근거 표현은 '~고 보는 입장은', '이 입장에 따르면'이다.
- **활동 ② (2)**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 근거는 모두 … 가능성을 말할 뿐', '이름뿐이다'가 근거다. '이 설명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는 양보다. 이 글을 '엘리트와 민주주의는 양립한다'로 요약하면 논지를 거꾸로 쓴 것이다.
- **활동 ③** ①의 관료·경영진·언론인 사례, ②의 끝 문장('대중이 고른 대리인'이라는 부연), ③의 끝 문장(문과 열쇠의 비유). 모두 요점을 보여 주거나 되풀이할 뿐 새로운 요점이 아니다.
- **활동 ④** 논지: 엘리트와 민주주의의 양립은 원리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다. 논거 1: 양립론의 세 근거는 가능성일 뿐 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 논거 2: 세습·격차·후보의 동질화가 있으면 세 근거는 무의미해진다.

활동 ⑤ 예시답안 공백 포함 196자 · 압축률 약 4:1

엘리트와 민주주의의 공존 여부는 원리가 아니라 현실의 조건이 결정한다. 엘리트의 교체, 진입로의 개방, 대중의 선택이라는 양립론의 근거는 가능성일 뿐이어서, 지위가 대물림되고 격차가 진입을 막으며 후보마저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지면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교체와 개방과 선택이 실제로 작동할 때에만 둘은 양립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는다.

연습 1 해설 · 단문

반드시 들어갈 요소

- 핸디캡 원리: 신호가 믿을 만하려면 그 신호가 알리는 속성을 지닌 쪽만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따라야 한다.
- 평가신호: 그 속성을 갖춘 쪽만 만들 수 있어 믿을 수 있는 신호. 다시 고비용신호(큰 비용을 치르는 일 자체가 근거)와 지표신호(속성과 안에서부터 이어져 있어 속성 없이는 만들 수 없음)로 나뉜다.
- 관례신호: 속성과의 내적 연결 없이 사회적 약속으로 의미가 정해지는 신호.
- 신뢰성을 가르는 기준은 비용의 크기가 아니라 신호와 속성의 연결이다. **한 걸음 더** 같은 행동도 무엇을 알리려 하느냐에 따라 신호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까지 쓰면 더 좋다.

버릴 층위 가젤·공작의 사례, 가젤 도약의 풀이, 시계·연주·등산 장비·철학책의 사례, '이스라엘의 생물학자' 같은 인물 정보. **주의** 고비용신호와 지표신호를 둘 다 '비용이 크다'로만 쓰면 둘의 차이가 사라진다. 하나는 비용 자체가, 다른 하나는 속성과의 내적 연결이 믿음의 근거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270자 · 압축률 약 4:1

핸디캡 원리란 신호가 신뢰를 얻으려면 그것이 알리는 속성을 지닌 쪽만 치를 수 있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리다. 이처럼 속성을 갖춘 쪽만 만들 수 있어 믿을 만한 평가신호에는, 큰 비용을 치르는 일 자체가 증거가 되는 고비용신호와 속성 없이는 만들 수조차 없는 지표신호가 있다. 반면 관례신호는 속성과의 내적 연관 없이 사회적 합의로 의미가 정해진다. 결국 신호를 믿을 수 있는지는 비용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신호가 드러내려는 속성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로 결정된다.

연습 2 해설 · 중문

반드시 들어갈 요소

- 문화의 개념: 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생활 방식 전체.
- 문화는 고정되지 않으며, 구성원의 선택·다른 문화와의 접촉·새 기술 때문에 변한다.
-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문화의 요소들이 얽혀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열린 태도 같은 사회적 조건이 무르익어야 변동이 일어난다.
- 특정 집단이 계획한 변동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낳기 쉽다.
- 따라서 계획적으로 바꿀 때는 문화 전체에 미칠 영향을 따지고 구성원의 뜻을 모아야 한다.

버릴 층위 문화 이론가의 말, 밥·인사·옷차림의 예, 음식·노래·드라마의 예, 불·철·인쇄술·컴퓨터, 화상 회의와 전자 결재, 단발령과 의병, 펌프와 우물가, '기계의 부품' 비유. **묶기 연습** 불과 철, 인쇄술, 컴퓨터 → '새 기술의 등장' / 화상 회의, 전자 결재 → '기술이 있어도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 단발령, 펌프 → '계획된 변동의 부작용'.

예시답안 공백 포함 340자 · 압축률 약 4:1

문화는 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생활 양식 전체를 가리키며, 어떤 문화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문화는 구성원의 자발적 선택이나 다른 문화와의 접촉, 새 기술의 등장으로 변한다. 그러나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문화가 바뀌지는 않는다. 문화의 요소들은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 같은 사회적 여건이 성숙해야 비로소 변동이 일어난다. 한편 특정 집단이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변동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 쉽다. 따라서 계획적인 문화 변동을 꾀한다면 그것이 문화 전반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야 한다.

연습 3 해설 · 장문

반드시 들어갈 요소

- 비판 대상: 변증법론자들은 모순을 진보의 원동력으로 보고, 피할 이유도 피할 수도 없다며 모순율을 버리자고 한다.
- 양보와 조건: 모순이 진보를 낳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순을 없애려 애쓸 때뿐이다.
- 반박 1: 모순을 용인하면 결함을 고칠 이유가 사라져 비판이 힘을 잃고 진보도 멈춘다.
- 반박 2: 모순되는 두 진술을 모두 참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이든 끌어낼 수 있어 참과 거짓을 가를 수 없고, 과학이 무너진다.
- 반박 3: 모순은 진술 사이에서만 생길 뿐 사실의 세계에는 없다. 대립하는 현상을 모순이라 부르는 것은 비유다.
- 논지: 모순을 거부하는 태도가 비판과 지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버릴 층위 정반합의 세부 진행, 역사에 적용한 예, 케플러의 예, 비와 치즈의 예, 법정 증인의 예, 양전기 문장의 예. **함정** 셋째 문단의 첫 문장 '모순이 진보를 낳는다는 말에는 분명 맞는 구석이 있다'는 양보다. 이 문장으로 요약을 시작하면 논지를 거꾸로 쓰게 된다(7절 학생 C의 답안).

예시답안 · 논지-논거형 공백 포함 439자 · 압축률 약 4:1

지적 진보와 비판이 가능하려면 모순을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변증법론자들은 생각과 역사가 정립과 반정립의 대립을 거쳐 종합으로 나아가며 그 동력이 모순이라고 보고, 모순은 생산적이고 불가피하므로 모순율마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모순이 진보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순을 제거하려 애쓸 때에 한한다. 모순을 용인하면 결함을 지적받아도 이론을 고칠 이유가 사라지므로 비판은 무력해지고 진보 역시 멈춘다. 또한 상충하는 두 진술을 동시에 참으로 받아들이면 임의의 진술이 모두 도출되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과학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게다가 모순은 진술 간의 관계일 뿐 실재하는 사실 속에는 없으며, 대립하는 현상을 모순이라 부르는 것은 비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모순에 부딪히면 이를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해소할 새 관점을 모색해야 한다.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바른에듀케이션

II

요약종합형

여러 글을 하나의 틀로 묶는 힘 비교분석형 · 관점분류형

논술 시험지에는 대개 여러 편의 제시문이 함께 실립니다. 대학은 그 글들을 하나씩 따로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 위에 나란히 놓고 비교하라고, 쟁점에 따라 입장을 나누어 묶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비교의 기준을 세우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짝지어 쓰고, 여러 제시문을 입장별로 묶어 요약하는 법을 손으로 익힙니다.

학습 목표

1. 같은 층위의 비교 대상을 고르고, 모든 대상에 똑같이 적용할 비교 기준을 세울 수 있다.
2. 같은 기준 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짝지어, 일괄 비교와 항목별 비교 가운데 알맞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
3. 여러 제시문을 쟁점에 따라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입장별로 묶어 요약할 수 있다.

이 단원의 흐름

1	왜 묶어 읽는가	대학이 비교와 분류를 묻는 이유	30
2	핵심 해법	비교의 세 원칙 · 두 가지 서술 방식 · 관점분류 3단계	31
3	시범	두 제시문을 네 단계로 함께 비교해 보기	35
4	단계 훈련	네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나누기	39
5	실전	두 제시문 비교 · 세 제시문 비교 · 네 제시문 분류	42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51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52

1 왜 묶어 읽는가

Ⅰ단원에서는 한 편의 글을 정확하게 줄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시험지에는 제시문이 둘, 셋, 넷씩 함께 실립니다. 여러 글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것은 글과 글 사이의 관계, 곧 어디서 같고 어디서 갈리는지를 읽어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제시문을 따로 잘 요약해도, 그것들을 잇는 비교나 분류가 없으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학이 이 능력을 묻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대학 공부에서는 같은 문제에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 여러 학자의 글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 관점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갈래지어 정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 생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약종합형은 그 출발점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 요약종합형 논제의 모습

논제의 형태	무엇을 요구하는가	유형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비교 기준을 스스로 세워 공통점과 차이점을 짝지어 쓰기	비교분석
'○○'의 관점에서 (가)~(다)를 비교하시오.	주어진 기준 위에서 세 제시문을 맞세우기	비교분석
(가)~(라)를 ○○에 대한 입장에 따라 두 갈래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쟁점을 찾아 분류하고, 입장별로 묶어 요약하기	관점분류
(가)와 (나)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를 평가하시오.	비교가 평가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되는 복합형	복합

'비교하시오'라는 말이 없어도 '시각의 차이를 밝히시오', '두 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처럼 비교를 요구하는 논제가 많습니다. 논제에 제시문이 둘 이상 나오면 먼저 '이 글들을 어떤 관계로 읽으라는 것인가'를 묻는 습관을 들입니다.

■ 채점자는 무엇을 보는가

항목	확인하는 것
기준	무엇을 잣대로 비교하거나 분류하는지 답안 첫머리에서 분명히 밝혔는가
공통점	'둘 다 ○○을 다룬다' 수준을 넘어, 같은 물음이나 같은 전제를 짚었는가
대칭	한 제시문에 대해 쓴 항목을 다른 제시문에 대해서도 같은 순서로 썼는가
분류	시대·지역·글의 종류가 아니라 쟁점에 대한 입장으로 나누었는가
종합	제시문별 요약을 늘어놓지 않고, 공통점과 차이점 또는 같은 입장으로 묶었는가
형식	정해진 분량과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는가

비교는 공정한 저울질입니다

여러 글을 같은 저울에 올리는 일, 그것이 비교입니다. 마음에 드는 글은 자세히,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은 대충 다루면 저울이 기웁니다. 모든 제시문을 같은 기준, 같은 무게로 대하는 공정함이 바른 비교를 만듭니다. 이 단원에서 기르는 것은 글솜씨이기 전에 바로 그 태도입니다.

2 핵심 해법

이 단원에서 쓰는 말

비교 대상	비교하는 글이나 입장. 같은 층위의 것끼리 맞세운다.
비교 기준	무엇을 잣대로 비교하는가. 논제가 정해 주기도 하고, 스스로 찾아야 하기도 한다.
공통점	두 글이 함께 서 있는 바탕. 같은 물음이나 같은 전제여야 쓸모가 있다.
차이점	같은 기준에 대해 두 글이 내놓는 서로 다른 대답.
쟁점	여러 제시문이 함께 답하고 있는 하나의 물음. 분류의 기준이 된다.
범주화	쟁점에 대한 대답이 같은 제시문끼리 한데 묶는 일.

(1) 비교의 세 원칙

비교가 의미를 가지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두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규칙을 비교하는 예로 살펴봅시다. A고는 등교할 때 학교가 휴대전화를 걷어 두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고, B고는 학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수업 시간에만 학생 스스로 전원을 끕니다.

원칙	뜻	× 이렇게 쓰면	○ 이렇게 쓴다
대상의 등위성	같은 자격의 것끼리 맞세운다. 규칙은 규칙과, 주장은 주장과 비교한다.	A고의 규칙은 엄격하지만, B고 학생들은 성실하다. (규칙과 학생을 맞세웠다)	A고의 규칙은 학교의 통제에 기대고, B고의 규칙은 학생의 자율에 기댄다.
기준의 동일성	같은 잣대로 잰다. 한쪽은 이 잣대로, 다른 쪽은 저 잣대로 재면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A고는 학교가 규칙을 정하지만, B고의 규칙은 수업 시간에만 적용된다. ('누가 정하나'와 '언제 적용되나'가 섞였다)	규칙을 누가 정하는가: A고는 학교가, B고는 학생회가 정한다.
내용의 구체성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용으로 쓴다. 누구에게나 들어맞는 말은 비교가 아니다.	두 학교의 규칙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두 학교 모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으려 하지만, A고는 통제로, B고는 자율로 그 목표에 다가간다.

논술 답안에서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는 첫째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가)의 논지를 (나)의 사례와 맞세우거나, (가)의 근거를 (나)의 결론과 맞세우는 식입니다. **논지는 논지와, 근거는 근거와 비교합니다.**

(2) 공통점은 어디서 찾는가

수준	공통점	평가
화제	두 학교 모두 휴대전화 규칙이 있다.	× 아무 정보가 없다. 비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같은 물음	두 학교 모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으려 한다.	○ 같은 물음에 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제 '통제냐 자율이냐'라는 차이가 의미를 갖는다.
같은 전제	두 학교 모두 휴대전화가 수업의 집중을 흐트러뜨린다고 본다.	◎ 같은 바탕에서 출발해 다른 길로 갈라지는 지점까지 드러낸다.

좋은 공통점은 차이가 놓일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서로 다른 대답은 같은 물음 위에서만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대개 '두 글은 모두 ~라는 물음에 답한다' 또는 '두 글은 모두 ~을 전제한다'는 꼴을 띱니다. 공통점이 화제에 그치면 그 답안은 비교가 아니라 요약 두 개를 이어 붙인 것이 됩니다.

(3) 두 가지 서술 방식 — 일괄 비교와 항목별 비교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앞의 휴대전화 규칙을 두 방식으로 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괄 비교 — 제시문 하나를 한 덩어리로**
>
> 두 학교는 모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으려 한다. A고는 학교가 규칙을 정하고,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걷어 어길 여지를 없앤다. 반면 B고는 학생회가 규칙을 정하고, 수업 시간에만 스스로 끄게 하여 지키는 일을 학생에게 맡긴다.

> **항목별 비교 — 항목 하나에 두 제시문을 함께**
>
> 두 학교는 모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으려 한다. 그러나 규칙을 정하는 주체가 다르다. A고는 학교가, B고는 학생회가 정한다. 규칙을 지키게 하는 방식도 다르다. A고는 휴대전화를 걷어 어길 여지를 없애지만, B고는 수업 시간에 스스로 끄도록 학생에게 맡긴다.

구분	일괄 비교	항목별 비교
쓰는 순서	공통점 → (가)의 항목 ①② → (나)의 항목 ①②	공통점 → 항목 ①: (가)와 (나) → 항목 ②: (가)와 (나)
장점	각 글의 논리가 한 흐름으로 보인다. 제시문이 둘이고 항목이 적을 때 간명하다.	항목마다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시문이 셋 이상일 때 알맞다.
주의할 점	각자 요약을 이어 붙인 것처럼 보이기 쉽다. 둘째 덩어리를 '반면'으로 열고, 항목의 순서를 첫째 덩어리와 똑같이 맞춘다.	항목을 잘게 쪼개면 요점 나열이 된다. 논제에 맞는 큰 항목 두세 개로 묶고, 항목마다 제시문들을 같은 순서로 맞세운다.

(4) 관점분류 3단계

관점분류형은 여러 제시문을 쟁점에 따라 두 입장으로 나누고 각 입장을 요약하는 유형입니다. 세 단계로 풉니다.

단계	할 일
STEP 1 쟁점 찾기	제시문들이 함께 답하고 있는 물음을 의문문 한 문장으로 쓴다. 논제가 쟁점을 밝혀 주면 그것을 더 구체적인 물음으로 다듬고, 밝혀 주지 않으면 제시문들의 공통 화제에서 찾는다.
STEP 2 범주화	각 제시문이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하는지 한 줄씩 적고, 대답이 같은 것끼리 묶는다. 묶은 뒤에는 분류 기준을 '~인가, ~인가' 꼴의 한 문장으로 쓴다.
STEP 3 입장별 통합 요약	각 입장의 공통 논지를 먼저 쓰고, 같은 입장의 제시문들이 그 논지를 어떤 근거로 받치는지 덧붙인다. 두 입장은 같은 항목, 같은 순서로 쓴다.

(5) 자주 쓰이는 분류의 틀

쟁점은 문항마다 다르지만, 두 입장이 갈리는 축은 몇 가지 꼴로 되풀이됩니다. 다만 이 틀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틀을 대 본 다음에는 제시문이 실제로 다투는 물음에 맞게 분류 기준을 다듬어야 합니다. '경쟁을 긍정하는 입장'보다 '경쟁이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낸다고 보는 입장'이 훨씬 정확합니다.

틀	묻는 물음	예
긍정 ↔ 부정	대상이 이로운가, 해로운가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키는가, 해치는가
보편 ↔ 다원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저마다의 맥락으로 보아야 하는가	인간의 행동은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되는가, 문화와 맥락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가
개인 ↔ 공동체	무엇을 먼저 두는가	개인의 자유가 먼저인가, 공동체의 질서가 먼저인가
내면 ↔ 제도	문제의 해결을 사람의 마음에서 찾는가, 바깥의 제도에서 찾는가	사람을 바꿀 것인가, 제도를 바꿀 것인가

(6) 자주 빠지는 함정

함정	이렇게 피한다
각자 요약을 늘어놓기	(가)의 요약 다음에 (나)의 요약을 붙인다고 비교가 되지는 않는다. 공통점으로 열고, 둘째 덩어리는 '반면'으로 첫째와 맞세운다.
화제만 같은 빈 공통점	'둘 다 ○○에 대해 말한다'는 정보가 없다. 같은 물음이나 같은 전제를 찾는다.
한쪽으로 기운 비교	(가)는 근거까지 자세히 쓰고 (나)는 한 줄로 끝내는 식으로 쓰지 않는다. 같은 항목, 같은 순서, 비슷한 분량으로 맞춘다.
겉모습으로 분류하기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 문학과 비문학처럼 글의 출처나 시대, 종류로 묶지 않는다. 쟁점에 대한 대답으로 묶는다.
기준과 요약이 따로 놀기	분류 기준을 세웠으면 각 입장의 요약도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쓴다. 기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는다.

(7) 비교와 분류를 드러내는 연결 표현

관계	쓸 수 있는 표현	이럴 때 쓴다
기준 제시	~을 기준으로 보면 / ~라는 물음에 대해	비교나 분류의 잣대를 밝힐 때
공통점	두 글은 모두 ~ / ~라는 점에서 같다 / ~을 함께 전제한다	비교의 바탕을 세울 때
차이점	반면 / 이와 달리 / ~와 달리 / ~에 이르면 갈린다	같은 기준 위의 다른 대답을 맞세울 때
분류	~에 따라 ( )·( )와 ( )·( )로 나뉜다	분류 기준과 결과를 한 번에 밝힐 때
같은 입장 안	( )가 ~을 보여 준다면 ( )는 ~을 보여 준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입장의 제시문들이 각각 무엇을 보태는지 밝힐 때
정리	결국 두 입장은 ~을 두고 갈린다 / 이처럼	차이를 하나로 모을 때

■ 한눈에 보는 풀이 순서

순서	비교분석형	관점분류형
1	논제에서 비교 기준을 확인한다. 없으면 스스로 세운다.	제시문들이 함께 답하는 물음, 곧 쟁점을 찾는다.
2	제시문마다 논지를 한 줄로 잡는다.	제시문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한 줄로 적는다.
3	기준을 작은 물음으로 쪼개 비교표를 만든다.	같은 대답끼리 묶고, 분류 기준을 한 문장으로 쓴다.
4	같은 물음이나 같은 전제에서 공통점을 찾는다.	입장마다 공통 논지를 쓰고, 제시문별 근거를 덧붙인다.
5	일괄 비교와 항목별 비교 가운데 하나를 골라 쓴다.	두 입장을 같은 항목, 같은 순서로 쓴다.

어느 유형이든 마지막은 같습니다. 공백을 포함해 분량을 세고, 제시문과 10자 이상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이 없는지, 내 의견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시범 — 두 제시문을 네 단계로 비교하기

시범 400자 내외

(가)와 (나)를 '운의 사회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비교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598자 · (나) 1,078자 · 합계 1,676자

(가) 고대 로마 공화정의 켄투리아회는 시민을 재산에 따라 여러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을 다시 '백인대'라는 투표 단위로 묶어 운영한 민회였다. 표결은 백인대를 한 표로 삼아 계급 순서에 따라 차례로 이루어졌는데, 기원전 3세기 말 무렵부터는 가장 먼저 투표할 백인대를 추첨으로 뽑는 관행이 자리를 잡았다.

이 첫 투표에는 특별한 무게가 실렸다. 로마인들은 추첨의 결과를 신의 뜻이 드러난 것으로 여겼고, 그렇게 뽑힌 백인대의 선택 역시 하나의 징조로 받아들였다. 뒤이어 투표하는 백인대들은 대개 그 선택을 따랐으며, 첫 투표의 결과는 최종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추첨은 이처럼 투표에 종교적 권위를 덧입혔을 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구실도 했다. 누가 먼저 투표하느냐는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이를 사람이 정했다면 그 결정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추첨에는 어느 누구의 의지도 끼어들 수 없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결정은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에는 누구도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로마인들에게 운은 경쟁하는 세력들이 함께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심판이었던 셈이다.

— 버나드 마넹이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룬 로마 추첨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삶의 많은 부분은 운에 달려 있다. 그러나 모든 운이 같은 것은 아니다. 운은 '선택적 운'과 '비선택적 운'으로 나눌 수 있다. 선택적 운은 스스로 따져 보고 받아들인 모험이 어떻게 끝나느냐의 문제다. 피할 수도 있었던 위험을 알면서 감수했다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테면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벌거나 잃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비선택적 운은 미리 내다볼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일이 어떻게 닥치느냐의 문제다.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

선택적 운이 낳은 차이는 불공정하다고 하기 어렵다. 두 농부가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실패할 위험이 크지만 성공하면 큰 소득을 올리는 작물을 심었고, 다른 사람은 소득은 적어도 수확이 안정된 작물을 심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소득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각자가 선택한 결과이며, 그 대가는 선택한 사람이 치르는 것이 옳다. 안전을 택한 사람은 더 큰 소득의 가능성을 스스로 내려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선택적 운의 결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비슷한 처지에서 살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면, 그 때문에 생긴 소득의 차이를 그 사람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시력을 잃은 것은 그의 선택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는 비선택적 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같은 위험 앞에 놓여 있고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들 수 있다면, 보험은 비선택적 운을 선택적 운으로 바꾸어 준다.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불운을 당했다면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에 대비해 미리 보험에 들 기회가 없었고, 위험이 큰 사람일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따라서 사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보험에 들 수 있었다면 누렸을 보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조건에서 사람들이 대체로 들었을 보험을 가정하고, 그 보험이 보장했을 만큼을 세금으로 마련해 불운을 당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 제도를 통해 비선택적 운이 낳은 불리함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하는 길이다.

— 로널드 드워킨의 '선택적 운'과 '비선택적 운' 구분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STEP 1 독해 — 제시문마다 논지 잡기

제시문	살릴 요점	버릴 층위
(가)	**논지** 추첨, 곧 운에 맡긴 결정은 사람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아 공정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래서 정치적 갈등을 누그러뜨렸다. **근거** 추첨의 결과는 신의 뜻으로 여겨졌고, 사람이 순서를 정했다면 다툼이 일기 쉬웠을 것이다.	켄투리아회와 백인대의 구성, '기원전 3세기 말' 같은 배경 정보
(나)	**논지** 선택적 운의 결과는 당사자의 몫이지만, 비선택적 운이 낳은 불리함은 사회가 복지 제도로 바로잡아야 한다. **근거** 비선택적 운은 당사자의 선택과 무관하다.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 두 농부, 시력을 잃은 사람의 예. 보험료 이야기는 '같은 조건이 아니다'로 묶는다.

함정 확인

(가)를 '로마의 투표 제도를 설명한 글'로 읽으면 비교할 것이 없어집니다. (가)가 말하려는 것은 투표 절차가 아니라 **운이 사회에서 하는 구실**입니다. (나) 역시 운의 종류를 나눈 글이 아니라, 그 구분을 근거로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글입니다. 비교는 화제끼리가 아니라 논지끼리 합니다.

STEP 2 비교 기준 세우기 — 비교표 만들기

논제가 준 기준은 '운의 사회적 의미'입니다. 이 기준을 두 제시문에 똑같이 던질 수 있는 작은 물음으로 쪼개면 비교표가 생깁니다.

물음	(가)	(나)
운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받아들인다. 신의 뜻이자 공정한 결정으로 인정된다.	선택적 운의 결과는 받아들이고, 비선택적 운의 결과는 바로잡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사람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아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스스로 고른 위험인가에 따라 갈린다. 고른 위험의 결과는 그의 몫이지만, 비선택적 운은 그가 고른 것이 아니다.
운이 사회에서 맡는 구실은	경쟁하는 세력이 함께 승복하는 심판,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장치	(비선택적 운은) 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불평등의 원천

공통점은 둘째 물음에 숨어 있다

비교표의 둘째 물음, 곧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을 보십시오. 두 글 모두 '사람의 의지나 선택이 개입했는가'를 판단의 열쇠로 삼습니다. 그런데 같은 열쇠로 정반대의 문을 엽니다. (가)는 누구의 의지도 개입하지 않았으니 그 결과가 공정하다고 보고, (나)는 당사자가 고르지 않은 불운이니 그 결과를 개인에게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두 글이 따지는 의지는 조금 다릅니다. (가)는 결정에 누군가의 의지가 끼어들었는가(치우침)를, (나)는 결과를 떠안는 사람이 그 위험을 스스로 골랐는가(책임)를 묻습니다. 같은 열쇠가 서로 다른 물음에 쓰였기에 결론이 갈린 것입니다.

수준	공통점
× 화제	두 글은 모두 운에 대해 말한다.
○ 같은 물음	두 글은 모두 운이 낳은 결과를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묻는다.
◎ 같은 전제 (판단의 열쇠)	두 글은 모두 그 판단의 열쇠를 사람의 의지나 선택이 개입했는가에서 찾는다.

STEP 3 개요

기준 운이 낳은 결과를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공통점 두 글 모두 판단의 열쇠를 '사람의 의지나 선택이 개입했는가'에서 찾는다.

차이 ① 결과를 대하는 태도 — (가) 공정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 / (나) 선택적 운만 받아들이고, 비선택적 운은 바로잡는다

차이 ② 사회에서 맡는 구실 — (가)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심판 / (나) 바로잡아야 할 불평등의 원천 → 가상의 보험을 기준으로 한 복지 제도

STEP 4 서술 — 같은 비교, 두 가지 순서

두 답안의 첫 문장, 곧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차이를 배열하는 순서입니다. 일괄 비교형은 (가)를 한 덩어리로, (나)를 한 덩어리로 쓰되 두 덩어리 안의 순서를 맞추었고, 항목별 비교형은 물음마다 (가)와 (나)를 맞세웠습니다.

예시답안 ① 일괄 비교형 공백 포함 426자 · 압축률 약 4:1

(가)와 (나)는 모두 운이 낳은 결과를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묻고, 그 판단의 열쇠를 사람의 의지나 선택이 개입했는가에서 찾는다. 그러나 같은 열쇠로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다. (가)는 추첨에서 운의 긍정적 기능을 본다. 추첨에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는 신의 뜻이자 치우침 없는 결정으로 인정되었고, 덕분에 정치 세력 사이의 갈등이 누그러졌다. (가)에서 운은 모두가 받아들이는 심판이다. 반면 (나)는 운이 낳는 불평등에 주목한다. 스스로 감수한 모험의 결과인 선택적 운은 당사자의 몫이지만, 선택과 무관한 비선택적 운의 결과까지 개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 그래서 누구나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사회가 복지 제도를 통해 그 불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나)에서 비선택적 운은 교정의 대상이다.

예시답안 ② 항목별 비교형 공백 포함 435자 · 압축률 약 4:1

(가)와 (나)는 모두 운이 낳은 결과를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묻고, 그 판단의 열쇠를 사람의 의지나 선택이 개입했는가에서 찾는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갈린다. 첫째, 운의 결과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가)에서 추첨처럼 사람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은 결정은 신의 뜻이자 공정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나)는 스스로 감수한 모험의 결과인 선택적 운은 당사자의 몫으로 인정하되, 선택과 무관한 비선택적 운의 결과까지 개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본다. 둘째, 운이 사회에서 맡는 구실이 다르다. (가)에서 운은 모두가 받아들이는 심판이 되어 갈등을 누그러뜨린다. 이와 달리 (나)에서 비선택적 운은 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불평등의 원천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나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복지 제도를 통해 그 불리함을 메우자고 한다.

답안 ②의 문장	하는 일
첫째 문장	공통점: 같은 물음과 같은 판단의 열쇠를 밝혔다.
둘째 문장	두 글이 갈리는 지점이 두 가지임을 예고했다.
셋째~다섯째 문장	차이 ①: 운의 결과를 대하는 태도를 (가)와 (나)로 맞세웠다.
여섯째~아홉째 문장	차이 ②: 운이 사회에서 맡는 구실을 맞세우고, (나)의 처방으로 맺었다.

두 답안 모두 켄투리아회와 백인대, 주식·농부·시력의 예, 보험료 이야기를 지웠습니다. 비교에 필요한 것은 사례가 아니라 사례가 보여 주는 판단입니다. 제시문이 둘이고 항목이 둘뿐이면 어느 방식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제시문이 셋 이상이 되면 항목별 비교가 훨씬 유리합니다(연습 2).

4 단계 훈련 — 네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나누기

단계 훈련 300자 내외

(가)~(라)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에 따라 두 갈래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아래 활동 ①~⑤를 차례로 해결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318자 · (나) 277자 · (다) 306자 · (라) 323자 · 합계 1,224자

(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의 고통을 차마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갑자기 본 사람은 누구나 깜짝 놀라 안타까워한다. 아이의 부모와 사귀려는 것도, 이웃에게 칭찬을 들으려는 것도 아니다.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어짊의 싹이다. 사람은 이런 착한 마음의 싹을 팔다리처럼 타고난다. 그런데도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본성 탓이 아니다. 우산(牛山)의 나무가 본래 무성했으나 날마다 도끼에 찍히고 소와 양에게 뜯겨 민둥산이 된 것처럼, 착한 마음도 돌보지 않고 해치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타고난 싹을 잃지 말고 잘 길러 넓혀 가야 한다.

—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선한 것은 사람이 애써 만든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를 그대로 따르면 서로 빼앗고 다투게 되어 사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또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는데, 이를 그대로 따르면 음란함이 생기고 예의가 사라진다. 굽은 나무는 반드시 도지개에 대고 쪄서 바로잡은 뒤에야 곧아지고, 무딘 쇠는 숫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진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도 스승의 가르침과 예의로 바로잡은 뒤에야 다툼을 멈추고 질서를 이룰 수 있다.

— 『순자』의 성악설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선하다. 그는 제 몸을 지키려는 마음과 함께, 살아 있는 존재가 고통받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연민을 타고난다. 숲속을 떠돌며 필요한 만큼만 얻던 그에게는 남을 해칠 까닭이 없었다. 인간을 타락시킨 것은 사회다.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처음 해 내고, 그 말을 믿을 만큼 순진한 사람들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시민 사회를 세운 사람이다. 그때부터 사유 재산과 함께 불평등이 생겼고,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견주며 시기하고 다투게 되었다. 악은 인간의 본성에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불평등에서 나온다.

—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라)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무엇보다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 사람들의 능력은 대체로 엇비슷하므로, 같은 것을 원하는 두 사람은 서로 적이 되어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없애려 한다. 경쟁과 불신과 명예욕이 다툼을 부르고, 결국 만인이 만인에 맞서는 전쟁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에서는 농사도, 무역도, 학문도 자리 잡을 수 없고,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험악하고 잔인하며 짧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 잠자리에 들 때 문을 잠그고, 집 안에서도 궤짝을 잠근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려면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어 모두를 두렵게 할 공통의 권력, 곧 국가를 세워야 한다.
>
> —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STEP 1 **활동 ① 네 제시문이 함께 답하고 있는 물음을 의문문 한 문장으로 쓰시오.**

STEP 2 **활동 ② 각 제시문이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하는지 쓰시오.**

제시문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가)		
(나)		
(다)		
(라)		

STEP 2 **활동 ③ 함정 찾기**

어떤 학생이 '(가)·(나)는 동양의 사상, (다)·(라)는 서양의 사상'이라는 기준으로 네 제시문을 분류했다. 이 분류가 잘못된 까닭을 쓰시오.

STEP 2·3 **활동 ④ 분류 기준을 '~인가, ~인가' 꼴의 한 문장으로 쓰고, 두 입장의 공통 논지를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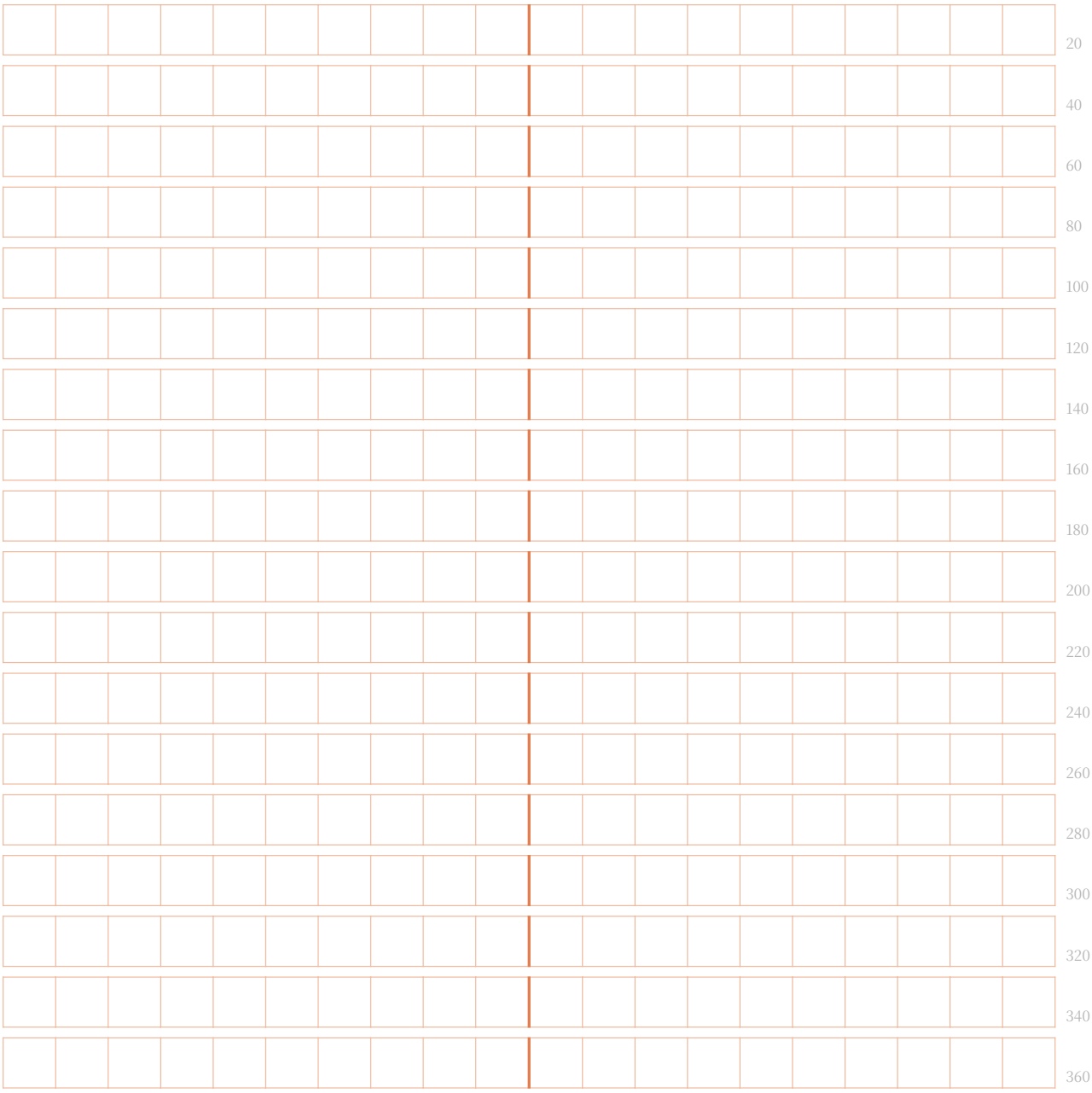
분류 기준

입장 1 ( )·( )

입장 2 ( )·( )

서술 **활동 ⑤ 300자 내외로 쓰시오.** 20칸 × 18줄 = 36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5 실전

이제 시간을 재고 혼자 씁니다. 제시문은 둘에서 넷으로 늘어나고, 비교에서 분류로 나아갑니다. 해설은 7절에 있으니 다 쓴 뒤에 확인하십시오.

문항	제시문	답안	시간	이번에 새로 요구하는 것
연습 1 비교	2편 · 1,202자	300자	15분	비교 기준을 스스로 찾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짝짓기
연습 2 비교	3편 · 1,652자	400자	20분	주어진 두 기준으로 세 제시문을 항목별로 맞세우기
연습 3 분류	4편 · 1,983자	500자	25분	겉모습이 아니라 쟁점으로 분류하고, 입장별로 묶어 요약하기

연습 1 · 두 제시문 비교 300자 내외 · 제한 시간 15분

(가)와 (나)에 나타난 노동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세상의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땅 위나 땅 가까이에 있는 물건의 위치를 바꾸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그 일을 시키는 일이다. 앞의 일은 고되고 보수가 적으며, 뒤의 일은 즐겁고 보수가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일 자체가 미덕이라고 배워 왔다. 이 노동 윤리는 남의 노동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부리려고 퍼뜨린 노예의 도덕이다.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루 네 시간만 일해도 필요한 것을 넉넉히 만들 수 있다. 어떤 공장에서 같은 인원으로 핀을 두 배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세상에 필요한 핀의 양이 그대로라면, 현명한 세상에서는 모두가 일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여전히 여덟 시간을 일하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잃는다. 한쪽에는 과로가, 다른 쪽에는 실업이 남는다.

일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문명을 꽃피운 것은 여가였다. 여가가 있어야 사람은 배우고 즐기고 생각하며, 남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더 많이 일하는 데 있지 않고, 일을 조직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 버트런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노동은 인간이 자연에 작용하여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은 동물의 활동과 다르다. 거미는 정교한 그물을 치고 벌은 솜씨 좋게 벌집을 짓지만, 그것은 본능에 따른 것이다. 인간은 머릿속에 먼저 그린 것을 현실로 만들고, 그 결과물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한다. 노동은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는 활동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자신을 실현하기는커녕 자신을 잃어 간다. 그가 만든 물건은 그의 것이 아니고, 일의 내용과 속도도 그가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자는 일하지 않을 때에야 편안함을 느끼고,

일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닌 듯 느낀다. 노동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욕구를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노동 밖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떨어졌다. 강제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노동을 전염병처럼 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노동이 소외된 결과다. 노동자가 생산물과 노동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 남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조건이 노동을 고통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노동을 멀리하는 데 있지 않다. 노동이 다시 인간의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동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

— 마르크스의 노동론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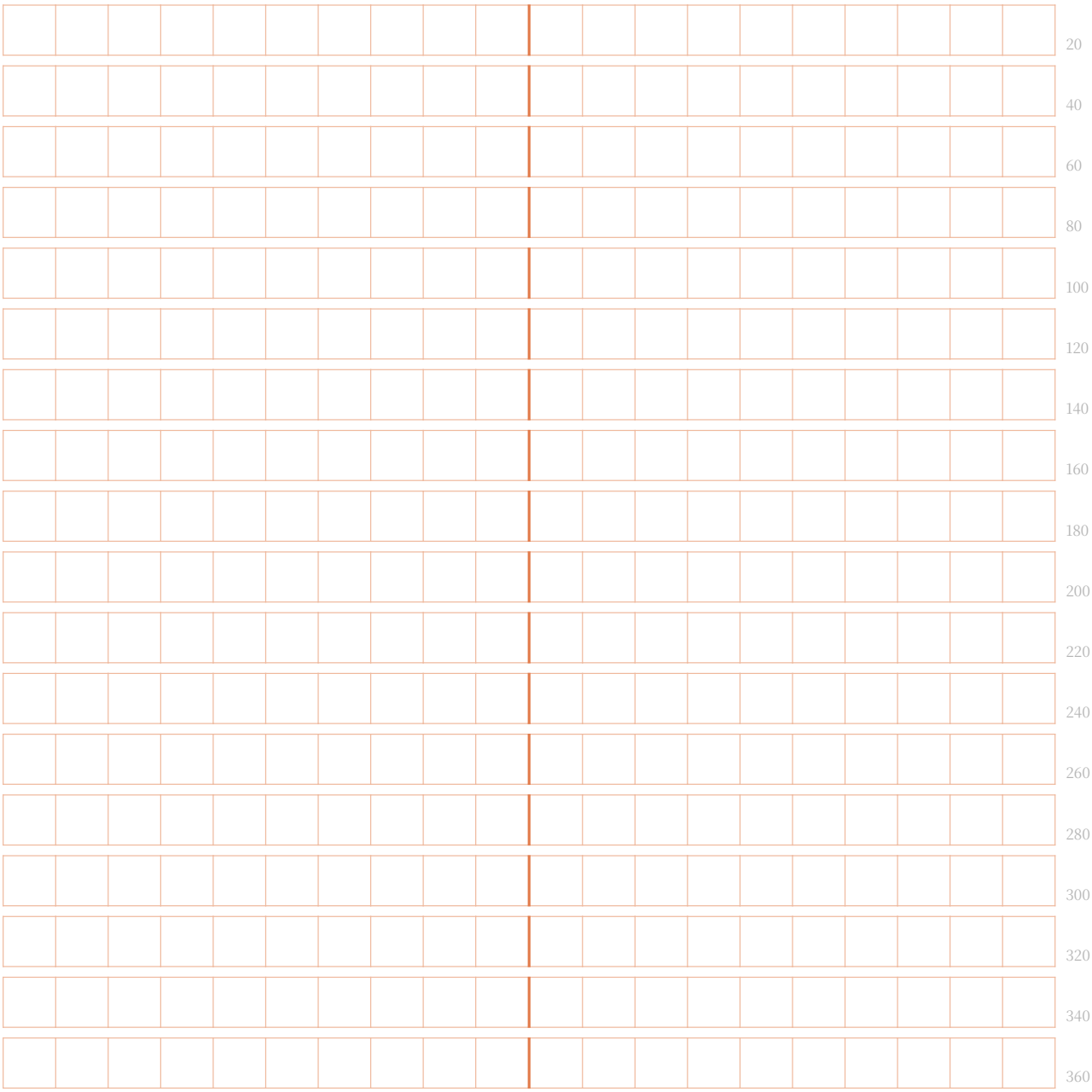
메모 **쓰기 전에 — 비교표부터**

비교 기준(물음)	(가)	(나)

공통점

연습 1 답안지 · 300자 내외 20칸 × 18줄 = 36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연습 2 · 세 제시문 비교 400자 내외 · 제한 시간 20분

공공의 이익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가)~(다)를 비교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한 척의 배를 생각해 보자. 선주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세지만 귀가 조금 어둡고 눈도 어두우며, 항해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선원들은 서로 키를 잡겠다고 다투지만, 누구도 항해술을 배운 적이 없고 항해술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한다. 그들은 선주를 구슬리거나 억눌러 배를 차지하고, 먹고 마시며 제멋대로 배를 몬다. 정작 계절과 하늘과 별과 바람을 살필 줄 아는 참된 항해사는 쓸모없는 사람, 별만 쳐다보는 수다쟁이로 취급받는다.

나라도 이 배와 같다. 무엇이 공동체 전체에 좋은지는 다수의 의견이나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앎의 대상이다. 다수는 그때그때의 욕구와 떠도는 소문에 따라 움직일 뿐, 무엇이 참으로 좋은지를 따져 볼 앎을 갖추지 못했다. 목적지와 항로를 아는 사람이 키를 잡아야 하듯, 공동체 전체의 좋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곧 오랜 공부와 수련으로 지혜를 갖춘 소수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리거나 지금의 통치자가 참으로 철학을 하게 되기 전에는, 나라의 불행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 플라톤의 『국가』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18세기 유럽의 커피하우스와 살롱에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신문을 읽고 나랏일을 논했다. 그 자리에서는 누가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했고, 귀족의 칭호도 더 나은 논증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이렇게 사적인 개인들이 모여 공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공간을 공론장이라 한다. 그곳에서 오간 논의는 신문과 잡지를 타고 퍼져 나가 여론을 이루었고, 여론은 권력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었다.

공론장이 보여 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어디엔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공공의 이익은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의 주장을 따져 묻고, 자기 이익만을 내세워서는 남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처음의 생각을 고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찾아 나간다. 그러므로 토론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자기 생각을 말하고 남의 주장을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강요가 아니라 더 나은 논증의 힘으로 이루어진 합의, 그것만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있다.

—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담론 윤리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다) 공동체란 그것을 이루는 개인들로 구성된 허구의 몸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각자의 이익을 합한 것이다.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자연은 인간을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의 지배 아래 두었다. 무엇이 좋은지는 결국 그것이 쾌락을 얼마나 늘리고 고통을 얼마나 줄이는가에 달려 있다. 쾌락과 고통은 그 강도와 지속 시간, 확실성 따위를 따져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법이나 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맞는지 알고 싶다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의

> 쾌락과 고통을 하나하나 셈하여 더해 보면 된다. 어떤 정책이 소수에게 큰 쾌락을 주더라도 그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면, 그 정책은 공공의 이익에 어긋난다. 이때 누구든 한 사람으로 계산되며,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귀족의 쾌락이라고 해서 농부의 쾌락보다 더 무겁게 치지 않는다. 입법자가 할 일은 이 셈의 결과가 가장 커지는 쪽, 곧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
> — 벤담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메모 **쓰기 전에 — 기준마다 세 제시문의 대답을 한 칸씩**

기준	(가)	(나)	(다)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공통점

연습 2 답안지 · 400자 내외 20칸 × 24줄 = 4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연습 3 · 네 제시문 분류 500자 내외 · 제한 시간 25분

(가)~(라)를 기술에 대한 입장에 따라 두 갈래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자공이 남쪽 초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밭일하는 한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우물로 통하는 길을 파서 그 안으로 들어가 항아리에 물을 담아 안고 나와 밭에 붓고 있었다. 힘은 많이 드는데 보람은 적었다. 자공이 말했다. "여기 기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백 이랑에 물을 댈 수 있으니 힘은 적게 들고 보람은 큽니다. 나무를 깎아 뒤는 무겁고 앞은 가볍게 만든 것인데, 두레박틀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불끈 낯빛을 바꾸었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스승에게서 들었소. 기계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기계를 쓰는 일이 생기고, 기계를 쓰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기계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이다. 기계의 마음이 가슴속에 자리 잡으면 순수하고 깨끗한 바탕이 갖추어지지 않고, 그러면 정신이 안정되지 않으며, 정신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가 깃들지 않소. 내가 그 기계를 몰라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쓰지 않는 것이오."

— 『장자』 「천지」 편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기계가 실을 잣고 천을 짜기 시작하자 옷값이 내려가 옷을 사는 사람이 크게 늘었고, 기계를 만들고 돌리고 고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기술은 일을 없애기보다 일의 모습을 바꾸어 왔다.

인공지능도 다르지 않다. 반복되는 계산과 서류 작업을 기계가 맡으면, 사람은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처럼 기계가 대신하기 어려운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다. 기술은 인간을 고된 노동에서 풀어 주고, 인간이 더 인간다운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물론 기술이 해를 끼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 탓이 아니다. 기술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도구다. 같은 칼이 요리사의 손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강도의 손에서는 흉기가 되듯, 기술이 가져올 결과는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술을 두려워하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잘 쓰는 법을 배우고 그 열매가 고루 돌아가도록 제도를 다듬는 것이다.

— 기술 낙관론의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다) 하늘은 짐승에게 발톱과 뿔을 주고, 단단한 발굽과 날카로운 이빨을 주고, 독을 주어 저마다 바라는 것을 얻고 닥쳐오는 위험을 막게 하였다. 그러나 사람만은 벌거숭이에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여, 제 목숨 하나 지키기도 어려울 것처럼 만들었다. 어째서인가? 하늘은 사람에게 생각하는 힘과 교묘한 솜씨를 주어, 기예를 익혀 스스로 살아가게 한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각이 미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솜씨가 깊어지는 데에는 차례가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라도 천 사람, 만 사람이 함께 궁리한 것을 당할 수 없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갖출 수 없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기예는 정교해지고, 세대가 내려갈수록 기예는 교묘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옛날에 중국에서

배워 온 기예를 수백 년 동안 그대로 쓸 뿐, 다시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사이 중국의 기예는 날로 새로워졌다. 다른 나라의 앞선 기예를 부지런히 배우고 받아들여야 백성의 살림이 넉넉해질 것이다.

— 정약용의 「기예론」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라) 흔히 기술은 인간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쓰는 수단이라고 한다. 이 생각은 옳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기술의 본질에 닿지 못한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가 인간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옛날의 풍차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날개를 돌릴 뿐, 바람의 힘을 뽑아내 쌓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기술은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닦달한다. 라인강에 발전소가 들어서면, 강은 더 이상 시인이 노래하던 강이 아니라 수력을 공급하는 원천이 된다. 숲은 목재의 저장고가 되고, 땅은 광물의 매장지가 된다. 모든 것이 언제든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대기하는 자원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위험은 이 시선이 인간에게까지 미친다는 데 있다.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쓰듯, 인간 자신도 계산되고 관리되는 자원의 하나로 여겨진다. 기술을 잘 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 위험을 보지 못한다. 기술이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은 시간이나 일자리가 아니라, 사물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눈이다.

—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물음」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메모 **쓰기 전에 — 각 제시문의 대답부터, 분류 기준은 그다음**

제시문	기술은 인간에게 무엇인가(한 줄)	입장
(가)		
(나)		
(다)		
(라)		

분류 기준

입장 1

입장 2

연습 3 답안지 · 500자 내외 20칸 × 29줄 = 5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500
520
540
560
580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답안을 다 썼으면 먼저 스스로 채점합니다.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점수를 잃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세 번 넘어진다면, 그 자리가 바로 다음 수업의 과제입니다.

영역	배점	만점 기준	이럴 때 깎인다
내용	5	비교 기준이나 분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웠다(2). 공통점과 차이점, 또는 각 입장의 요약이 핵심을 빠짐없이 담았다(3).	분류가 틀리거나 기준이 쟁점에서 벗어나면 내용은 1점(다른 내용 감점은 더하지 않는다). 첫머리의 기준이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처럼 거칠어 무엇을 두고 갈리는지 드러나지 않으면 −1. 핵심 내용이 하나 빠질 때마다 −1.
구성	2	공통점과 차이점, 또는 두 입장이 같은 항목과 같은 순서로 맞서 한 편의 글이 된다.	제시문별 요약을 늘어놓기만 했다 −1. 한쪽만 자세하고 다른 쪽은 빈약하다 −1.
표현	2	핵심어를 살려 자기 말로 썼고, 비교와 분류를 드러내는 연결 표현이 정확하다.	10자 이상 그대로 옮긴 구절이 두 곳 이상 −1. 의견·감상·당부가 섞였다 −1.
형식	1	분량이 ±10% 안에 있고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다.	분량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원고지를 잘못 썼다 −1.

한 가지 잘못은 한 영역에서만 깎습니다. 기준을 거칠게 세우거나 입장을 틀리게 묶은 잘못은 내용에서, 요약에 섞인 의견·감상·당부는 표현에서 깎습니다. 이 채점표는 바른에듀케이션 수업용 기준입니다. 대학별 실제 채점 기준은 『합격 포인트』 시리즈에서 확인합니다.

■ 제출 전 자기 점검

- ☐ 비교 기준이나 분류 기준을 답안 첫머리에서 밝혔다.
- ☐ 공통점을 '둘 다 ○○을 다룬다'가 아니라, 같은 물음이나 같은 전제로 썼다.
- ☐ 차이점을 같은 기준 위에서 맞세웠다. 한 제시문에 쓴 항목을 다른 제시문에도 같은 순서로 썼다.
- ☐ 시대·지역·글의 종류가 아니라 쟁점에 대한 대답으로 분류했다.
- ☐ 같은 입장으로 묶은 제시문들의 공통 논지를 먼저 쓰고, 제시문별 근거를 덧붙였다.
- ☐ 사례·비유·일화를 지우고, 그것이 보여 주는 원리를 썼다.
- ☐ 제시문과 10자 이상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이 없고, 내 의견이나 평가를 넣지 않았다.
- ☐ 분량을 지켰다. 공백을 포함해 세었고, 문단 첫 칸을 비웠다.

7 답안 비교와 해설

연습 3에 대한 세 학생의 답안입니다. 형광 표시는 제시문의 한 문장과 10자 이상(띄어쓰기 제외)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세 답안을 가른 것은 문장 솜씨가 아니라 **묶는 기준과 묶은 까닭**이었습니다.

상 · 9점 학생 A — 입장별 통합 요약 공백 포함 533자

> 네 제시문은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나)와 (다)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 이롭다고 본다. (다)에 따르면 인간은 짐승과 달리 지혜와 솜씨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기예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모이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정교해진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앞선 기예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 (나)는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일의 형태를 바꿔 왔고, 인간을 단순 반복 작업에서 해방시킨다고 본다. 기술의 결과가 좋고 나쁨은 쓰는 사람에게 달렸으므로 기술을 피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한다. 반면 (가)와 (라)는 기술이 인간을 변질시킨다고 본다. (가)는 기계를 쓰면 효율을 따지는 마음이 생겨 마음의 순수함과 평정을 잃는다고 보아 기계를 거부한다. (라)는 기술을 단순한 수단으로만 보는 생각을 비판하며, 현대 기술이 자연을 쓸모 있는 자원으로만 바라보게 만들고 결국 인간마저 관리 대상으로 만든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두 입장은 기술이 인간에게 이로운 도구인가, 인간을 바꾸어 놓는 위험한 힘인가를 두고 대립한다.

내용 두 입장의 공통 논지와 각 제시문의 고유한 근거가 모두 들어 있다. (라)가 기술을 단순한 수단으로만 보는 생각을 비판한다는 점까지 정확히 짚었다. 다만 첫머리의 기준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 머물러, 무엇을 두고 갈리는지가 마지막 문장에 가서야 드러난다(−1).

구성 분류 → (나)·(다)의 공통 논지와 근거 → (가)·(라)의 공통 논지와 근거 → 대립 정리의 흐름이 분명하고, 두 입장을 같은 순서로 썼다.

표현 제시문 문장을 옮긴 곳이 없다. 두레박틀, 라인강, 칼 같은 사례를 모두 지우고 원리만 남겼다.

점수 내용 4 · 구성 2 · 표현 2 · 형식 1

더 나아지려면 마지막 문장의 물음(이로운 도구인가, 인간을 바꾸어 놓는 위험한 힘인가)을 첫 문장에 분류 기준으로 세웠다면 만점이다. 그러면 두 입장의 요약이 처음부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읽힌다.

중 · 5점 학생 B — 제시문별 나열 공백 포함 478자

> (가)와 (라)는 기술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나)와 (다)는 기술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에서 자공은 노인에게 두레박틀을 쓰라고 권하지만, 노인은 기계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기계를 쓰는 일이 생기고 기계의 마음이 생긴다며 거절한다. 노인은 기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쓰지 않는다고 한다. (라)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가 인간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본다. 라인강에 발전소가 들어서면 강은 수력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고, 숲은 목재의 저장고가 된다. 인간도 인적 자원으로 여겨진다. (나)는 기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걱정과 달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고 본다. 같은 칼이 요리사의 손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강도의 손에서는 흉기가 되듯 기술의 결과는 쓰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다)는 하늘이 사람에게 생각하는 힘과 솜씨를 주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기예가 정교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기예를 배워야 한다.

내용 분류 결과는 맞다. 그러나 기준을 '반대'와 '찬성'으로 거칠게 잡아, 기술이 수단이라는 생각을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 본질을 따지는 (라)까지 '반대'로 몰았다(−1). 각 입장이 함께 말하는 바, 곧 공통 논지가 없고(−1), (나)의 핵심, 곧 기술이 인간을 고된 노동에서 풀어 준다는 내용도 빠졌다(−1).

구성 네 제시문을 하나씩 따로 요약해 늘어놓았다(−1). 묶은 까닭을 '반대', '찬성'이라는 이름표로만 밝히고 공통 논지를 쓰지 않아, 분류가 답안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

표현 두레박틀, 라인강, 칼 같은 사례를 버리지 않고 옮겼고, 제시문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구절이 여러 곳이다(−1).

점수 내용 2 · 구성 1 · 표현 1 · 형식 1

하 · 2점 **학생 C — 겉모습으로 분류** 공백 포함 422자

> (가)와 (다)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고, (나)와 (라)는 현대인의 생각이다. 먼저 (가)와 (다)는 동양의 옛 사상가들이 기술에 대해 쓴 글이다. (가)의 노인은 기계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기계를 쓰는 일이 생긴다며 두레박틀을 쓰지 않는다. (다)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기예는 정교해지고 세대가 내려갈수록 기예는 교묘해진다고 한다. 다음으로 (나)와 (라)는 현대의 기술을 다룬다. (나)는 인공지능이 반복되는 계산과 서류 작업을 맡아 준다고 하고, (라)는 라인강에 발전소가 들어서면 강이 수력을 공급하는 원천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옛날에는 기술이 단순했지만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처럼 고도로 발달했다. 나는 기술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며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세를 길러야 할 것이다.

내용 쟁점이 아니라 시대로 나누어 분류가 틀렸으므로 내용은 1점이다. 그 결과 기계를 거부하는 (가)와 앞선 기예를 배우자는 (다)가 한 묶음이 되고, 기술을 반기는 (나)와 경계하는 (라)가 한 묶음이 되었다. 한 묶음 안의 두 글이 정반대 주장을 하니 입장을 요약할 수 없다.

구성 두 묶음으로 나누고도 제시문을 하나씩 옮겨 늘어놓았을 뿐, 묶음이 함께 말하는 바를 쓰지 않았다(−1). 끝의 '옛날에는 기술이 단순했지만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처럼 고도로 발달했다'는 정리도 제시문 어디에도 없는 말이다.

표현 제시문을 그대로 옮긴 구절이 많고(−1), 마지막 두 문장은 요약하는 사람의 의견과 당부다(−1). 게다가 그 의견은 사실 (나)의 주장을 자기 생각처럼 옮긴 것이다.

형식 500자 내외 문항에 422자다. 범위(450~550자)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1).

점수 내용 1 · 구성 1 · 표현 0 · 형식 0

세 답안이 알려 주는 것

학생 C는 글의 겉모습으로 묶었다. 읽기에서 이미 길을 잃었다.

학생 B는 바르게 묶었지만, '반대'와 '찬성'이라는 이름표만 붙이고 제시문을 하나씩 다시 요약했다. 분류는 했지만 종합은 하지 않았다.

학생 A는 각 입장이 함께 말하는 것을 먼저 쓰고, 제시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치는지 덧붙였다. 요약종합형의 실력은 바로 '묶은 까닭을 쓰는 힘'에서 갈린다.

단계 훈련 해설 · 네 제시문 분류

- **활동** ①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이며, 악과 다툼은 어디에서 오는가?
- **활동** ② 네 제시문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가)	남의 고통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 곧 착함의 싹을 타고난다.	악은 그 싹을 해쳐서 생긴다. 싹을 길러 넓혀야 한다.
(나)	이익과 욕망을 좇는다. 그대로 따르면 다툰다.	스승의 가르침과 예의로 바로잡아야 한다.
(다)	자기 보존의 마음과 연민을 타고난 선한 존재다.	악은 사유 재산과 함께 생긴 사회의 불평등에서 나온다.
(라)	자기 보존을 좇아 서로 적이 된다.	계약으로 국가라는 공통의 권력을 세워야 한다.

- **활동** ③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면 본성이 선하다는 (가)와 악하다는 (나)가 한 묶음이 되고, 정반대 주장을 하는 (다)와 (라)도 한 묶음이 된다. 그러면 각 입장을 요약할 수 없다. 분류는 출처나 시대가 아니라 쟁점에 대한 대답으로 한다.
- **활동** ④ 분류 기준: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그대로 두면 다툼을 낳는 이기적인 것인가? 입장 1 (가)·(다): 본성은 선하며, 악은 타고난 선한 마음이 해침을 당하거나 사회의 불평등에 물들어 생긴다. 입장 2 (나)·(라): 본성은 이기적이어서 그대로 두면 다투므로, 예의로 본성을 바로잡거나 국가의 힘으로 다툼을 억눌러야 질서가 선다.

버릴 층위 우물가의 아이, 우산의 나무, 도지개와 숫돌, 울타리를 친 사람, 문과 궤짝의 예. **한 걸음 더** 두 입장 모두 본성 바깥의 무언가를 말한다. 그러나 (가)·(다)에서 그것은 선한 본성을 해치는 것이고, (나)·(라)에서는 이기적인 본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대비를 살리면 답안이 한층 선명해진다.

활동 ⑤ 예시답안 공백 포함 318자 · 압축률 약 4:1

네 제시문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가, 그대로 두면 다툼을 낳는 이기적인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가)·(다)와 (나)·(라)로 나뉜다. (가)와 (다)는 인간이 남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타고난다고 보아 본성을 선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악은 본성 탓이 아니라, 타고난 선한 마음이 해침을 당하거나 사회의 불평등에 물들어 생긴다고 본다. 반면 (나)와 (라)는 인간이 본래 제 이익과 안전을 앞세운다고 본다. 이 본성을 내버려두면 서로 빼앗고 싸우게 되므로, 예의와 스승의 가르침으로 본성을 바로잡거나 계약으로 세운 국가의 힘으로 다툼을 억눌러야 질서가 선다.

연습 1 해설 · 두 제시문 비교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공통점: 두 글 모두 오늘날 노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고 본다. (가)는 과로와 실업을, (나)는 소외를 문제 삼는다.
- 차이 ① 노동의 본질: (가)는 노동을 삶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노동을 미덕으로 떠받드는 윤리를 남을 부리려는 이들이 퍼뜨린 도덕이라고 비판한다. (나)는 노동을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는 본질적 활동으로 본다.
- 차이 ② 처방: (가)는 노동 시간을 줄여 모두가 여가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 (나)는 노동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의 조건을 바꾸어 노동을 자유로운 활동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본다.

버릴 층위 두 가지 일의 구분(→ '노동 윤리 비판'으로 묶기), 핀 공장의 예, 네 시간·여덟 시간 같은 수치, 거미와 벌, 전염병의 비유. **함정** (나)의 둘째 문단에서 노동자가 일하지 않을 때에야 편안함을 느낀다는 대목을 (나)의 주장으로 읽으면 (나)도 (가)처럼 노동을 수단으로 보는 글이 되어 버린다. 그것은 글쓴이가 고발하는 소외된 노동의 모습일 뿐이다.

예시답안 · 일괄 비교형 공백 포함 328자 · 압축률 약 4:1

(가)와 (나)는 모두 오늘날의 노동 방식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고 보지만, 노동의 본질을 달리 보아 처방이 갈린다. (가)는 노동을 삶의 수단으로 보고, 노동을 미덕으로 떠받드는 윤리를 남을 부리려는 이들이 퍼뜨린 도덕이라 비판한다. 기술이 발달해도 과로와 실업이 함께 생기니, 노동 시간을 줄여 행복과 문명을 낳는 여가를 누려야 한다. 반면 (나)는 노동을 인간이 스스로를 실현하는 본질적 활동으로 본다. 노동이 고통스러운 수단이 된 것은 노동자가 생산물과 일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탓이다. 따라서 노동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바꾸어 노동을 자유로운 활동으로 되돌려야 한다.

연습 2 해설 · 세 제시문 비교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공통점: 세 글 모두 공동체가 추구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어떻게 정할지를 묻는다.
- 기준 ①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가: (가)는 공동체 전체의 좋음, 곧 앎의 대상으로, (다)는 구성원 각자의 쾌락과 고통을 셈한 합으로 본다. 둘 다 토론에 앞서 이미 정해져 있어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가)는 다수의 욕구와 상관없는 전체의 좋음을, (다)는 개인 쾌락의 합을 말한다는 점에서 내용은 정반대다. 반면 (나)는 공공의 이익이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에서 이루어진 합의로 만들어진다고 본다.
- 기준 ②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가)는 앎이 없는 다수를 빼고 지혜를 갖춘 소수에게 판단을 맡긴다. 반면 (나)와 (다)는 구성원 누구도 빼거나 남보다 무겁게 치지 않는다. (나)는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토론으로, (다)는 입법자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한 사람으로 세는 계산으로 정한다.

버릴 층위 배의 비유(선주, 선원, 항해사), 커피하우스와 살롱, 귀족의 칭호, 신문과 잡지, 귀족과 농부, 강도·지속 시간·확실성 같은 세부. **함정** (가)의 배 이야기를 풀어 쓰다 보면 비교할 분량이 남지 않는다. 비유가 말하려는 원리만 남긴다. **한 걸음 더** 세 제시문 비교에서는 기준마다 짝이 바뀔 수 있다. 기준 ①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토론에 앞서 정해져 있다고 보는 점에서 (가)·(다)가 한편이고, 기준 ②에서는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하는가를 두고 (나)·(다)가 한편이다. 이런 구조는 항목별 비교로 써야 드러난다. 일괄 비교로 쓰면 세 제시문의 요약을 각자 늘어놓은 글이 되기 쉽다. 한편 기준 ②를 '누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가'로 읽으면, 입법자가 셈하는 (다)를 (가)와 묶을 수도 있다.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혔다면 그런 답안도 인정한다.

예시답안 · 항목별 비교형 공백 포함 433자 · 압축률 약 4:1

세 제시문은 모두 공동체가 추구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서 갈린다. 먼저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두고, (가)와 (다)는 그것을 토론에 앞서 이미 정해져 있어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가)에서 공공의 이익은 공동체 전체의 좋음으로서 앎의 대상이고, (다)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쾌락과 고통을 셈하여 합한 값이다. 반면 (나)는 공공의 이익이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에서 이루어진 합의로 만들어진다고 본다. 다음으로 정하는 방식에서는 (가)가 나머지 둘과 맞선다. (가)는 앎이 없는 다수를 빼고 지혜를 갖춘 소수에게 판단을 맡긴다. 이와 달리 (나)와 (다)는 구성원 누구도 빼거나 남보다 무겁게 셈하지 않는다. (나)는 모두가 동등하게 토론에 참여하게 하고, (다)는 입법자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한 사람으로 셈하게 한다.

연습 3 해설 · 네 제시문 분류

반드시 들어갈 요소

- 분류 기준: 기술을 인간이 부리는 도구로 보는가, 인간의 태도와 세계를 보는 눈까지 바꾸는 힘으로 보는가?
- 입장 1 (나)·(다): 기술은 인간이 만들어 쓰는 도구이며 삶을 넓힌다. (다) 인간은 지혜와 솜씨로 살아가고, 기예는 여러 사람의 궁리와 세대의 경험이 쌓일수록 발전한다. (나) 기술은 일의 모습을 바꾸어 인간을 고된 일에서 풀어 주며, 해악은 쓰는 사람의 문제다. → 배우고 잘 쓰는 것이 과제다.
- 입장 2 (가)·(라): 기술은 도구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마음과 세계를 보는 눈을 바꾼다. (가) 기계를 쓰면 기계의 마음이 생겨 순수한 바탕을 잃는다. (라) 자연을, 끝내는 인간까지 끌어 쓸 자원으로만 여기게 한다. → 기술이 바꾸는 태도를 먼저 문제 삼는다.

버릴 층위 자공과 노인의 대화 장면, 두레박틀의 생김새, 옷값과 방직 기계, 칼의 비유, 짐승의 발톱과 뿔(→ '타고난 무기가 없는 인간'으로 묶기), 중국의 기예 이야기(→ '앞선 기술을 배워야 한다'로 묶기), 풍차·라인강·숲·땅(→ '자연을 자원으로 여기게 한다'로 묶기). **함정** 첫째, 고전과 현대, 또는 동양과 서양으로 묶으면 정반대 주장이 한 묶음이 된다(학생 C). 둘째, (라)의 '이 생각은 옳다'는 양보다. 이 문장만 보고 (라)를 기술을 도구로 보는 글로 읽으면 분류가 어긋난다.

예시답안 · 입장별 통합 요약 공백 포함 528자 · 압축률 약 4:1

네 제시문은 기술을 인간이 부리는 도구로 보는가, 인간이 세계와 자신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꾸는 힘으로 보는가에 따라 (나)·(다)와 (가)·(라)로 나뉜다. (나)와 (다)는 기술을 인간이 만들어 쓰는 도구로 보고, 그것이 삶을 넓힌다고 여긴다. (다)는 타고난 무기가 없는 인간이 지혜와 솜씨로 살아가며, 기예는 여러 사람의 궁리와 세대의 경험이 쌓일수록 발전한다고 본다. (나)는 기술이 일의 모습을 바꾸어 인간을 고된 일에서 풀어 주며, 기술의 해악은 쓰는 사람의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두 제시문은 기술을 부지런히 배우고 잘 쓰는 일을 과제로 삼는다. 반면 (가)와 (라)는 기술이 인간의 마음과 세계를 보는 눈을 바꾼다고 경계한다. (가)는 기계를 쓰면 적은 힘으로 큰 효과를 노리는 계산의 마음이 생겨 순수한 바탕을 잃는다고 보고, (라)는 현대 기술이 자연을 끌어 쓸 자원으로만 여기게 하고, 끝내 인간마저 자원으로 다루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두 제시문은 기술을 쓰는 방법보다 기술이 바꾸는 인간의 태도를 먼저 문제 삼는다.

III

공통쟁점 추론형

여러 글을 꿰뚫는 하나의 물음 찾기 공통 핵심어 · 공통 주제 · 공통 요인

서로 다른 시대와 분야에서 온 글들이 한 시험지에 나란히 놓입니다. 출제자는 그 글들이 함께 붙들고 있는 하나의 물음을 찾아보라고 요구합니다. 공통쟁점 추론은 글의 겉모습 아래에서 같은 뿌리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핵심어와 주제문을 찾는 법, 알맞은 높이에서 공통 쟁점을 세우는 법, 그 쟁점을 제시문마다 근거로 받치는 법을 손으로 익힙니다.

학습 목표

1. 제시문마다 핵심어와 주제문을 찾아 그 글의 쟁점을 한 문장으로 세울 수 있다.
2. 모든 제시문에 들어맞으면서도 지나치게 넓거나 소재에 머물지 않은 공통 쟁점을 찾아낼 수 있다.
3. 공통 쟁점을 첫머리에 밝히고, 그것이 각 제시문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근거로 들어 쓸 수 있다.

이 단원의 흐름

1	왜 공통점을 찾는가	대학이 공통 쟁점을 묻는 이유	58
2	핵심 해법	추론 4단계 · 추상화 사다리 · 공통점의 두 갈래	59
3	시범	두 제시문에서 공통 속성을 함께 찾아보기	62
4	단계 훈련	세 제시문의 공통 문제 찾기	65
5	실전	공통 핵심어 · 공통 요인 · 공통 주제와 차이	68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77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78

1 왜 공통점을 찾는가

논술 시험지의 제시문들은 대개 서로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고대 철학자의 대화와 근대사의 한 장면이, 옛이야기와 경제학의 설명이 나란히 놓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글들은 사실 하나의 물음을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그 물음을 찾아내는 것이 공통쟁점 추론입니다. 이 유형은 많은 논술 문항의 출발점이어서, 공통 쟁점을 잘못 잡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비교·비판·견해 문항이 모두 엇나갑니다.

대학이 이 능력을 묻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대학 공부는 서로 다른 학문의 글을 읽고 그 사이를 잇는 일입니다. 흩어진 것들 사이에서 같은 뿌리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 이 유형이 확인하려는 힘입니다.

■ 공통쟁점 추론형 논제의 모습

논제의 형태	무엇을 요구하는가	유형
(가)와 (나)의 공통 핵심어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두 글을 꿰뚫는 개념어 하나를 고르고, 두 글에서 근거를 찾기	공통 핵심어
(가)~(다)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통 주제를 도출하시오.	세 글을 아우르는 주제를 한 문장으로 세우기	공통 주제
(가)와 (나)에 나타난 성공의 공통 요인을 찾아 설명하시오.	두 사례를 가능하게 한 같은 원인을 추론하기	공통 요인
(가)~(다)에 담긴 공통의 문제를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하시오.	공통 문제를 찾아 원인 분석이나 해결로 잇기	공통 문제
(가)와 (나)에 공통으로 드러난 ○○의 속성은 무엇이며,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가?	공통점을 찾고, 그 위에서 차이를 밝히기	공통점과 차이

'공통'이라는 말이 없어도 '제시문들을 아우르는 주제', '제시문들이 함께 제기하는 문제'처럼 묻는 논제도 같은 유형입니다.

■ 채점자는 무엇을 보는가

항목	확인하는 것
포괄성	공통 쟁점이 모든 제시문에 들어맞는가(한 글에만 맞으면 공통이 아니다)
알맞은 수준	'모두 인간에 관한 글'처럼 지나치게 넓거나, 소재만 같은 수준에 머물지 않았는가
근거	공통 쟁점이 각 제시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혔는가
개념화	사례·이야기·비유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개념어로 바꾸어 썼는가
형식	정해진 분량과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는가

여럿 속에서 하나를 듣는 귀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같은 물음을 알아듣는 일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귀에 익은 말만 골라 들으면 공통점은 금세 엉뚱한 곳에 세워집니다. 모든 글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성실함, 겉모습 너머의 뿌리를 보려는 끈기가 바른 답을 만듭니다. 이 단원에서 기르는 것은 글솜씨이기 전에 바로 그 태도입니다.

2 핵심 해법

이 단원에서 쓰는 말

쟁점	글이 답하려는 물음. '무엇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무엇에 대해'에 해당한다.
공통 쟁점	여러 제시문이 함께 붙들고 있는 물음이나 주제. 논제에 따라 공통 주제, 공통 문제, 공통 요인이라고도 부른다.
핵심어	글의 쟁점을 이루는 개념어. 되풀이되거나 정의되는 말인 경우가 많다.
주제문	글쓴이의 생각이 가장 일반적인 꼴로 드러난 문장.
추상화 사다리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올라가는 단계. 공통 쟁점은 글의 생각을 담으면서 모든 제시문을 덮는 칸 가운데 가장 낮은 칸에서 찾는다.
대립 구도	글이 맞세우는 두 항. 좋음과 나쁨, 그들과 우리, 개인과 전체처럼 쟁점이 드러나는 자리다.

(1) 공통쟁점 추론 4단계

단계	할 일
STEP 1 논제 분석	논제가 이미 쟁점의 범위를 정해 주었는지 본다. '문자의 속성', '성공의 공통 요인'처럼 논제의 말이 곧 찾아갈 방향이다. 단서가 없으면 제시문에서 방향을 찾는다.
STEP 2 핵심어와 주제문 찾기	제시문마다 핵심어 두세 개와 주제문 한 문장을 찾는다. 이야기나 시라면 인물이나 화자가 무엇을 겪고 무엇을 깨닫는지를 개념어로 옮긴다.
STEP 3 대립 구도 읽기	글이 무엇과 무엇을 맞세우는지 본다. 한쪽만 말하는 글이라면 그 반대편을 떠올려 본다. '나쁨'을 말하는 글은 '좋음'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STEP 4 공통 쟁점 세우기	제시문마다 세운 쟁점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 찾은 공통점을 모든 제시문에 대보며 들어맞는지, 지나치게 넓거나 소재에 머물지 않는지 점검한다.

(2) 핵심어와 주제문을 찾는 기준

기준	이렇게 찾는다
논제가 짚은 말	논제에 나온 말(문자, 성공, 문제)이 들어간 문장부터 본다. 그 말을 가리키는 '이것', '그것'도 함께 따라간다.
되풀이되는 개념	여러 번 나오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 되풀이되는 개념이 핵심어일 가능성이 크다.
정의와 일반 진술	'~란 ~이다' 꼴이거나 '언제나', '모든'이 들어간 일반화된 문장이 주제문인 경우가 많다. 사례를 서술하는 문장은 주제문이 아니다.
전환과 결론의 자리	'그러나', '따라서', '결국' 뒤에 글쓴이의 생각이 놓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지만'의 앞부분은 양보이다.

(3) 추상화 사다리 — 알맞은 높이 찾기

세 편의 짧은 글이 있다고 합시다. 첫째 글은 개미 무리에서 일개미·병정개미·여왕개미가 저마다 다른 일을 맡아 무리를 지키는 모습을, 둘째 글은 여러 악기가 지휘에 맞추어 한 곡을 완성하는 오케스트라를, 셋째 글은 선수들이 패스로 이어질 때 이기는 축구 팀을 그립니다. 세 글의 공통점을 사다리의 높이에 따라 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높이	공통점	판정
너무 높음	세 글은 모두 세상의 일을 다룬다.	× 어느 글에나 들어맞아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는다.
알맞음	세 글은 모두 부분들이 저마다의 몫을 다하며 협력할 때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큰 힘을 낸다는 점을 보여 준다.	○ 세 글 모두에 들어맞고, 이 말만 들어도 각 글의 핵심이 떠오른다.
너무 낮음	세 글에는 모두 여럿이 모인 무리가 나온다.	× 소재가 같다는 것일 뿐, 글의 생각이 담기지 않았다.

공통 쟁점은 글의 생각을 담으면서 모든 제시문을 덮는 칸 가운데 가장 낮은 칸에서 찾습니다. 두 가지 물음으로 점검합니다. 첫째, 이 말을 각 제시문에 대 보면 모두 '그렇다'가 나오는가? 둘째, 이 말만 듣고도 제시문들의 핵심 생각이 떠오르는가? 첫째 물음에 걸리면 사다리를 한 칸 올라갑니다. 둘째 물음에 걸리면, 너무 넓은 말은 한 칸 내려오고 '무리가 나온다'처럼 소재만 같은 말은 그 소재가 보여 주는 생각까지 올라갑니다.

(4) 공통점의 두 갈래

제시문의 관계	공통 쟁점은 어디에 있는가	예
같은 주장을 하는 글들	주장들이 겹치는 부분이 곧 공통 쟁점이다. 사례가 서로 다르니 사례를 걷어 내고 남는 생각을 찾는다.	운동선수의 매일 훈련, 작가의 매일 쓰기 → '탁월함은 꾸준한 반복에서 나온다'
맞서는 주장을 하는 글들	주장끼리는 겹치지 않는다. 두 글이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곧 다툼의 대상이 공통 쟁점이다.	시험이 배움을 해친다는 글, 시험이 배움을 돕는다는 글 → '시험은 배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맞서는 글들에서 한쪽의 주장을 공통점으로 쓰면 다른 쪽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두 글이 함께 답하고 있는 물음을 찾습니다. 그 물음이 공통 쟁점이고, 두 글의 대답이 곧 차이점입니다. II단원에서 익힌 비교의 공통점과 같은 원리입니다.

(5) 답안은 이렇게 짓는다

순서	쓰는 법
① 공통 쟁점	첫 문장으로 밝힌다. '(가)~(다)는 모두 ~을 문제 삼는다', '공통 핵심어는 ~이다'처럼 쓴다.
② 제시문별 근거	제시문마다 그 쟁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두 문장으로 쓴다. 대개 제시문 순서를 따르고, 사례는 길게 옮기지 않고 그 사례가 보여 주는 생각을 쓴다.
③ 차이 (요구할 때)	논제가 차이까지 물으면, 같은 쟁점에 대해 각 제시문이 어떻게 다르게 답하는지 맞세운다. 관점이 같은 글끼리 묶어 쓰면 차이가 더 선명해진다.

> 앞의 세 글로 쓴 짧은 답안
>
> 세 글은 모두 부분들이 저마다의 몫을 다하며 협력할 때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큰 힘을 낸다는 점을 보여 준다. 첫째 글에서는 역할을 나눈 개미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 무리를 지키고, 둘째 글에서는 서로 다른 악기가 어울려 한 곡을 이루며, 셋째 글에서는 선수들이 패스로 이어질 때 승리를 거둔다.

(6) 자주 빠지는 함정

함정	이렇게 피한다
소재에 머문 공통점	'모두 물이 나온다', '모두 왕이 나온다'처럼 겉으로 같은 것은 공통 쟁점이 아니다. 그 소재로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찾는다.
너무 넓은 공통점	'모두 인간에 관한 글이다'는 틀리지 않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사다리를 한 칸 내려온다.
한 글에만 맞는 공통점	가장 인상 깊은 제시문 하나의 주장을 공통점으로 쓰기 쉽다. 찾은 공통점을 모든 제시문에 대 본다.
맞서는 주장을 하나로 묶기	서로 반대되는 글에서 한쪽 주장을 공통점으로 쓰면 다른 쪽과 어긋난다. 다툼의 대상을 찾는다.
근거 없는 공통점	공통 쟁점만 쓰고 끝내면 왜 그것이 공통인지 보이지 않는다. 제시문마다 근거를 붙인다.
이야기를 줄거리로 옮기기	소설이나 시의 줄거리를 옮기는 것은 근거가 아니다. 인물이나 화자의 경험이 보여 주는 생각을 개념어로 쓴다.

(7) 공통 쟁점을 드러내는 표현

쓰임	쓸 수 있는 표현	이럴 때 쓴다
공통 쟁점	(가)~(다)는 모두 ~을 문제 삼는다 / ~라는 물음을 함께 다룬다 / 공통 주제는 ~이다	첫 문장에서 공통 쟁점을 밝힐 때
근거	(가)에서는 ~로, (나)에서는 ~로 드러난다 / ~을 통해 보여 준다	제시문마다 근거를 붙일 때
개념화	~의 사례는 ~을 보여 준다 / ~라는 점에서	사례를 개념으로 바꿀 때
차이	다만 ~에서 갈린다 / 같은 ~을 두고 (가)는 ~, (나)는 ~	공통점 위에서 차이를 밝힐 때

3 시범 — 두 제시문에서 공통 속성 찾기

시범 350자 내외

(가)와 (나)에 공통으로 드러난 문자의 속성은 무엇이며, 그 속성이 두 제시문에서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 설명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736자 · (나) 695자 · 합계 1,431자

(가) 파이드로스, 옛 이집트의 신 테우트가 문자를 만들어 타무스 왕에게 바치며 말했다네. "이것은 사람들을 더 지혜롭게 하고 기억을 돕는 약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답했지. "아니다. 문자를 배운 사람들은 기억을 쓰지 않게 되어 도리어 잘 잊게 될 것이다. 자기 안에서 떠올리지 않고 바깥의 글자에 기대게 될 테니, 그대가 찾은 것은 기억의 약이 아니라 떠올림을 돕는 약일 뿐이다."

글에는 그림과 닮은 곤란한 점도 있다네. 그림 속 인물들은 살아 있는 듯 서 있지만, 무엇을 물어보면 점잖게 입을 다물 뿐이지. 글도 마찬가지일세. 글은 무언가를 아는 듯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싶어 되물으면 언제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네.

게다가 글은 한번 쓰이고 나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든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든 가리지 않고 굴러다니네.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하고 누구에게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 그래서 오해를 사거나 부당하게 비난을 받아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늘 그 글을 쓴 아버지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네.

참된 앎은 이렇게 전해지지 않네.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그가 무엇을 묻는지 듣고, 그에게 맞는 말을 골라 건네야 하지. 그렇게 상대에 맞추어 말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앎은 배우는 사람의 영혼에 새겨진다네. 글은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없으니, 글로만 배운 사람은 많은 것을 들은 듯해도 실은 아는 것이 없으면서 지혜로운 척하게 되기 쉽다네.

—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근대 이전 우리 사회에서 글은 소수의 것이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식은 한문으로 쓰였고, 한문을 익히려면 오랜 세월과 넉넉한 살림이 필요했다. 책 한 권을 얻으려 해도 손으로 베끼거나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 한글을 깨친 백성도 있었지만 과거 시험도, 관청의 문서도 한문의 몫이었다. 한문을 안다는 것은 곧 신분의 표시였고, 지식은 글을 가진 사람들의 담장 안에 머물렀다.

근대에 들어 사정이 달라졌다. 인쇄기가 신문과 교과서를 쏟아 내고 곳곳에 학교가 세워지면서, 농사꾼과 장사꾼의 자식들까지 글을 깨치기 시작했다. 글은 그것을 읽는 사람이 양반인지 상민인지 묻지 않는다. 같은 신문은 대감의 사랑방에서나 장터의 주막에서나 똑같은 내용을 전한다. 한글로 찍어 낸 신문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같은 기사를 읽고 나랏일을 두고 저마다 의견을 나누었다. 몇몇 사람의 입과 귀를 거쳐야 겨우 닿던 지식이, 이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모습으로 도착하게 된 것이다.

> 물론 그 대가도 있었다. 이제는 글을 모르면 일상을 꾸리기조차 어려워졌다. 문서와 간판과 계약서가 삶을 둘러싸면서, 문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힘 덕분에 지식은 특정 신분의 독점에서 풀려났다. 누구나 같은 글을 읽고 그것을 두고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된 일, 그것은 앎의 민주주의라 부를 만한 변화였다.
>
> — 한국 근대의 문자 보급에 관한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STEP 1 논제 분석 — 무엇을 찾으라는가

논제가 이미 범위를 정해 주었습니다. 찾을 것은 문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문자의 **속성**이고, 그것은 두 제시문이 함께 인정하는 성질이어야 합니다. 뒷부분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같은 속성을 두고 두 글이 갈리는 지점, 곧 차이를 쓰라는 뜻입니다.

STEP 2 핵심어와 주제문 찾기

제시문	핵심어와 단서 표현	주제문 (내 말로)
(가)	글, 대화, 참된 앎 단서 '가리지 않고', '똑같은 말만'	글은 상대를 가리지 못하고 되물어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므로 참된 앎을 전할 수 없다.
(나)	신분, 독점, 앎의 민주주의 단서 '묻지 않는다', '같은 모습'	문자가 신분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퍼지면서 지식이 독점에서 풀려났다.

함정 확인

(가)의 첫 문단은 문자가 **기억**을 약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상이 강해서 이것을 공통 속성으로 쓰고 싶어지지만, (나)는 기억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한 글에만 들어맞는 것은 공통점이 아닙니다. 또 (나)의 셋째 문단 '물론 그 대가도 있었다'는 양보이고, (나)의 생각은 '그러나' 뒤에 있습니다.

STEP 3 대립 구도 읽기

제시문	맞세우는 두 항	무게 중심
(가)	글 ↔ 대화	대화의 좋음을 바탕에 두고 글의 나쁜 점을 깊이 파고든다.
(나)	근대 이전, 소수의 글 ↔ 근대, 모두의 글	모두의 글이 된 변화를 지식의 해방으로 본다.

STEP 4 공통 쟁점 세우기 — 다툼의 대상 찾기

두 글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한쪽의 주장은 공통점이 될 수 없습니다. 두 글이 **무엇을 두고** 갈리는지 찾아야 합니다. (가)는 글이 읽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굴러다니며 '언제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고 탓하고, (나)는 글이 읽는 사람이 '양반인지 상민인지 묻지 않는다'며 누구에게나 '같은 모습으로 도착'한다고 반깁니다. 두 글이 가리키는 성질은 하나입니다.

후보	공통 속성	판정
너무 넓음	두 글은 모두 문자에 대해 말한다.	× 화제일 뿐 속성이 아니다.
한쪽에만 맞음	문자는 참된 앎을 전하지 못한다.	× (가)의 주장이다. (나)와 어긋난다.
한쪽에만 맞음	문자는 기억을 약하게 만든다.	× (가)에만 있는 이야기다.
알맞음	문자는 한번 쓰이면 고정된 채, 읽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전해진다.	○ 두 글이 모두 인정하는 성질이고, 평가가 갈리는 바로 그 지점이다.

서술 공통 속성 → 차이의 순서로

예시답안 공백 포함 358자 · 압축률 약 4:1

(가)와 (나)에 공통으로 드러난 문자의 속성은, 한번 쓰인 내용이 고정된 채 읽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전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글은 이 속성을 정반대로 평가한다. (가)는 이를 문자의 결함으로 본다. 참된 앎은 배우는 사람의 물음에 맞추어 말을 건네는 대화로 전해지는데, 문자는 상대를 가리지 못하고 되물어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므로 앎의 겉모습만 남겨 사람을 지혜로운 척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같은 속성을 문자의 힘으로 본다. 글을 모르면 살기 어려워지는 대가가 따랐지만, 문자가 신분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같은 내용을 전한 덕분에 소수가 독점하던 지식이 널리 퍼져 앎의 민주주의가 열렸다는 것이다.

답안의 문장	하는 일
첫째 문장	공통 속성을 한 문장으로 밝혔다. 논제의 말 '문자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 썼다.
둘째 문장	두 글의 평가가 정반대임을 예고했다.
셋째·넷째 문장	(가)의 평가: 같은 속성을 결함으로 보는 까닭을 썼다. 그림·아버지의 비유는 지웠다.
다섯째·여섯째 문장	(나)의 평가: 양보(대가)를 짧게 인정하고, 같은 속성을 힘으로 보는 까닭을 썼다.

4 단계 훈련 — 세 제시문의 공통 문제 찾기

단계 훈련 300자 내외

(가)~(다)에 공통으로 나타난 문제를 찾아 한 문장으로 밝히고, 그 문제가 각 제시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하시오. 아래 활동 ①~④를 차례로 해결한 뒤, 활동 ⑤에서 답안을 쓰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473자 · (나) 370자 · (다) 393자 · 합계 1,236자

(가) 누구나 소를 풀어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고 하자. 목동들은 저마다 이익을 따져 본다. 소를 한 마리 더 풀어놓으면 그 소가 가져다주는 이익은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된다. 반면 풀이 줄어드는 손해는 목초지를 함께 쓰는 모든 목동이 나누어 진다. 그러니 어느 목동에게나 소를 한 마리 더 늘리는 편이 이득이다. 목동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이 계산은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모든 목동이 똑같이 생각한다는 데 있다. 풀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걱정하는 목동도 있지만, 자기가 소를 덜 풀어놓아도 다른 목동들이 그만큼 더 풀어놓을 것이라 여겨 멈추지 않는다. 저마다 소를 늘리는 사이 풀은 뿌리까지 뜯기고, 목초지는 끝내 아무도 쓸 수 없는 맨땅이 된다. 바다의 물고기나 함께 마시는 우물물, 모두가 숨 쉬는 공기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원에서 이런 일은 되풀이된다. 각자가 제 이익을 좇을 자유가 주어진 공유지에서, 그 자유는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

— 개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야구장 관중석 앞줄의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는 선 채로 경기를 더 잘 보게 된다. 그러자 뒷줄 사람의 시야가 가린다. 뒷줄 사람도 일어서고, 그 뒷줄도 일어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중 모두가 서서 경기를 본다. 그런데 모두가 서 있으니 결국 누구도 앉아서 볼 때보다 더 잘 보지 못한다. 달라진 것은 모두의 다리가 아프다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혼자 다시 앉을 수도 없다. 남들이 모두 서 있는데 혼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모두가 선 채로 버틴다.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누구도 남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 사람에게는 분명 옳았던 선택이, 모두의 선택이 되자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다.

— 경제학에서 흔히 드는 관중석 비유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다) 절약은 오랫동안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한 가정이 씀씀이를 줄여 저축을 늘리면 그 가정의 살림은 탄탄해진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질 때 모든 가정이 한꺼번에 지갑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일자리를 줄인다. 손님이 끊긴 가게는 문을 닫는다.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이 깎인 가정은 앞날이 불안해져 더욱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렇게 사회 전체의 소득이 줄어들면, 저마다 아끼고 아꼈는데도 사회 전체가 모은 저축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케인스가 강조한 이 현상을 '절약의 역설'이라 한다. 어느 가정의 처지에서 보아도 아끼는 것은 나무랄 데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데도 한 가정에는 현명한 선택이 모든 가정의 선택이 될 때,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케인스의 '절약의 역설'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STEP 2 **활동 ① 제시문마다 핵심어 두 개와 주제문 한 문장을 쓰시오.**

제시문	핵심어	주제문 (내 말로)
(가)		
(나)		
(다)		

STEP 3 **활동 ② 세 제시문이 공통으로 맞세우는 두 항을 쓰시오.**

두 항 ( ) ↔ ( )

STEP 4 **활동 ③ 함정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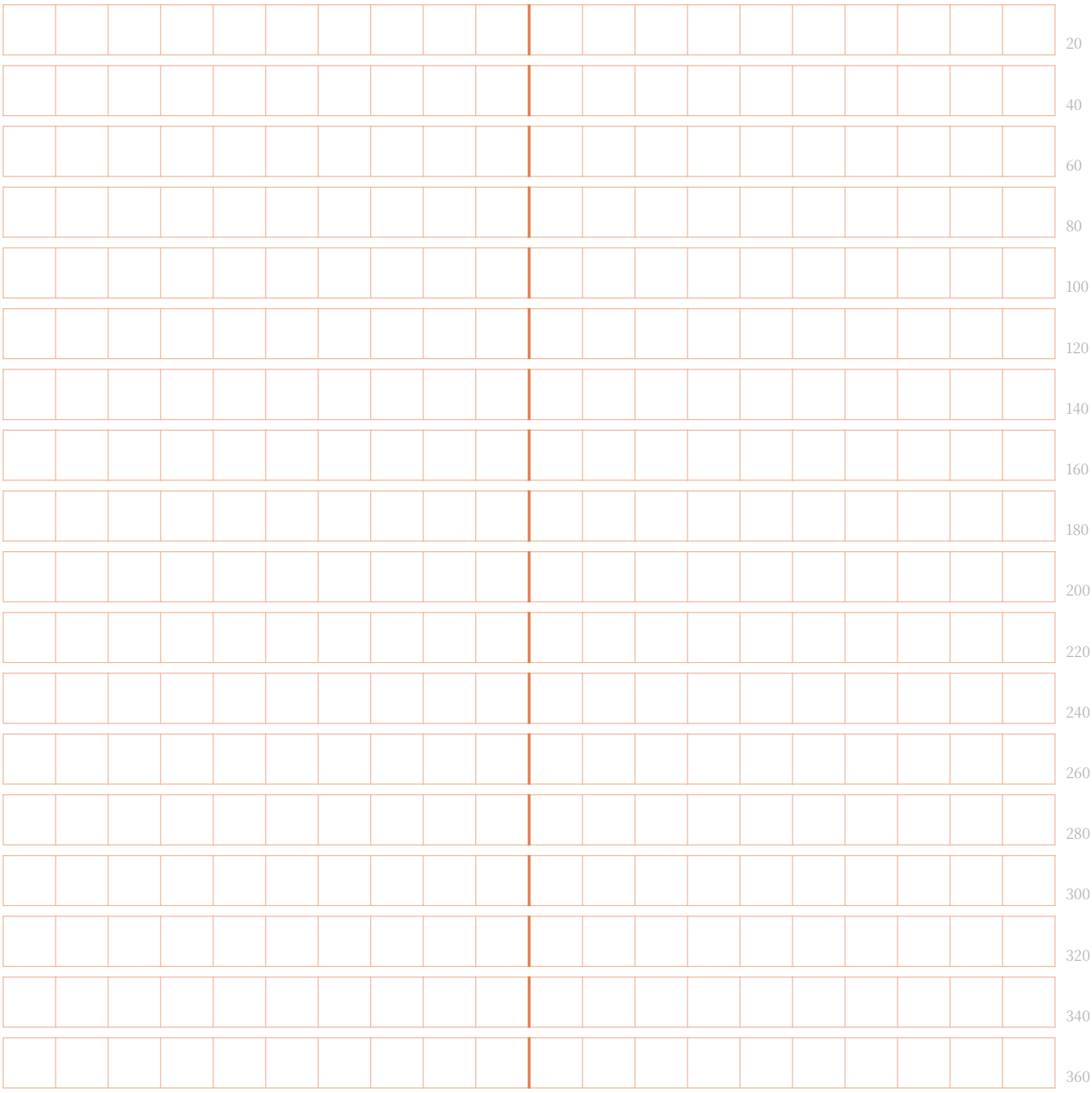
어떤 학생이 세 제시문의 공통 문제를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썼다. 이 답이 부족한 까닭을 (다)를 근거로 쓰시오.

STEP 4 **활동 ④ 추상화 사다리를 채우고, 공통 문제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높이	공통 문제
너무 높음	
알맞음	
너무 낮음	

서술 **활동 ⑤ 300자 내외로 쓰시오.** 20칸 × 18줄 = 36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5 실전

이제 시간을 재고 혼자 씁니다. 묻는 꼴은 공통 핵심어, 공통 요인, 공통 주제와 차이로 바뀌지만, 할 일은 같습니다. 모든 제시문을 덮으면서 글의 생각을 담은 가장 낮은 칸을 찾고, 제시문마다 근거를 붙이는 것입니다. 해설은 7절에 있으니 다 쓴 뒤에 확인하십시오.

문항	제시문	답안	시간	이번에 새로 요구하는 것
연습 1 공통 핵심어	2편 · 1,169자	300자	15분	두 글을 꿰뚫는 개념어 하나를 고르고, 그 까닭을 두 글에서 밝히기
연습 2 공통 요인	2편 · 1,424자	350자	20분	서로 다른 두 사례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같은 원인 추론하기
연습 3 공통 주제와 차이	4편 · 1,994자	500자	25분	문학 제시문을 포함한 네 글에서 공통 주제를 세우고 관점의 차이 밝히기

연습 1 · 공통 핵심어 300자 내외 · 제한 시간 15분

(가)와 (나)의 공통 핵심어를 제시하고, 그것이 핵심어인 까닭을 두 제시문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제나라 경공이 사냥에서 돌아와 누대에서 쉬고 있을 때, 신하 양구거가 말을 달려 찾아왔다. 경공이 말했다. "오직 양구거만이 나와 잘 어울리는구나." 곁에 있던 안자가 대답했다. "양구거는 임금님과 같아지려 할 뿐입니다. 어찌 어울린다 하겠습니까?" 경공이 물었다. "어울리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 다르단 말이오?"

안자가 말했다. "다릅니다. 어울림은 국을 끓이는 일과 같습니다. 물과 불, 식초와 젓갈, 소금과 매실로 생선과 고기를 삶되, 장작으로 불을 때고 요리사가 맛을 고르게 하여 모자란 것은 보태고 지나친 것은 덜어 냅니다. 그래서 군자가 그 국을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도 그렇습니다. 임금이 옳다고 하는 것에 그른 점이 있으면 신하는 그 그른 점을 아뢰어 옳은 일을 이루게 하고, 임금이 그르다고 하는 것에 옳은 점이 있으면 그 옳은 점을 아뢰어 그른 것을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양구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이 옳다 하면 그도 옳다 하고, 임금님이 그르다 하면 그도 그르다 합니다. 물로 물의 간을 맞추면 누가 그것을 먹겠으며, 거문고와 비파가 한 소리만 낸다면 누가 그것을 듣겠습니까? 같아지기만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은 이와 같습니다."

— 『춘추좌씨전』의 안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숲을 빨리 가꾸려고 한 가지 나무만 줄지어 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숲은 나무가 고르게 자라고 관리하기도 쉽다. 그러나 그 가지런함에는 약점이 숨어 있다. 같은 나무들은 같은 병에 약하고 같은 해충을 끌어들인다. 병 하나가 번지면 숲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실제로 한 종만 빽빽이 심은 숲에 해충이 한 번 퍼져 넓은

면적의 나무가 말라 죽는 일은 드물지 않다. 19세기 아일랜드에서 몇 안 되는 품종의 감자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 감자 역병 앞에서 큰 기근을 겪은 것도 같은 이치다.

여러 나무와 풀이 섞여 자라는 숲은 다르다. 키 큰 나무가 햇빛을 받는 동안 그 그늘에서는 그늘을 좋아하는 풀이 자라고, 땅속에서는 서로 다른 깊이로 뻗은 뿌리가 물과 양분을 나누어 쓴다. 어떤 나무가 병에 걸려도 다른 나무가 그 빈자리를 메운다. 가뭄에 강한 종과 추위에 강한 종이 섞여 있으니, 어떤 재해가 닥쳐도 숲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생명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모자란 곳을 채워 줄 때, 숲은 어느 한 종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튼튼함을 얻는다. 생태학자들은 이런 숲을 회복력이 높은 숲이라 부른다.

— 생태학의 생물 다양성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메모 **쓰기 전에 — 후보 핵심어를 사다리에 올려 보기**

후보 핵심어	(가)에 맞는가	(나)에 맞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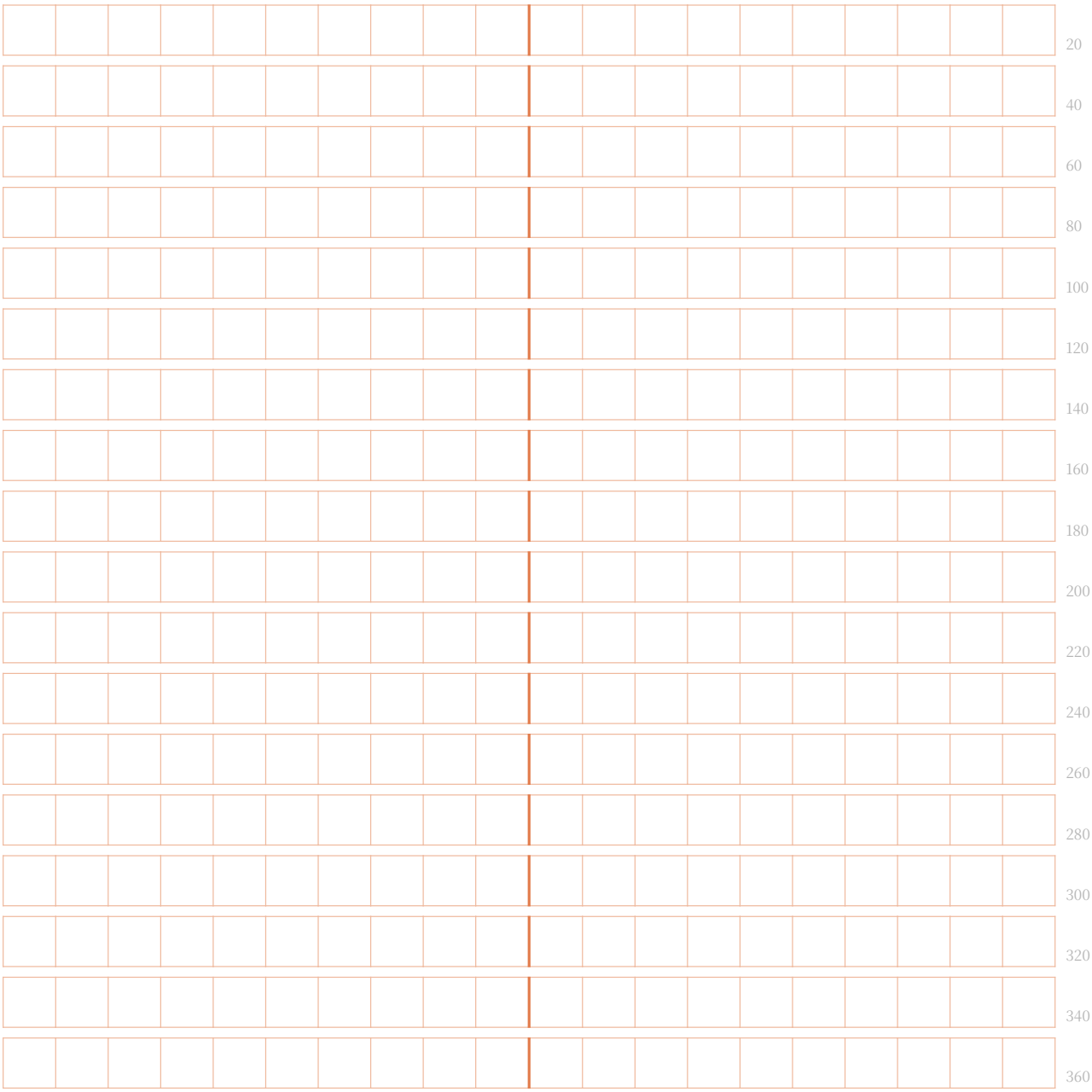
핵심어

(가) 근거

(나) 근거

연습 1 답안지 · 300자 내외 20칸 × 18줄 = 36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연습 2 · 공통 요인 350자 내외 · 제한 시간 20분

(가)와 (나)에서 세종과 도요타가 거둔 성공의 공통 요인을 찾아, 두 제시문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세종이 즉위했을 무렵 조선에서는 관리가 해마다 논밭에 나가 농사 형편을 살펴보고 토지세를 정했다. 그러나 관리의 눈대중에 따라 세금이 오르내리다 보니 뇌물과 부정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은 관리의 눈대중에 맡기지 않고 땅의 넓이에 따라 미리 정한 일정한 양을 거두는 새 제도, 곧 공법을 구상했다.

세종은 이 제도를 곧바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과거 시험에 공법의 장단점을 묻는 문제를 내기도 했고, 전국의 관리와 백성에게 새 제도에 찬성하는지 묻게 했다. 벼슬아치부터 시골의 농민까지 십수만 명의 뜻이 모였고,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그런데 결과를 지역별로 보니, 땅이 기름진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이었지만, 척박한 평안도와 함길도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땅의 형편을 가리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메마른 땅을 가진 농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었다.

세종은 찬성이 더 많다고 해서 곧바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반대하는 이들의 사정을 따져 보게 하고, 신하들과 오랫동안 토론을 이어 갔다. 그 결과 땅의 비옥한 정도를 여섯 등급으로, 그해의 작황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달리 매기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새 방안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해 보며 문제를 살핀 뒤에 차례로 넓혀 나갔다. 처음 논의를 시작한 때로부터 제도가 확정되기까지는 십수 년이 걸렸지만, 이렇게 다듬어진 공법은 이후 오랫동안 조선 세제의 바탕이 되었다.

— 세종 대 공법 제정 과정에 관한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다. 라인이 멈추면 그만큼 생산량이 줄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공장에서는 작업자가 문제를 발견해도 일단 차를 다음 공정으로 넘겼고, 불량은 맨 마지막 검사에서야 걸러졌다. 그때는 이미 수많은 차에 같은 결함이 들어간 뒤였다.

도요타는 다른 길을 택했다. 조립 라인 위에 줄을 매달고, 이상을 발견한 작업자는 누구든 그 줄을 당기게 했다. 줄이 당겨지면 경고등이 켜지고 조장이 곧바로 달려온다.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라인이 멈춘다. 라인이 한 번 멈추면 수십 명의 손이 함께 멈추지만, 도요타는 그 손실을 감수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업자와 관리자가 함께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거듭 물으며 원인을 찾는다.

처음에는 라인이 자주 멈추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 자리에서 곧바로 원인을 고치다 보니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았고, 라인은 갈수록 덜 멈추었다. 도요타에서 줄을 당긴 작업자는 꾸중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를 받는다. 문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현장의 작업자이고, 그가 입을 열 수 있어야 문제가 커지기 전에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다른 공장들이 이 줄만 본떠 달았을 때, 줄을 당겼다가 꾸중을 들은 작업자들은 곧 줄을 당기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줄이 아니라 줄을 당길 수 있는 분위기가 핵심이었던 셈이다. 이 방식은 도요타가 품질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로 이름을 얻는 바탕이 되었다.

— 도요타 생산 방식의 '안돈' 제도에 관한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메모 **쓰기 전에 — 사례를 걷어 내고 남는 것**

물음	(가) 세종	(나) 도요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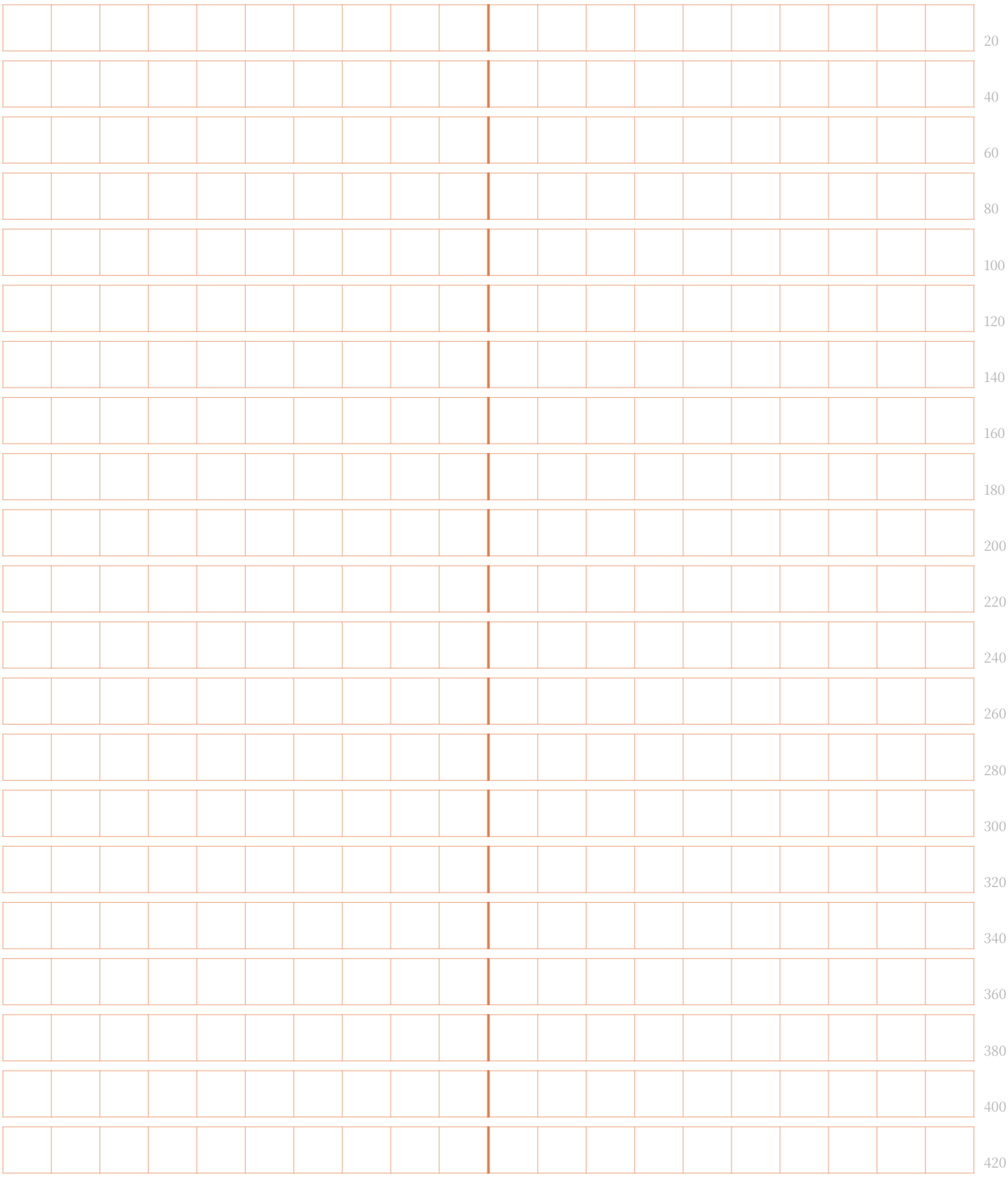
공통 요인

(가) 근거

(나) 근거

연습 2 답안지 · 350자 내외 20칸 × 21줄 = 42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연습 3 · 공통 주제와 차이 500자 내외 · 제한 시간 25분

(가)~(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통 주제를 도출하고, 그 주제에 대한 각 제시문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어느 겨울날, 추위에 떨며 집에 돌아온 나에게 어머니가 차를 권했다. 나는 별생각 없이 홍차에 적신 작은 과자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기쁨이 나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두 번째, 세 번째 모금을 마셨지만 기쁨은 점점 옅어질 뿐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문득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콩브레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레오니 아주머니가 홍차나 보리수차에 적셔 건네주던 바로 그 과자의 맛이었다. 그 기억은 내가 애써 불러낸 것이 아니라 맛이 불러낸 것이었다. 그러자 아주머니의 방과 오래된 회색 집, 광장과 골목, 마을 사람들과 정원의 꽃들이 찻잔 속에서 한꺼번에 솟아올랐다. 아무리 애써 떠올리려 해도 떠오르지 않던 시간이, 우연히 맛본 과자 한 조각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사람들이 죽고 물건들이 흩어진 뒤에도 냄새와 맛은 오래도록 남아, 잃어버린 시간을 고스란히 되돌려 준다.

—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풀을 뜯는 소 떼를 보라. 소들은 어제가 무엇이고 오늘이 무엇인지 모른 채 뛰놀고, 먹고, 쉬고, 다시 뛰논다. 순간의 말뚝에 묶여 있으니 우울도 권태도 모른다. 아직 잊을 과거가 없는 어린아이도 과거와 미래의 울타리 사이에서 행복하게 논다. 인간은 이 모습을 부러워한다. 인간은 잊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언제나 지나간 것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멀리, 아무리 빨리 달아나도 과거라는 사슬이 함께 달린다.

그러나 잊을 수 없다면 행복도 없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지금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 안의 상처와 후회에 짓눌려 끝내 아무것도 새로 시작하지 못한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지쳐 가듯, 지나간 일을 끝없이 되새기는 정신은 삶을 갉아먹는다. 건강한 삶에는 지나간 것을 소화하여 제 것으로 만들고,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는 힘이 필요하다. 과거는 그것이 삶에 이바지하는 만큼만 기억되어야 한다.

—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다) 오랫동안 인간에게 기억은 어렵고 망각은 쉬웠다. 무언가를 남기려면 돌에 새기거나 종이에 적어 간수해야 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혔다. 디지털 기술은 이 관계를 뒤집었다. 오늘 올린 사진과 글은 서버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검색창에 이름 하나만 넣으면 십 년 전의 일도 어제 일처럼 되살아난다. 이제는 기억이 기본이 되고, 망각은 애써야 얻을 수 있는 예외가 되었다.

이 변화는 사람을 과거에 묶어 둔다. 오래전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기사가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맨 위에 뜬다면 어떨까. 학창 시절의 실수, 이미 갚은 빚, 오래전에 바뀐 생각이 지워지지 않은 채 따라다니면 사람은 달라질 기회를 잃는다. 지나간 잘못을 시간이 덮어 주던 너그러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되어

더는 의미가 없는 자기 정보를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논의되고 있다. 망각은 이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지켜야 할 권리가 되었다.

— 디지털 기억과 '잊힐 권리'에 관한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라) 독일의 여러 도시를 걷다 보면 보도블록 사이에 박힌 손바닥만 한 놋쇠 판을 만나게 된다. 판에는 대개 한 사람의 이름과 태어난 해, 끌려간 해와 숨진 곳이 새겨져 있다. 나치에게 박해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살았던 집 앞에 놓인 이 판을 사람들은 '걸림돌'이라 부른다. 판은 해마다 늘어나 이제는 유럽 곳곳의 거리에 놓여 있다. '걸림돌'은 광장 한가운데 우뚝 선 기념비와 다르다. 사람들이 날마다 오가는 길 위, 일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무심히 걷던 사람은 거기서 발에 걸리듯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이름을 읽는다.

공동체가 겪은 고통의 기억은 무겁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덮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잊힌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된다. 희생자를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같은 폭력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오늘의 다짐이다. 기억은 공동체가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다.

— 독일의 '걸림돌' 기념 사업과 기억의 윤리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메모 **쓰기 전에 — 제시문마다 한 줄, 공통 주제는 그다음**

제시문	이 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 줄)	관점
(가)		
(나)		
(다)		
(라)		

공통 주제

연습 3 답안지 · 500자 내외 20칸 × 29줄 = 5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500
520
540
560
580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답안을 다 썼으면 먼저 스스로 채점합니다.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점수를 잃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세 번 넘어진다면, 그 자리가 바로 다음 수업의 과제입니다.

영역	배점	만점 기준	이럴 때 깎인다
내용	5	공통 쟁점이 모든 제시문에 들어맞고 수준이 알맞다(2). 제시문마다 근거를, 논제가 요구하면 차이까지 정확히 밝혔다(3).	공통 쟁점이 한 제시문에만 맞거나 소재 수준에 머물면 내용은 1점(다른 내용 감점은 더하지 않는다). '인간', '시간'처럼 지나치게 넓으면 −1. 제시문 하나의 근거나 관점이 빠지거나 틀릴 때마다 −1. 논제가 요구한 차이를 밝히지 않으면 −1.
구성	2	공통 쟁점 → 제시문별 근거 → (차이)의 흐름이 분명하고, 근거가 모두 쟁점을 받친다.	공통 쟁점을 끝에 가서야 밝혔다 −1. 제시문 요약을 늘어놓기만 했다 −1.
표현	2	사례와 이야기를 개념어로 바꾸어 썼고, 문장이 정확하다.	10자 이상 그대로 옮긴 구절이 두 곳 이상 −1. 의견·감상·당부가 섞였다 −1.
형식	1	분량이 ±10% 안에 있고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다.	분량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원고지를 잘못 썼다 −1.

한 가지 잘못은 한 영역에서만 깎습니다. 공통 쟁점이나 관점을 틀리게 잡은 잘못은 내용에서, 답안에 섞인 의견·감상·당부는 표현에서 깎습니다. 이 채점표는 바른에듀케이션 수업용 기준입니다. 대학별 실제 채점 기준은 『합격 포인트』 시리즈에서 확인합니다.

■ 제출 전 자기 점검

- ☐ 공통 쟁점을 첫 문장에 한 문장으로 밝혔다.
- ☐ 그 공통 쟁점을 제시문마다 대 보았다. 모두 '그렇다'가 나온다.
- ☐ '인간', '삶', '시간'처럼 아무 글에나 맞는 말로 끝내지 않았다.
- ☐ 소재가 아니라 글의 생각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 ☐ 맞서는 주장을 하는 글들에서는 다툼의 대상을 공통 쟁점으로 삼았다.
- ☐ 제시문마다 공통 쟁점이 드러나는 근거를 빠짐없이 썼다. 차이를 물으면 차이까지 썼다.
- ☐ 사례와 이야기를 개념어로 바꾸어 썼다. 제시문과 10자 이상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이 없고, 내 의견을 넣지 않았다.
- ☐ 분량을 지켰다. 공백을 포함해 세었고, 문단 첫 칸을 비웠다.

7 답안 비교와 해설

연습 3에 대한 세 학생의 답안입니다. 형광 표시는 제시문의 한 문장과 10자 이상(띄어쓰기 제외)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세 답안을 가른 것은 문장 솜씨가 아니라 **공통 주제를 세운 높이**였습니다.

상 · 10점 학생 A — 알맞은 높이의 공통 주제 공백 포함 473자

> 네 제시문의 공통 주제는 기억과 망각이 인간의 삶에서 지니는 의미이다. (가)는 우연히 맛본 과자의 맛이 어린 시절을 통째로 되살려 내는 경험을 통해, 의지로는 떠올릴 수 없던 지난 시간을 감각이 되찾아 준다고 말한다. 기억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다. (나)는 과거를 잊지 못하는 인간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후회에 짓눌린다고 보고, 지나간 것을 소화하고 잊는 힘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는 디지털 시대에는 기록이 지워지지 않아 사람이 과거의 실수에 묶이고 달라질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망각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라)는 나치 피해자의 이름을 새긴 놋쇠 판을 예로 들어, 공동체가 고통의 기억을 지켜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기억은 공동체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이처럼 (가)와 (라)는 기억을, (나)와 (다)는 망각을 삶에 필요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서로 갈린다.

내용 공통 주제를 '기억과 망각이 인간의 삶에서 지니는 의미'로 알맞게 세웠고, 네 제시문의 관점을 모두 정확히 잡았다. 특히 (나)와 (다)가 망각 쪽에 선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구성 공통 주제 → 제시문별 관점 → 두 갈래로 정리하는 흐름이 분명하다.

표현 제시문 문장을 옮긴 곳이 없다. 이야기인 (가)도 줄거리가 아니라 그 경험이 뜻하는 바로 바꾸어 썼다.

점수 내용 5 · 구성 2 · 표현 2 · 형식 1

더 나아지려면 제시문 순서대로 관점을 늘어놓은 뒤 끝에서야 두 갈래로 묶었다. 기억 쪽 (가)·(라)와 망각 쪽 (나)·(다)로 먼저 묶어 쓰고, (가)·(나)는 개인의 마음속 기억과 망각을, (다)·(라)는 사회의 기록과 공동체의 기억을 다룬다는 점까지 짚으면 관점의 차이가 훨씬 선명해진다.

중 · 5점 학생 B — 너무 넓은 주제, 줄거리 옮기기 공백 포함 487자

> 네 제시문은 모두 시간에 관한 글이다. (가)에서 나는 홍차에 적신 작은 과자 한 조각을 먹고 어린 시절 콩브레에서 레오니 아주머니가 주던 과자의 맛을 떠올린다. 그러자 아주머니의 방과 오래된 회색 집, 광장과 골목, 마을 사람들과 정원의 꽃들이 한꺼번에 떠오른다. (나)는 소 떼가 어제와 오늘을 모른 채 뛰놀기 때문에 우울도 권태도 모른다고 하며, 인간은 잊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언제나 지나간 것에 매달린다고 한다. 그래서 잊을 수 없다면 행복도 없다고 말한다. (다)는 검색창에 이름 하나만 넣으면 십 년 전의 일도 어제 일처럼 되살아나는 디지털 기술 때문에 기억이 기본이 되고 망각은 애써야 얻을 수 있는 예외가 되었다고 하며, 잊힐 권리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라)는 독일의 걸림돌을 소개하며, 잊힌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므로 공동체가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네 제시문은 시간이 흘러도 과거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내용 공통 주제를 '시간'으로 잡아 지나치게 넓다(−1). 논제가 요구한 관점의 차이를 밝히지 않고 제시문 내용을 옮기는 데 그쳤고(−1), (가)는 줄거리만 옮겨 기억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다(−1).

구성 네 제시문을 차례로 옮겨 늘어놓았다(−1). 끝 문장 '시간이 흘러도 과거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네 글의 차이를 지워 버린다.

표현 콩브레, 소 떼, 걸림돌 같은 사례를 그대로 옮겼고, 제시문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구절이 여러 곳이다(−1).

점수 내용 2 · 구성 1 · 표현 1 · 형식 1

하 · 2점 **학생 C — 소재로 묶고 거꾸로 읽기** 공백 포함 367자

> 네 제시문은 모두 옛날 일을 떠올리는 이야기이다. (가)의 나는 홍차에 적신 작은 과자 한 조각을 먹고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과자 하나로 고향 마을 전체가 떠오른 것이다. (나)는 인간은 소 떼와 달리 과거를 기억하는 존재라고 하며, 과거라는 사슬이 함께 달린다고 말한다. (다)는 검색창에 이름 하나만 넣으면 십 년 전의 일도 어제 일처럼 되살아난다고 한다. (라)는 독일의 도시에 있는 걸림돌을 보며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네 제시문은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는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모두 역사를 잊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내용 '옛날 일을 떠올리는 이야기'는 소재 수준의 공통점이라 내용은 1점이다. 게다가 (나)와 (다)는 오히려 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를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로 거꾸로 읽었다. (나)의 '과거라는 사슬'은 기억이 인간을 괴롭힌다는 뜻이다.

구성 제시문을 하나씩 옮겨 늘어놓기만 했다(−1).

표현 제시문을 그대로 옮긴 구절이 여러 곳이고(−1), 마지막 두 문장은 논제가 요구하지 않은 자기 의견과 당부다(−1).

형식 500자 내외 문항에 367자다. 범위(450~550자)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1).

점수 내용 1 · 구성 1 · 표현 0 · 형식 0

세 답안이 알려 주는 것

학생 C는 소재로 묶었고, 묶은 뒤에는 글을 거꾸로 읽었다. 공통점을 먼저 정해 놓고 글을 거기에 끼워 맞춘 탓이다.

학생 B는 네 글을 빠짐없이 읽었지만, '시간'이라는 넓은 말로 덮어 버려 글마다 다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학생 A는 알맞은 높이에서 공통 주제를 세우고, 그 위에서 네 글의 대답을 구별했다. 공통쟁점 추론의 실력은 바로 '알맞은 높이'를 찾는 데서 갈린다.

단계 훈련 해설 · 세 제시문의 공통 문제

- **활동** ① 세 제시문의 핵심어와 주제문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핵심어	주제문
(가)	공유지, 자기 이익	각자가 제 이익을 좇으면 모두가 함께 쓰는 자원이 망가져 모두가 손해를 본다.
(나)	한 사람의 선택, 모두의 선택	한 사람에게 옳은 선택도 모두가 하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다.
(다)	절약, 역설	한 가정에는 현명한 절약도 모든 가정이 하면 사회 전체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 **활동** ② 한 사람(개인)의 선택 ↔ 모든 사람(전체)의 선택.
- **활동** ③ (다)의 절약은 이기심이 아니라 미덕으로 여겨지는 선택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문제의 뿌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개인에게 옳은 선택이 모이면 전체에 해롭게 바뀌는 구조에 있다. (나) 역시 '누구도 남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기심'은 (가)에는 들어맞지만 (나)와 (다)에는 맞지 않는다.
- **활동** ④ 너무 높음: 세 글은 모두 사회 문제를 다룬다. 알맞음: 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모든 사람의 선택이 되면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너무 낮음: 세 글에는 모두 여러 사람이 나온다(소재일 뿐이다).

버릴 층위 바다의 물고기·우물물·공기의 예, 관중석의 장면 묘사, 손님이 끊긴 가게, '케인스'라는 인물 정보. **한 걸음 더** 이런 문제를 경제학에서는 '구성의 오류'라고도 부른다. 개념의 이름을 몰라도 그 구조를 정확히 쓰면 충분하다.

> **활동 ⑤ 예시답안** 공백 포함 312자 · 압축률 약 4:1
>
> (가)~(다)에 공통으로 나타난 문제는,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 모든 사람의 선택이 되면 오히려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가)에서 목동은 소를 늘린 이익은 혼자 갖고 손해는 나누어 지므로 저마다 소를 늘리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자 목초지가 망가져 누구도 쓸 수 없게 된다. (나)에서 한 관중이 일어서는 것은 잘 보기 위한 옳은 선택이지만, 모두가 일어서자 누구도 더 잘 보지 못하고 불편만 커진다. (다)에서 한 가정의 절약은 현명한 선택이지만, 경기가 나쁠 때 모든 가정이 함께 아끼면 소득이 줄어 사회 전체가 더 가난해질 수 있다.

연습 1 해설 · 공통 핵심어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공통 핵심어: 조화. 서로 다른 것들이 저마다의 성질을 지닌 채 모자란 곳을 채우며 어울려 더 나은 전체를 이루는 것.
- (가)의 근거: 서로 다른 맛이 보태지고 덜어지며 어우러진 국처럼, 신하가 임금과 다른 의견으로 그름을 바로잡을 때 바른 정치가 된다. 임금의 말을 따라 하기만 하는 것은 같아짐일 뿐 어울림이 아니다.
- (나)의 근거: 여러 생명이 섞여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는 숲은 재해에 강하고, 한 종만 심은 숲은 병 하나에 무너지기 쉽다.
- 두 글 모두 '같음'과 '다름의 어울림'을 맞세우고, 다름의 어울림이 낫다고 본다.

버릴 층위 사냥과 누대 장면, 식초·젓갈·소금·매실 같은 재료, 거문고와 비파, 해충과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 그늘을 좋아하는 풀. **함정** '국', '숲'은 소재일 뿐 핵심어가 아니다. **한 걸음 더** '다양성'은 (나)에는 잘 맞지만, (가)가 강조하는 '모자란 것은 보태고 지나친 것은

덜어' 내는 맞춤의 뜻까지 담지는 못한다. '균형'은 (가)에는 맞지만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는 (나)의 뜻을 놓친다. 두 뜻을 함께 담는 말이 '조화'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317자 · 압축률 약 4:1

(가)와 (나)의 공통 핵심어는 '조화', 곧 서로 다른 것들이 저마다의 성질을 지닌 채 모자란 곳을 채우며 어울려 더 나은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가)에서 안자는 서로 다른 맛이 보태지고 덜어지며 어우러진 국처럼, 신하가 임금과 다른 의견을 내어 그름을 바로잡을 때 바른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임금의 말을 따라 하기만 하는 것은 같아짐일 뿐 어울림이 아니다. (나)는 여러 생명이 섞여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는 숲이 재해에 강하고, 한 종만 심은 숲은 병 하나에 무너지기 쉽다고 말한다. 두 글 모두 같음보다 다름의 어울림이 낫다고 보므로 '조화'가 핵심어다.

연습 2 해설 · 공통 요인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공통 요인: 결정하는 쪽이 영향을 받는 사람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통로를 열고, 그 목소리를 근거로 문제를 고쳐 나갔다.
- (가)의 근거: 새 세법을 백성에게 묻고, 다수가 찬성했는데도 척박한 지역의 반대를 반영해 땅과 작황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도록 고쳤다.
- (나)의 근거: 이상을 발견한 작업자 누구나 라인을 멈추게 하고, 문제를 드러낸 사람을 반기며 현장에서 원인을 고쳤다.
- 두 사례 모두 빠른 시행, 멈추지 않는 생산이라는 당장의 효율을 내려놓았다.

버릴 층위 관리의 눈대중과 뇌물, 과거 시험 문제, '십수만 명'이라는 규모, 여섯 등급과 아홉 등급의 세부, 경고등과 조장, '왜'를 거듭 묻는 방법의 세부. **함정** '다수의 뜻을 따랐다'는 틀린 답이다. 세종은 오히려 다수가 찬성했는데도 반대의 사정을 살폈다. '줄을 매달았다', '찬반을 물었다'는 사례일 뿐이다. (나)의 끝에서 줄만 본뜬 공장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대목이 바로 '소재가 아니라 요인을 찾으라'는 단서다. **한 걸음 더** '지도자의 결단력', '백성을 아끼는 마음' 같은 답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나)에서는 근거가 약하고 이 말만 듣고는 두 사례의 핵심이 떠오르지 않는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360자 · 압축률 약 4:1

세종과 도요타가 거둔 성공의 공통 요인은, 결정을 내리는 쪽이 영향을 받는 사람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통로를 열고, 그 목소리를 근거로 문제를 고쳐 나간 데 있다. (가)에서 세종은 새 세법을 백성에게 묻고, 다수가 찬성했는데도 척박한 지역의 반대를 흘려듣지 않았다. 그 사정을 반영해 세금을 땅과 작황에 따라 달리 매기도록 제도를 다듬었다. (나)에서 도요타는 이상을 발견한 작업자 누구나 라인을 멈추게 하고, 문제를 드러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반겼다. 그 덕분에 문제가 일어난 현장에서 곧바로 원인을 고쳐 품질을 높였다. 두 사례 모두 빠른 시행과 멈추지 않는 생산이라는 당장의 효율을 내려놓고, 아래에서 올라온 목소리를 결정에 반영했다.

연습 3 해설 · 공통 주제와 차이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공통 주제: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 (가): 감각을 통해 저절로 되살아난 기억이 의지로는 되찾을 수 없던 시간을 돌려준다.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억이다.
- (나): 잊는 힘이 있어야 현재를 살고 행복할 수 있다. 개인의 삶에 필요한 망각이다.
- (다):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이 사람을 과거에 묶으므로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 제도로 지켜야 할 망각이다.
- (라): 공동체는 고통의 기억을 지켜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의무인 기억이다.

버릴 층위 홍차와 과자, 콩브레의 풍경, 소 떼와 어린아이, 잠 못 드는 사람의 비유, 경매 기사의 예, 놋쇠 판에 새긴 내용. **함정** (가)는 이야기다. 줄거리를 옮기지 말고 '의지로는 되살릴 수 없던 시간을 감각이 되살린다'는 생각으로 바꾼다. (나)의 '과거라는 사슬'은 기억이 인간을 괴롭힌다는 뜻이다. 이를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관점이 뒤집힌다(학생 C). **한 걸음 더** 네 관점은 '기억 대 망각'과 '개인의 마음 대 사회·공동체'라는 두 축으로 정리된다. (가)는 개인의 기억, (나)는 개인의 망각, (다)는 사회가 제도로 지켜 줄 망각, (라)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억을 말한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516자 · 압축률 약 4:1

네 제시문은 모두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룬다. 그러나 기억과 망각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가는 서로 다르다. (가)와 (라)는 기억의 가치를 강조한다. (가)는 감각을 통해 저절로 되살아난 기억이 의지로는 되찾을 수 없던 지난 시간을 돌려준다고 보아, 기억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한다. (라)는 공동체가 겪은 고통을 기억해야 같은 폭력을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억을 공동체가 지켜야 할 의무로 여긴다. 반면 (나)와 (다)는 망각의 필요를 말한다. (나)는 지나간 일에 매인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새로 시작할 수도 없으므로, 잊는 힘이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본다. (다)는 디지털 기록이 모든 것을 남겨 사람을 지난날에 붙잡아 두므로, 오래된 정보를 지울 수 있는 잊힐 권리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또 (가)와 (나)는 개인의 마음속 기억과 망각을, (다)와 (라)는 사회의 기록과 공동체의 기억을 다룬다는 점에서도 갈린다.

IV

적용분석형

빌려 온 이론으로 사례와 현상 읽기 적용설명 · 원인분석 · 원인과 대안

이론을 아는 것과 그 이론으로 세상을 읽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출제자는 한 제시문의 이론을 렌즈로 삼아 다른 제시문의 사례를 설명하라고 하거나, 어떤 현상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렌즈가 될 이론을 조건·원리·결과로 나누는 법, 사례의 요소를 하나씩 짝짓는 법, 그 짝을 인과의 문장으로 잇는 법을 손으로 익힙니다.

학습 목표

1. 논제를 읽고 적용 주체와 적용 대상, 또는 현상과 원인을 담은 제시문을 가를 수 있다.
2. 이론을 조건·원리·결과로 나누고, 사례의 요소를 이론의 요소에 정확히 대응시킬 수 있다.
3. 대응 관계를 인과의 문장으로 이어, 사례를 설명하거나 현상의 원인과 대안을 밝혀 쓸 수 있다.

이 단원의 흐름

1	왜 적용하고 분석하는가	대학이 적용과 분석을 묻는 이유	84
2	핵심 해법	적용분석 4단계 · 렌즈 분해 · 대응표 · 원인분석	85
3	시범	이론 하나로 두 선수의 표정 설명하기	88
4	단계 훈련	질문이 사라진 교실의 원인 찾기	91
5	실전	적용설명 · 원인과 대안 · 두 대상 비교	94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103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104

1 왜 적용하고 분석하는가

지금까지 익힌 요약과 비교, 공통 쟁점 찾기는 모두 제시문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읽어 내는 일이었습니다. 적용분석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제시문의 이론을 빌려 다른 제시문의 사례를 설명하거나 어떤 현상이 왜 생겼는지를 다른 제시문에서 찾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대학이 이 능력을 묻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대학 공부는 개념을 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개념으로 처음 보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론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그것을 다른 자리에 옮겨 써 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 적용분석형 논제의 모습

논제의 형태	무엇을 요구하는가	유형
(가)의 개념을 적용하여 (나)의 사례를 설명하시오.	이론의 요소를 사례에 하나씩 짝지어 설명하기	적용설명
(가)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선택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를 밝히시오.	같은 이론으로 두 대상을 각각 설명하고, 차이까지 밝히기	두 대상 비교
(가)의 표현 '○○'이 뜻하는 바를 (나)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비유적 표현을 이론의 말로 풀어 쓰기	비유 풀이
(가)에 나타난 현상의 원인을 (나)를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현상을 결과로 놓고, 이론에서 원인을 찾아 잇기	원인분석
(가)의 문제가 생긴 원인을 (나)에서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겨냥한 대안 세우기	원인과 대안

'적용하여', '바탕으로', '관점에서' 뒤에 '설명하시오', '원인을 분석하시오'가 이어지면 이 유형입니다. '평가하시오', '비판하시오'가 이어지면 평가형이니 구별합니다.

■ 채점자는 무엇을 보는가

항목	확인하는 것
이론 이해	적용할 이론의 핵심을 조건·원리·결과까지 정확히 잡았는가
대응	사례의 요소를 이론의 요소에 빠짐없이, 어긋남 없이 짝지었는가
인과	'비슷하다'에서 멈추지 않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리로 설명했는가
제시문 근거	바깥 지식이나 자기 의견 없이 제시문 안에서 설명했는가
형식	정해진 분량과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는가

빌려 온 눈, 정직한 손

남의 이론을 빌려 세상을 보는 일은 안경을 바꿔 쓰는 일과 같습니다. 안경이 잘 맞으려면 먼저 그 이론을 끝까지 정확히 이해하는 성실함이 필요하고, 사례가 이론에 꼭 들어맞지 않을 때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 기르는 것은 화려한 해석이 아니라, 아는 것을 바르게 쓰는 태도입니다.

2 핵심 해법

이 단원에서 쓰는 말

적용 주체	다른 글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이론·개념·원리·실험 결과. 이 단원에서는 '렌즈'라고도 부른다.
적용 대상	렌즈로 설명해야 할 사례·현상·이야기·자료. 원인분석형에서는 원인을 밝혀야 할 현상이다.
렌즈 분해	이론을 조건(어떤 상황에서) → 원리(무엇이 작동해) → 결과(어떻게 되는가)로 나누는 일.
대응	렌즈의 요소와 대상의 요소를 하나씩 짝짓는 일. 대응표의 빈칸은 곧 답안의 빈칸이 된다.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 짝지은 요소들을 '~이므로 ~하게 되었다'로 이어 설명한다.
간명화	연관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 내는 일.

(1) 적용분석 4단계

단계	할 일
STEP 1 논제 분석과 제시문 분류	논제에서 적용 주체와 적용 대상을 가른다. 원인분석형이면 현상을 담은 글과 원인을 담은 글을 가른다. 그리고 논제가 무엇을 설명하라고 하는지(까닭, 원인, 차이, 대안) 표시한다.
STEP 2 렌즈 분해	적용 주체를 먼저 읽고, 이론을 조건 → 원리 → 결과로 나누어 한 줄씩 적는다. 낯선 용어는 제시문 안의 풀이와 예로 뜻을 잡는다.
STEP 3 대응표 만들기	대상에서 조건·원리·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짝짓는다. 대상이 둘이면 둘 다 짝짓고, 짝이 없는 칸이 있으면 왜 없는지 따진다.
STEP 4 인과로 잇고 간명화	대응표를 '~이므로 ~하게 되었다'의 인과 문장으로 바꾸고, 설명에 쓰이지 않는 세부는 버린다.

(2) 렌즈 분해 — 조건·원리·결과로 나누기

이론은 대개 한두 문장으로 요약되지만, 그대로는 사례에 대어 볼 수 없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비용의 오류'로 연습해 봅시다.

> 이미 써 버려 되찾을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 한다.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이 비용은 따지지 말아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손실로 느껴 앞으로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려 한다.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 한다.

렌즈	이렇게 나눈다
조건	이미 써 버려 되찾을 수 없는 비용이 있다.
원리	그 비용을 포기하는 것을 손실로 느끼고, 그 손실을 피하려 한다.
결과	앞으로의 득실과 상관없이 하던 일을 계속한다.

(3) 대응표 — 짝이 맞아야 설명이 된다

재미없는 영화를 푯값이 아까워 끝까지 보는 관객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렌즈로 설명해 봅시다. 사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렌즈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같은 렌즈로 손해가 뻔한 사업에 투자를 이어 가는 기업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렌즈의 요소	사례에서 찾은 짝	판정
조건	이미 낸 영화표 값	○ 영화를 그만 봐도 돌려받지 못한다.
원리	'푯값이 아깝다'는 마음	○ 자리를 뜨는 순간 푯값을 버린다고 느낀다.
결과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본다	○ 남은 시간이라는 비용까지 더 치른다.
어긋난 짝	결과 = '영화가 재미없었다'	× 영화의 사정일 뿐, 렌즈가 설명하는 행동이 아니다.

(4) 원인분석형 — 결과에서 원인으로 거슬러 오르기

원인분석형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현상이라는 결과가 먼저 주어지고, 그 원인을 다른 제시문의 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느 학교가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상점을 주었더니 독서량이 늘었다가, 상점 제도를 없애자 독서량이 처음보다 더 줄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른 제시문은 '즐겨 하던 일에 보상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까닭을 즐거움에서 보상으로 옮긴다'고 말한다고 합시다.

수준	원인 진술	판정
결과 되풀이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아서 독서량이 줄었다.	× 결과를 다시 말했을 뿐이다.
겉원인	상점이 없어져서 독서량이 줄었다.	△ 계기일 뿐, 왜 처음보다 더 줄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렌즈의 원인	상점이 읽는 까닭을 즐거움에서 보상으로 바꾸어 놓아, 보상이 사라지자 읽을 까닭도 함께 사라졌다.	○ 렌즈의 원리가 결과까지 이어진다.

논제가 대안까지 묻는다면, 대안은 찾은 원인을 겨냥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상점을 다시 준다'는 원인을 되살릴 뿐입니다. '스스로 고른 책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든다'처럼 읽는 즐거움을 되찾게 하는 방안이 원인과 짝이 맞습니다.

(5) 답안은 이렇게 짓는다

순서	쓰는 법
① 렌즈	이론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밝힌다. 대응에 쓸 요소(조건·원리·결과)만 쓴다.
② 대응	대상의 요소를 렌즈의 개념어로 다시 쓴다. '○○은 렌즈의 △△에 해당한다'가 드러나야 한다.
③ 인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원리로 설명한다. 원인분석형에서는 현상까지 이어지는 원인의 사슬을 쓴다.
④ 차이·대안 (요구할 때)	대상이 둘이면 같은 렌즈로 두 대상이 어떻게 갈리는지 쓰고, 대안을 물으면 찾은 원인을 겨냥한 방안을 쓴다.

앞의 영화 관객으로 쓴 짧은 답안

매몰 비용의 오류란 이미 써 버려 되찾을 수 없는 비용을 포기하는 것을 손실로 느껴, 앞으로의 득실과 상관없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본 관객에게 영화표 값은 자리를 떠도 돌려받지 못하는 매몰 비용이다. 그런데 관객은 자리를 뜨는 것을 푯값을 버리는 손실로 느꼈기 때문에 끝까지 앉아 있었고, 그 결과 남은 시간이라는 비용까지 더 치렀다.

(6) 자주 빠지는 함정

함정	이렇게 피한다
렌즈만 길게 요약하기	이론 설명이 답안의 절반을 넘으면 적용할 자리가 없다. 렌즈는 대응에 쓸 요소만 쓴다.
줄거리 되풀이	대상의 사건을 다시 말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다. 사건을 렌즈의 개념어로 바꾸어 쓴다.
'비슷하다'로 끝내기	'(나)는 (가)의 이론과 비슷한 사례다'는 1차원적인 답이다. 어느 요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쓴다.
반쪽 적용	렌즈의 일부만 쓰거나 한 대상만 설명하면 반쪽 답이다. 대응표의 빈칸을 확인한다.
바깥 지식과 자기 의견	제시문에 없는 이론이나 통계, 자기 생각을 끌어오지 않는다. 근거는 제시문 안에서 찾는다.
성격 탓으로 돌리기	'욕심이 많아서', '소극적이어서'처럼 성품을 원인으로 쓰면 렌즈를 쓰지 않은 답이 된다.
결과를 원인처럼 쓰기	'책을 안 읽어서 독서량이 줄었다'처럼 결과를 되풀이한 말은 원인이 아니다.
원인과 따로 노는 대안	찾은 원인을 겨냥하지 않는 대안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점수를 얻지 못한다.

(7) 적용과 인과를 드러내는 표현

쓰임	쓸 수 있는 표현	이럴 때 쓴다
렌즈	(가)에 따르면 ~ / (가)의 ~란 ~을 뜻한다	첫머리에서 이론의 핵심을 밝힐 때
대응	~은 (가)의 ~에 해당한다 / ~이 바로 ~이다	사례를 이론의 요소에 짝지을 때
인과	~이므로 ~하게 되었다 / ~이 ~을 낳았다	원리로 결과를 설명할 때
차이·대안	반면 ~는 ~ / 따라서 ~을 겨냥해 ~해야 한다	두 대상을 맞세우거나 대안을 낼 때

3 시범 — 이론 하나로 두 선수의 표정 설명하기

시범 350자 내외

(가)의 이론을 적용하여, (나)에서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더 기뻐 보인 까닭을 설명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605자 · (나) 538자 · 합계 1,143자

(가) 제2차 세계 대전 무렵, 미국 육군의 연구 부서를 이끈 사회학자 스토퍼는 수십만 명의 병사에게 설문지를 돌려 군대 생활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다. 그 가운데 연구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결과가 있었다. 진급이 빠르기로 이름난 항공대의 병사들이 진급이 느린 헌병대의 병사들보다 진급 제도에 더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객관적인 처지만 놓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였다.

스토퍼는 이 수수께끼를 비교의 문제로 풀었다. 사람은 자기 처지를 절대적인 잣대로 재지 않는다. 날마다 마주치며 견주어 보는 사람들, 곧 자기가 속한 무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항공대에서는 동료 대부분이 빠르게 진급했으므로, 진급하지 못한 병사는 자기만 뒤처졌다고 느꼈다. 반대로 헌병대에서는 진급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진급하지 못해도 동료들과 다를 바 없었고, 진급한 병사는 큰 행운을 얻었다고 여겼다.

이처럼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견주어 보는 대상보다 적다고 느낄 때 생기는 불만을 상대적 박탈감이라 한다. 만족은 내가 놓인 자리 그 자체가 아니라, 나와 비교 기준 사이의 거리에서 생겨난다. 기준을 위에 두면 많이 가진 사람도 박탈감에 시달리고, 기준을 아래에 두면 적게 가진 사람도 만족할 수 있다.

— 스토퍼의 『미국 병사』 연구와 상대적 박탈 이론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끝난 뒤,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텔레비전 중계 화면으로 실험을 하나 했다. 운동 경기에 별 관심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메달리스트들의 얼굴을 보여 주고, 얼마나 기뻐 보이는지를 '괴로움'부터 '환희'까지 10단계로 평가하게 한 것이다. 보여 준 장면은 경기가 끝나는 순간과 시상대에 선 순간의 두 가지였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두 장면 모두에서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더 기뻐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선수가 덜 기뻐 보인 것이다. 연구자들은 선수들의 인터뷰도 분석했다. 은메달리스트들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이었다'는 식으로 놓친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동메달리스트들은 '그래도 메달은 땄다'는 식으로 얻은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2년 뒤 미국 뉴욕주의 한 아마추어 경기 대회에서 선수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을 때도 결과는 같았다. 은메달리스트들은 동메달리스트들보다 '거의 ~할 뻔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고 답했다. 같은 시상대 위에서 두 선수는 서로 다른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던 셈이다.

—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표정에 관한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STEP 1 논제 분석과 제시문 분류

적용 주체는 (가)의 이론, 곧 상대적 박탈감이고, 적용 대상은 (나)에 나타난 두 선수의 표정 차이입니다. 논제는 **까닭**을 설명하라고 했으므로, 표정이 달랐다는 사실을 옮기는 데서 멈추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가)의 원리로 밝혀야 합니다. 대상이 둘이니 두 선수를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STEP 2 렌즈 분해

렌즈	(가)의 상대적 박탈감
조건	사람은 자기 처지를 절대적인 잣대가 아니라 견주어 볼 비교 기준에 대어 잰다.
원리	만족은 객관적인 처지가 아니라 나와 비교 기준 사이의 거리에서 생긴다.
결과	기준을 위에 두면 많이 가져도 박탈감을, 아래에 두면 적게 가져도 만족을 느낀다.

> **함정 확인**
>
> (가)의 항공대와 헌병대, 진급 이야기는 이론을 보여 주는 예일 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답안에 옮기지 않습니다. 또 '은메달리스트는 욕심이 많아서'처럼 선수의 성격으로 설명하면, (가)의 렌즈를 쓰지 않은 답이 됩니다. 참고로 (나)의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결과'와 견주는 생각으로 설명했는데, (가)의 렌즈로 보면 그것은 비교 기준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STEP 3 대응표 만들기

렌즈의 요소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객관적 처지	2위, 더 높은 자리	3위
조건: 비교 기준	한 단계 위의 금메달	메달을 받지 못한 경우
원리: 견준 자리	기준보다 아래, 놓친 것('조금만 더 했으면')	기준보다 위, 얻은 것('그래도 메달은 땄다')
결과	박탈감, 그래서 덜 기뻐 보임	만족, 그래서 더 기뻐 보임

STEP 4 인과로 잇고 간명화

대응표가 채워졌으면 이제 문장으로 잇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설명이 되기도 하고 되풀이에 그치기도 합니다.

수준	문장	판정
줄거리 되풀이	은메달리스트보다 동메달리스트가 더 기뻐 보였다.	× 설명해야 할 현상을 다시 말했다.
비슷하다	(나)는 (가)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슷한 사례다.	× 요소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빠졌다.
렌즈만	상대적 박탈감은 비교 대상보다 적다고 느낄 때 생기는 불만이다.	△ 렌즈만 있고 대상이 없다.
알맞음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을 기준으로 삼아 놓친 것을 떠올렸으므로 박탈감을 느꼈다.	○ 대상의 요소가 렌즈의 말로 원인과 결과까지 이어진다.

서술 렌즈 → 대응 → 인과의 순서로

예시답안 공백 포함 335자

(가)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지는 객관적인 처지가 아니라 무엇과 견주는가에 달려 있다. 나보다 나은 쪽을 기준으로 삼으면 많이 가져도 박탈감을 느끼고, 못한 쪽을 기준으로 삼으면 적게 가져도 만족한다. (나)의 두 선수는 이 비교 기준이 서로 달랐다. 은메달리스트는 바로 위의 금메달을 기준으로 삼아 손에 넣지 못한 것을 떠올렸으므로, 동메달보다 나은 결과를 얻고도 박탈감을 느꼈다. 반면 동메달리스트는 메달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손에 넣은 것을 떠올렸으므로, 순위가 더 낮은데도 만족을 느꼈다. 결국 두 선수의 표정을 가른 것은 순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비교의 방향이었다.

답안의 문장	하는 일
첫째·둘째 문장	렌즈: 만족은 비교 기준에 달려 있다는 원리와 그 결과를 밝혔다. 진급 이야기는 지웠다.
셋째 문장	두 선수의 비교 기준이 달랐다는 대응의 열쇠를 먼저 세웠다.
넷째 문장	은메달리스트: 기준(금메달) → 견준 자리(기준보다 아래, 놓친 것) → 결과(박탈감).
다섯째 문장	동메달리스트: 기준(메달 없음) → 견준 자리(기준보다 위, 얻은 것) → 결과(만족).
여섯째 문장	결론: 표정을 가른 것은 순위가 아니라 비교의 방향이다.

4 단계 훈련 — 질문이 사라진 교실의 원인 찾기

단계 훈련 350자 내외

(가)에서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은 원인을 (나)를 바탕으로 분석하시오. 아래 활동 ①~④를 차례로 해결한 뒤, 활동 ⑤에서 답안을 쓰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584자 · (나) 677자 · 합계 1,261자

(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처음 배우는 '극한'의 뜻을 설명한 뒤 칠판을 가리키며 물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실은 조용했다. 몇몇 학생은 고개를 숙여 공책을 들여다보았고, 몇몇은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기다리던 선생님은 "다들 이해했구나."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다.

다음 날 본 쪽지 시험에서 절반이 넘는 학생이 극한의 뜻을 묻는 문제를 틀렸다. 의아해진 선생님은 이름을 쓰지 않는 설문을 돌렸다. 설명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반쯤만 이해했다'고 답한 학생이 열 명에 일곱이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그때 질문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이해한 것 같았는가'라는 물음에는 대다수가 '대부분 이해한 것 같았다'고 답했다. 질문하지 않은 까닭으로는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 '수업 흐름을 끊고 싶지 않아서'가 그다음이었다.

설문지를 정리하던 선생님은 그날의 조용한 교실이 실은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 역시 학생들의 침묵을 이해했다는 표시로 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이 교재가 새로 지은 교실 장면

(나) 안데르센의 동화에서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고 처음 말한 사람은 어린아이였다. 구경하던 어른들도 옷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저마다 남들 눈에는 옷이 보이는 줄 알고 입을 다물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집단의 구성원 대부분이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생각한다고 잘못 믿는 현상을 다원적 무지라고 부른다.

다원적 무지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과 남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는 데서 생긴다. 사람은 자기가 머뭇거리는 까닭을 잘 안다. 창피를 당하거나 혼자 튀어 보일까 두려워서다. 그러나 남이 똑같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생각으로 읽는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일부러 알아듣기 어렵게 쓴 글을 읽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라고 했다. 도움을 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참가자들은 자기가 가만있었던 것은 창피해서였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가만있었던 것은 글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이 오해는 스스로를 굳힌다. 모두가 같은 까닭으로 입을 다물면, 그 침묵은 다시 '다들 알고 있구나'라는 증거로 읽힌다. 그래서 침묵은 길어지고, 저마다 혼자만 다르다고 느낀다. 이 고리는 누군가 먼저 속마음을 드러낼 때에야 끊어진다. 동화에서도 아이의 한마디가 퍼지자 마침내 온 백성이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외쳤다.

— 사회심리학의 '다원적 무지' 연구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STEP 1 **활동 ① 제시문을 가르고, 설명할 현상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현상을 담은 글		원인을 담은 글	

설명할 현상

STEP 2 **활동 ② (나)의 다원적 무지를 조건·원리·결과로 나누어 쓰시오.**

렌즈	(나)의 다원적 무지
조건	
원리	
결과	

STEP 3 **활동 ③ (가)에서 렌즈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쓰시오.**

렌즈의 요소	(가)에서 찾은 짝
조건: 학생들의 속마음	
원리 ①: 자기 침묵의 해석	
원리 ②: 남의 침묵의 해석	
결과	

STEP 4 **활동 ④ 인과 점검 — 함정 찾기**

어떤 학생이 원인을 '학생들의 성격이 소극적이어서'라고 썼다. 이 답이 부족한 까닭을 (가)를 근거로 쓰시오.

서술 **활동 ⑤ 350자 내외로 쓰시오.** 20칸 × 21줄 = 42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5 실전

이제 시간을 재고 혼자 씁니다. 묻는 방식은 적용설명, 원인과 대안, 두 대상 비교로 바뀌지만, 할 일은 같습니다. 렌즈를 조건·원리·결과로 나누고, 대상의 요소를 하나씩 짝지은 뒤, 인과의 문장으로 잇는 것입니다. 해설은 7절에 있으니 다 쓴 뒤에 확인하십시오.

문항	제시문	답안	시간	이번에 새로 요구하는 것
연습 1 적용설명	2편 · 1,351자	350자	20분	네 갈래로 나뉜 이론을 이야기 속 네 장면에 하나씩 대응시키기
연습 2 원인과 대안	2편 · 1,283자	400자	25분	역사 속 정책 실패의 원인을 이론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겨냥한 대안 세우기
연습 3 두 대상 비교	3편 · 1,746자	500자	30분	같은 이론으로 우화와 실제 사건을 설명하고, 두 반응의 차이 밝히기

연습 1 · 적용설명 350자 내외 · 제한 시간 20분

(가)의 네 가지 우상을 적용하여, (나)의 마을 사람들이 흐려진 우물물을 두고 그릇된 판단에 빠진 과정을 설명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자연을 올바르게 알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고 보았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릇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는 이를 우상이라 부르고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종족의 우상은 인간이라는 종족 모두에게 뿌리박힌 것이다. 사람의 지성은 울퉁불퉁한 거울과 같아서, 세상에 실제보다 더 많은 질서가 있다고 여기고, 한번 받아들인 생각에 들어맞는 사례만 끌어모은다. 난파를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친 감사의 그림을 보여 주며 신의 힘을 믿으라고 하자, '그러면 기도하고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그림은 어디 있소?'라고 되물었다는 옛사람의 이야기는 이 우상을 꼬집은 것이다.

둘째, 동굴의 우상은 저마다 들어앉은 동굴, 곧 개인의 기질과 교육과 경험에서 생긴다. 자기가 겪은 일과 익숙한 일을 잣대로 세상 전체를 재는 것이다. 셋째, 시장의 우상은 사람들이 모여 말을 주고받는 데서 생긴다. 말은 보통 사람들의 어림짐작에 따라 만들어지므로, 있지도 않은 것에 이름이 붙고 그 이름이 거꾸로 생각을 지배한다. 넷째, 극장의 우상은 전해 내려오는 학설과 권위에서 생긴다. 무대 위의 연극처럼 그럴듯하게 꾸며진 이론을 따져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베이컨은 이런 우상들을 걷어 내고, 많은 사례를 직접 관찰하되 어긋나는 사례까지 빠짐없이 살피며 한 걸음씩 결론에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베이컨의 『신기관』에 나오는 우상론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어느 해 여름부터 산골 마을의 오래된 우물물이 흐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정자나무 아래 모여 까닭을 따졌다.

먼저 이장이 나섰다.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오는 책에, 우물물이 흐려지면 나라에 변고가 생긴다고 적혀 있소. 하늘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니 제사를 올려야 하오.” 그 책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썼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젊은 시절 광산에서 일했던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광산에서 겪어 보니, 물이 흐려지는 건 늘 땅 밑이 무너질 징조였소. 서둘러 마을을 떠야 하오.” 광산과 우물이 어떻게 다른지 따져 본 사람은 없었다.

그사이 누군가 그 우물을 ‘저주받은 우물’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름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다. 저주가 무엇인지 따져 본 사람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이름을 마치 까닭이라도 되는 듯 입에 올렸고, 아이들은 우물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또 어떤 이는 물이 흐려진 뒤로 앓는 사람이 늘었다며 앓아누운 이웃의 이름을 줄줄이 댔다. 흐려지기 전에도 그만큼은 앓았다는 것, 흐린 물을 길어 먹고도 멀쩡한 집이 더 많다는 것은 아무도 세어 보지 않았다.

가을이 되어 마을에 들른 측량 기사가 우물 위쪽 비탈을 살폈다. 나무를 베어 낸 자리에서 빗물에 쓸린 흙이 우물로 흘러들고 있었다. 흙막이를 쌓자 물은 다시 맑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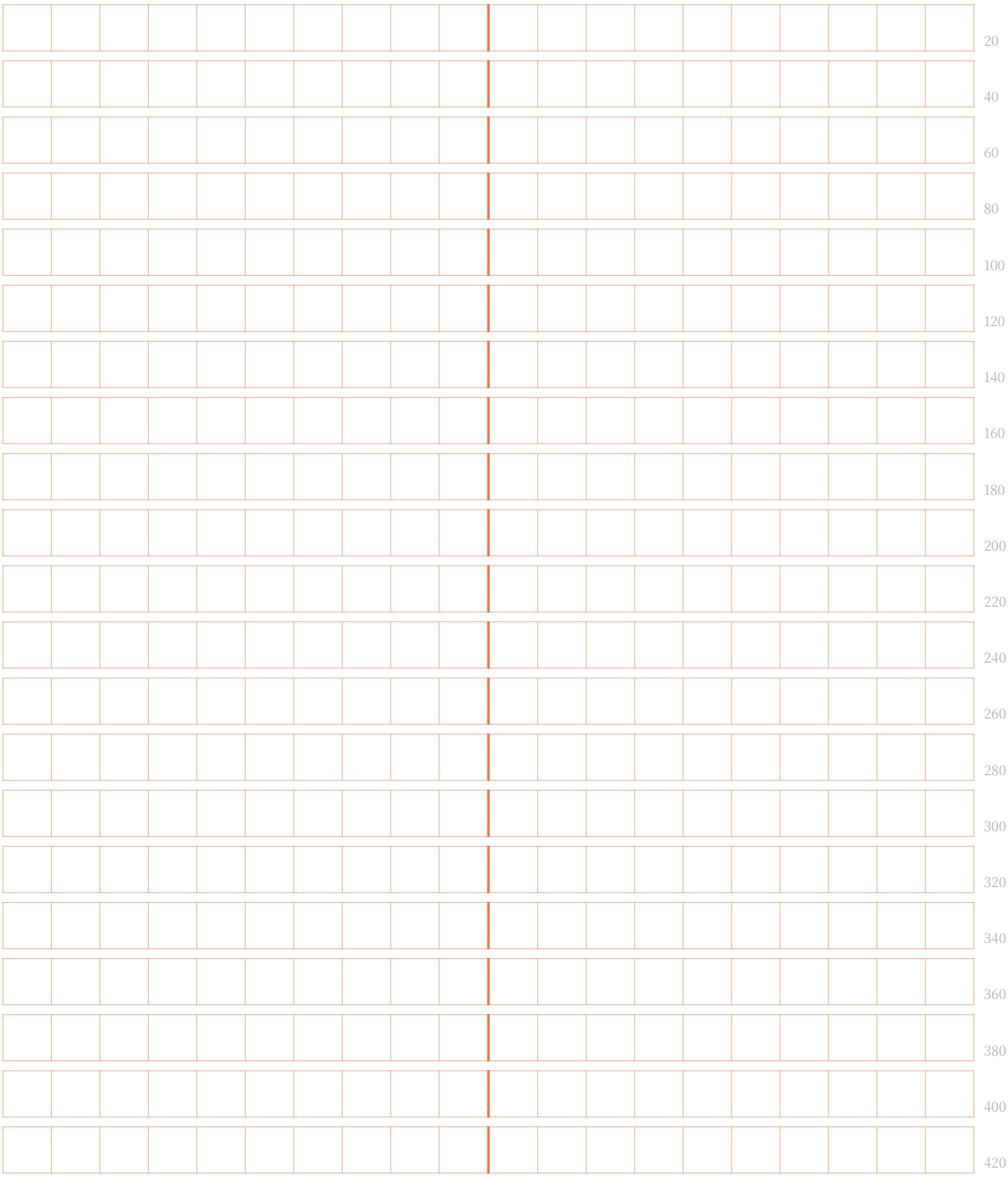
— 이 교재가 새로 지은 이야기

메모 **쓰기 전에 — 네 우상을 네 장면에 짝짓기**

우상	(나)에서 찾은 장면	왜 그 우상인가
종족		
동굴		
시장		
극장		

연습 1 답안지 · 350자 내외 20칸 × 21줄 = 42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연습 2 · 원인과 대안 400자 내외 · 제한 시간 25분

(나)를 바탕으로 (가)의 쥐 꼬리 보상 제도가 오히려 쥐를 늘린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실패를 막으려면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나)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1902년, 프랑스가 다스리던 베트남 하노이에 쥐가 들끓었다. 프랑스인들이 사는 구역 아래에 새로 깐 하수도가 쥐에게 더없이 좋은 보금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웃 지역에 흑사병이 돌던 때라 식민 당국은 쥐가 병을 옮길까 두려웠다.

당국은 먼저 베트남인 일꾼들을 하수도로 들여보내 쥐를 잡게 했다. 하루에 수천 마리, 많은 날에는 1만 마리가 넘게 잡혔지만 쥐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그러자 당국은 시민 누구에게나 쥐를 잡아 오면 한 마리에 1센트씩 주기로 했다. 잡았다는 증거로는 쥐의 꼬리를 내게 했다.

관청에 쌓이는 꼬리는 빠르게 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에 꼬리 없는 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쥐를 잡아 꼬리만 자르고 도로 놓아준 것이다. 꼬리를 잃은 쥐는 하수도로 돌아가 새끼를 낳았고, 그 새끼들은 다시 꼬리가 되어 돌아왔다. 도시 바깥에서는 꼬리를 얻으려고 쥐를 기르는 곳까지 발견되었다. 꼬리를 적는 장부의 숫자는 늘어만 갔지만, 하수도의 쥐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석 달 만에 당국은 쥐 사냥을 멈추고 다른 방역 대책으로 돌아섰다. 이듬해 하노이에는 흑사병이 돌아 백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 1902년 하노이의 쥐 사냥에 관한 역사 연구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영국의 경제학자 굿하트는 1970년대에, 정부가 어떤 통계 수치를 정책의 목표로 삼는 순간 그 수치는 예전처럼 경제의 상태를 알려 주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생각은 뒷날 '지표가 목표가 되면 더는 좋은 지표가 아니다'라는 말로 널리 알려졌다. 비슷한 무렵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캠벨도, 숫자로 된 지표가 중요한 결정에 쓰일수록 그 지표를 꾸며 내려는 압력이 커지고 지표가 재려던 활동마저 비틀린다고 경고했다.

지표는 목적을 대신 보여 주는 흔적이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대개 직접 재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숫자를 대신 잰다. 학생의 실력 대신 시험 점수를, 진료가 제때 이루어지는지 대신 환자가 기다린 시간을 보는 식이다. 평소에는 지표와 목적이 나란히 움직인다. 그러나 지표에 상이나 벌이 걸리면 사정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는 어렵고 느린 길 대신, 지표만 끌어올리는 쉽고 빠른 길을 찾는다. 시험 점수로 학교를 평가하면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게 되고, 기다린 시간으로 병원을 평가하면 환자를 접수하기 전에 기다리게 하는 꼼수가 생긴다. 지표는 좋아지는데 목적은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표를 쓰는 사람은 지표와 목적 사이에 틈이 없는지, 그 틈을 파고드는 쉬운 길이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숫자 하나에 보상을 몰아주지 말고,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써야 한다.

— '굿하트의 법칙'과 '캠벨의 법칙'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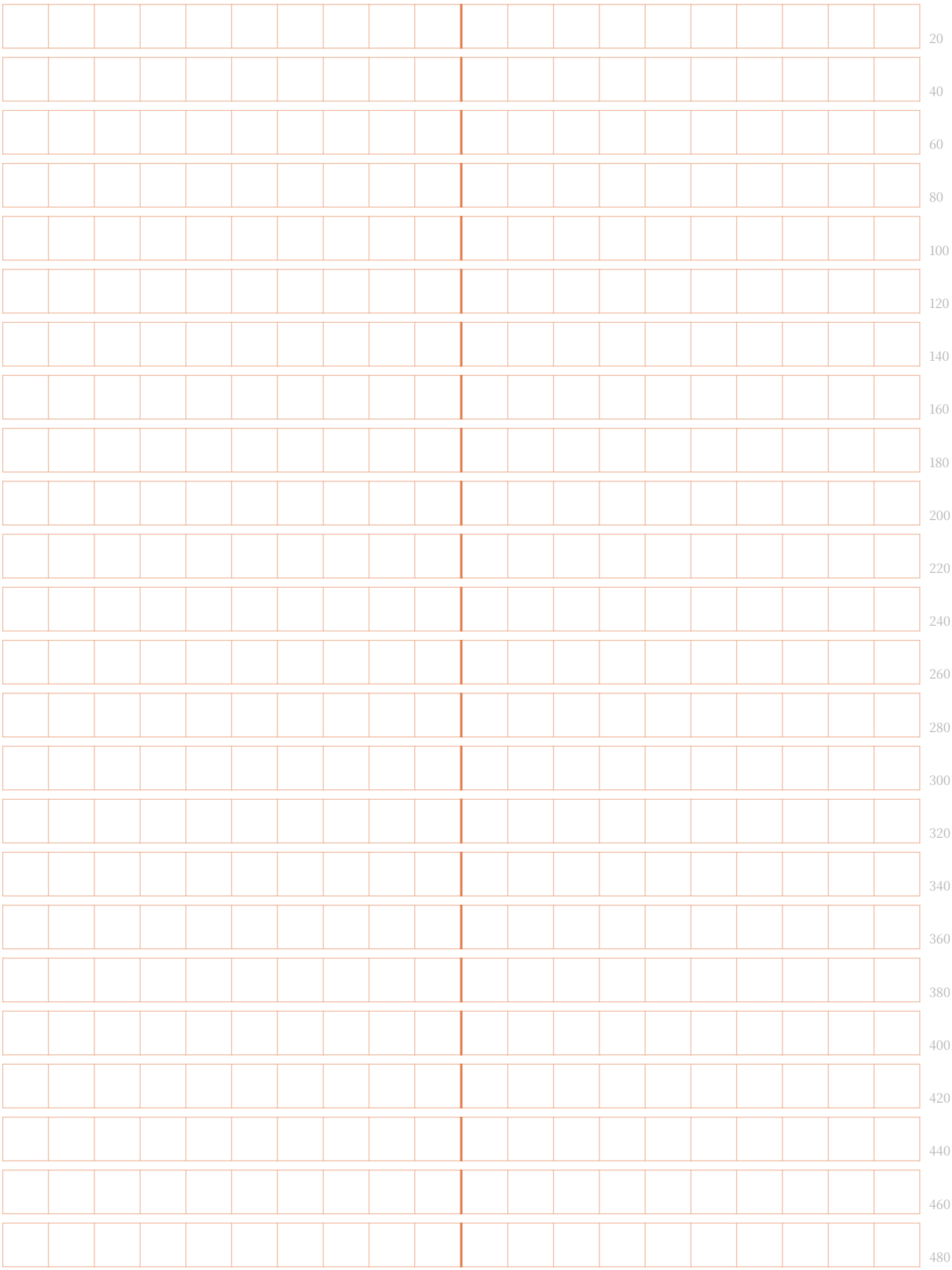
메모 **쓰기 전에 — 원인의 사슬과 대안**

사슬의 고리	(가)에서 찾은 것
목적	
지표	
사람들이 찾은 쉬운 길	
결과	

대안

연습 2 답안지 · 400자 내외 20칸 × 24줄 = 4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연습 3 · 두 대상 비교 500자 내외 · 제한 시간 30분

(가)의 이론을 적용하여 (나)의 여우와 (다)의 모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설명하고, 두 반응이 부조화를 줄이는 방식에서 어떻게 다른지 밝히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사람은 서로 어긋나는 두 생각을 함께 품으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비싼 값을 할 것이라 믿고 산 물건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그렇다. 미국의 심리학자 페스팅거는 이 불편함을 인지 부조화라 부르고,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듯 부조화를 줄이려 애쓴다고 보았다.

부조화를 줄이는 길은 여럿이다. 행동을 바꿀 수도 있고, 두 생각 가운데 하나를 바꿀 수도 있으며, 어긋남을 메워 줄 새로운 생각을 보탤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한 행동이나 이미 벌어진 사실은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사실이 아니라 생각 쪽을 바꾼다. 한 실험에서 지루한 일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다음 참가자에게 그 일이 재미있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며, 일부에게는 1달러를, 일부에게는 20달러를 주었다. 나중에 그 일이 실제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묻자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더 재미있었다고 답했다. 20달러를 받은 사람은 돈 때문에 한 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었지만, 1달러를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조화가 클수록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도 커진다. 특히 어떤 생각을 지키느라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일수록 그 생각을 버리기 어렵다. 생각을 버리면 치른 대가가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조화 앞에서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그런 사람의 수를 늘려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한다.

—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지나다가 높은 시렁에 탐스럽게 매달린 포도송이를 보았다. 잘 익은 포도는 금방이라도 단물이 흐를 것 같았다. 여우는 입맛을 다시며 힘껏 뛰어올랐지만 포도에 닿지 않았다. 몇 걸음 물러섰다가 달려와 다시 뛰었고, 나무 둥치를 딛고 뛰어 보기도 했다. 그러나 몇 번을 뛰어도 포도는 언제나 한 뼘쯤 위에 있었다. 지친 여우는 숨을 고르며 포도송이를 올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흥, 어차피 저 포도는 시어서 먹지도 못할 거야.” 돌아서는 여우의 걸음은 오히려 가벼워 보였다.

— 이솝 우화 「여우와 포도」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다) 1954년, 미국 시카고 근처에 사는 한 여성이 다른 행성의 존재들에게서 메시지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12월 21일 동트기 전에 큰 홍수가 일어나 미국의 여러 지역과 세계 곳곳이 물에 잠기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비행접시가 와서 구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를 따르는 작은 모임이 생겼다. 모임 사람들 가운데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업을 포기한 이도 있었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믿지 않는 가족·친구와 관계를 끊은 이도 있었다. 예언한 날이 다가오자 그들은 언론의 관심을 피했고, 인터뷰도 마지못해 했다.

12월 20일, 모임 사람들은 그날 자정에 비행접시가 데리러 온다는 메시지를 받고, 밤이 되자 한자리에 모여 기다렸다. 자정이 되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 자정 전을 가리키는 다른 시계를 보며

기다렸지만, 그 시계마저 자정을 넘기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새벽 4시쯤 모임을 이끌던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새벽 4시 45분, 그녀는 새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렸다. 밤새 앉아 기다린 이 작은 모임이 퍼뜨린 빛이 너무나 커서 신이 세상을 멸망에서 구했다는 것이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모임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 그토록 피하던 신문사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날이 밝자 기자들을 불러 자신들의 메시지를 알렸다. 예언이 빗나가기 전보다 훨씬 열심히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애썼다. 이 모임에 신도로 섞여 들어가 지켜본 심리학자들은 이 과정을 기록해 『예언이 끝났을 때』라는 책을 펴냈다.

— 페스팅거 등의 『예언이 끝났을 때』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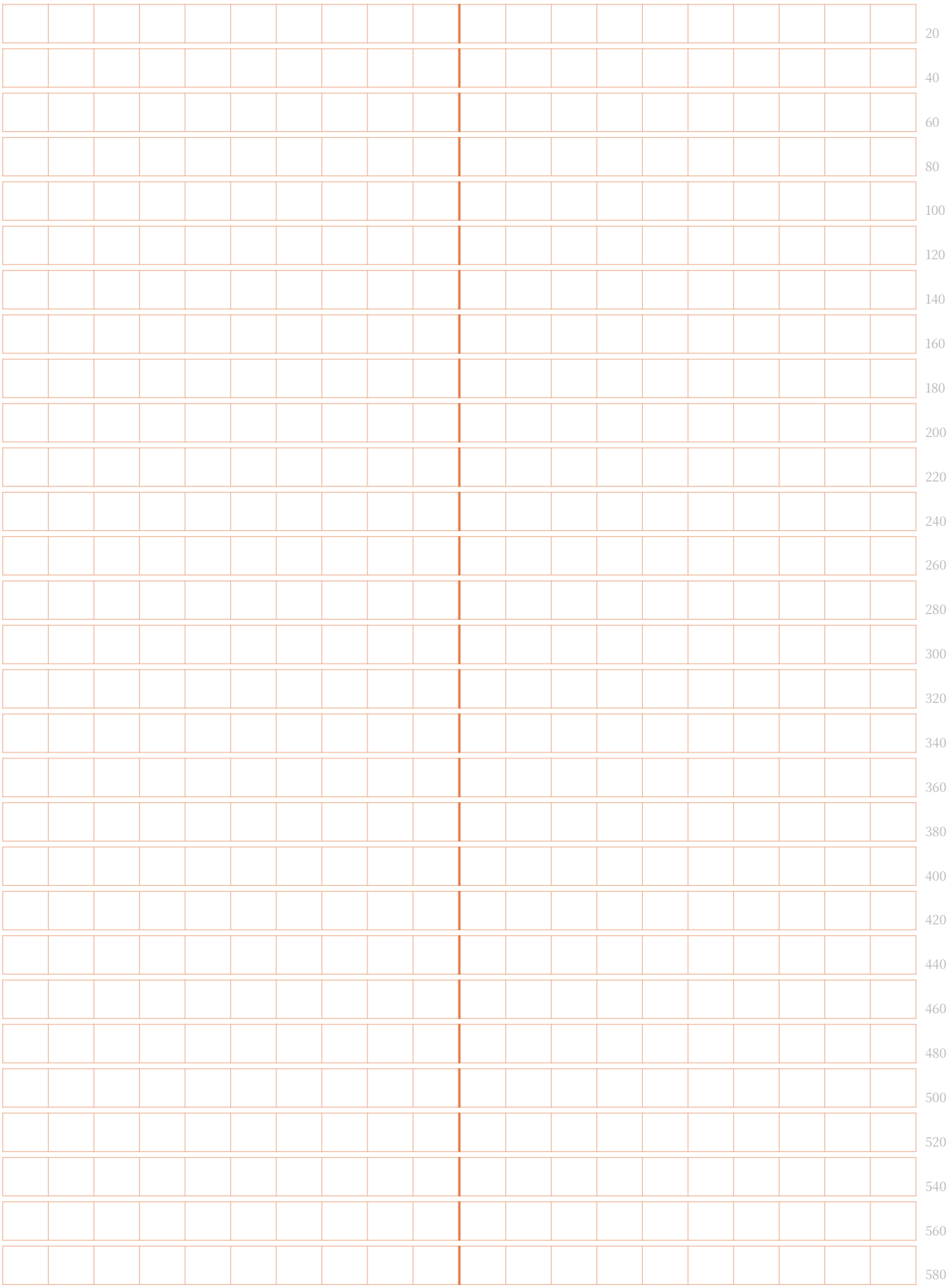
메모 **쓰기 전에 — 두 대상을 같은 칸에 대어 보기**

물음	(나) 여우	(다) 모임 사람들
어긋난 두 생각		
부조화를 줄인 방법		
그 결과		

차이

연습 3 답안지 · 500자 내외 20칸 × 29줄 = 5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답안을 다 썼으면 먼저 스스로 채점합니다.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점수를 잃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세 번 넘어진다면, 그 자리가 바로 다음 수업의 과제입니다.

영역	배점	만점 기준	이럴 때 깎인다
내용	5	렌즈의 핵심을 정확히 잡았다(2). 대상의 요소를 렌즈에 정확히 대응시키고, 논제가 요구한 까닭·원인·차이·대안을 밝혔다(3).	렌즈를 잘못 이해하거나 대상을 거꾸로 읽으면 내용은 1점(다른 내용 감점은 더하지 않는다). 대응이 하나 빠지거나 어긋날 때마다 −1. 논제가 요구한 차이나 대안을 밝히지 않거나, 대안이 찾은 원인을 겨냥하지 않으면 −1.
구성	2	렌즈 → 대응 → 인과(→ 차이·대안)의 흐름이 분명하고, 렌즈 설명이 대응에 쓰인다.	렌즈 설명이 답안의 절반을 넘는다 −1. 렌즈와 대상을 잇지 않고 대상의 줄거리만 늘어놓았다 −1.
표현	2	대상을 렌즈의 개념어로 다시 썼고, 문장이 정확하다.	10자 이상 그대로 옮긴 구절이 두 곳 이상 −1. 논제가 요구하지 않은 의견·감상·당부나 제시문에 없는 지식이 섞였다 −1.
형식	1	분량이 ±10% 안에 있고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다.	분량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원고지를 잘못 썼다 −1.

한 가지 잘못은 한 영역에서만 깎습니다. 대상을 렌즈에 틀리게 대응시킨 잘못은 내용에서, 답안에 섞인 의견·당부나 제시문에 없는 지식은 표현에서 깎습니다. 이 채점표는 바른에듀케이션 수업용 기준입니다. 대학별 실제 채점 기준은 『합격 포인트』 시리즈에서 확인합니다.

■ 제출 전 자기 점검

- ☐ 논제에서 적용 주체와 적용 대상(또는 현상과 원인)을 갈라 표시했다.
- ☐ 렌즈를 조건·원리·결과로 나누어 답안 첫머리에 한두 문장으로 밝혔다.
- ☐ 렌즈를 보여 주려고 든 예(실험, 일화)는 답안에 옮기지 않았다.
- ☐ 대상의 요소를 렌즈의 개념어로 다시 썼다. 대상이 둘이면 둘 다 썼다.
- ☐ ‘비슷하다’에서 멈추지 않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리로 설명했다.
- ☐ 원인을 물으면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았고, 대안을 물으면 찾은 원인을 겨냥했다.
- ☐ 제시문과 10자 이상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이 없고, 내 의견이나 바깥 지식을 넣지 않았다.
- ☐ 분량을 지켰다. 공백을 포함해 세었고, 문단 첫 칸을 비웠다.

7 답안 비교와 해설

연습 3에 대한 세 학생의 답안입니다. 형광 표시는 제시문의 한 문장과 10자 이상(띄어쓰기 제외)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세 답안을 가른 것은 문장 솜씨가 아니라 **렌즈를 대상에 실제로 대었는가**였습니다.

상 · 10점 학생 A — 렌즈로 두 반응을 풀어낸 답안 공백 포함 489자

> (가)는 두 생각이 맞지 않아 생기는 마음의 불편을 인지 부조화라고 하며, 사람은 이를 줄이려고 생각을 바꾸거나 새 생각을 보탠다고 본다. (나)의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었지만 아무리 뛰어도 딸 수 없었다. 먹고 싶다는 바람과 딸 수 없다는 현실이 어긋나자, 여우는 포도가 시다고 그 가치를 낮추어 바람 자체를 거두어들였다. 그래서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던 것이다. (다)의 모임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하고 자신들은 구원받는다고 믿었는데, 예언한 시각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을 버리는 대신 자신들의 믿음 덕분에 세상이 구원받았다는 새 생각을 받아들였고, 신문사에 연락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 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우는 원하던 대상에 대한 평가를 바꾸어 부조화를 없앴지만, 모임 사람들은 기존의 믿음을 지키면서 새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지지로 부조화를 메웠다는 점에서 다르다.

내용 두 대상 모두에서 어긋난 두 생각을 찾아냈다. 여우는 대상의 가치를 낮추어, 모임 사람들은 새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지지로 부조화를 줄였다는 점을 정확히 대응시켰고, 논제가 요구한 차이도 마지막 문장에서 밝혔다.

구성 렌즈 → 여우 → 모임 사람들 → 차이의 흐름이 분명하다.

표현 제시문 문장을 옮긴 곳이 없다. 실험 이야기는 지우고 이론의 원리만 남겼다.

점수 내용 5 · 구성 2 · 표현 2 · 형식 1

더 나아지려면 모임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못한 까닭, 곧 직장이나 재산을 내놓은 이가 있을 만큼 치른 대가가 컸다는 점을 (가)의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일수록 그 생각을 버리기 어렵다'와 이으면, 두 반응이 왜 갈렸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다.

중 · 5점 학생 B — 이론과 줄거리를 따로 옮긴 답안 공백 포함 504자

> (가)는 인지 부조화에 관한 글이다. 사람은 서로 어긋나는 두 생각을 함께 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를 줄이려 애쓴다.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20달러를 받은 사람들보다 지루한 일을 더 재미있었다고 답한 실험이 그 예이다. (나)에서 배고픈 여우는 높은 시렁에 탐스럽게 매달린 포도송이를 따려고 몇 번이나 뛰었지만 닿지 않았다. 그러자 여우는 어차피 저 포도는 시어서 먹지도 못할 거라고 말하며 돌아섰다. (다)에서는 한 여성이 큰 홍수가 일어나 세상이 물에 잠기고, 믿는 사람들은 비행접시가 구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임 사람들 가운데는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약속한 자정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새벽에 그 여성은 신이 세상을 구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렸다. 그러자 모임은 그토록 피하던 신문사에 먼저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메시지를 알렸다. 이처럼 여우와 모임 사람들은 모두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고 했다. 다만 여우는 혼자였고 모임 사람들은 여럿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내용 여우와 모임 사람들에게서 각각 어떤 두 생각이 어긋났는지 밝히지 않았다(−1). 여우가 포도를 시다고 깎아내린 일과 모임 사람들이 새 메시지를 믿고 사람들을 끌어들인 일이 각각 부조화를 줄이는 방식이라는 점도 설명하지 않았다(−1). 논제가 요구한 차이는 혼자인지 여럿인지라는 겉모습으로만 써서, 부조화를 줄이는 방식의 차이를 밝히지 않았다(−1).

구성 이론을 옮기고 두 이야기를 차례로 옮긴 뒤 '모두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고 했다'로 묶었다. 렌즈와 대상을 잇지 않고 대상의 줄거리만 늘어놓았다(−1).

표현 제시문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구절이 여러 곳이다(−1). 1달러 실험처럼 렌즈를 보여 주려고 든 예까지 옮겼다.

점수 내용 2 · 구성 1 · 표현 1 · 형식 1

하 · 2점 **학생 C — 이론을 일상어로 바꾸고 대상을 거꾸로 읽은 답안** 공백 포함 347자

> 여우와 모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댔다. (나)의 여우는 높은 시렁에 탐스럽게 매달린 포도송이를 따지 못하자 어차피 저 포도는 시어서 먹지도 못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는 (가)에서 말한 인지 부조화이다. (다)의 모임 사람들은 예언이 빗나가자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바꾸었다. 그래서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이처럼 사람은 실패하면 생각을 바꾸게 된다. 나는 여우처럼 핑계를 대기보다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믿음에 빠지면 모임 사람들처럼 직장과 재산까지 잃게 된다. 실패를 인정해야 다음에 성공할 수 있다.

내용 (다)의 모임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굳혔는데, 이를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바꾸었다'고 거꾸로 읽었으므로 내용은 1점이다. 인지 부조화를 '핑계'와 '거짓말'이라는 일상의 말로 바꾸어, 이론의 원리가 아니라 도덕적 평가로 설명한 것도 문제다.

구성 이론의 원리 없이 두 이야기를 하나씩 옮겼다. 렌즈와 대상을 잇지 않고 대상의 줄거리만 늘어놓았다(−1).

표현 제시문을 그대로 옮긴 구절이 두 곳이고(−1), 마지막 세 문장은 논제가 요구하지 않은 자기 의견과 당부다(−1).

형식 500자 내외 문항에 347자다. 범위(450~550자)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1).

점수 내용 1 · 구성 1 · 표현 0 · 형식 0

세 답안이 알려 주는 것

학생 C는 이론을 일상의 말로 바꿔 버렸고, 그 바람에 (다)를 거꾸로 읽었다. 렌즈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대상도 바로 보이지 않는다.

학생 B는 이론도 옮기고 줄거리도 옮겼지만, 둘을 잇지 않았다. 렌즈와 대상이 나란히 놓였을 뿐 맞물리지 않았다.

학생 A는 대상마다 무엇과 무엇이 어긋났는지 찾아 렌즈에 대었다. 적용분석의 실력은 바로 '렌즈를 대상에 대는 손'에서 갈린다.

단계 훈련 해설 · 질문이 사라진 교실

- **활동 ①** 현상을 담은 글은 (가), 원인을 담은 글은 (나)다. 설명할 현상: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묻고 싶은 학생이 많았는데도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 **활동 ②·③** 렌즈의 요소와 (가)에서 찾은 짝은 다음과 같다.

렌즈	(나)의 다원적 무지	(가)에서 찾은 짝
조건	집단의 구성원 대부분이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한다.	열 명에 일곱이 이해하지 못했고, 그중 대부분이 묻고 싶었다.
원리 ①	자기 침묵은 두려움 탓으로 읽는다.	자기는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묻지 않았다.
원리 ②	남의 침묵은 그 사람의 진짜 생각으로 읽는다.	친구들이 얼마나 이해했느냐는 물음에는 '대부분 이해한 것 같았다'고 답했다.
결과	저마다 혼자만 다르다고 여겨 침묵이 이어지고, 그 침묵이 다시 증거가 된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선생님마저 침묵을 이해의 표시로 읽었다.

- **활동 ④** 이해하지 못한 학생 대부분이 묻고 싶었고, 묻지 않은 까닭으로는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는 설문 결과는, 학생들이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침묵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질문이 사라졌음을 보여 준다. 성격 탓은 (나)의 렌즈가 말하는 원인이 아니다.

버릴 층위 극한이라는 단원, 쪽지 시험의 세부, 안데르센 동화의 줄거리, 실험의 절차. **한 걸음 더** (나)에 따르면 이 고리는 누군가 먼저 속마음을 드러낼 때 끊어진다. 대안까지 묻는다면, 이름을 쓰지 않고 질문을 적어 내게 하는 것처럼 속마음을 드러내기 쉽게 만드는 방안이 원인과 짝이 맞는다.

활동 ⑤ 예시답안 공백 포함 361자

(가)에서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은 원인은 (나)의 다원적 무지로 설명할 수 있다. 다원적 무지란 저마다 자기의 망설임은 창피를 피하려는 것으로 여기면서, 남의 같은 망설임은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서 생기는 집단의 착각이다. (가)의 학생들은 대부분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중 많은 학생이 묻고 싶었지만, 자기만 모를까 봐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침묵은 이해했다는 신호로 읽었다. 모두가 같은 까닭으로 침묵하자 그 침묵이 다시 모두가 안다는 증거가 되어, 누구도 먼저 묻지 못했다. 선생님마저 그 침묵을 이해의 표시로 받아들였으므로, 실제로는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인 교실이 아무 문제 없는 교실처럼 보였다.

연습 1 해설 · 적용설명

반드시 들어갈 요소

- 렌즈: 우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의 그릇된 생각이며, 네 가지로 나뉜다.
- 극장의 우상: 이장은 전해 오는 책의 권위를 따져 보지 않고 받아들였다.
- 동굴의 우상: 박 씨는 광산에서 겪은 개인의 경험으로 우물을 판단했다.
- 시장의 우상: '저주받은 우물'이라는 실체 없는 이름이 퍼져 원인처럼 쓰였다.
- 종족의 우상: 앓는 이웃만 세고, 멀쩡한 집처럼 어긋나는 사례는 세지 않았다.

버릴 층위 정자나무와 제사, 아이들이 우물을 피한 일, 감사의 그림 이야기, 흙막이를 쌓은 과정. **함정** 측량 기사의 판단을 우상에 넣지 않는다. 그는 비탈을 직접 살펴 까닭을 찾았으니, 오히려 베이컨이 권한 관찰의 태도에 가깝다. **한 걸음 더** 네 장면에 '묻는 사람은 없었다', '따져 본 사람은 없었다', '세어 보지 않았다' 같은 말이 되풀이된다는 점에 주목하면, 우상이란 결국 관찰과 검토를 건너뛰게 하는 마음의 버릇임을 알 수 있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348자

(가)의 우상은 올바른 앎을 가로막는 마음속의 선입견이다. (나)의 마을 사람들은 네 가지 우상에 사로잡혀 흐려진 우물물을 두고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 이장은 전해 오는 책의 권위를 따져 보지 않고 받아들였으니 극장의 우상에 빠졌다. 박 씨는 광산에서 겪은 일을 잣대로 우물을 판단했으니 개인의 경험에 갇힌 동굴의 우상에 빠졌다. '저주받은 우물'은 실체 없는 이름이 퍼지면서 원인처럼 행세하게 된 것으로 시장의 우상에 해당한다. 앓는 이웃만 세고 멀쩡한 집은 세지 않은 것은 자기 생각과 맞는 사례만 모으고 어긋나는 사례는 외면하는 종족의 우상이다. 결국 참된 까닭은 우상을 걷어 내고 비탈을 직접 살핀 관찰로 밝혀졌다.

연습 2 해설 · 원인과 대안

반드시 들어갈 요소

- 렌즈: 지표에 보상이 걸리면 사람들은 목적이 아니라 지표를 끌어올리는 쉬운 길을 찾고, 그래서 지표는 좋아져도 목적은 멀어진다.
- 대응: 목적은 하수도의 쥐를 줄이는 것, 지표는 꼬리의 수, 쉬운 길은 꼬리만 잘라 쥐를 풀어 주거나 쥐를 기르는 것, 결과는 장부의 숫자는 늘었는데 쥐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 대안: 숫자 하나에 보상을 몰아주지 말고, 쥐가 실제로 줄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쓴다.

버릴 층위 하수도가 생긴 경위, 하루에 잡힌 쥐의 수, 1센트라는 금액, 시험 점수와 병원의 예. **함정** '시민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쓰면 원인을 사람의 성품으로 돌린 것이다. (나)의 렌즈로 보면 문제는 보상을 지표에 건 제도의 구조에 있다. 또 '보상을 없앤다'는 꼼수의 동기는 없애지만 쥐를 줄인다는 목적까지 함께 내려놓는 것이어서, (나)가 권하는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거리가 멀다. **한 걸음 더** 꼬리 대신 쥐를 통째로 받아도 쥐를 기르는 길은 막지 못한다. 대안의 핵심은 증거의 모양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목적이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데 있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401자

(나)에 따르면 지표는 직접 재기 어려운 목적을 대신 보여 주는 숫자인데, 지표에 보상이 걸리면 사람들은 목적보다 지표를 겨냥해 숫자만 손쉽게 끌어올리는 길을 찾는다. (가)의 실패는 바로 이 구조에서 생겼다. 당국의 목적은 하수도의 쥐를 줄이는 것이었고, 꼬리는 쥐를 잡았다는 지표였다. 그런데 보상이 꼬리 하나하나에 걸리자 시민들은 쥐를 없애기보다 꼬리를 늘리는 데 힘썼다. 꼬리만 잘라 쥐를 풀어 주거나 쥐를 기르기까지 했으니, 꼬리는 쥐가 줄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쥐를 불리는 까닭이 되었다. 지표는 날마다 좋아졌지만 목적은 거꾸로 멀어진 것이다. 같은 실패를 막으려면 (나)의 말대로 꼬리라는 숫자 하나에만 보상을 걸지 말고, 구역마다 쥐가 실제로 줄었는지 직접 살펴 그 결과도 함께 따져 보상을 정해야 한다.

연습 3 해설 · 두 대상 비교

반드시 들어갈 요소

- 렌즈: 어긋나는 두 생각이 부조화를 낳고, 사람은 되돌릴 수 없는 사실 대신 생각을 바꾸거나 새 생각을 보태 이를 줄인다.
- (나)의 여우: 먹고 싶다는 생각과 딸 수 없다는 사실이 어긋났다. 포도의 가치를 낮추어 먹고 싶다는 생각을 지웠다.
- (다)의 모임: 구원받는다는 믿음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 어긋났다. 자신들 덕분에 세상이 구원받았다는 새 생각을 보태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지지를 늘렸다.
- 차이: 여우는 원래의 바람을 버렸고, 모임 사람들은 원래의 믿음을 지키며 더 굳혔다.

버릴 층위 담배와 물건의 예, 1달러와 20달러 실험, 시렁과 나무 둥치, 시계와 새벽의 시각, 심리학자들이 책을 펴낸 일. **함정** (다)를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바꾸었다'로 요약하면 대상을 거꾸로 읽은 것이다(학생 C). 모임 사람들은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알렸다. **한 걸음 더** 두 반응이 갈린 까닭은 (가)의 마지막 문단에 있다. 여우가 잃은 것은 몇 번의 뜀뛰기뿐이었지만, 모임 사람들 가운데는 직장과 재산까지 건 이들이 있었다.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일수록 생각을 버리기 어렵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수록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늘리려 한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527자

(가)에 따르면 두 생각이 서로 어긋날 때 인지 부조화라는 불편함이 생기고, 사람은 이를 줄이려 한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흔히 생각 쪽을 바꾸거나 새 생각을 보탠다. (나)의 여우에게서는 포도를 먹고 싶다는 생각과 포도를 딸 수 없다는 사실이 부딪쳤다. 여우는 닿지 않는 포도를 신 포도로 깎아내려,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지움으로써 부조화를 없앴다. (다)의 모임에서는 자정에 구원받는다는 믿음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딪쳤다. 그러나 그들은 직장이나 재산을 내놓은 이가 있을 만큼 큰 대가를 치렀기에 믿음을 버리기 어려웠다. 그래서 자신들이 퍼뜨린 빛 덕분에 세상이 구원받았다는 새 생각을 보태 어긋남을 메우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믿음을 지지해 줄 사람을 늘리려 했다. 이처럼 여우는 원하던 대상에 대한 평가를 바꾸어 원래의 바람을 버렸지만, 모임 사람들은 원래의 믿음을 지키려고 새 생각을 덧붙이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구했다. 대가를 크게 치를수록 생각을 버리기보다 굳히는 쪽을 택한 것이다.

V

논증평가형

주장의 근거를 따져 비판하고 반박하기 비판 · 타당성 검토 · 반박

비판이란 상대의 결론에 반대하는 일이 아니라, 그 결론이 근거에서 정당하게 나왔는지 따져 보는 일입니다. 출제자는 한 제시문의 관점으로 다른 제시문의 주장을 비판하라고 하거나,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반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주장과 근거와 숨은 전제를 갈라 읽는 법,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법, 유형에 맞게 개요를 세우는 법을 손으로 익힙니다.

학습 목표

1. 대상 제시문의 논증을 논지·논거·숨은 전제로 나누어, 왜곡 없이 정리할 수 있다.
2. 기준 제시문의 관점으로 근거·연결·개념·결과 가운데 약한 곳을 정확히 짚을 수 있다.
3. 비판·타당성 검토·반박의 요구에 맞게 개요를 세우고, 감정이 아닌 근거로 답안을 쓸 수 있다.

이 단원의 흐름

1	왜 논증을 평가하는가	대학이 비판적 사고를 묻는 이유	110
2	핵심 해법	논증평가 4단계 · 숨은 전제 · 비판의 네 갈래 · 유형별 개요	111
3	시범	관찰 하나로 이론을 버려야 하는가	115
4	단계 훈련	상관과 인과를 가려 비판하기	118
5	실전	복합형 비판 · 타당성 검토 · 반박	121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130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131

1 왜 논증을 평가하는가

지금까지 익힌 요약과 비교, 공통 쟁점 찾기, 적용과 분석은 모두 제시문을 정확히 읽고 그 내용을 바르게 쓰는 일이었습니다. 논증평가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시문의 주장이 과연 옳은지를 따지라고 요구합니다. 한 제시문의 관점으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거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대학이 이 능력을 묻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대학에서 읽는 글은 대부분 누군가의 주장이고,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공부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남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뒤 그 근거가 정말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따져 보는 힘, 곧 비판적 사고가 대학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 논증평가형 논제의 모습

논제의 형태	무엇을 요구하는가	유형
(가)의 관점에서 (나)를 비판하시오.	기준 하나로 대상 하나의 약점 짚기	비판(단순형)
(가)의 입장에서 (나)와 (다)를 각각 비판하시오.	기준 하나로 두 대상을 하나씩 비판하기	비판(복합형 ⅰ)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를 비판하시오.	두 기준으로 대상 하나를 겹겹이 비판하기	비판(복합형 ⅱ)
(나)를 바탕으로 (가)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근거와 주장의 연결을 따져 판정하기	타당성 검토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핵심 전제를 무너뜨리고 반대 결론 세우기	반박

‘관점에서’, ‘입장에서’, ‘바탕으로’, ‘활용하여’ 뒤에 ‘비판하시오’,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반박하시오’, ‘한계를 지적하시오’가 이어지면 이 유형입니다. ‘평가하시오’는 장점과 한계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으니, 무엇을 판정하라는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채점자는 무엇을 보는가

항목	확인하는 것
공정한 요약	대상의 주장과 근거를 비틀거나 부풀리지 않고 정확히 잡았는가
기준 활용	자기 생각이 아니라 기준 제시문의 관점으로 비판했는가
약점	결론만 뒤집지 않고, 근거에서 결론으로 가는 길의 어디가 약한지 짚었는가
결론	논제가 요구한 한계·판정·반박으로 분명하게 맺었는가
형식	정해진 분량과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는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당하게 따지기

비판은 상대를 이기려는 말싸움이 아닙니다. 상대의 주장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가장 강한 모습으로 이해한 뒤에야 그 약점을 짚을 자격이 생깁니다. 상대의 말을 비틀어 쉽게 이긴 비판은 결국 비판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 단원에서 기르는 것은 날카로운 말솜씨가 아니라, 공정하게 듣고 근거로 말하는 태도입니다.

2 핵심 해법

이 단원에서 쓰는 말

논지(주장)	글쓴이가 받아들이게 하려는 결론. 대개 '~해야 한다', '~이다'로 드러난다.
논거(근거)	논지를 뒷받침하려고 내놓은 이유·사례·자료.
숨은 전제	글에 적혀 있지 않지만, 논거에서 논지로 건너가려면 참이어야 하는 생각. 비판의 표적이 되는 일이 많다.
기준 제시문	비판의 잣대가 되는 글. 논제에서 '관점에서', '입장에서', '바탕으로', '활용하여' 앞에 놓인다.
대상 제시문	비판받는 글. 논제에서 '비판하시오', '검토하시오', '반박하시오'가 겨냥하는 글이다.
반례	주장이나 원칙에 들어맞지 않는 사례. 하나만으로도 '모든', '언제나'를 내세운 주장을 무너뜨린다.
허수아비 비판	상대의 주장을 비틀거나 부풀려 놓고 그것을 공격하는 잘못. 진짜 상대는 다치지 않는다.

(1) 논증평가 4단계

단계	할 일
STEP 1 논제 분석과 제시문 분류	논제가 비판·타당성 검토·반박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표시한다. 기준 제시문과 대상 제시문을 가르고, 각각 몇 편인지 센다.
STEP 2 논지·논거·숨은 전제 분리	대상 제시문을 먼저 읽고 논지와 논거를 한 줄씩 적는다. 그리고 논거에서 논지로 건너가는 데 필요한 숨은 전제를 찾아 적는다.
STEP 3 약점 찾기	기준 제시문을 대상의 논증에 대어 보고, 근거·연결·개념·결과 가운데 어디가 무너지는지 찾는다. 약점의 근거는 기준 제시문 안에 있어야 한다.
STEP 4 개요와 서술	유형에 맞는 개요를 세우고 그 순서대로 쓴다. 단순형이라면 대상 요약 → 기준 → 약점 → 결론의 순서다. 요약은 짧게, 비판은 넉넉하게 쓴다.

(2) 숨은 전제 — 근거와 주장 사이의 다리

근거에서 주장으로 건너가려면 둘을 잇는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되는 생각은 글쓴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광고 문구로 연습해 봅시다.

> 이 약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갈래	이렇게 나눈다
논지	이 약은 몸에 해롭지 않다.
논거	이 약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다.
숨은 전제	천연 성분은 몸에 해롭지 않다.
전제 시험	독버섯의 독도 천연 성분이다. 반례가 있으니 숨은 전제는 거짓이고, 다리가 무너진다.

숨은 전제는 이렇게 물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모두 참인데도 주장이 거짓일 수 있다면, 그 사이에서 무엇이 틀린 것인가?'** 바로 그 '무엇'이 숨은 전제입니다.

(3) 비판의 네 갈래 — 어디가 약한가

약점은 논증의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광고 문구에 하나씩 대어 봅시다.

갈래	묻는 것	광고 문구에 대어 보면
근거	근거가 사실인가, 충분한가	정말 천연 성분만 들었는가?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가?
연결	근거가 참이라도 주장이 따라 나오는가(숨은 전제)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개념	핵심 낱말을 같은 뜻으로, 알맞은 범위로 썼는가	'해롭지 않다'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먹었을 때를 말하는가?
결과	주장을 그대로 따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가	해롭지 않다고 믿고 함부로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

논술의 비판은 이 네 갈래 가운데 **기준 제시문으로 짚을 수 있는 갈래**를 고르는 일입니다. 기준 제시문이 말하지 않는 갈래를 끌어오면 자기 의견이 되고 맙니다.

(4) 유형별 개요 — 기준과 대상의 수로 짠다

짜임	모양	개요
단순형	기준 1 → 대상 1	대상 요약 → 기준의 관점 → 약점 → 결론
복합형 ⅰ	기준 1 → 대상 2	기준의 관점을 한 번 세운다 → 대상 1의 요약과 비판 → 대상 2의 요약과 비판 → 결론
복합형 ⅱ	기준 2 → 대상 1	대상 요약을 한 번 한다 → 기준 1로 본 약점 → 기준 2로 본 약점 → 결론

'(나) 요약, (다) 요약, (가) 요약'을 차례로 늘어놓고 끝에 비판 한 줄을 붙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요약이 답안을 다 차지해 비판할 자리가 없어지고, 무엇으로 무엇을 비판하는지도 흐려집니다. 드물게 기준 제시문 없이 '(가)를 비판하시오'만 묻기도 하는데, 이때는 (가)의 근거와 주장이 서로 맞물리는지를 따집니다.

유형	결론이 할 일	주의할 점
비판형	대상의 약점, 곧 한계를 밝힌다.	대상의 장점을 길게 쓰지 않는다. 약점의 근거는 기준 제시문에서 찾는다.
타당성 검토형	주장이 근거에서 정당하게 나왔는지 판정한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일부만 타당하다'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판정한다. 옳은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판정은 흐리지 않는다.
반박형	핵심 전제를 무너뜨리고 반대 결론을 세운다.	곁가지를 여럿 건드리기보다, 주장을 떠받치는 핵심 전제 하나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5) 답안은 이렇게 짓는다

순서	쓰는 법
① 대상 요약	대상의 논지와 핵심 논거를 한두 문장으로 쓴다. 대상의 글쓴이가 읽어도 '내 말이 맞다'고 할 만큼 공정해야 한다.
② 기준	기준 제시문의 관점 가운데 비판에 쓸 핵심만 밝힌다. 숨은 전제를 먼저 드러내면 기준이 겨냥할 곳이 분명해진다.
③ 약점	기준의 관점에서 대상의 어느 자리가 무너지는지 쓴다. '~을 설명하지 못한다', '~을 보지 못한다'처럼 약한 자리를 짚는다.
④ 결론	비판형은 한계를, 타당성 검토형은 판정을, 반박형은 반대 결론을 쓴다.

기준 제시문이 '모든 것은 독이 될 수 있으며, 독이 되느냐 아니냐는 양에 달려 있다'는 16세기 의사 파라켈수스의 말이라고 해 봅시다.

> **앞의 광고 문구를 파라켈수스의 관점으로 비판한 짧은 답안**
>
> 광고는 이 약이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근거에서, 몸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천연 성분은 해롭지 않다는 숨은 전제에 기대고 있다. 모든 것이 독이 될 수 있고 독이 되느냐가 양에 달려 있다면, 천연 성분이냐 아니냐만으로는 해로운지를 가를 수 없다. 천연 성분이라도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된다. 따라서 이 광고는 성분의 출처만 내세울 뿐, 정작 따져야 할 양을 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6) 자주 빠지는 함정

함정	이렇게 피한다
허수아비 비판	대상의 주장을 비틀거나 부풀린 뒤 공격하지 않는다. '이론과 어긋나는 관찰이 나오면 그 이론을 버려야 한다'를 '어떤 이론도 믿지 말라'로 바꾸면,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가 만든 말을 비판한 것이다.
자기 의견으로 비판	기준 제시문을 두고 '내 생각에는'으로 비판하면 논제를 벗어난다. 약점의 근거는 기준 제시문 안에서 찾는다.
요약 나열	기준과 대상을 차례로 요약하고 끝에 '따라서 옳지 않다'를 붙이면 비판이 아니다. 요약은 짧게, 비판은 넉넉하게 쓴다.
결론만 뒤집기	'~해야 한다'에 '~하지 않아도 된다'로 맞서는 것은 비판이 아니다. 근거에서 결론으로 가는 길의 어디가 끊겼는지 보여 준다.
감정적 표현	'말도 안 된다', '어처구니없다' 같은 말은 근거가 없다는 사실만 드러낸다. 약점을 차분한 개념어로 짚는다.
기준과 쟁점 어긋남	기준 제시문이 다루는 쟁점과 다른 쟁점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기준과 대상이 맞부딪치는 지점을 먼저 찾는다.
대상 편들기	비판하라고 했는데 대상의 장점을 길게 늘어놓으면 논제를 거스른다. 옳은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7) 비판과 판정을 드러내는 표현

쓰임	쓸 수 있는 표현	이럴 때 쓴다
요약	(가)는 ~라는 근거에서 ~라고 주장한다	논지와 논거를 밝힐 때
숨은 전제	이 주장은 ~라는 전제에 기대고 있다	숨은 전제를 드러낼 때
약점	그러나 (나)에 따르면 ~ / ~을 설명하지 못한다 / ~을 보지 못한다	약한 자리를 짚을 때
결론	따라서 ~라는 한계가 있다 / (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계·판정·반박으로 맺을 때

3 시범 — 관찰 하나로 이론을 버려야 하는가

시범 400자 내외

(나)를 바탕으로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517자 · (나) 614자 · 합계 1,131자

(가) 과학 이론은 아무리 많은 관찰로 뒷받침되어도 참이라고 증명되지 않는다. 흰 백조를 수천 마리 보았다고 해서 '모든 백조는 희다'가 참임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다음에 볼 백조가 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은 백조 한 마리는 '모든 백조는 희다'가 거짓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관찰은 이론을 증명할 수는 없어도 반박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의 힘은 틀릴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좋은 과학 이론은 어떤 관찰이 나오면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겠다고 미리 밝히고, 그 위험을 무릅쓴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별빛이 태양 곁을 지나며 휘는 정도를 미리 숫자로 내놓았고, 1919년의 일식 관측은 그 이론이 보기 좋게 틀릴 수도 있는 시험이었다. 과학자가 할 일은 이론을 지켜 줄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무너뜨릴 관찰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론과 어긋나는 관찰이 나오면 미련 없이 그 이론을 버려야 한다. 어긋난 관찰을 피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덧붙여 이론을 지키는 것은 과학의 태도가 아니다.

— 포퍼의 반증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16세기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는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시험했다. 지구가 돈다면 반년 사이에 지구의 위치가 크게 바뀌므로, 가까운 별은 먼 별들을 배경으로 조금씩 자리를 옮겨 보여야 한다. 이를 연주 시차라 한다. 브라헤는 당대 가장 정밀한 관측 기구로 별들을 살폈지만 시차를 찾지 못했다. 시차가 보이지 않을 만큼 별들이 멀리 있다면 별은 터무니없이 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지구가 돈다는 이론이 틀렸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연주 시차는 있었다. 1838년 독일의 천문학자 베셀이 처음으로 잰 별의 시차는 1도를 1만으로 나눈 것보다도 작았다. 별들이 브라헤의 짐작보다 훨씬 멀리 있었던 것이다. 브라헤의 관측이 지동설을 반박한 것처럼 보인 까닭은 이론 자체가 아니라, 별까지의 거리와 별의 크기에 대한 그의 가정에 있었다.

어떤 예측도 이론 하나만으로 나오지 않는다. 관측 기구가 믿을 만하다는 가정, 관측 대상에 대한 가정 같은 여러 보조 가정이 함께 작동해야 예측이 나온다. 그래서 예측이 빗나가면 관찰은 이 가운데 무엇인가가 틀렸다는 것만 알려 줄 뿐, 그것이 이론인지 보조 가정인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뒤엠이 일찍이 지적한 문제다.

— 티코 브라헤의 연주 시차 관측과 뒤엠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STEP 1 논제 분석과 제시문 분류

논제는 **비판**을 요구합니다. '바탕으로' 앞에 놓인 (나)가 기준 제시문이고, '비판하시오'가 겨냥하는 (가)가 대상 제시문입니다. 기준 하나로 대상 하나를 비판하는 단순형이므로, 개요는 '(가) 요약 → (나)의 관점 → 약점 → 결론'이며 요약 뒤에 숨은 전제를 밝힙니다. 대상인 (가)를 먼저 정확히 읽은 뒤, (나)를 대어 봅니다.

STEP 2 논지·논거·숨은 전제 분리

갈래	(가)의 논증
논거 ①	흰 백조를 아무리 많이 보아도 '모든 백조는 희다'를 증명할 수 없지만, 검은 백조 한 마리는 그것이 거짓임을 보여 준다. 곧 관찰은 이론을 반박할 수 있다.
논거 ②	과학의 힘은 틀릴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좋은 이론은 반박당할 위험을 무릅쓴다.
논지	이론과 어긋나는 관찰이 나오면 이론을 버려야 하며, 핑계를 덧붙여 이론을 지켜서는 안 된다.
숨은 전제	과학 이론도 백조의 예처럼 홀로 예측을 내놓으므로, 어긋난 관찰은 곧 이론의 잘못이다.

> **함정 확인**
>
> (가)의 백조와 일식, (나)의 별과 시차는 논증을 보여 주는 재료일 뿐 그대로 옮길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브라헤의 사례는 (가)의 원칙이 낳는 잘못을 보여 주므로 짧게 쓸 만합니다. 또 (가)가 하지 않은 말을 (가)의 주장으로 삼으면 허수아비 비판이 되고, '관찰은 믿을 수 없다'처럼 (나)가 하지 않은 말을 끌어오면 기준을 부풀린 비판이 됩니다.

STEP 3 약점 찾기 — 네 갈래에 대어 보기

갈래	(나)에 비추어 본 (가)	판정
근거	검은 백조가 '모든 백조는 희다'를 무너뜨린다는 점은 옳다.	× 약점이 아니다.
연결	예측은 이론과 보조 가정이 함께 만든다. 어긋난 관찰은 그 가운데 무엇이 틀렸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	○ 핵심 약점. 숨은 전제가 무너진다.
개념	어긋난 관찰을 이론 하나에 대한 반박으로만 보았다.	△ 연결의 약점을 달리 말한 것이다.
결과	(가)의 원칙대로 판단한 브라헤는 참인 지동설을 버렸다. 옳은 길은 (가)라면 핑계라 불렀을 보조 가정의 수정이었다.	○ 연결의 약점이 낳은 결과로 쓴다.

STEP 4 개요와 서술

요약 (가): 관찰은 이론을 반박할 수 있으므로, 어긋나는 관찰이 나오면 이론을 버려야 한다.
전제 어긋난 관찰은 곧 이론의 잘못을 뜻한다.
기준 (나): 예측은 이론과 보조 가정이 함께 만든다. 관찰은 무엇이 틀렸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
약점 숨은 전제가 무너진다. 브라헤는 이 원칙대로 참인 이론을 버렸고, 고칠 것은 거리에 대한 가정이었다.
결론 (가)는 보조 가정을 보지 못했다. 이론을 버리기 전에 보조 가정이 틀렸을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개요가 서면 이제 문장으로 씁니다. 같은 비판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비판이 되기도 하고 말다툼에 그치기도 합니다.

수준	문장	판정
결론만 뒤집기	어긋나는 관찰이 나와도 이론을 버려서는 안 된다.	× 왜 그런지가 없다. 결론에 결론으로 맞섰을 뿐이다.
허수아비	(가)는 어떤 과학 이론도 믿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론 덕분에 편리하게 산다.	× (가)가 하지 않은 말을 공격했다.
자기 의견	오랜 연구로 세운 이론을 관찰 하나로 버리는 것은 아깝다.	× (나)가 아니라 내 느낌으로 비판했다.
알맞음	(가)는 어긋난 관찰이 곧 이론의 잘못이라는 전제에 기대지만, (나)에 따르면 예측은 이론과 보조 가정이 함께 만들기에 무엇이 틀렸는지는 관찰만으로 알 수 없다.	○ 숨은 전제를 짚고, 기준의 근거로 무너뜨렸다.

서술 요약 → 전제 → 기준 → 약점 → 결론의 순서로

예시답안 공백 포함 434자

(가)는 관찰이 이론의 참을 보증하지는 못해도 거짓은 드러낼 수 있다는 근거에서, 예측과 다른 관찰이 나온 이론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어긋난 관찰이 곧 이론의 잘못을 뜻한다는 숨은 전제에 기대고 있다. (나)에 따르면 예측은 이론 하나가 아니라 이론과 여러 보조 가정이 함께 만들어 내므로, 예측이 빗나가도 관찰만으로는 무엇이 틀렸는지 알 수 없다. 브라헤는 관측 결과를 근거로 참인 지동설을 버렸지만, 틀린 것은 이론이 아니라 별이 그리 멀지 않다는 그의 가정이었다. (가)의 원칙대로라면 별이 아주 멀다는 생각은 이론을 지키려는 핑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옳은 것은 그 생각이었다. 따라서 (가)의 주장은 관찰과 이론 사이에 놓인 보조 가정을 보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론을 버리기에 앞서 보조 가정이 틀렸을 가능성도 따져 보아야 한다.

답안의 문장	하는 일
첫째 문장	대상 요약: (가)의 논거와 논지를 공정하게 정리했다. 백조와 일식 이야기는 지웠다.
둘째 문장	숨은 전제: (가)에 적히지 않은 다리, 곧 어긋난 관찰이 이론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셋째 문장	기준과 약점: 예측은 이론과 보조 가정이 함께 만든다는 (나)의 핵심으로 전제를 무너뜨렸다.
넷째·다섯째 문장	결과: 브라헤의 사례로, (가)의 원칙이 참인 이론을 버리게 하고 옳은 수정을 핑계로 본다는 점을 보였다.
여섯째 문장	결론: (가)의 한계를 밝히고, (나)에서 나오는 대안을 덧붙였다.

한 걸음 더 (나)가 짚은 문제는 오늘날 '뒤엠-콰인 논제'라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가)는 포퍼의 생각을 시범을 위해 단순하게 다듬은 글이며, 포퍼 자신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조 가정을 고치더라도 이론을 시험할 길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좋은 비판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다듬게 합니다.

4 단계 훈련 — 상관과 인과를 가려 비판하기

단계 훈련 350자 내외

(나)를 바탕으로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아래 활동 ①~④를 차례로 해결한 뒤, 활동 ⑤에서 답안을 쓰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386자 · (나) 464자 · 합계 850자

(가) 한 지역의 고등학생 2천 명을 조사했더니, 하루에 스마트폰을 세 시간 넘게 쓰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한 시간 미만으로 쓰는 학생들보다 크게 낮았다. 밤 열두 시가 넘도록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학생일수록 성적은 더 낮았다. 스마트폰을 오래 쓸수록 성적이 낮다는 뚜렷한 결과다. 스마트폰이 학생들의 시간과 집중력을 빼앗아 성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학교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미 여러 나라의 학교가 스마트폰 금지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어 놓으면 학생들은 그만큼 공부에 시간을 쓰게 되고, 성적도 자연히 오를 것이다.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은 교육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조사 결과는 가상의 것)

(나) 두 현상이 함께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킨다고 할 수는 없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물놀이 사고가 함께 늘지만, 아이스크림이 사고를 부르지는 않는다. 더운 날씨라는 제3의 요인이 둘을 함께 늘린 것이다. 초등학생은 신발 크기가 클수록 독해 점수도 높지만, 큰 신발을 신긴다고 글을 더 잘 읽게 되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둘이 함께 자랄 뿐이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아픈 곳이 많다고 해서 병원이 병을 만든다고 할 수는 없다.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현상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에서 원인을 끌어내려면, 둘을 함께 움직이게 하는 다른 요인은 없는지,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 놓이지는 않았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이 확인 없이 원인을 단정하면 엉뚱한 곳에 처방을 내리게 된다. 원인이 아닌 것을 없애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통계학의 '상관과 인과'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STEP 1 **활동 ① 제시문을 가르고, (가)의 논지와 논거를 나누어 쓰시오.**

기준 제시문		대상 제시문	

갈래	(가)에서 찾은 것
논거	
논지	

STEP 2 **활동 ② (가)의 논거에서 논지로 건너가는 데 필요한 숨은 전제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STEP 3 **활동 ③ (나)에 비추어, (가)의 숨은 전제가 무너질 수 있는 두 가능성을 (가)의 사례로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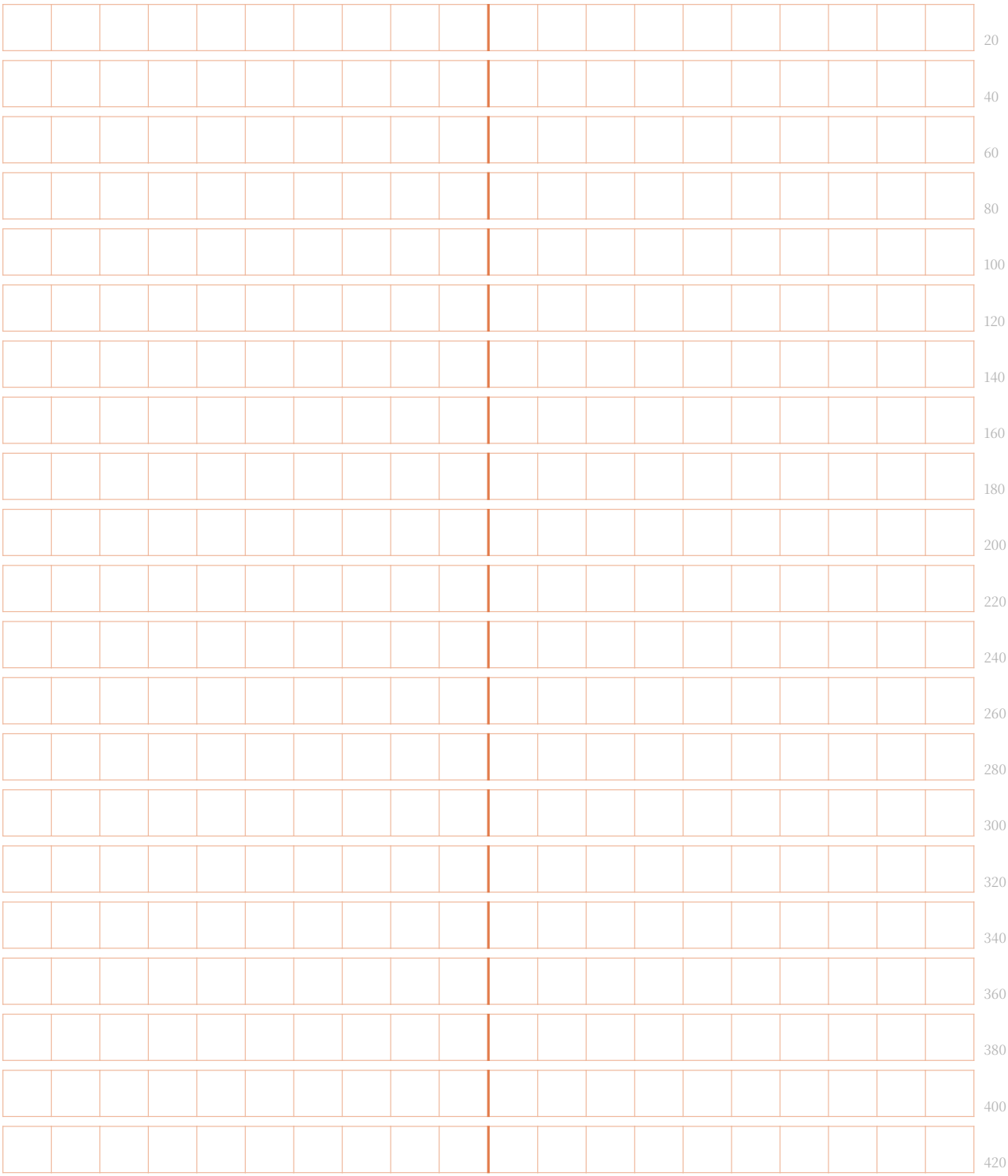
(나)가 말하는 가능성	(가)의 사례에 대어 보면
다른 요인이 둘을 함께 움직였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다	

STEP 4 **활동 ④ 함정 찾기**

어떤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으므로 전면 금지는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 비판이 논제의 요구에 맞지 않는 까닭을 쓰시오.

서술 **활동 ⑤ 350자 내외로 쓰시오.** 20칸 × 21줄 = 42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5 실전

이제 시간을 재고 혼자 씁니다. 묻는 방식은 복합형 비판, 타당성 검토, 반박으로 바뀌지만 할 일은 같습니다. 대상의 논지와 논거를 공정하게 잡고, 숨은 전제를 찾고, 기준 제시문으로 약점을 짚은 뒤, 유형에 맞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해설은 7절에 있으니 다 쓴 뒤에 확인하십시오.

문항	제시문	답안	시간	이번에 새로 요구하는 것
연습 1 복합형 비판	3편 · 1,101자	400자	25분	기준 하나로 두 대상을 각각 비판하기
연습 2 타당성 검토	3편 · 1,187자	400자	25분	두 기준으로 한 주장의 두 전제를 시험하고, 타당한지 판정하기
연습 3 반박	3편 · 1,201자	500자	30분	핵심 전제를 무너뜨리고 반대 결론 세우기

연습 1 · 복합형 비판 400자 내외 · 제한 시간 25분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각각 비판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사람들이 모여 사회의 분배 원칙을 정한다고 해 보자. 자신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어떤 재능을 타고날지 아무도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라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경우를 먼저 생각할 것이다.

타고난 재능과 태어난 집안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낳은 이익을 온전히 그 사람만의 몫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짜일 때에만 정당하다. 이것이 차등의 원칙이다.

또한 각 사람은 정의에 바탕을 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 사회 전체의 복지를 내세워도 이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몇몇 사람이 자유를 잃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이익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되지는 않는다.

—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정당하게 가진 것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은 결과라면, 그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해도 정의롭다. 어느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자기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에게서 입장권 한 장마다 25센트를 따로 받기로 계약했다고 하자. 한 시즌에 백만 명이 기꺼이 그 돈을 냈다면 그는 25만 달러를 벌게 된다. 관중 누구도 강요받지 않았고, 모두가 자기 돈을 원하는 곳에 썼다. 그렇다면 그가 큰 부자가 된 것을 부당하다고 할 까닭이 없다. 국가가 그 소득의 일부를 거두어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가 일한 시간의 일부를 강제로 빼앗아 남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노직의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다) 옳은 분배란 사회 전체의 행복을 가장 크게 만드는 분배다. 공리주의를 연 벤담의 원칙으로 알려진 말처럼, 누구든 한 사람으로 셈하고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셈하지 않는다. 신분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똑같이 셈하자는 것이다. 같은 만 원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에게보다 훨씬 큰 행복을 주므로,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옮기면 사회 전체의 행복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배를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 행복의 총합이다. 어떤 정책이 소수에게 큰 고통을 주더라도 다수가 얻는 행복의 합이 그보다 크다면, 그 정책은 옳다. 한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은 똑같이 하나씩 셈해져 더해질 뿐이다.

— 공리주의의 분배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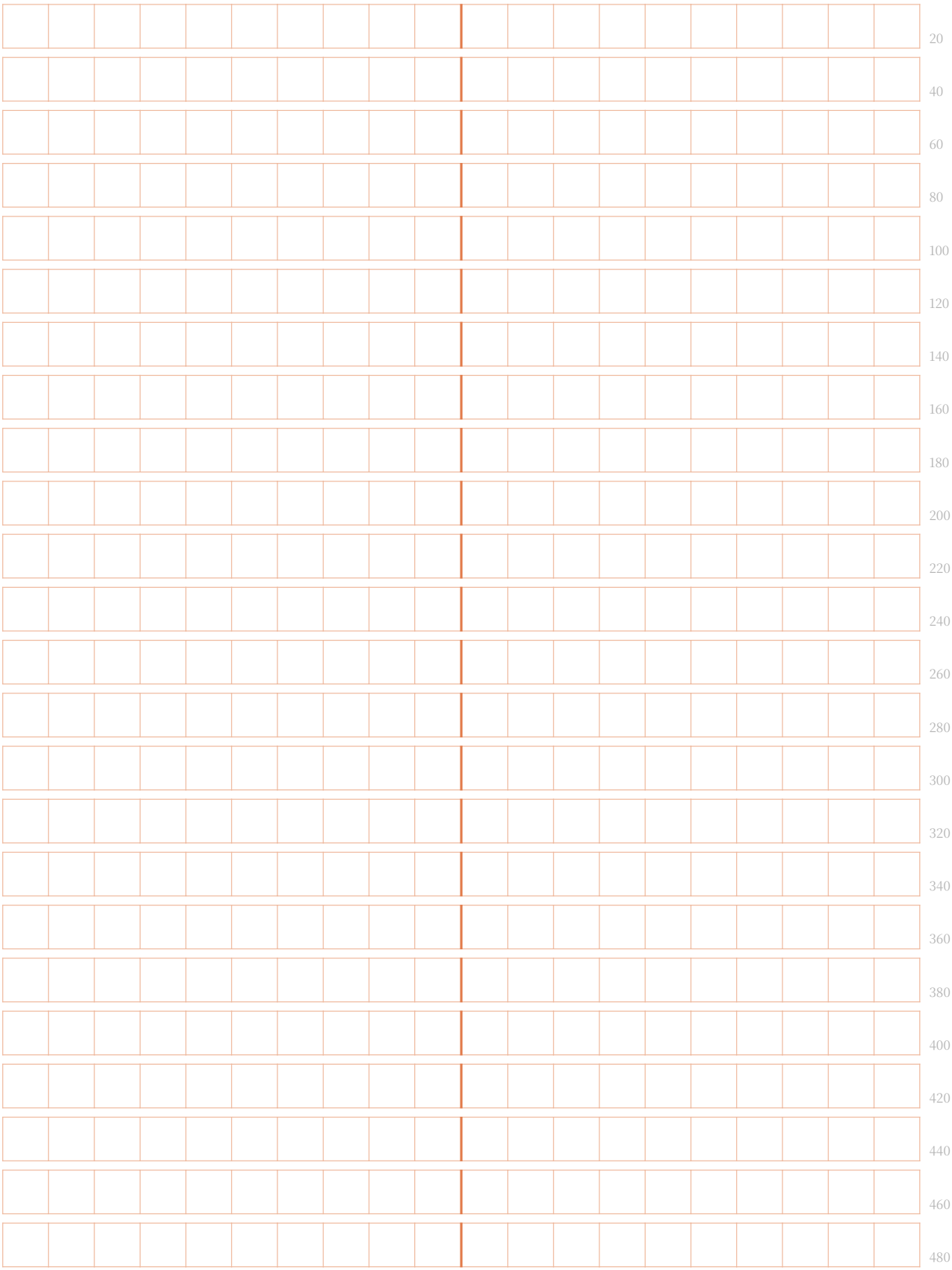
메모 **쓰기 전에 — 기준 하나, 대상 둘**

(가)의 관점 — 비판에 쓸 핵심

물음	(나)	(다)
논지		
논거		
(가)로 본 약점		

연습 1 답안지 · 400자 내외 20칸 × 24줄 = 4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연습 2 · 타당성 검토 400자 내외 · 제한 시간 25분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2022년 미국의 한 미술 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림이 1등을 차지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예술이 아니다.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예술은 작가가 몸소 겪은 감정을 작품에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다. 관객은 작품을 통해 작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낀다.

인공지능에게는 겪은 일도 감정도 없다. 사람들이 그린 수많은 그림을 학습해 그럴듯하게 섞어 낼 뿐이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는 전할 마음이 없다. 작품의 가치는 붓을 든 손과, 그 손을 움직인 마음에서 나온다. 기계가 만든 것은 기계의 산물일 뿐,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그림에 예술상을 주는 일은 멈추어야 한다.

— 인공지능 그림을 둘러싼 논쟁과 톨스토이의 예술론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나) 1917년 미국 뉴욕의 독립미술가협회 전시회에 「샘」이라는 작품이 출품되었다. 공장에서 만든 남성용 소변기를 눕혀 놓고 'R. Mutt 1917'이라고 서명한 것이었다. 협회에는 출품비를 낸 사람의 작품은 모두 전시한다는 규칙이 있었지만, 이 작품은 전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칸막이 뒤에 감추어졌다.

출품자로 알려진 뒤샹과 그의 동료들이 펴낸 잡지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머트 씨가 그 샘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그는 일상의 평범한 물건을 골라, 새 이름과 새 관점 아래에서 그 쓸모가 사라지도록 놓았다. 그 물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샘」은 이후 현대 미술의 흐름을 바꾼 작품으로 꼽히게 되었고, 2004년에는 영국 미술계 전문가 500명이 뽑은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이 되었다.

— 뒤샹의 「샘」을 둘러싼 논쟁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다) 1839년 사진술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진을 예술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일었다.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는 1859년, 사진 산업은 재능이 모자라거나 게을러서 공부를 마치지 못한 화가들의 피난처가 되었다고 비꼬았다. 그는 사진이 예술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면 머지않아 예술을 밀어내거나 타락시킬 것이라며, 사진은 과학과 예술의 아주 겸손한 하인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진가들은 무엇을, 언제, 어떤 빛과 각도로 찍을지 고르는 일에 자신의 시선을 담았다. 사진은 점차 미술관에 걸리고 소장되었으며, 1940년 뉴욕 현대 미술관은 사진 부서를 따로 만들었다. 새 기계가 나타날 때마다 기계가 만든 것은 예술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선택은 새로운 예술을 낳았다.

— 사진의 예술성을 둘러싼 19세기의 논쟁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메모 **쓰기 전에 — 두 전제를 하나씩 시험하기**

물음	메모
(가)의 논지와 논거	
기대고 있는 두 전제	
(나)로 시험한 전제	
(다)로 시험한 전제	

판정

연습 2 답안지 · 400자 내외 20칸 × 24줄 = 4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연습 3 · 반박 500자 내외 · 제한 시간 30분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누군가 당신의 친구를 죽이려고 쫓아와, 친구가 당신 집에 숨었느냐고 묻는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친구를 지켜야 하는가? 칸트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무리 큰 손해가 따르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지켜야 할 무조건적인 의무다. 거짓말은 눈앞의 상대를 해치지 않더라도 인류 전체를 해친다.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면, 약속과 계약에 기대는 모든 권리가 힘을 잃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라는 예외를 하나라도 허용하면 원칙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니게 된다.

결과를 내세워도 마찬가지다. 결과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당신이 거짓말로 살인자를 따돌렸는데, 그사이 친구가 몰래 집을 빠져나가다 살인자와 마주친다면 당신은 그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진실을 말했는데 친구가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면,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살인자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선의에서 나온 거짓말이라도 허용될 수 없다.

— 거짓말에 관한 칸트의 글(1797)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프랑스의 사상가 콩스탕은 이런 생각에 반대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도덕 원칙을 어떤 조건도 없이 홀로 떼어 내 따르면 어떤 사회도 유지될 수 없다. 의무는 권리와 짝을 이룬다. 권리가 없는 곳에는 의무도 없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그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는 의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일 진실을 들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콩스탕은 원칙을 버리자고 한 것이 아니다.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정해 주는 또 다른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원칙 없이 원칙을 따르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원칙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 칸트를 비판한 콩스탕의 글(1797)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의 바르샤바. 유대인들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게토에 갇혔다. 사회복지사 이레나 센들러는 동료들과 함께 게토의 유대인 아이들을 몰래 빼냈다. 아이들에게 가짜 이름과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폴란드인 가정이나 수녀원에 숨겼다. 아이들이 언젠가 제 이름과 가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짜 이름과 새 이름을 적은 명단을 병에 담아 땅에 묻었다.

1943년 10월 비밀경찰에 붙잡힌 센들러는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동료와 아이들에 대해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지하 조직이 그녀를 호송하던 간수를 매수한 덕분에 풀려났다. 그녀의 거짓 서류와 침묵은 아이들의 목숨을 지켰다.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 기관 야드 바셈은 1965년 그녀를 '열방의 의인'으로 기렸다.

— 이레나 센들러의 구조 활동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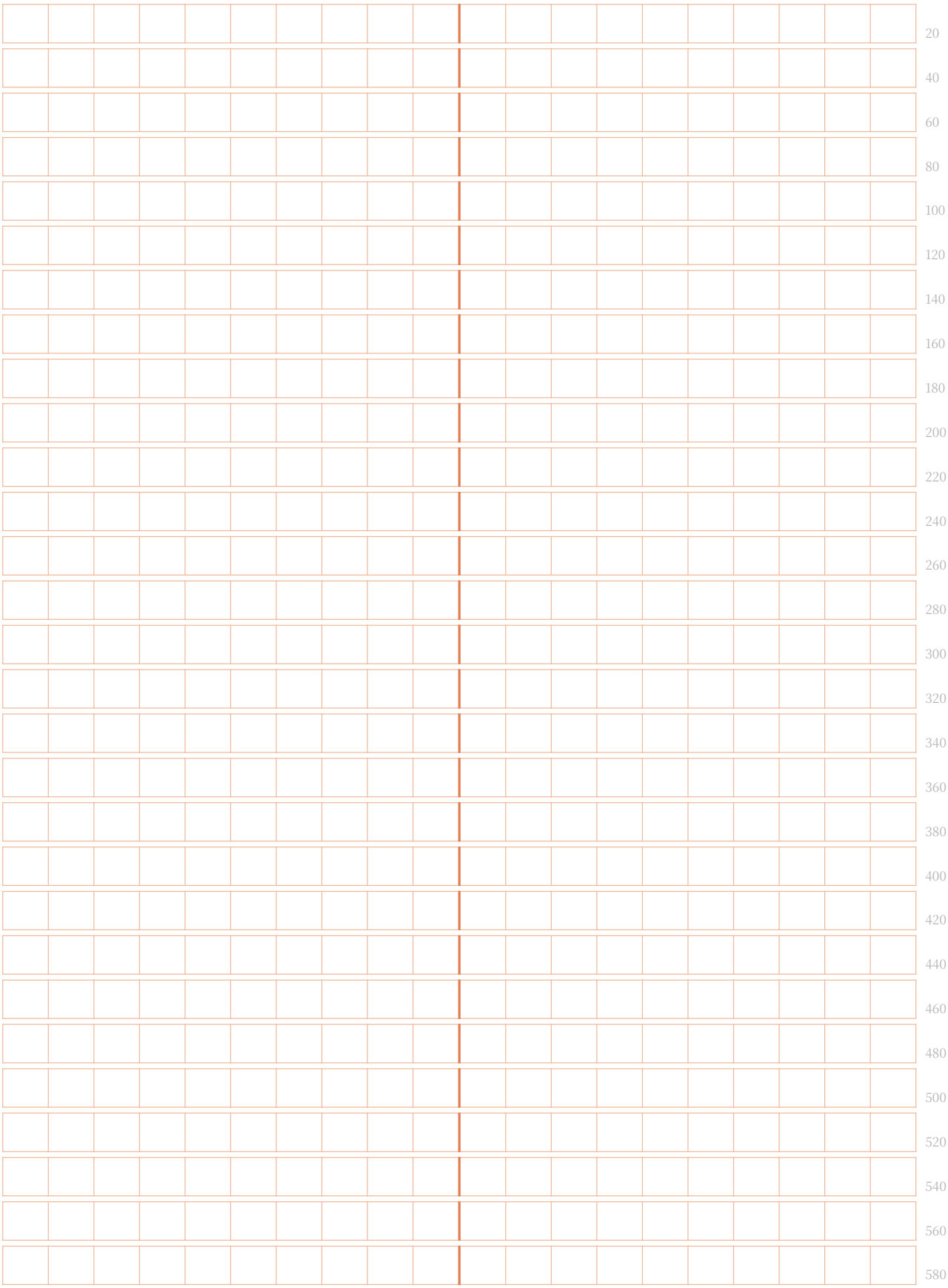
메모 **쓰기 전에 — 핵심 전제 하나를 겨냥하기**

물음	메모
(가)의 논지와 논거	
겨냥할 핵심 전제	
(나)로 무너뜨리기	
(다)로 무너뜨리기	

반대 결론

연습 3 답안지 · 500자 내외 20칸 × 29줄 = 5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답안을 다 썼으면 먼저 스스로 채점합니다.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점수를 잃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세 번 넘어진다면, 그 자리가 바로 다음 수업의 과제입니다.

영역	배점	만점 기준	이럴 때 깎인다
내용	5	대상의 논지와 논거를 왜곡 없이 잡았다(2). 기준 제시문의 관점으로 대상의 약점을 정확히 짚고, 논제가 요구한 한계·판정·반박을 밝혔다(3).	대상을 왜곡하거나 거꾸로 읽으면 내용은 1점(다른 내용 감점은 더하지 않는다). 기준 제시문 하나를 비판에 쓰지 않거나 대상 하나를 비판하지 않을 때마다 −1. 약점을 짚지 않고 결론만 뒤집었다 −1.
구성	2	유형별 개요에 맞게 흐름이 분명하고, 요약보다 비판에 무게가 실렸다.	비판 없이 제시문의 내용을 차례로 늘어놓았다 −1. 결론이 없거나, 논제가 요구한 한계·판정·반박 없이 다른 결론(공통점, 교훈 등)만 내렸다 −1.
표현	2	약점을 차분한 개념어로 짚었고, 문장이 정확하다.	10자 이상 그대로 옮긴 구절이 두 곳 이상 −1. 논제가 요구하지 않은 의견·감상·당부를 덧붙였거나, 제시문에 없는 지식, 감정적 표현이 섞였다 −1.
형식	1	분량이 ±10% 안에 있고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다.	분량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원고지를 잘못 썼다 −1.

한 가지 잘못은 한 영역에서만 깎습니다. 자기 생각을 비판의 근거로 삼은 잘못은 내용에서, 답안에 덧붙인 의견·당부는 표현에서 깎습니다. 이 채점표는 바른에듀케이션 수업용 기준입니다. 대학별 실제 채점 기준은 『합격 포인트』 시리즈에서 확인합니다.

■ 제출 전 자기 점검

- ☐ 논제가 비판·타당성 검토·반박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표시하고, 기준 제시문과 대상 제시문을 갈랐다.
- ☐ 대상의 논지와 논거를 그 글쓴이도 인정할 만큼 정확하게, 짧게 요약했다.
- ☐ 논거에서 논지로 건너가는 숨은 전제를 찾아 적었다.
- ☐ 약점의 근거를 내 생각이 아니라 기준 제시문에서 찾았다. 기준이나 대상이 둘이면 둘 다 썼다.
- ☐ 결론만 뒤집지 않고, 근거·연결·개념·결과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짚었다.
- ☐ 대상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 공격하지 않았다.
- ☐ 제시문과 10자 이상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이 없고, 감정적 표현, 당부, 바깥 지식을 넣지 않았다.
- ☐ 결론을 유형에 맞게 맺었고 분량을 지켰다. 공백을 포함해 세었고, 문단 첫 칸을 비웠다.

7 답안 비교와 해설

연습 3에 대한 세 학생의 답안입니다. 형광 표시는 제시문의 한 문장과 10자 이상(띄어쓰기 제외)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세 답안을 가른 것은 문장 솜씨가 아니라 **(가)의 핵심 전제를 기준 제시문으로 겨냥했는가**였습니다.

상 · 10점 학생 A — 의무가 성립하는 범위를 겨냥한 답안 공백 포함 473자

> (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무조건적 의무이므로 살인자에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은 서로의 말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려 인류 전체를 해치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니 좋은 결과를 내세울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 따르면 의무와 권리는 늘 짝을 이룬다. 진실을 말할 의무는 그것을 들을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지는 것인데, 남을 해치려는 사람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따라서 살인자에게 친구의 행방을 거짓으로 답해도 정직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 (가)는 의무가 상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점을 놓쳤다. 또 (다)의 센들러가 (가)의 원칙을 따랐다면 아이들에게 거짓 이름과 서류를 마련해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거짓 서류 덕분에 아이들은 목숨을 건졌고, 그녀는 오늘날 의인으로 기려진다. 이처럼 (가)의 원칙은 의인으로 기려진 행동마저 그르다고 판정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용 (가)의 논지와 두 논거, 곧 거짓말이 인류 전체를 해친다는 점과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왜곡 없이 잡았다. (나)로 들을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밝혀, 의무가 상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가)의 전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다)로는 (가)의 원칙이 의인으로 기려진 행동마저 그르다고 판정하게 된다는 점을 보였다.

구성 (가) 요약 → (나)로 전제 무너뜨리기 → (다)로 원칙의 귀결 보이기 → 반박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표현 제시문 문장을 옮긴 곳이 없고, 감정적인 말 없이 개념어로 반박했다.

점수 내용 5 · 구성 2 · 표현 2 · 형식 1

더 나아지려면 (가)는 '결과를 내세워도 마찬가지다'로 결과에 기댄 반론을, '눈앞의 상대를 해치지 않더라도 인류 전체를 해친다'로 상대의 권리를 따지는 반론을 미리 막아 두었다. (나)의 논리가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조건 없는 정직이 오히려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나)의 첫 주장까지 쓰면 (가)의 두 방어를 모두 넘어서는 반박이 된다.

중 · 5점 학생 B — 세 글을 요약하고 자기 생각으로 맞선 답안 공백 포함 464자

> (가)는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친구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이 친구가 집에 숨었느냐고 물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무리 큰 손해가 따르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지켜야 할 무조건적인 의무라는 것이다. (나)는 콩스탕의 주장이다. 콩스탕은 칸트의 생각에 반대하며,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도덕 원칙을 어떤 조건도 없이 따르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의무는 권리와 짝을 이룬다고 했다. (다)는 이레나 센들러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게토의 유대인 아이들을 몰래 빼내 가짜 이름과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고, 비밀경찰에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물론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칸트의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다.

내용 (가)는 왜곡 없이 요약했지만, 반박의 근거를 (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자기 생각에서 찾았다. (나)의 '의무는 권리와 짝을 이룬다'는 옮겨 놓기만 하고 비판에 쓰지 않았다(−1). (다)도 이야기를 요약했을 뿐, (가)의 원칙대로라면 센들러의 거짓 서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으로 잇지 않았다(−1). 마지막의 '너무 극단적이다'는 (가)의 어느 전제가 왜 틀렸는지 짚지 않고 결론만 뒤집은 말이다(−1).

구성 (가)·(나)·(다)를 차례로 요약한 뒤 끝에 자기 생각을 붙였다. 비판 없이 제시문의 내용을 늘어놓았다(−1).

표현 제시문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구절이 여러 곳이다(−1). 자기 생각은 (나)·(다)를 쓰지 않은 잘못으로 내용에서 이미 깎았으므로 다시 깎지 않는다.

점수 내용 2 · 구성 1 · 표현 1 · 형식 1

하 · 2점 **학생 C — (가)를 거꾸로 읽고 엉뚱한 과녁을 겨냥한 답안** 공백 포함 300자

> (가)에서 칸트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보았다. 좋은 의도에서 한 거짓말은 남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콩스탕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의무라고 하였다. (다)의 이레나 센들러는 아이들에게 가짜 이름과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폴란드인 가정이나 수녀원에 숨겼다. 그 뒤 비밀경찰에게 붙잡혀 고문을 받았다.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칸트의 주장은 옳지 않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용 (가)의 칸트는 살인자에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를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보았다'로 거꾸로 읽었으므로 내용은 1점이다. 그 바람에 칸트가 하지 않은 말을 반박하는 허수아비 비판이 되었고, 결론은 도리어 칸트의 실제 주장과 같은 편에 섰다. (나)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의무'라는 앞부분만 옮겨, 그 의무는 들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핵심을 놓쳤다.

구성 (가)·(나)·(다)를 한두 문장씩 옮긴 뒤 '따라서'로 결론을 붙였을 뿐, (나)와 (다)가 왜 (가)를 반박하는 근거가 되는지 잇지 않았다. 비판 없이 제시문의 내용을 늘어놓았다(−1). '칸트의 주장은 옳지 않다'로 형식상 반박의 결론은 냈으므로 결론 감점은 하지 않고, 그 뒤에 덧붙인 의견·당부는 표현에서 깎는다.

표현 제시문을 그대로 옮긴 구절이 두 곳이고(−1), 마지막 두 문장은 논제가 요구하지 않은 자기 의견과 당부다(−1).

형식 500자 내외 문항에 300자다. 범위(450~550자)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1).

점수 내용 1 · 구성 1 · 표현 0 · 형식 0

세 답안이 알려 주는 것

학생 C는 (가)를 거꾸로 읽었다. 반박한다고 쓴 글이 결국 칸트의 실제 주장을 편드는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 대상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 비판은 엉뚱한 과녁을 맞힌다.

학생 B는 세 글을 바르게 요약했지만, 반박은 자기 생각으로 했다. (나)와 (다)라는 근거를 손에 쥐고도 쓰지 않은 셈이다.

학생 A는 (가)가 기대고 있는 전제, 곧 진실을 말할 의무는 상대가 누구든 성립한다는 생각을 찾아 (나)와 (다)로 겨냥했다. 논증평가의 실력은 결론이 아니라 '전제를 겨냥하는 눈'에서 갈린다.

단계 훈련 해설 · 상관과 인과

- **활동 ①** 기준 제시문은 (나), 대상 제시문은 (가)다. 논거: 스마트폰을 오래 쓰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낮다는 조사 결과. 논지: 스마트폰이 성적을 떨어뜨리므로 학교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 **활동 ②** 숨은 전제: 사용 시간과 성적이 함께 움직이면, 스마트폰 사용이 원인이고 성적 하락은 그 결과다. '오래 쓸수록 성적이 낮다'에서 '스마트폰이 성적을 떨어뜨린다'로 건너가는 다리가 바로 이것이다. 방향 없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만 쓰면 뒤바뀐 인과로는 그렇게 쓴 전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
- **활동 ③** (나)의 두 가능성을 (가)의 사례에 대면 다음과 같다.

(나)의 가능성	(가)의 사례에 대어 보면
다른 요인	공부 의욕이나 생활 습관이 사용 시간과 성적에 함께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뒤바뀐 인과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스마트폰에 더 매달렸을 수 있다.

- **활동 ④** 이 비판은 (나)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근거로 삼았고(자기 의견으로 비판), 상관과 인과라는 (나)의 쟁점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다른 쓸모로 맞섰다(기준과 쟁점 어긋남).

버릴 층위 2천 명이라는 조사 규모, 밤 열두 시라는 시각, (나)의 아이스크림·신발·병원 예(원리만 쓴다). **한 걸음 더** '이미 여러 나라의 학교가 스마트폰 금지에 나서고 있다'는 많은 곳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일 뿐 금지가 옳다는 증거는 아니므로, 근거의 갈래에서 따로 비판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논제의 중심은 (나)로 하는 비판이다.

활동 ⑤ 예시답안 공백 포함 377자

(가)는 스마트폰을 오래 쓰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낮다는 조사를 근거로, 스마트폰이 성적을 떨어뜨리므로 학교에서 아예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사용 시간과 성적이 함께 움직이면 스마트폰 사용이 성적 하락의 원인이라는 숨은 전제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나)에 따르면 인과를 말하려면 두 현상에 함께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나 뒤바뀐 인과부터 따져야 한다. 공부 의욕이 낮은 것이 스마트폰을 오래 쓰게 하고 성적도 떨어뜨렸을 수 있다. 거꾸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스마트폰에 더욱 매달렸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는 두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만으로 인과를 단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따지지 않은 금지는 엉뚱한 처방이 될 수 있다.

연습 1 해설 · 복합형 비판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가)의 관점: 재능과 집안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므로,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갈 때에만 정당하다(차등의 원칙). 또 사회 전체의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나) 비판: 정당하게 가진 것을 자유롭게 주고받은 결과면 정의롭다는 (나)는, 그 출발점인 재능과 재산이 우연의 산물임을 보지 못한다. 그 이익이 온전히 자기 몫이 아니라면 세금을 강제 노동에 견줄 수도 없다.
- (다) 비판: 행복의 총합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큰 고통도 정당화된다. 이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라는 (가)의 원칙과 어긋난다.
- 결론: (나)는 출발점의 우연을, (다)는 다수의 이익과 맞바꿀 수 없는 개인의 권리를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버릴 층위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의 장면, 25센트·25만 달러라는 숫자, 벤담의 말, 만 원의 예. **함정** (다)도 재분배에 찬성하니 (가)와 같은 편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까닭이 약자의 처지가 아니라 행복의 총합이므로, 총합이 늘면 소수의 희생도 받아들인다. 또

(가)의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나)를 비판하면, 권리를 내세워 세금에 반대하는 (나)를 오히려 돕는다. (나) 비판에는 재능과 집안의 우연을 말한 (가)의 둘째 문단을 쓴다. **한 걸음 더** 복합형 ⅰ이므로 (가)의 관점을 첫머리에 한 번 세워 두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 **예시답안** 공백 포함 435자
>
> (가)에 따르면 재능과 집안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므로,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의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이 갈 때에만 정당하다. 또한 다수의 이익을 앞세워 개인의 권리를 짓밟을 수 없다. 이 관점에서 (나)는 정당하게 얻은 것을 자유로이 주고받은 결과라면 어떤 불평등도 정의롭다고 하지만, 그 출발점인 재능과 재산이 우연의 산물임을 따지지 않는다. 재능이 낳은 이익이 온전히 개인의 몫이 아니라면, 그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을 강제 노동에 견줄 수도 없다. 한편 (다)는 행복의 총합만을 기준으로 삼아, 다수의 이익이 크면 소수의 큰 고통도 정당화한다. 재분배를 지지하는 까닭도 약자의 처지가 아니라 총합의 증가에 있어, 총합만 늘면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출발점의 우연을, (다)는 다수의 이익과 맞바꿀 수 없는 개인의 권리를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연습 2 해설 · 타당성 검토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가)의 논증: 예술은 작가가 겪은 감정을 전하는 일인데 인공지능에게는 감정이 없으므로, 인공지능 그림은 예술이 아니다.
- 기대고 있는 두 전제: 예술성은 만든 이의 손과 감정에서만 나온다. 기계가 만든 것은 예술이 될 수 없다.
- (나)로 시험한 첫째 전제: 「샘」은 손수 만들지 않은 공장 제품이었지만, 일상의 물건을 골라 새로운 관점 아래 놓는 선택으로 예술이 되었다. 첫째 전제는 지나치게 좁다.
- (다)로 시험한 둘째 전제: 사진도 기계의 산물이라 예술이 아니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찍을지 고르는 사람의 시선이 담기며 예술로 인정받았다. 둘째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 판정: (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버릴 층위 2022년 대회의 세부, 출품비 규칙과 칸막이, 2004년 전문가 조사, 보들레르의 표현, 미술관 사진 부서가 생긴 해. **함정** '인공지능 그림은 무조건 예술이다'로 나아가면 지나친 결론이다. (나)와 (다)가 보여 주는 것은 기계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데까지다. '인공지능 그림도 아름답다' 같은 자기 감상으로 판정하지도 않는다. **한 걸음 더** 타당성 검토형은 판정이 생명이다. '일리도 있지만 문제도 있다'로 끝내면 판정을 피한 것이다.

> **예시답안** 공백 포함 426자
>
> (가)는 예술이 작가가 겪은 감정을 전하는 일인데 인공지능에게는 감정이 없다는 근거로, 인공지능 그림은 예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논증은 예술성이 만든 이의 손과 감정에서만 나오며, 기계의 산물은 예술이 될 수 없다는 두 전제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샘」은 손수 만들지 않은 공장 제품이었지만, 일상의 물건을 골라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킨 선택만으로 미술사에 남았다. 첫째 전제는 지나치게 좁은 것이다. 또 (다)의 사진도 기계의 산물이라 예술이 아니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찍을지 고르는 사람의 시선이 담기며 예술로 인정받았다. 둘째 전제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에서 사람의 몫을 강조한 점은 옳지만, (가)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인공지능 그림도 그것을 고르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예술이 될 수 있다.

연습 3 해설 · 반박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가)의 논지와 논거: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예외 없는 의무다. 거짓말은 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인류 전체를 해치며, 결과는 좌우할 수 없으므로 좋은 결과를 내세워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없다.
- 겨냥할 핵심 전제: 진실을 말할 의무는 상대가 누구든 똑같이 성립한다.
- (나)로 무너뜨리기: 의무는 권리와 짝을 이루므로, 들을 권리가 없는 사람, 곧 남을 해치려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할 의무도 없다. 결과에 기댄 반론이 아니므로 (가)의 결과 논거로 막을 수 없다. 다만 (가)는 '눈앞의 상대를 해치지 않더라도 인류 전체를 해친다'며 상대의 권리를 따지는 반론도 막아 두었으므로, 조건 없는 정직이 오히려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나)의 첫 주장을 함께 쓰면 빈틈이 없다.
- (다)로 무너뜨리기: (가)의 원칙대로라면 아이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속인 센들러의 거짓 서류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일로 의인으로 기려졌다. 의인으로 기려진 행동까지 그르다고 판정한다면 원칙의 적용 범위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목숨을 살렸으니 거짓말이 옳다'는 결과 계산이 아니라, 원칙이 낳는 귀결을 시험하는 반례다.
- 반대 결론: 정직은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해치려는 자에게까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는 (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버릴 층위 사형 선고와 풀려난 경위, 게토의 담장과 명단을 묻은 병, 붙잡힌 날짜, 추모 기관의 이름, 친구가 몰래 빠져나가는 가정. **함정** 센들러가 고문 속에서 입을 열지 않은 것은 침묵이지 거짓말이 아니다. (가)가 의무로 내세운 것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일이므로, 침묵은 (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로 반박할 때는 침묵이 아니라 거짓 서류를 겨냥해야 정확하다. 거짓 서류는 어쩔 수 없이 한 대답이 아니라 스스로 꾸민 거짓이므로 (가)의 결론에 더 분명하게 걸린다. **한 걸음 더** '거짓말을 하면 친구를 살릴 수 있다'처럼 결과에 기댄 반박은 (가)가 이미 막아 둔 문을 두드리는 셈이다. 반박형에서는 상대가 막아 둔 문이 아니라, 상대의 핵심 전제를 겨냥한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539자

(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예외 없는 의무이므로, 친구를 쫓는 살인자에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려 인류 전체를 해치며, 결과로 정당화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상대가 누구든 성립한다는 전제에 기대고 있다. (나)에 따르면 의무와 권리는 짝을 이루므로, 진실을 말할 의무는 상대에게 그것을 들을 권리가 있을 때에만 생긴다. 살인자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으니, 그에게 거짓으로 답하는 것은 결과를 따질 것도 없이 의무를 어기는 일이 아니다. (나)는 조건 없는 정직이 오히려 사회를 무너뜨린다고 보므로, 인류 전체를 해친다는 (가)의 논거도 흔들린다. 또 (가)의 원칙대로라면 (다)의 센들러는 아이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거짓 서류로 속여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일로 오늘날 의인으로 기려진다. 의로운 행동을 그르다고 판정하는 원칙이라면 그 적용 범위가 잘못 그어진 것이다. 따라서 정직은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그 의무를 해치려는 자에게까지 넓힌 (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VI

문제해결형

원인을 찾아 실행할 수 있는 대안 세우기 대안 활용 · 대안 제시 · 조건 충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좋은 말을 덧붙이는 일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찾아 실제로 바꿀 방법을 내놓는 일입니다. 출제자는 제시문 속 대안을 활용하거나, 원인을 밝혀 대안을 세우거나, 맞서는 입장을 함께 만족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문제를 진단하는 법, 제시문을 대안 문장으로 바꾸는 법, 대안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점검하는 법을 손으로 익힙니다.

학습 목표

1. 논제와 제시문에서 해결할 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하면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활용할 제시문을 요약하지 않고 지금의 문제에 쓸 대안 문장으로 간명화할 수 있다.
3. 누가·무엇을·어떻게가 드러나도록 대안을 구체화하고, 반론과 조건까지 점검해 쓸 수 있다.

이 단원의 흐름

1	왜 문제를 해결하는가	대학이 문제 해결력을 묻는 이유	138
2	핵심 해법	문제해결 4단계 · 간명화 · 대안의 수준 · 대안 점검표	139
3	시범	구경꾼이 된 축제를 되살리는 방안	143
4	단계 훈련	모둠 과제의 무임승차 해결하기	146
5	실전	대안 활용 · 조건 충족 · 원인과 대안	149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158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159

1 왜 문제를 해결하는가

지금까지 익힌 요약과 비교, 공통 쟁점 찾기, 적용과 분석, 논증의 평가는 모두 제시문을 정확히 읽고 따지는 일이었습니다. 문제해결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읽고 따진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제시문 속 대안을 활용하거나, 원인을 밝혀 스스로 대안을 세우거나, 맞서는 입장을 모두 만족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대학이 이 능력을 묻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대학과 사회에서 마주치는 문제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여러 글에서 얻은 생각을 종합해 처음 보는 문제에 맞게 바꾸어 쓰는 힘, 곧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대학이 꼭 확인하려는 능력입니다. 외워서 갖출 수 없는 힘이라, 이 유형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실력 차가 크게 드러납니다.

■ 문제해결형 논제의 모습

논제의 형태	무엇을 요구하는가	유형
(나)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제시문 속 대안을 문제에 맞게 바꾸기	대안 활용
(나)와 (다)의 논지를 통합하여 (가)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두 제시문의 대안을 하나로 엮기	대안 활용(통합)
(나)를 바탕으로 (가)의 원인을 밝히고 방안을 제시하시오.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없애는 대안 세우기	대안 제시
(나)와 (다)의 입장을 모두 충족하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맞서는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하는 대안 짜기	조건 충족

‘방안’, ‘대안’, ‘해결책’, ‘극복 방안’, ‘실현하기 위한 방향’ 같은 말이 논제에 나오면 이 유형입니다. 원인을 밝히는 데서 멈추면 적용분석형(IV단원)입니다. IV단원의 ‘원인과 대안’이 원인을 찾는 데 무게를 두었다면, 이 단원에서는 그 원인을 겨냥한 대안을 세우고 다듬는 데 무게를 둡니다.

■ 채점자는 무엇을 보는가

항목	확인하는 것
문제 진단	해결할 문제를 논제가 준 관점으로 정확히 짚었는가
제시문 활용	제시문을 요약하지 않고 대안의 원리로 바꾸어 썼는가
원인 겨냥	대안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가
구체성	누가·무엇을·어떻게가 드러나고, 반론과 조건까지 고려했는가
형식	정해진 분량과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는가

좋은 말이 아니라 쓸 수 있는 해법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문제를 바꾸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까지 내다본 구체적인 한 걸음입니다. 이 단원에서 기르는 것은 화려한 상상력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해법을 끝까지 다듬는 태도입니다.

2 핵심 해법

이 단원에서 쓰는 말

문제 상황	바람직하지 않아 해결해야 할 상태.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피해를 겪는지 드러나야 한다.
근본 원인	겉으로 보이는 계기가 아니라, 없애면 문제도 사라지는 원인. 대안이 겨냥할 과녁이다.
대안	문제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무엇을 바꿀지 담은 방안.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드러나야 한다.
간명화	활용할 제시문을 요약하지 않고, 지금의 문제에 쓸 수 있는 대안 문장으로 바꾸어 쓰는 일.
구체화	대안을 실행할 수 있게 다듬는 일. 실행 방법을 자세히 쓰고, 예상되는 반론에 답하고, 기대 효과를 밝힌다.
심화와 다각화	대안 하나를 깊이 다듬는 것이 심화, 방향이 다른 대안 여럿을 갖추는 것이 다각화다.

(1) 문제해결 4단계

단계	대안 활용형	대안 제시형
STEP 1 문제 진단	논제와 제시문에서 해결할 문제를 찾아 한 문장으로 적는다. 논제가 관점을 주면 그 관점으로 문제를 진단한다.	
STEP 2 대안·원인 찾기	활용할 제시문에서 대안의 원리를 뽑아 간명화한다.	제시문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다.
STEP 3 대안 세우기	뽑은 원리를 문제에 맞게 바꾸어 구체화한다. 제시문이 둘이면 하나로 엮는다.	근본 원인을 없애는 대안을 세우고, 심화하거나 다각화한다.
STEP 4 점검과 서술	대안 점검표로 빈칸을 확인하고, 문제 → (원인) → 대안 → 구체화의 순서로 쓴다.	

두 유형이 섞인 '원인과 대안' 논제도 있습니다. '(나)를 바탕으로 원인을 밝히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처럼 원인은 한 제시문에서, 대안은 다른 제시문에서 찾게 하기도 합니다(연습 3). 조건 충족형은 STEP 2에서 두 제시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각각 뽑고, STEP 3에서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하는 대안을 세웁니다.

(2) 간명화 — 요약이 아니라 대안 문장으로

활용할 제시문을 그대로 요약하면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제시문의 원리를 지금의 문제에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선 시대의 향약을 설명한 짧은 글로 연습해 봅시다.

> 향약은 조선 시대에 지방의 사림이 앞장서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정해 지킨 자치 규약이다. 착한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은 서로 바로잡아 주며, 예의로 사귀고,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네 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했다. 마을에서 생긴 문제는 관청에 맡기기보다 이웃끼리 먼저 풀어 나갔다.

수준	문장	판정
요약	향약은 조선 시대 마을의 자치 규약으로, 네 가지 덕목을 담았다.	× 제시문을 옮겼을 뿐,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가 없다.
간명화	구성원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서로 권하고 바로잡게 하면, 밖의 강제 없이도 공동체의 문제를 풀 수 있다.	○ 다른 문제에 옮겨 쓸 수 있는 대안의 원리가 되었다.

(3) 대안의 수준 — 추상적 대안, 심화, 다각화

점심시간마다 급식실 앞에 긴 줄이 늘어서, 늦게 도착한 학생들은 10분 만에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해 봅시다. 줄이 길어지는 까닭은 모든 학생이 같은 시각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수준	대안	판정
추상적 대안	급식실을 넓혀야 한다.	× 누가, 언제, 어떻게가 없고 비용도 따지지 않았다. 모두가 한꺼번에 몰린다는 원인도 겨냥하지 못한다.
심화	학년마다 배식 시작 시각을 10분씩 달리하는 '시차 배식'을 한다.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학년마다 4교시 시작을 10분씩 당기거나 미루면 수업 시간은 그대로 지킬 수 있다.	○ 원인을 겨냥하고, 실행 방법과 반론·재반론을 갖추었다.
다각화	시차 배식으로 몰리는 시각을 나누고, 점심시간 초반에 도서관을 열어 일부 학생이 식사를 뒤로 미루게 하며, 붐비는 시각을 미리 알려 학생들이 스스로 시간을 고르게 한다.	○ 방향이 다른 대안들이 같은 원인을 함께 겨냥한다.

심화와 다각화 가운데 어느 쪽이 낫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분량이 짧으면 대안 하나를 깊이 다듬는 심화가, 분량이 넉넉하고 문제가 여러 갈래면 다각화가 알맞습니다. 다각화할 때도 대안마다 원인과의 연결을 밝혀야 단순한 나열이 되지 않습니다.

(4) 대안 점검표 — 빈칸이 곧 감점이다

점검	묻는 것	시차 배식에 대어 보면
주체	누가 하는가	급식 담당 교사와 학생회
수단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가	학년마다 배식 시작 시각을 10분씩 달리한다
원인 겨냥	근본 원인을 없애는가	한꺼번에 몰리던 학생을 시간대별로 나눈다
실현 가능성	돈·시간·제도로 보아 할 수 있는가	시설을 늘리지 않고 시간표만 바꾼다
부작용과 대비	새로 생기는 문제는 없는가	수업 시간 문제는 4교시 시작을 조정해 막는다
기대 효과	무엇이 나아지는가	기다리는 시간이 줄고 식사 시간이 늘어난다

(5) 답안은 이렇게 짓는다

순서	쓰는 법
① 문제 진단	논제가 준 관점으로, 무엇이 왜 문제인지 한두 문장으로 밝힌다.
② 원인 (요구할 때)	제시문으로 근본 원인을 짚는다. 결과를 되풀이하거나 사람의 성품을 탓하지 않는다.
③ 근거와 대안	활용할 제시문을 간명화해 대안의 원리로 삼고, 지금의 문제에 맞게 바꾼다.
④ 구체화	누가·무엇을·어떻게를 쓰고, 예상되는 반론에 답하거나 기대 효과를 밝힌다.

어느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사이의 다툼이 잦아, 관리 사무소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 봅시다. 앞의 향약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향약을 활용하여 층간 소음 갈등의 해결 방안을 쓴 짧은 답안**
>
> 이 아파트의 문제는 소음 그 자체보다, 이웃끼리 풀 길이 없어 다툼이 관리 사무소의 민원으로만 쌓인다는 데 있다. 향약은 구성원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서로 권하고 바로잡게 하면 밖의 강제 없이도 공동체의 문제를 풀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동마다 주민들이 모여 밤 10시 이후에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생활 규칙을 함께 정하고, 다툼이 생기면 주민 대표가 먼저 중재하게 해야 한다. 향약이 마을의 문제를 관청보다 먼저 이웃끼리 풀었듯이, 스스로 정한 규칙은 갈등이 민원으로 번지기 전에 풀게 하고 서로 얼굴을 익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6) 자주 빠지는 함정

함정	이렇게 피한다
추상적 대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대안이 아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쓴다.
원인과 따로 노는 대안	찾은 원인을 겨냥하지 않는 대안은 그럴듯해도 문제를 풀지 못한다. 대안마다 없애는 원인을 확인한다.
통째로 없애기	문제가 생긴 활동을 통째로 없애면 그 쓸모까지 버린다. 활동은 살리고 원인만 걷어 낸다.
제시문 요약 나열	활용할 제시문을 차례로 요약하면 대안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문제에 쓸 대안 문장으로 간명화한다.
제시문을 버린 아이디어	활용하라는 제시문 없이 자기 아이디어만 쓰면 논제를 벗어난다. 뼈대는 제시문에서, 살은 자기 생각으로 붙인다.
실현할 수 없는 대안	누가 할지 알 수 없거나 비용과 제도를 무시한 대안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 있는 사람과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쓴다.
부작용 외면	대안이 낳을 새 문제를 모른 척하면 허술해 보인다. 예상되는 반론 하나에 제대로 답한다.
당부로 끝내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로 맺으면 대안이 흐려진다. 대안이나 그 기대 효과로 맺는다.

(7) 진단과 대안을 드러내는 표현

쓰임	쓸 수 있는 표현	이럴 때 쓴다
문제 진단	(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다 / 문제의 핵심은 ~이다	첫머리에서 문제를 밝힐 때
원인	이는 ~ 때문이 아니라 ~ 때문이다	근본 원인을 짚을 때
대안	따라서 ~해야 한다 / ~을 활용하면 ~할 수 있다	대안을 내놓을 때
구체화	예를 들어 ~ / 먼저 ~하고, 이어서 ~한다	실행 방법을 보일 때
반론과 재반론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	예상되는 반론에 답할 때
기대 효과	그러면 ~할 것이다 /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안의 쓸모를 밝힐 때

3 시범 — 구경꾼이 된 축제를 되살리는 방안

시범 400자 내외

(나)에 나타난 현대 축제의 문제점을 (가)의 관점에서 지적하고, (다)를 활용하여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318자 · (나) 352자 · (다) 360자 · 합계 1,030자

(가) 여든을 앞둔 박 노인은 손자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는 축제에 마지못해 따라나섰다. 풍물패 아이들이 북을 맡아 달라고 졸랐을 때만 해도 그는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장구와 꽹과리 사이에서 북채를 쥐자, 젊은 날 마을 굿판에서 익힌 가락이 생각보다 먼저 손끝에서 살아났다. 박자를 놓친 아이들은 그의 북소리에 발을 맞추었고, 구경하던 이웃들도 하나둘 마당으로 내려와 어깨를 들썩였다. 판이 끝나자 박 노인은 땀에 젖은 채 아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알 수 없는 마당에서, 그는 오랜만에 마을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 이 교재가 새로 지은 장면

(나) 해마다 곳곳에서 수많은 지역 축제가 열리지만, 축제를 찾은 사람들의 하루는 서로 닮아 있다. 무대 위에서는 초청 가수가 노래하고, 사람들은 객석에 앉아 박수를 치다가 먹거리 장터를 한 바퀴 돌고 떠난다. 축제를 짜는 일은 행사 대행사가 맡고, 주민은 자기 마을 축제의 구경꾼이 되거나 주차 안내와 음식 판매를 하며, 더러는 아예 축제를 피해 집을 비운다. 축제의 성공은 방문객 수와 매출로 평가되고, 그래서 해마다 더 유명한 가수와 더 큰 무대가 필요해진다. 축제는 커졌지만 그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은 줄었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판을 벌이고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던 축제는, 돈을 내고 구경하는 공연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 현대 축제를 둘러싼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하위징아는 1938년에 펴낸 책에서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이라 불렀다. 그에 따르면 놀이의 첫째 특징은 자유다. 시켜서 하는 놀이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며, 기껏해야 놀이를 억지로 흉내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놀이는 일상의 쓸모에서 벗어나 정해진 시간과 장소 안에서, 참여자들이 따르기로 한 규칙에 따라 벌어진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평소의 신분과 역할을 잠시 내려놓는다.

그래서 함께 놀았던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라는 특별한 유대가 생기고, 이 놀이 공동체는 놀이가 끝난 뒤에도 오래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위징아는 근대의 스포츠가 점점 체계화되고 직업화되면서 놀이 본래의 순수한 성격을 잃어 간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 하위징아의 『호모 루덴스』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STEP 1 해결할 문제 진단

논제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에 나타난 문제점을 **(가)의 관점에서** 지적하는 것, 그리고 (다)를 활용해 이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대안의 원리가 제시문 안에 담겨 있으니 대안 활용형입니다. 먼저 (가)의 관점을 잡아야 (나)의 모습이 문제로 보입니다.

(가)가 보여 주는 축제	(나)의 현대 축제	그래서 생긴 문제
누가 주인이고 손님인지 알 수 없다.	주민은 관객이 되거나 축제를 피한다.	주민이 축제의 주인 자리를 잃었다.
노인과 아이, 이웃이 한 마당에서 어울린다.	함께 어울리는 사람은 줄었다.	세대와 이웃을 잇던 경험이 사라졌다.
스스로 북을 잡고 판에 끼어든다.	대행사가 짜고 초청 가수가 채운다.	참여가 구경으로 바뀌었다.

> **함정 확인**
>
> (나)의 문제를 '축제가 상업화되었다'로만 쓰면 (가)의 관점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논제는 (가)의 관점에서 지적하라고 했으니, 상업화가 낳은 결과, 곧 주민이 주인에서 구경꾼으로 밀려나 함께 어울리는 경험을 잃었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박 노인의 북 솜씨나 악기 이름 같은 장면의 세부는 옮기지 않습니다.

STEP 2 대안의 원리 뽑기 — 간명화

(다)의 내용	요약하면 (×)	간명화하면 (○)
놀이의 첫째 특징은 자유다.	놀이는 자유로운 것이다.	축제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놀이여야 한다. 짜인 행사를 구경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함께 따르기로 한 규칙, 신분과 역할을 내려놓음	놀이에서는 규칙을 따르고 신분을 내려놓는다.	주민이 함께 규칙을 정하고, 나이와 처지를 떠나 한 판에서 어울리게 한다.
함께 논 사람들 사이의 오래가는 유대	놀이는 공동체를 만든다.	구경이 아니라 함께 노는 경험이 이웃의 유대를 남긴다.
스포츠의 직업화에 대한 우려	스포츠가 놀이의 성격을 잃었다.	전문 공연자에게 맡긴 축제는 놀이의 성격을 잃는다.

요약은 제시문의 말을 옮기고, 간명화는 그 말을 대안의 원리로 바꿉니다. 오른쪽 칸만 모아도 대안의 뼈대가 섭니다.

STEP 3 대안 세우기와 구체화

구체화	이 문제에 맞춘 내용
주체	축제 준비를 대행사 대신 주민 모임이 맡는다.
수단	초청 공연을 줄이고, 주민이 함께 겨루는 줄다리기와 풍물 마당을 중심에 둔다.
원인 겨냥	주민을 객석에 앉힌 공연 중심의 짜임을 참여 중심으로 바꾼다.
반론과 재반론	방문객이 줄 것이다 → 함께 논 유대는 축제가 끝난 뒤에도 남는다.

STEP 4 점검과 서술

개요는 '(가)의 관점으로 본 문제 → (다)에서 뽑은 근거 → 대안 → 구체화와 반론'의 순서입니다. 같은 대안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해법이 되기도 하고 구호에 그치기도 합니다.

수준	문장	판정
추상적 대안	축제를 살리려면 주민들이 축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없다.
제시문 요약 나열	(다)에 따르면 놀이는 자유이고, 규칙이 있으며, 공동체를 만든다.	× 제시문을 옮겼을 뿐 대안이 아니다.
원인과 따로 노는 대안	입장료를 없애 더 많은 사람이 축제에 오게 해야 한다.	× 관객을 늘릴 뿐, 주민이 구경꾼이 된 원인은 그대로다.
알맞음	축제 준비를 주민 모임이 맡아 초청 공연을 줄이고, 주민이 함께 규칙을 정해 겨루는 마당을 축제의 중심에 둔다.	○ 원인을 겨냥하고 누가·무엇을·어떻게가 드러난다.

서술 문제 → 근거 → 대안 → 구체화의 순서로

예시답안 공백 포함 435자

(가)의 관점에서 축제는 주인과 손님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세대와 이웃을 잇는 자리다. 그러나 (나)의 현대 축제에서 주민은 판을 벌이는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으로 밀려났고, 축제는 관람객 수와 수익으로 성패를 따지는 공연이 되었다. 함께 어울리며 '우리'가 되는 경험이 사라진 것이다. (다)에 따르면 놀이는 스스로 참여할 때에만 놀이이며, 함께 논 사람들 사이에 오래가는 유대를 남긴다. 따라서 축제를 다시 주민의 놀이로 되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축제 준비를 대행사 대신 주민 모임이 맡아 초청 공연을 줄이고, 주민이 함께 규칙을 정해 겨루는 줄다리기나 누구나 끼어드는 풍물 마당을 축제의 중심에 둘 수 있다. 볼거리가 줄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함께 논 유대는 축제가 끝난 뒤에도 남으니 관객 수보다 참여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

답안의 문장	하는 일
첫째 문장	(가)의 관점: 축제는 주인과 손님의 구분 없이 어울리며 세대와 이웃을 잇는 자리다.
둘째·셋째 문장	문제 진단: (나)의 축제에서 주민이 관객으로 밀려나 '우리'가 되는 경험이 사라졌다.
넷째 문장	근거: (다)를 간명화해 대안의 원리로 삼았다.
다섯째·여섯째 문장	대안과 구체화: 주체(주민 모임)와 수단(참여 마당 중심)을 밝혔다.
일곱째 문장	반론과 재반론: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에 (다)의 오래가는 유대로 답했다.

한 걸음 더 문제해결형 채점에서 흔히 강조되는 것은 '제시문을 끌어 쓰되 그대로 되풀이하지 말고, 넓히고 바꾸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시답안은 (다)의 놀이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주민 모임', '줄다리기', '풍물 마당'이라는 축제의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제시문을 활용한다는 말의 참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4 단계 훈련 — 모둠 과제의 무임승차 해결하기

단계 훈련 400자 내외

(나)를 바탕으로 (가)에 나타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겨냥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아래 활동 ①~④를 차례로 해결한 뒤, 활동 ⑤에서 답안을 쓰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305자 · (나) 374자 · 합계 679자

(가) 한 고등학교가 네 명씩 모둠을 지어 한 학기 동안 탐구 보고서를 쓰게 했다. 학기 말에 조사해 보니, 모둠마다 보고서의 대부분을 쓴 학생은 평균 한두 명이었다. 나머지는 자료를 몇 개 찾아 주거나 회의에 얼굴만 비쳤지만, 점수는 모둠원 모두가 똑같이 받았다. 보고서를 도맡은 학생의 절반 이상은 '다음에는 나도 적당히 하겠다'고 답했다.

교사 회의에서는 모둠 과제가 오히려 학생들의 책임감을 떨어뜨린다며, 모둠 과제를 없애고 개인 과제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협력하는 법을 배울 기회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 이 교재가 새로 쓴 사례(조사 결과는 가상의 것)

(나) 프랑스의 농업 공학자 링겔만은 사람들에게 밧줄을 당기게 하고 그 힘을 쟀다. 함께 당기는 사람이 늘수록 전체의 힘은 커졌지만, 한 사람이 내는 힘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뒤의 연구자들은 함께 일할 때 각자의 노력이 줄어드는 이 현상을 '사회적 태만'이라고 불렀다. 여럿이 함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게 한 실험에서도 사람들은 혼자일 때보다 힘을 덜 썼다.

연구자들은 그 까닭을, 여럿이 함께한 일에서는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뉘어 흐려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각자의 몫을 따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 태만은 크게 줄었다. 과제가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도 태만은 줄어들었다.

— 사회심리학의 '사회적 태만' 연구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STEP 1 **활동 ① (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STEP 2 **활동 ② (나)에서 사회적 태만이 생기는 까닭 두 가지를 찾아 (가)에 대어 쓰시오.**

(나)가 말하는 까닭	(가)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
까닭 ①	
까닭 ②	

STEP 3 **활동 ③ 근본 원인을 겨냥한 대안을 하나 세우고, 대안 점검표로 확인하시오.**

점검	나의 대안
주체	
수단	
원인 겨냥	
실현 가능성	
부작용과 대비	
기대 효과	

STEP 4 **활동 ④ 함정 찾기**

(가)의 교사 회의에서 나온 '모둠 과제를 없애고 개인 과제로 돌아가자'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아닌 까닭을 (나)를 근거로 쓰시오.

서술 **활동 ⑤ 400자 내외로 쓰시오.** 20칸 × 24줄 = 4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5 실전

이제 시간을 재고 혼자 씁니다. 묻는 방식은 대안 활용, 조건 충족, 원인과 대안으로 바뀌지만 할 일은 같습니다. 해결할 문제를 진단하고, 제시문을 대안의 원리로 간명화하고, 누가·무엇을·어떻게가 드러나게 구체화한 뒤, 반론과 조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해설은 7절에 있으니 다 쓴 뒤에 확인하십시오.

문항	제시문	답안	시간	이번에 새로 요구하는 것
연습 1 대안 활용	3편 · 1,062자	400자	25분	원리를 담은 글과 실천을 담은 글을 하나로 엮기
연습 2 조건 충족	3편 · 799자	400자	25분	맞서는 두 입장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설계하기
연습 3 원인과 대안	3편 · 921자	500자	30분	원인을 찾고, 대안을 세우고, 예상되는 반론까지 다루기

연습 1 · 대안 활용 400자 내외 · 제한 시간 25분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남해의 한 섬마을 앞바다는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전복과 소라를 딸 수 있는 공동 어장이었다. 그런데 값이 오르자 사람들은 남보다 먼저, 더 많이 따려고 다투기 시작했다. 덜 자란 소라까지 거두어 갔고, 밤에 몰래 바다에 나가는 이도 생겼다. 내가 참아 봤자 남이 가져갈 뿐이라는 생각에 아무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십 년 사이 어획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군청이 단속반을 보냈지만 넓은 바다를 몇 사람이 지키기는 어려웠고, 단속반이 떠나면 다툼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대로 가면 몇 해 안에 바다가 텅 빌 것이라는 걱정이 마을에 퍼졌다.

— 이 교재가 새로 지은 마을 이야기(수치는 가상의 것)

(나) 주인이 따로 없는 자원은 결국 남용되어 사라진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해법은 국가가 통제하거나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뿐이라고 여겨졌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은 세 번째 길을 보여 주었다. 스위스의 산골 마을 퇴르벨 사람들은 1517년부터 '겨울 동안 먹일 수 있는 수보다 많은 소를 여름 목초지에 올리지 못한다'는 규칙을 지켜 왔고, 스페인 발렌시아의 농민들은 10세기 무렵부터 이어져 왔다는 '물 법정'을 매주 열어 물 다툼을 스스로 판결해 왔다.

오스트롬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공동체들에서 공통점을 찾아냈다. 자원을 쓰는 사람들이 그 자원의 사정에 맞는 규칙을 함께 정하고, 규칙이 지켜지는지 스스로 지켜보며, 어긴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가볍게, 되풀이하면 점점 무겁게 제재했다. 밖에서 정해 내려온 규칙보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사람들은 더 잘 지켰다.

— 오스트롬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다) 제주의 해녀들은 마을마다 해녀회를 꾸려 바다를 함께 돌본다. 언제 물질을 하고 어느 바다를 얼마 동안 쉬게 할지는 해녀들이 모여 정한다.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해산물은 따지 않고, 한 해에 거두는 양에도 한도를 둔다. 물질을 마치면 '불턱'이라 부르는 돌담 쉼터에 모여 불을 쬐며 바다 사정을 나누고, 경험 많은 해녀가 젊은 해녀에게 물질을 가르친다. 마을에 따라서는 앞바다의 얕은 곳을 나이 들거나 몸이 약한 해녀만 물질하는 '할망바당'으로 남겨 두기도 한다. 많이 따는 것보다 함께 오래 따는 것을 앞세운 이 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랐다.

— 제주 해녀 공동체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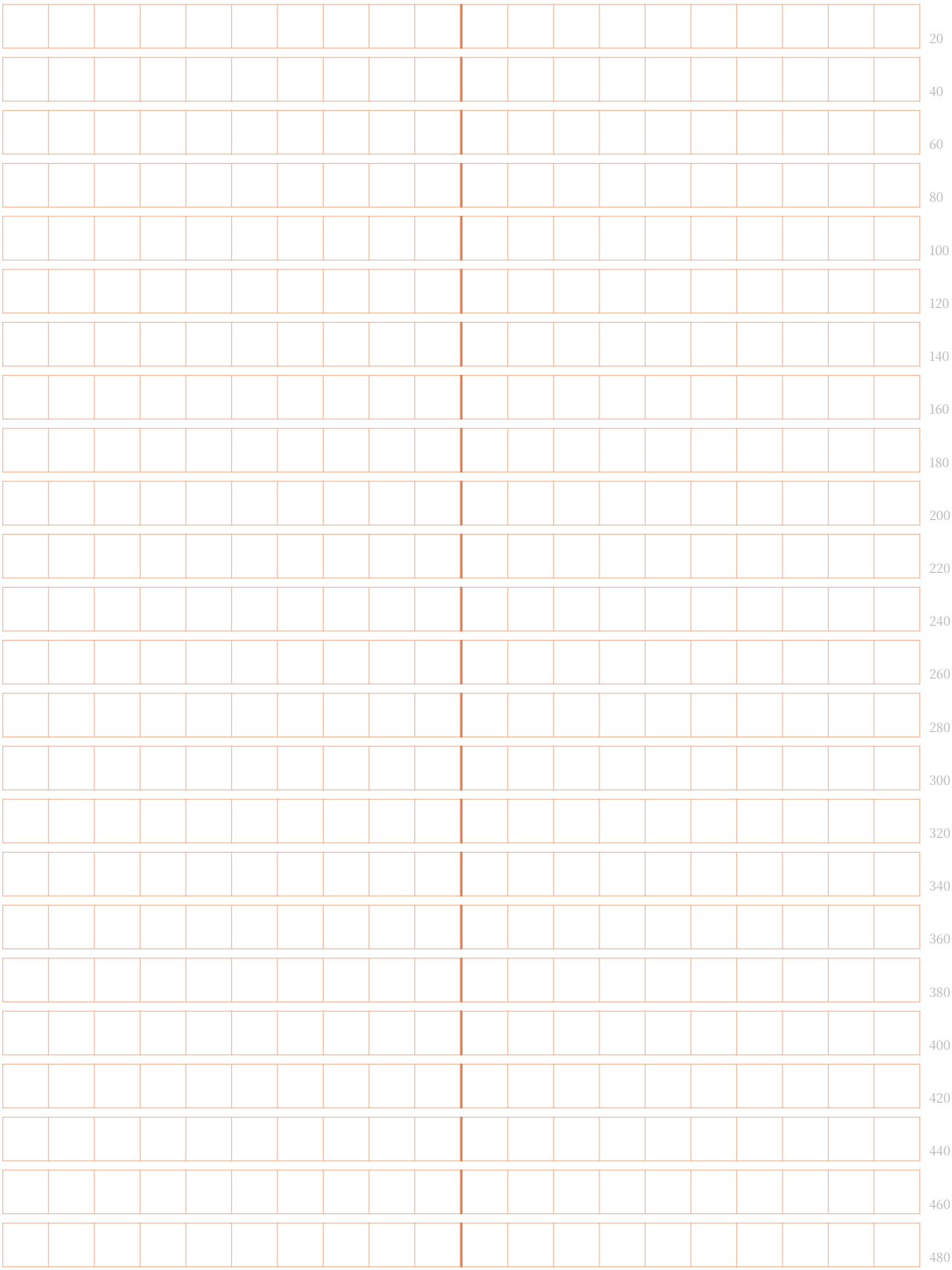
메모 쓰기 전에 — 원리와 실천을 하나로 엮기

물음	메모
(가)의 문제	
(나)에서 뽑은 대안의 원리	
(다)에서 뽑은 실천	
하나로 엮은 대안 (누가·무엇을·어떻게)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비

연습 1 답안지 · 400자 내외 20칸 × 24줄 = 4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연습 2 · 조건 충족 400자 내외 · 제한 시간 25분

(나)와 (다)의 입장을 모두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한옥 골목으로 이름난 한 마을은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진 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골목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비고, 열린 대문 안을 들여다보거나 담장 위에 올라앉는 이도 있다. 소음과 쓰레기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자, 빈집은 기념품 가게와 카페로 바뀌었다. 주민 모임은 관광객 출입을 막아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고, 상인들은 관광객이 줄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구청은 두 쪽의 요구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이 교재가 새로 지은 마을 이야기

(나) 관광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 숨을 불어넣는다. 관광객이 쓰는 돈은 가게와 식당에 머물지 않고 숙박과 교통, 지역 농산물로 퍼져 나간다. 관광객을 막는 것은 지역이 스스로 숨통을 조이는 일이다. 문제는 관광객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관광이 낳은 이익은 몇몇 사람에게만 돌아가고 그 비용은 주민들이 떠안는 데 있다. 관광의 이익이 마을 전체로 고루 돌아가고 그 일부가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데 쓰인다면, 주민도 관광객을 이웃처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관광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다) 마을은 구경거리이기 전에 사람이 사는 곳이다. 주민이 떠난 마을은 아무리 붐벼도 껍데기만 남은 무대 세트에 지나지 않는다. 관광객이 마을을 찾는 까닭인 고즈넉한 골목과 이웃의 삶이 사라지면, 결국 관광객도 발길을 끊는다. 주민에게는 밤에 조용히 쉴 권리와 집 안을 남에게 보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관광은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민의 일상을 해치지 않는 시간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보여 줄지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정해야 한다.

— 관광과 주거권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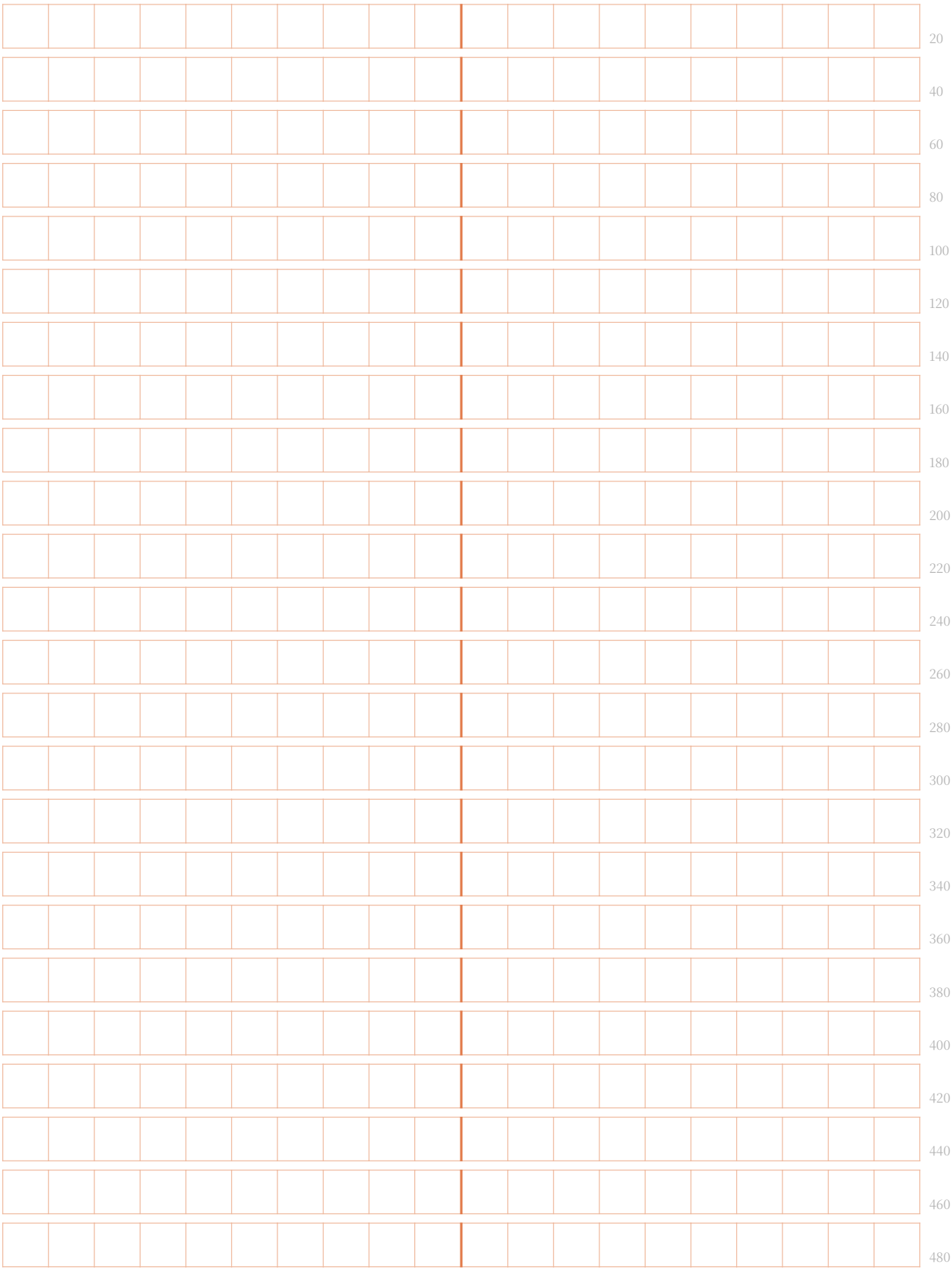
메모 **쓰기 전에 —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하는 대안 찾기**

물음	메모
(가)의 문제	
(나)가 요구하는 조건	
(다)가 요구하는 조건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하는 대안	

반론과 재반론

연습 2 답안지 · 400자 내외 20칸 × 24줄 = 4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연습 3 · 원인과 대안 500자 내외 · 제한 시간 30분

(나)를 바탕으로 (가)의 문제가 생긴 원인을 밝히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단, 예상되는 반론을 함께 고려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한 도시의 고등학생 천 명을 조사했더니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50분이었다. 열 명 가운데 일곱은 1교시에 졸음을 참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도시의 고등학교는 대부분 아침 7시 50분까지 등교하게 하고, 그보다 일찍 자율 학습을 시작하는 학교도 있다. 학생 대다수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는데, 일찍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이 절반에 가까웠다. 학교와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끄고 일찍 자라'고 거듭 당부하지만, 학생들의 수면 시간은 해마다 줄고 있다.

— 이 교재가 새로 쓴 기사(조사 결과는 가상의 것)

(나) 사람의 몸에는 하루를 주기로 잠들고 깨는 때를 조절하는 시계가 있다. 저녁이 되면 뇌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 잠을 부른다.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서면 이 호르몬이 나오는 시각이 뒤로 늦춰진다. 청소년이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는 것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니라, 몸의 시계 자체가 늦게 맞춰지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잠은 하루 8~10시간이다. 그러나 잠드는 시각은 몸이 늦추는데 일어나는 시각은 학교가 정하니, 그 사이에서 잠이 깎여 나간다. 이렇게 쌓인 수면 부족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게 만든다.

— 청소년의 생체 리듬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2014년, 중·고등학교의 수업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시작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2016년 가을 시애틀의 공립 고등학교들은 등교 시각을 7시 50분에서 8시 45분으로 늦추었다. 연구진이 손목에 차는 활동 측정기로 두 학교 학생들의 잠을 재어 보니, 학생들은 전보다 크게 늦게 잠들지 않았고 대신 더 늦게 일어나, 평일 수면 시간이 중앙값 기준으로 34분 늘었다. 낮 동안의 졸음은 줄었고, 같은 과목을 들은 학생들의 기말 성적은 4.5% 높아졌으며, 한 학교에서는 1교시 지각과 결석도 줄었다. 이를 위해 시애틀 교육청은 대부분의 초등학교 수업 시작을 앞당기고 통학 버스의 운행 순서를 바꾸었다.

— 미국 시애틀의 등교 시각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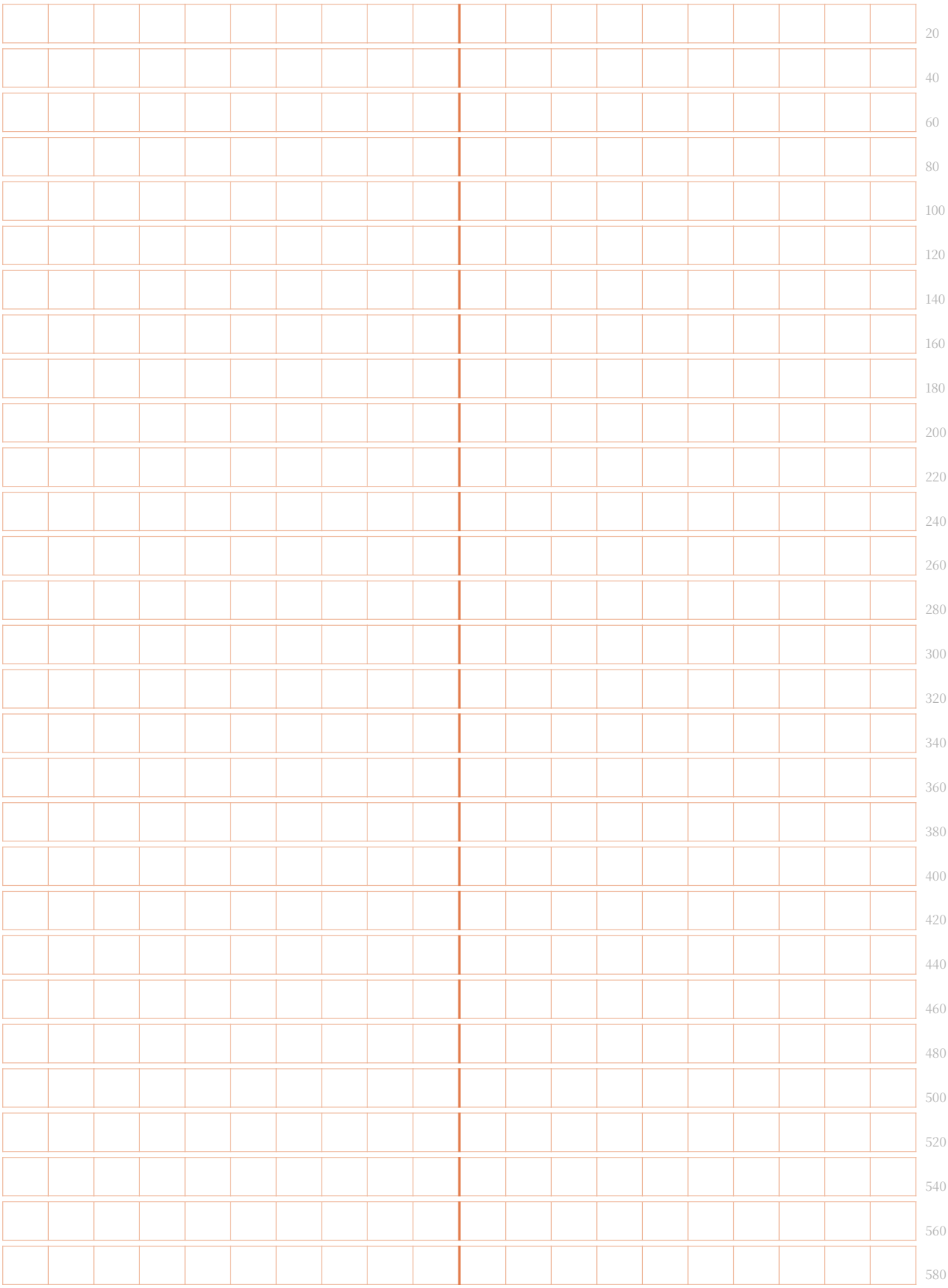
메모 **쓰기 전에 — 원인에서 대안, 반론까지**

물음	메모
(가)의 문제	
(나)로 찾은 근본 원인	
(다)에서 가져온 대안	
예상되는 반론과 재반론	

기대 효과

연습 3 답안지 · 500자 내외 20칸 × 29줄 = 5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답안을 다 썼으면 먼저 스스로 채점합니다.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점수를 잃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세 번 넘어진다면, 그 자리가 바로 다음 수업의 과제입니다.

영역	배점	만점 기준	이럴 때 깎인다
내용	5	해결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제시문의 원인·대안을 바르게 끌어왔다(2). 원인을 겨냥한 대안을 누가·무엇을·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제가 요구한 조건을 갖추었다(3).	제시문을 왜곡하거나 거꾸로 읽으면 내용은 1점(다른 내용 감점은 더하지 않는다). 논제가 지정한 제시문 하나를 요구대로 쓰지 않을 때마다 −1. 대안이 원인을 겨냥하지 않거나 구호에 그쳤다 −1. 논제가 요구한 조건(두 입장 충족, 반론 고려 등)을 갖추지 못했다 −1.
구성	2	문제 → (원인) → 대안 → 구체화의 흐름이 분명하고, 대안에 무게가 실렸다.	대안과 잇지 않고 제시문의 내용을 차례로 늘어놓았다 −1. 결론이 없거나, 대안 없이 다른 결론(교훈, 당부 등)만 내렸다 −1.
표현	2	대안을 실행의 말로 구체적으로 썼고, 문장이 정확하다.	10자 이상 그대로 옮긴 구절이 두 곳 이상 −1. 논제가 요구하지 않은 의견·감상·당부를 덧붙였거나, 제시문에 없는 사실·통계, 감정적 표현이 섞였다 −1.
형식	1	분량이 ±10% 안에 있고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다.	분량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원고지를 잘못 썼다 −1.

한 가지 잘못은 한 영역에서만 깎습니다. 원인을 자기 생각으로 짚은 잘못은 내용에서, 답안에 덧붙인 의견·당부는 표현에서 깎습니다. 대안을 구체화하는 자기 생각은 이 유형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감점하지 않지만, 그 근거는 제시문의 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채점표는 바른에듀케이션 수업용 기준입니다. 대학별 실제 채점 기준은 『합격 포인트』 시리즈에서 확인합니다.

■ 제출 전 자기 점검

- ☐ 논제가 요구한 것(문제 지적, 원인, 대안, 조건)을 표시하고, 활용할 제시문을 갈랐다.
- ☐ 해결할 문제를 결과의 되풀이가 아니라 무엇이 왜 문제인지로 밝혔다.
- ☐ 원인을 물으면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제시문으로 근본 원인을 짚었다.
- ☐ 활용할 제시문을 요약하지 않고 대안 문장으로 간명화했다. 제시문이 둘이면 둘 다 썼다.
- ☐ 대안에 누가·무엇을·어떻게를 드러냈고, 찾은 원인을 겨냥해 대안을 세웠다.
- ☐ 논제가 요구한 조건(두 입장, 반론 등)을 갖추었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답했다.
- ☐ 제시문과 10자 이상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이 없고, 당부나 감상, 제시문에 없는 사실·통계를 넣지 않았다.
- ☐ 당부가 아니라 대안으로 맺었고 분량을 지켰다. 공백을 포함해 세었고, 문단 첫 칸을 비웠다.

7 답안 비교와 해설

연습 3에 대한 세 학생의 답안입니다. 형광 표시는 제시문의 한 문장과 10자 이상(띄어쓰기 제외)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세 답안을 가른 것은 문장 솜씨가 아니라 **(나)로 찾은 원인에 맞추어 대안을 세웠는가**였습니다.

상 · 10점 학생 A — 원인에 맞춘 대안과 반론까지 갖춘 답안 공백 포함 503자

> (가)의 학생들은 하루 6시간도 못 자고, 열 명 중 일곱이 1교시마다 졸음과 싸운다. (나)에 따르면 사춘기에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늦게 나와 몸의 시계가 늦춰진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찍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데, 학교는 이른 아침부터 등교를 요구하니 잠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문제의 뿌리는 학생의 의지가 아니라 몸의 시계와 맞지 않는 등교 시각이며, '일찍 자라'는 당부가 통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다)의 시애틀처럼 수업 시작을 8시 30분 이후로 늦추어야 한다. 시애틀 학생들은 크게 늦게 자지 않고 더 늦게 일어나 잠을 34분 더 잤고, 낮의 졸음도 줄었다. 물론 등교가 늦어지면 초·중학교 등교와 겹쳐 통학이 더 붐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애틀이 초등학교의 시작을 앞당기고 버스 운행 순서를 바꾸었듯이, 학교급마다 등교 시각을 엇갈리게 하면 통학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는다. 잠이 회복되면 (나)에서 말한 집중력과 기억력도 되살아나 수업이 달라질 것이다.

내용 (나)로 원인을 정확히 짚었다. 잠이 부족한 까닭을 의지가 아니라 늦춰진 몸의 시계와 이른 등교 시각이 어긋나는 데서 찾고, '일찍 자라'는 당부가 통하지 않는 이유까지 밝혔다. (다)의 시애틀 사례로 대안을 세우고, 통학이 붐빈다는 반론에 (다)의 버스 조정 사례로 답했다.

구성 문제 → 원인 → 대안 → 반론과 재반론 → 기대 효과의 흐름이 분명하다.

표현 제시문 문장을 옮긴 곳이 없고, 대안을 실행의 말로 썼다.

점수 내용 5 · 구성 2 · 표현 2 · 형식 1

더 나아지려면 (가)에 이른 자율 학습을 하는 학교도 있다는 점을 짚어 함께 없애자고 하고, 아이가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 가정을 위한 대비책(일찍 오는 학생에게 도서관을 열어 두기 등)까지 덧붙이면 대안이 더 촘촘해진다.

중 · 5점 학생 B — 제시문을 옮기고 원인은 자기 생각으로 짚은 답안 공백 포함 464자

> (가)는 한 도시의 고등학생 천 명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50분이었고, 열 명 가운데 일곱은 1교시에 졸음을 참기 어렵다고 답했다. (나)는 사춘기가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시각이 뒤로 늦춰진다는 내용이다. 또 청소년에게 필요한 잠은 하루 8~10시간이라고 한다. (다)는 시애틀의 공립 고등학교들이 등교 시각을 7시 50분에서 8시 45분으로 늦추었다는 사례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수면 시간은 34분 늘었고 낮 동안의 졸음도 줄었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잠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이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잠들 시간을 놓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 등교 시각도 조금 늦추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수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원인을 (나)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자기 생각으로 짚었다. (나)는 요약만 하고 원인을 밝히는 데 쓰지 않았다(−1).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누가 어떻게 할지가 없는 구호이고, 등교 시각을 '조금' 늦추자는 말도 원인과 잇지 못한 채 덧붙였다(−1). 논제가 요구한 반론을 고려하지 않았다(−1).

구성 (가)·(나)·(다)를 차례로 요약한 뒤 자기 생각을 붙였다. 대안과 잇지 않고 제시문의 내용을 차례로 늘어놓았다(−1).

표현 제시문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구절이 여러 곳이다(−1). 원인을 자기 생각으로 짚은 잘못은 내용에서 이미 깎았으므로 다시 깎지 않는다.

점수 내용 2 · 구성 1 · 표현 1 · 형식 1

하 · 2점 **학생 C — (다)를 거꾸로 읽고 당부로 돌아간 답안** 공백 포함 276자

> 요즘 학생들은 잠이 너무 부족하다. (가)를 보면 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50분이었다. (나)에서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잠은 하루 8~10시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다)의 시애틀에서는 등교 시각을 늦추었더니 학생들이 그만큼 더 늦게 자서 수면 시간이 늘지 않았다. 따라서 등교 시각을 늦추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차라리 학교가 밤 11시 이후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용 (다)에서 시애틀 학생들은 전보다 크게 늦게 잠들지 않고 더 늦게 일어나 잠이 늘었는데, 이를 '더 늦게 자서 수면 시간이 늘지 않았다'로 거꾸로 읽었으므로 내용은 1점이다. 그 바람에 효과가 확인된 대안을 스스로 버리고, (나)가 밝힌 원인과도 맞지 않는 스마트폰 규칙을 내놓았다.

구성 (가)·(나)·(다)를 한 문장씩 옮긴 뒤 곧바로 결론을 냈다. 대안과 잇지 않고 제시문의 내용을 차례로 늘어놓았다(−1). 스마트폰 규칙이라는 대안은 냈으므로 결론 감점은 하지 않는다.

표현 제시문을 그대로 옮긴 구절이 두 곳이고(−1),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논제가 요구하지 않은 감상과 당부다(−1).

형식 500자 내외 문항에 276자다. 범위(450~550자)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1).

점수 내용 1 · 구성 1 · 표현 0 · 형식 0

세 답안이 알려 주는 것

학생 C는 (다)를 거꾸로 읽어, 효과가 확인된 대안을 스스로 버렸다. 그리고 결국 (가)의 학교와 부모가 하던 당부로 돌아갔다. 제시문을 바로 읽지 못하면 대안은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학생 B는 제시문을 부지런히 옮겼지만 원인은 자기 생각으로 짚었다. 원인이 어긋나자 대안도 과녁을 비껴갔다.

학생 A는 (나)로 원인을 찾고, (다)의 대안을 그 원인에 맞추어 다듬은 뒤 반론까지 내다보았다. 문제해결의 실력은 '원인에 맞는 대안을 끝까지 다듬는 손'에서 갈린다.

단계 훈련 해설 · 무임승차의 원인과 해법

- **활동 ①** 몇몇 학생만 보고서를 쓰고 나머지는 같은 점수를 받아, 성실한 학생까지 의욕을 잃고 모둠 과제가 무너지고 있다.
- **활동 ②** (나)의 두 까닭을 (가)에 대면 다음과 같다.

(나)가 말하는 까닭	(가)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
기여가 드러나지 않는다	누가 얼마나 썼는지와 상관없이 모둠원 모두가 같은 점수를 받았다.
책임이 나뉘어 흐려진다	보고서가 '모둠의 것'이라 저마다 책임을 미루었고, 결국 몇몇이 일을 떠안았다.

- **활동 ③** 예: 주체는 담당 교사와 모둠, 수단은 장별 담당자 표시와 회의 기록, 동료 평가의 점수 반영이다. 각자의 기여를 보이게 해 원인을 겨냥하고, 평가 방식만 바꾸면 되니 지금 바로 할 수 있다. 동료 평가가 친분에 좌우될 수 있으니 기록을 근거로 평가하게 하고, 무임승차가 줄고 협력이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한다.
- **활동 ④** '통째로 없애기'의 함정이다. 개인 과제로 돌아가면 무임승차는 사라지지만 협력하는 법을 배울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 (나)에 따르면 태만의 원인은 모둠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기여가 보이지 않고 책임이 흐려지는 데 있으므로, 활동은 살리고 원인만 걷어 내야 한다.

버릴 층위 밧줄·박수·소리 실험의 세부, 링겔만의 직업, '절반 이상' 같은 조사 수치. **한 걸음 더** (나)의 마지막 문장은 추가 대안의 실마리다. 과제를 의미 있게 느끼게 하고 서로 가깝게 여기게 하면 태만이 줄어든다. 예시답안의 마지막 문장, 곧 탐구 주제를 모둠원이 직접 고르게 하자는 방안이 이를 활용한 보완 대안이다.

활동 ⑤ 예시답안 공백 포함 418자

(가)의 모둠 과제에서는 몇몇 학생만 보고서를 쓰고 나머지는 같은 점수를 받아, 성실한 학생마저 의욕을 잃고 있다. (나)에 따르면 이는 학생들의 성품 탓만이 아니다. 여럿이 같이 한 일에서는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 보이지 않고, 결과의 책임도 여럿에게 나뉘어 옅어지므로 사람들은 힘을 덜 쓴다. 따라서 모둠 과제를 없앨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 보이게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장별로 나누어 맡은 사람의 이름을 적게 하고, 회의 기록과 동료 평가를 점수의 일부로 반영할 수 있다. 동료 평가가 친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회의 기록과 각자 쓴 부분을 근거로 평가하게 하면 이를 줄일 수 있다. 또 모둠원이 탐구 주제를 직접 고르게 해 과제를 의미 있게 느끼도록 하면, 협력의 기회를 지키면서 무임승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습 1 해설 · 대안 활용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가)의 문제: 공동 어장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는 다툼으로 자원이 줄고, 밖에서 보낸 단속도 효과가 없다.
- (나)에서 뽑은 원리: 자원을 쓰는 사람들이 형편에 맞는 규칙을 함께 정하고, 스스로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제재한다. 스스로 만든 규칙이 더 잘 지켜진다.
- (다)에서 뽑은 실천: 물질할 때와 쉬게 할 바다를 함께 정하고, 크기와 양을 제한하며, 경험을 나누고 약한 이의 몫을 남긴다.
- 하나로 엮은 대안: 마을 어장 관리회가 채취 시기·크기·양·쉬는 구역을 정하고, 순번 감시와 단계적 제재를 두며, 군청은 단속 대신 마을의 규칙을 인정하고 지원한다.

버릴 층위 퇴르벨의 소와 발렌시아의 물 법정 이야기(원리만 쓴다), 유네스코 등재, 불턱의 모습. **함정** '군청이 단속반을 늘려야 한다'는 (가)에서 이미 실패한 길이고, (나)와 (다)를 쓰지 않은 대안이다. (나)와 (다)를 차례로 요약하고 '이를 본받아야 한다'로 끝내면

간명화도 구체화도 하지 않은 답이 된다. **한 걸음 더** (나)는 원리를, (다)는 실천을 준다. 원리로 뼈대를 세우고 실천으로 살을 붙이는 것이 두 제시문을 하나로 엮는 방법이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427자

(가)의 마을 사람들은 공동 어장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다 자원을 바닥내고 있고, 밖에서 보낸 단속반은 넓은 바다를 지키지 못했다. (나)에 따르면 이런 자원은 쓰는 사람들이 자원의 형편에 맞는 규칙을 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켜보며, 위반을 단계적으로 제재할 때 오래 유지된다. (다)의 해녀회는 그 원리를 바다에서 실천해 왔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어장 관리회를 꾸려 채취 시기와 크기 제한, 한 해 채취량을 함께 정해야 한다. 바다를 몇 구역으로 나누어 돌아가며 쉬게 하고, 순번을 정해 함께 바다를 살피며, 규칙을 어기면 처음에는 경고하고 되풀이하면 일정 기간 채취를 막는다. 군청은 단속 대신 마을이 정한 규칙을 인정하고 지원하면 된다. 나이 든 주민의 몫도 따로 남겨 두면, 규칙은 약한 이를 밀어내지 않고 모두가 기꺼이 지키는 약속이 될 것이다.

연습 2 해설 · 조건 충족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가)의 문제: 관광객이 몰리며 주민이 떠나고, 출입을 막자는 주민과 반대하는 상인이 맞서 있다.
- (나)의 조건: 관광의 이익을 지키되, 그 이익이 마을 전체로 돌아가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한다.
- (다)의 조건: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민의 일상을 해치지 않는 시간과 방식으로, 주민이 함께 정해야 한다.
-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하는 대안: 관광을 막지 않되 시간·인원·장소를 관리하고(시간제, 예약제), 관광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린다(입장료로 주민 불편 해소, 주민 해설사).

버릴 층위 드라마 촬영지라는 계기, 대문과 담장의 장면, 숙박·교통·농산물로 퍼지는 효과의 세부. **함정** 한쪽 입장만 들어주는 대안은 조건 충족형의 답이 될 수 없다. '관광객 출입 금지'는 (나)를, '제한 없는 관광 활성화'는 (다)를 어긴다. 두 조건을 각각 어떻게 만족하는지 답안에 드러나야 한다. **한 걸음 더** 실제로 서울 북촌한옥마을은 2024년 11월부터 일부 구역의 관광객 방문을 오전 10시~오후 5시로 제한했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2024년부터 붐비는 날 당일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다만 이런 사례는 제시문에 없으므로 답안에 쓰지 않는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429자

(가)의 마을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이 떠나고, 주민과 상인이 출입 통제를 두고 맞서고 있다. (나)는 관광의 이익을 지키되 그 이익이 마을 전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다)는 관광이 주민의 삶을 침해하지 않도록 때와 방법을 가려야 한다고 본다. 두 입장을 함께 충족하려면 관광을 막는 대신 다스려야 한다. 먼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관광 시간을 정해, 이른 아침과 밤에는 주거 골목의 출입을 막는다. 붐비는 날에는 예약제로 방문객을 여러 날에 고루 나누어 받고, 방문객이 내는 적은 입장료는 쓰레기 처리와 방음 시설처럼 주민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쓴다. 주민이 골목 해설사로 나서게 하면 관광의 이익도 주민에게 돌아간다. 상인의 매출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관광객을 끄는 골목의 매력은 주민의 삶에서 나오므로 주민이 남아야 관광도 오래 이어진다.

연습 3 해설 · 원인과 대안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가)의 문제: 학생들의 잠이 모자라 1교시마다 졸음과 싸우고, '일찍 자라'는 당부는 효과가 없다.
- (나)로 찾은 근본 원인: 사춘기에는 멜라토닌이 늦게 나와 잠드는 시각이 늦춰지는데, 등교 시각은 이르다.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 (다)에서 가져온 대안: 수업 시작을 8시 30분 이후로 늦춘다. 시애틀 학생들은 크게 늦게 자지 않고 더 늦게 일어나 잠이 늘었다. (가)의 이른 자율 학습도 함께 없앤다.
- 반론 하나와 재반론: 방과 후 일정이 밀린다는 반론에는 (다)에서 확인된 졸음 감소와 성적 향상으로, 통학이 붐빈다는 반론에는 버스 운행 순서를 바꾼 사례로 답한다.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 학생에게는 도서관을 연다.

버릴 층위 조사 대상 천 명이라는 규모, 소아과학회가 권고한 해, 기말 성적 4.5%의 세부. **함정** 원인을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짚으면 (나)를 쓰지 않은 것이다(학생 B). (다)를 '더 늦게 자서 효과가 없었다'로 읽으면 제시문을 거꾸로 읽은 것이다(학생 C). 시애틀 학생들은 전과 비슷한 시각에 잠들고 더 늦게 일어났다. **한 걸음 더** 이 논제의 '반론을 함께 고려하시오'는 조건이다. 반론을 빼면 내용에서 깎인다. 반론은 하나를 제대로 들고 제시문에서 찾은 근거로 답하는 편이, 여러 개를 늘어놓는 것보다 낫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520자

(가)의 학생들이 잠이 부족한 근본 원인은 의지보다 몸의 시계와 어긋난 등교 시각에 있다. (나)에 따르면 사춘기에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늦게 나와 잠드는 시각이 뒤로 밀리는데, (가)의 학교는 아침 7시 50분이면 학생들을 교실에 앉히니 그 사이에서 잠이 깎인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잠들지 못한다는 학생이 절반에 가까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찍 자라'는 당부는 원인을 비껴간다. 해결의 열쇠는 깨는 시각을 몸의 시계에 맞추는 데 있다. (다)의 시애틀처럼 교육청이 수업 시작을 8시 30분 이후로 늦추면, 학생들은 더 늦게 자지 않고 더 늦게 일어나 잠을 되찾을 수 있다. 이른 자율 학습도 없애야 한다. 하교가 늦어져 방과 후 일정이 밀린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에서 보듯 잠이 늘면 졸음이 줄고 성적도 오르니, 일정이 조금 밀리는 손해보다 얻는 것이 크다. 아이가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도서관을 일찍 열어 두면 된다. 잠을 되찾은 학생은 집중력과 감정 조절도 회복할 것이다.

VII

자료해석형

표와 그래프를 읽고 제시문과 이어 쓰기 설명 · 근거 제시 · 비판

자료를 해석한다는 것은 숫자를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숫자가 보여 주는 흐름을 정확한 문장으로 바꾸고 그 뜻을 제시문과 이어서 밝히는 일입니다. 출제자는 제시문으로 자료를 설명하거나,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비판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료를 읽는 순서, 수치를 바르게 쓰는 법, 자료와 제시문을 잇는 법을 손으로 익힙니다.

학습 목표

1. 자료의 제목·단위·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크기와 변화를 정확한 수치 표현으로 쓸 수 있다.
2. 전체 흐름과 두드러진 차이·변화를 찾아, 그 의미를 제시문의 논지와 이어 설명할 수 있다.
3. 자료가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을 가려, 논제가 요구한 설명·근거·비판을 쓸 수 있다.

이 단원의 흐름

1	왜 자료를 해석하는가	대학이 자료 해석을 묻는 이유	166
2	핵심 해법	자료해석 4단계 · 수치 표현 · 흐름과 변화 · 제시문 잇기	167
3	시범	접속의 격차와 활용의 격차	171
4	단계 훈련	독서율 표로 주장 뒷받침하기	174
5	실전	설명 · 해석 비교 · 평가	177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186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187

1 왜 자료를 해석하는가

지금까지 익힌 요약과 비교, 공통 쟁점 찾기, 적용과 분석, 논증의 평가, 문제 해결은 모두 글로 된 제시문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자료해석형에서는 여기에 표와 그래프가 더해집니다. 논제는 숫자로 된 자료를 정확히 읽고,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시문과 이어 설명하거나,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비판하라고 요구합니다.

대학이 이 능력을 묻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대학의 공부와 사회의 판단은 대부분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숫자도 잘못 읽으면 엉뚱한 결론에 이르고, 숫자 하나를 부풀리면 주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자료를 정확히 읽고 그 한계까지 아는 힘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기입니다.

■ 자료해석형 논제의 모습

논제의 형태	무엇을 요구하는가	유형
(가)를 바탕으로 〈그림〉의 변화와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제시문으로 자료의 흐름과 까닭 설명하기	설명
〈표〉를 근거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시오.	주장을 받치는 수치를 자료에서 찾기	근거 제시
(가)와 (나)의 관점에서 〈표〉를 각각 해석하시오.	같은 자료를 두 관점으로 다르게 읽기	해석 비교
〈표〉를 근거로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자료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평가(비판)

'표', '그림', '그래프', '자료'가 제시문에 있고 논제가 '분석', '해석', '근거로'를 요구하면 이 유형입니다. 자료를 읽는 데서 멈추지 말고, 논제가 요구한 관계로 제시문과 이어야 점수가 됩니다.

■ 채점자는 무엇을 보는가

항목	확인하는 것
정확한 읽기	수치를 틀리지 않고, %와 %p, 배수를 바르게 썼는가
핵심 파악	숫자를 늘어놓지 않고 전체 흐름과 두드러진 차이를 짚었는가
제시문 연결	자료의 의미를 제시문의 논지와 이어 밝혔는가
해석의 절제	자료가 보여 주지 못하는 것까지 단정하지 않았는가
형식	정해진 분량과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는가

숫자 앞에서 정직하게

자료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숫자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단원에서 기르는 것은 계산 솜씨가 아니라, 숫자를 부풀리거나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지 않고 자료가 보여 주는 만큼만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 정직함이 답안의 설득력이 됩니다.

2 핵심 해법

이 단원에서 쓰는 말

정태적 자료	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을 견주는 자료. 크기를 비교해 읽는다('A가 B의 약 두 배다').
동태적 자료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 흐름과 늘고 줆을 읽는다('~에서 ~로 늘었다').
%p	퍼센트포인트. 비율과 비율의 차이다. 20%가 30%가 되면 10%p 오른 것이고, 증가율로는 50% 오른 것이다.
흐름과 변화 지점	흐름은 자료 전체가 움직이는 방향, 변화 지점은 그 흐름이 꺾이거나 갑자기 달라지는 곳이다.
범주화	성질이 비슷한 항목끼리 묶어 읽는 일. 묶음 사이의 차이가 자료의 핵심을 드러낸다.
상관과 인과	두 수치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상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키는 것이 인과다. 상관만으로 인과를 단정할 수 없다.

(1) 자료해석 4단계

단계	하는 일
STEP 1 자료의 틀 확인	제목·단위·시점·대상·출처를 먼저 본다. 한 시점의 비교(정태적)인지 시간에 따른 변화(동태적)인지 가른다.
STEP 2 사실 읽기	전체 흐름을 먼저, 두드러진 차이나 변화 지점을 다음에 찾는다. 비슷한 항목은 묶고, 크기와 변화를 수치로 적는다.
STEP 3 의미 잇기	제시문의 논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자료와의 관계를 정한다. 제시문이 까닭을 대는지(인과), 같은 결론을 받치는지(대등), 자료와 어긋나는지(상반) 본다.
STEP 4 점검과 서술	자료가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을 가린 뒤, 논제가 요구한 방식(설명·근거·비판)에 맞추어 쓴다.

자료를 받으면 숫자부터 읽고 싶어지지만, 제목과 단위를 놓치면 처음부터 엉뚱한 것을 읽게 됩니다. '%'인지 '명'인지, 한 해의 값인지 쌓인 값인지, 전체 가운데의 비율인지 일부 가운데의 비율인지에 따라 같은 숫자도 뜻이 달라집니다.

(2) 숫자를 문장으로 — 수치 표현 바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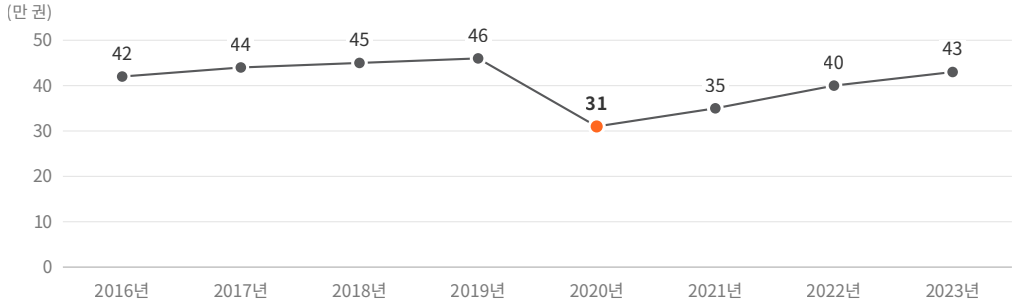
자료를 읽은 결과는 정확한 수치 표현으로 옮겨야 합니다. '많이 늘었다'는 아무것도 보여 주지 못하고, 틀린 계산은 답안 전체를 흔듭니다. 어느 학교 동아리의 회원이 2020년 40명에서 2025년 60명이 되었고, 같은 기간 전교생 가운데 동아리 회원의 비율은 20%에서 30%가 되었다고 해 봅시다.

흔한 잘못	바르게 쓰면	까닭
회원 수가 많이 늘었다.	회원 수가 40명에서 60명으로 1.5배가 되었다.	수치가 없으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없다.
회원 수가 1.5배 늘었다.	회원 수가 1.5배로 늘었다(50% 늘었다).	'1.5배 늘었다'는 처음 양의 1.5배만큼 더 늘어 2.5배가 되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회원 비율이 10% 늘었다.	회원 비율이 20%에서 30%로 10%p 올랐다.	비율끼리의 차이는 %p로 쓴다. 증가율로는 50%다.
신입 회원이 0명에서 5명으로 500% 늘었다.	신입 회원이 없다가 5명이 생겼다.	0에서 출발하면 배수나 증가율을 낼 수 없다.

(3) 흐름과 변화 지점 — 숫자를 늘어놓지 않기

자료의 숫자를 차례로 옮기면 답안은 길어지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잡고, 그 흐름이 꺾이거나 갑자기 달라지는 곳을 짚어야 합니다.

〈그림〉 어느 시립 도서관의 연간 대출 권수



2020년에는 감염병 때문에 넉 달 동안 문을 닫았다.

— 이 교재가 만든 가상의 자료

수준	문장	판정
숫자 나열	2016년 42만 권, 2017년 44만 권, 2018년 45만 권, 2019년 46만 권, 2020년 31만 권…	× 흐름도 변화 지점도 드러나지 않는다.
흐름만	대출 권수는 오르내림을 거듭했다.	× 가장 큰 변화와 그 크기가 빠졌다.
알맞음	대출 권수는 2019년까지 조금씩 늘다가 2020년에 46만 권에서 31만 권으로 약 3분의 1이 줄었고, 그 뒤 3년에 걸쳐 43만 권까지 회복했다.	○ 흐름 → 변화 지점 → 그 뒤의 흐름을 수치로 짚었다.

(4) 자료와 제시문 잇기 — 세 가지 관계

자료의 의미는 제시문과 이을 때 드러납니다. 먼저 제시문의 논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문장과 자료의 흐름을 나란히 놓습니다. 앞의 도서관 자료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제시문의 논지가 이렇다면	자료와 이으면
인과	습관은 같은 환경에서 되풀이될 때 굳어지고, 환경이 끊기면 쉽게 무너진다.	다시 문을 연 뒤의 느린 회복이 그 원리로 설명된다(2020년의 급감은 휴관 탓이다).
대등	구립 체육관도 다시 문을 연 뒤 이용자가 더디게 돌아왔다.	대출 권수의 더딘 회복과 함께 '한번 끊긴 이용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친다.
상반	도서관 이용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21년부터 이어진 회복은 이 주장과 어긋나, 그 한계를 드러낸다.

(5) 답안은 이렇게 짓는다

순서	쓰는 법
① **자료의 핵심**	전체 흐름과 두드러진 차이·변화 지점을 수치와 함께 한두 문장에 담는다.
② **제시문의 논지**	자료와 이을 논지를 한 문장으로 간추린다.
③ **잇기**	인과·대등·상반 가운데 알맞은 관계로 자료의 의미를 밝힌다.
④ **맺음**	논제가 요구한 설명·근거·판정으로 맺고, 필요하면 자료의 한계를 짚는다.

①과 ②는 순서를 바꾸어도 됩니다. 제시문의 관점으로 자료를 읽거나 자료로 주장을 뒷받침·평가하는 논제라면 ②로 시작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앞의 도서관 자료에 다음 글 (가)를 짝지어 '(가)를 바탕으로 〈그림〉의 변화를 설명하시오'라는 논제에 답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습관은 같은 일이 같은 환경에서 되풀이될 때 굳어진다. 그래서 환경이 끊기면 습관도 쉽게 무너지고, 한번 무너진 습관은 환경이 돌아와도 곧바로 회복되지 않는다.

> **(가)를 바탕으로 도서관 대출 권수의 변화를 설명한 짧은 답안**
>
> 〈그림〉에서 대출 권수는 2019년까지 해마다 조금씩 늘어 46만 권에 이르렀다가, 문을 닫았던 2020년에 31만 권으로 약 3분의 1이 줄었다. 다시 문을 연 뒤에도 회복은 더뎌 2023년에야 43만 권이 되었다. (가)에 따르면 습관은 늘 같은 자리에서 되풀이되어야 굳고, 그 자리가 사라지면 쉽게 허물어진다. 2020년의 급감은 넉 달 동안 문을 닫은 탓이 크지만, 다시 문을 연 뒤 3년이 지나도록 이전 수준을 되찾지 못한 것은 끊겼던 빌려 읽기 습관이 쉽게 되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자료는 대출 권수만 보여 주므로, 시민들이 책 자체를 덜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6) 자주 빠지는 함정

함정	이렇게 피한다
숫자 나열	숫자를 차례로 옮기는 것은 해석이 아니다. 흐름과 변화 지점을 골라 수치와 함께 쓴다.
수치 없는 서술	'많이', '크게'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핵심 수치를 함께 쓴다.
%와 %p 혼동	비율끼리의 차이는 %p로, 처음 값에 견준 변화의 크기는 %로 쓴다.
기준을 놓친 비교	총량과 1인당, 전체 가운데의 비율과 일부 가운데의 비율은 서로 다른 것을 잰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 수치인지 본다.
자료 따로, 제시문 따로	자료를 설명한 뒤 제시문을 따로 요약하면 둘이 이어지지 않는다. 한 문장 안에서 잇는다.
상관을 인과로	함께 움직인다고 원인이라 할 수 없다. '~와 맞물린다', '~를 뒷받침한다' 정도로 쓰고 한계를 밝힌다.
전체만 보고 단정	전체를 합친 수치의 결론이 집단을 나누어 보면 뒤집힐 수 있다. 나누어 볼 수 있으면 나누어 본다.
자료 밖으로 넓히기	자료의 시점과 대상을 넘어 '앞으로도', '모든'으로 넓히거나, 자료에 없는 사실을 끌어오지 않는다.

(7) 자료를 드러내는 표현

쓰임	쓸 수 있는 표현	이럴 때 쓴다
전체 흐름	~는 ~년 ~에서 ~년 ~로 꾸준히 늘었다(줄었다)	첫머리에서 흐름을 잡을 때
크기 비교	A는 B의 약 ~배다 / A가 B보다 ~%p 높다	정태적 자료를 견줄 때
변화 지점	~년을 고비로 / ~년에 가장 크게 줄었다	흐름이 꺾인 곳을 짚을 때
묶어 읽기	~인 나라들은 모두 ~이고, ~인 나라들은 ~이다	범주로 묶어 읽을 때
제시문 잇기	이는 (가)가 말한 ~을 보여 준다 / (가)에 따르면 이는 ~ 때문이다	자료의 의미를 밝힐 때
한계	다만 이 자료는 ~만 보여 주므로 ~까지는 알 수 없다	해석의 범위를 밝힐 때

3 시범 — 접속의 격차와 활용의 격차

시범 400자 내외

(가)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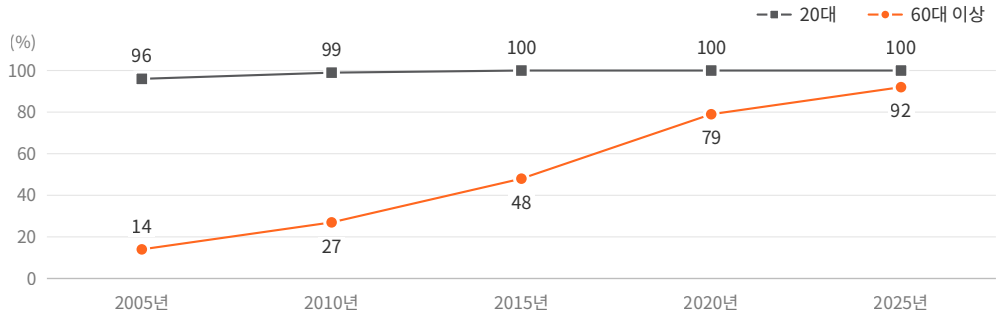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362자 · 자료 2개

(가) 정보 격차가 처음 사회 문제로 떠올랐을 때, 사람들은 누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졌는가를 물었다. 기기와 통신망이 널리 보급되면 격차도 저절로 사라지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접속의 격차가 줄어든 뒤에도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격차가 남는다는 데 주목했고, 이를 '2차 정보 격차'라고 불렀다. 같은 인터넷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보를 찾고 일을 처리하고 권리를 누리는 데까지 쓰지만, 어떤 사람은 몇 가지 익숙한 기능에 머문다. 활용 능력은 기기를 가졌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배우고, 도움을 받고, 실수하며 써 본 경험이 쌓여야 자란다. 은행과 관공서의 일이 온라인으로 옮겨 갈수록, 활용의 격차는 곧 생활의 격차가 된다.

— 하지타이(2002) 등의 '2차 정보 격차' 연구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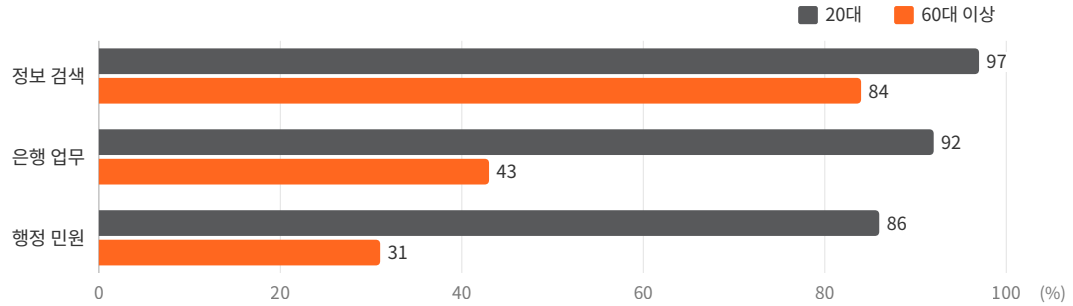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한 번 이상 이용한 사람의 비율. 20대와 60대 이상만 실었다.

— 이 교재가 만든 가상의 자료

〈그림 2〉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다음 일을 인터넷으로 해 본 사람의 비율(2025년)



이용자: 〈그림 1〉의 기준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 지난 1년 동안 각 일을 한 번 이상 해 본 사람의 비율이다.

— 이 교재가 만든 가상의 자료

STEP 1 자료의 틀 확인

논제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두 그림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읽기 전에 두 그림이 각각 무엇을 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료	무엇을 재나	시점	종류
〈그림 1〉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2005~2025년, 5년마다	동태적: 변화를 읽는다
〈그림 2〉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각 일을 해 본 사람의 비율(%)	2025년	정태적: 크기를 견준다

함정 확인

〈그림 2〉의 비율은 연령대 전체가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의 비율입니다. '60대 이상의 43%가 은행 업무를 인터넷으로 해 보았다'고 쓰면 틀립니다. 60대 이상은 92%만 인터넷을 쓰므로, 60대 이상 전체로 보면 그 비율은 약 40%입니다. 비율을 읽을 때는 무엇 가운데의 비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STEP 2 사실 읽기 — 흐름, 격차, 묶음

무엇을 보았나	수치로 쓰면
〈그림 1〉 전체 흐름	60대 이상의 이용률이 2005년 14%에서 2025년 92%로 올랐다.
〈그림 1〉 격차의 변화	20대와의 차이가 82%p에서 8%p로 줄었다. 접속의 격차는 거의 사라졌다.
〈그림 2〉 묶어 읽기	정보 검색은 13%p 차이에 그치지만, 은행 업무(49%p)·행정 민원(55%p)처럼 일을 처리하는 쪽은 격차가 크다.
버릴 것	〈그림 1〉에서 60대 이상이 2015~2020년에 가장 크게(31%p)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와 이어지지 않으므로 답안에 쓰지 않아도 된다.

두 그림을 따로 읽으면 하나는 '격차가 줄었다', 다른 하나는 '격차가 크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엇갈림이 바로 답안의 중심입니다. 무엇의 격차가 줄었고 무엇의 격차가 남았는지를 가르면 두 그림이 한 이야기가 됩니다.

STEP 3 의미 잇기 — (가)와의 관계 정하기

(가)의 논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접속의 격차가 줄어도 활용의 격차가 남고,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옮겨 가면 그것이 생활의 격차가 된다'입니다. 이 문장과 두 그림을 나란히 놓습니다.

자료가 보여 주는 것	(가)와의 관계	그래서 뜻하는 것
접속 격차 82%p → 8%p	대등: (가)의 앞부분, 곧 보급으로 접속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은 것을 보여 준다.	기기를 가졌느냐의 격차는 거의 사라졌다.
일을 처리하는 쪽의 큰 격차(검색 13%p ↔ 민원 55%p)	인과: 활용 능력은 써 본 경험에서 자란다는 (가)의 원리가 그 까닭을 댄다.	이용이 뒤늦게 퍼진 60대 이상은 이용자끼리도 일을 처리하는 쪽에서 뒤처진다. 활용의 격차가 남았다.

STEP 4 점검과 서술

자료가 보여 주지 못하는 것도 가립니다. 두 그림은 연령대별 집단의 비율이므로 '60대는 은행 업무를 못한다'처럼 개인에게로 넓히면 안 됩니다. 또 2005년의 60대 이상과 2025년의 60대 이상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격차가 생긴 까닭도 그림이 직접 보여 주지는 않으니 (가)에 기대어 설명합니다.

수준	문장	판정
숫자 나열	〈그림 1〉에서 60대 이상은 2005년 14%, 2010년 27%, 2015년 48%, 2020년 79%이다.	× 흐름도 의미도 없이 옮겼다.
자료 따로, 제시문 따로	〈그림 1〉을 보면 격차가 줄었다. (가)는 2차 정보 격차를 말한다.	× 자료와 제시문을 잇지 않았다.
자료 밖으로 넓히기	노인들은 인터넷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 집단의 비율을 개인에게 넓혔고 수치가 없다.
알맞음	접속의 격차는 82%p에서 8%p로 줄었지만, 이용자끼리도 행정 민원에서는 55%p 차이가 나 활용의 격차가 남았다.	○ 수치로 대비를 짚고 (가)의 개념과 이었다.

서술 제시문의 논지 → 자료의 핵심 → 잇기 → 맺음의 순서로

예시답안 공백 포함 434자

(가)에 따르면 정보 격차의 핵심은 기기를 가졌느냐에서 그것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로 옮겨 간다. 〈그림 1〉에서 20대와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 차이는 2005년 82%p에서 2025년 8%p로 줄어, 접속의 격차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그림 2〉에서 2025년의 이용자끼리 견주면, 정보 검색은 13%p 차이에 그치지만 은행 업무는 49%p, 행정 민원은 55%p로 벌어진다. 검색보다 일을 처리하는 쪽에서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이는 (가)가 말한 2차 정보 격차, 곧 활용의 격차가 접속의 격차 자리를 이어받았음을 보여 준다. 활용 능력은 써 본 경험이 쌓여야 자라므로, 인터넷 이용이 뒤늦게 퍼진 60대 이상은 일을 처리하는 데서 뒤처지기 쉽다. (가)의 말대로 금융과 행정 서비스가 인터넷 중심으로 바뀔수록 이 격차는 일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답안의 문장	하는 일
첫째 문장	(가)의 논지: 정보 격차의 핵심이 접속에서 활용으로 옮겨 간다.
둘째 문장	〈그림 1〉: 접속의 격차가 82%p에서 8%p로 줄었다(동태적 자료의 흐름).
셋째·넷째 문장	〈그림 2〉: 일을 처리하는 쪽일수록 격차가 커진다(정태적 자료를 묶어 읽기).
다섯째·여섯째 문장	잇기: 2차 정보 격차(대등), 써 본 경험의 차이(인과).
일곱째 문장	맺음: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옮겨 갈수록 커질 수 있는 생활의 불이익.

한 걸음 더 자료해석형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의 모든 특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논제와 제시문에 맞는 특징을 골라 쓰는 일입니다. 예시답안은 〈그림 1〉에서 가장 크게 오른 시기를 버리고, (가)와 이어지는 '격차의 변화'만 골랐습니다. 무엇을 버릴지 아는 것도 자료를 읽는 힘입니다.

4 단계 훈련 — 독서율 표로 주장 뒷받침하기

단계 훈련 400자 내외

〈표〉를 근거로 (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점을 함께 밝히시오. 아래 활동 ①~④를 차례로 해결한 뒤, 활동 ⑤에서 답안을 쓰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351자 · 자료 1개

(가) 글을 읽는 뇌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인류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고작 몇천 년 전이어서, 뇌에는 읽기만을 위한 자리가 따로 없다. 뇌는 본래 보고 듣고 말하던 부위들을 서로 연결해 읽기 회로를 새로 만든다. 인지신경학자 매리언 울프에 따르면 이 회로는 쓰이는 방식대로 자란다. 긴 글을 천천히 따라가며 추론하고, 앞뒤를 견주고,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깊이 읽기'도 오랜 연습으로 길러진다. 그런데 화면에서 짧은 글과 영상을 빠르게 훑는 일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회로도 그 방식에 맞춰 바뀐다. 울프는 훑어 읽기에 길든 사람이 긴 글 앞에서 쉽게 지루해하고, 끝까지 따라가며 생각하는 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매리언 울프의 『다시, 책으로』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표〉 연령대별 종이책 독서율과 하루 짧은 영상 시청 시간

연령대	종이책 독서율(%)		짧은 영상 시청 시간 (분, 2025년)
	2015년	2025년	
10대	78	51	104
20대	72	50	86
40대	61	50	41
60대 이상	38	33	22

종이책 독서율: 지난 1년 동안 교과서·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를 뺀 종이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짧은 영상 시청 시간: 하루 평균이며 2025년에만 조사했다. 30대와 50대는 싣지 않았다.

— 이 교재가 만든 가상의 자료

STEP 1 **활동 ① 〈표〉의 두 수치가 무엇을 재는지 정리하고, 정태적·동태적 자료로 나누시오.**

항목	단위	시점	정태적·동태적과 그 까닭
종이책 독서율			
짧은 영상 시청 시간			

STEP 2 **활동 ② 다음 문장의 잘못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문장	바르게 고치면
ㄱ. 10대의 종이책 독서율은 10년 사이 27% 줄었다.	
ㄴ. 10대는 60대 이상보다 짧은 영상을 82% 더 많이 본다.	
ㄷ. 독서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줄었다.	

STEP 3 **활동 ③ 〈표〉에서 (가)의 주장과 맞는 흐름 두 가지를 찾아 수치와 함께 쓰시오.**

STEP 4 **활동 ④ 함정 찾기**

'짧은 영상을 많이 볼수록 책을 덜 읽게 된다는 것이 〈표〉로 증명된다.' 이 문장이 지나친 까닭을 두 가지 쓰시오.

서술 **활동 ⑤ 400자 내외로 쓰시오.** 20칸 × 24줄 = 4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5 실전

이제 시간을 재고 혼자 씁니다. 묻는 방식은 설명, 해석 비교, 평가로 바뀌지만 할 일은 같습니다. 자료의 틀을 확인하고, 흐름과 두드러진 차이를 수치로 읽고, 제시문과의 관계를 정한 뒤, 자료가 보여 주는 만큼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해설은 7절에 있으니 다 쓴 뒤에 확인하십시오.

문항	제시문	답안	시간	이번에 새로 요구하는 것
연습 1 설명	글 2편 · 506자 그림 1개	400자	25분	범주로 묶어 읽고 제시문의 원리로 차이 설명하기
연습 2 해석 비교	글 2편 · 463자 표 1개	400자	25분	같은 자료를 두 관점으로 읽고 갈리는 까닭 밝히기
연습 3 평가	글 1편 · 249자 표 1개	500자	30분	전체와 부분을 나누어 읽고 주장을 평가하기

연습 1 · 설명 400자 내외 · 제한 시간 25분

(가)를 바탕으로 〈그림〉의 나라별 차이를 분석하고, (나)가 이 분석에 어떤 근거가 되는지 설명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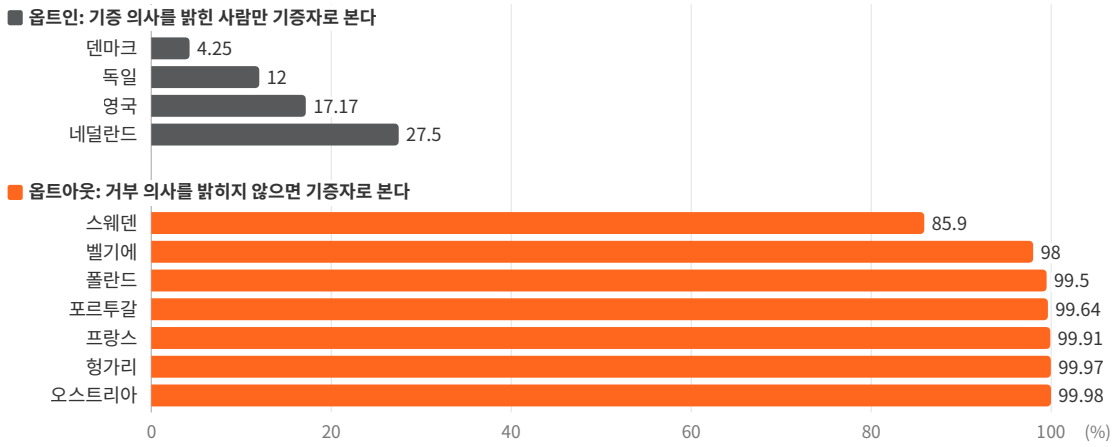
(가) 사람들은 선택지가 여럿 있어도 미리 정해진 쪽, 곧 기본값을 그대로 두는 경향이 있다. 기본값을 바꾸려면 따로 시간을 들여 따져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장기 기증처럼 생각하기 불편한 문제일수록 사람들은 결정을 미룬다. 또 사람들은 기본값을 제도가 권하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래서 같은 질문이라도 무엇을 기본값으로 두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 크게 달라진다. 한 온라인 실험에서 기증하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었을 때는 응답자의 42%가 기증하겠다고 답했지만, 기증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었을 때는 82%가 그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

— 존슨과 골드스타인의 연구(2003)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1990년대 말 네덜란드는 기증하겠다고 직접 밝힌 사람만 기증자로 보는 나라였다. 1998년 기증자 등록 제도를 만들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교육 캠페인을 벌였고, 인구가 1,580만 명인 나라에서 1,200만 통이 넘는 안내 편지를 보냈다. 기증의 뜻과 절차를 충분히 알리면 많은 사람이 기증자로 등록하리라 기대했지만, 실질 동의율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 존슨과 골드스타인(2003)이 소개한 네덜란드 사례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그림〉 나라별 장기 기증 실질 동의율(2003년 발표)



실질 동의율: 옵트인 나라는 기증 의사를 등록한 사람의 비율, 옵트아웃 나라는 거부 의사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함께 쓰는 이웃 나라이고, 덴마크와 스웨덴도 이웃한 북유럽 나라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그 뒤 옵트아웃으로 바꾸었다.

— 존슨과 골드스타인(2003), 『사이언스』 302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다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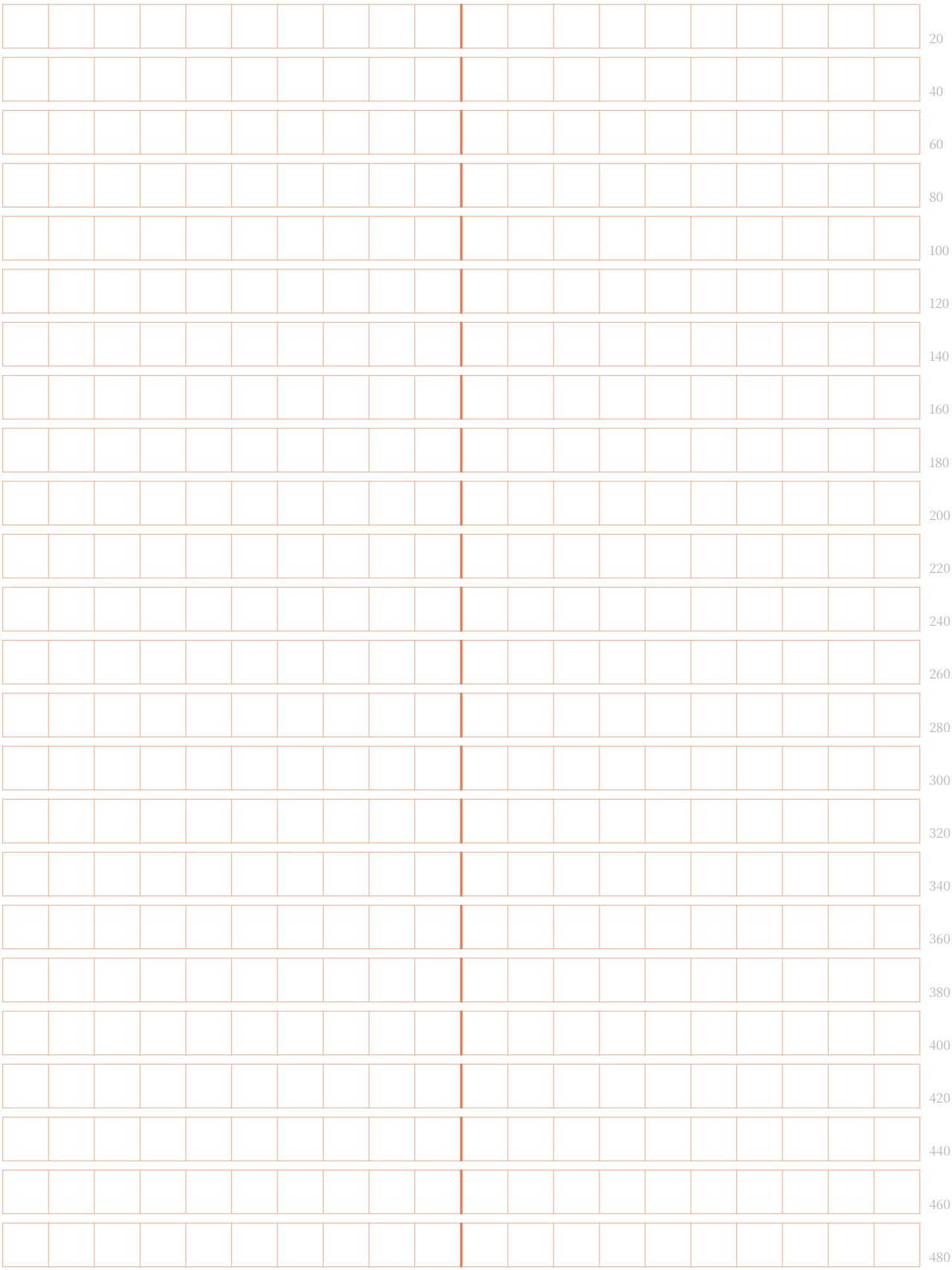
메모 **쓰기 전에 — 묶어 읽고 원리로 설명하기**

물음	메모
〈그림〉의 핵심 (묶음과 차이)	
(가)의 원리	
(가)로 본 차이의 까닭	
(나)가 근거가 되는 까닭	

자료가 말하지 않는 것

연습 1 답안지 · 400자 내외 20칸 × 24줄 = 4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연습 2 · 해석 비교 400자 내외 · 제한 시간 25분

(가)와 (나)의 관점에서 〈표〉를 각각 해석하고, 두 해석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기후 위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대기 속 온실가스는 어느 나라에서 나왔든 똑같이 지구를 덥힌다. 그러므로 감축은 지금 가장 많이 내뿜는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배출량이 큰 나라가 10%를 줄이면, 배출량이 그 4분의 1인 나라가 같은 10%를 줄일 때보다 네 배의 효과를 낸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줄였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곳부터 줄여야 한다.

—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나) 기후 변화의 책임은 사람과 역사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게 배출해도 나라 전체의 배출량이 커 보인다. 또 지금의 기후 위기는 올해 내뿜은 온실가스가 아니라 산업화 이후 오랫동안 쌓여 온 온실가스가 만든 것이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사람이 많이 배출하고, 오래 쌓아 온 나라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후 정의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표〉 세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2025년)

나라	연간 배출량 (억 톤)	인구 (억 명)	1인당 배출량 (톤)	누적 배출 비중 (%)
A국	50	3.3	15.2	25
B국	110	14.1	7.8	14
C국	28	14.3	2.0	3

누적 배출 비중: 1850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가 배출한 온실가스 가운데 그 나라가 배출한 양의 비율. 세 나라와 수치는 이 교재가 만든 가상의 것이다.

— 이 교재가 만든 가상의 자료

메모 **쓰기 전에 — 같은 표, 다른 기준**

물음	메모
(가)가 보는 수치와 결론	
(나)가 보는 수치와 결론	
두 해석이 갈리는 까닭	

자료가 정해 주지 않는 것

연습 2 답안지 · 400자 내외 20칸 × 24줄 = 4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연습 3 · 평가 500자 내외 · 제한 시간 30분

〈표〉를 근거로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1973년 가을, 미국의 한 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여섯 학과의 입학 결과가 나왔다. 남성 지원자는 2,691명 가운데 1,198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44.5%였지만, 여성 지원자는 1,835명 가운데 557명이 합격해 30.4%에 그쳤다. 같은 대학원에 지원했는데 합격률이 14%p 넘게 차이 난다면, 입학 심사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학은 학과마다 심사 과정을 다시 살펴 성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대학원 입학 자료(비켈 외, 1975)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표〉 여섯 학과의 성별 지원자 수와 합격률(1973년 가을)

학과	남성		여성	
	지원자(명)	합격률(%)	지원자(명)	합격률(%)
A	825	62.1	108	82.4
B	560	63.0	25	68.0
C	325	36.9	593	34.1
D	417	33.1	375	34.9
E	191	27.7	393	23.9
F	373	5.9	341	7.0
전체	**2,691**	**44.5**	**1,835**	**30.4**

이 대학원에서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여섯 학과다. 학과 이름은 공개되지 않아 A~F로 적었다.

— 비켈 외(1975)가 분석한 버클리 대학원 입학 자료 가운데 여섯 학과의 수치를 이 교재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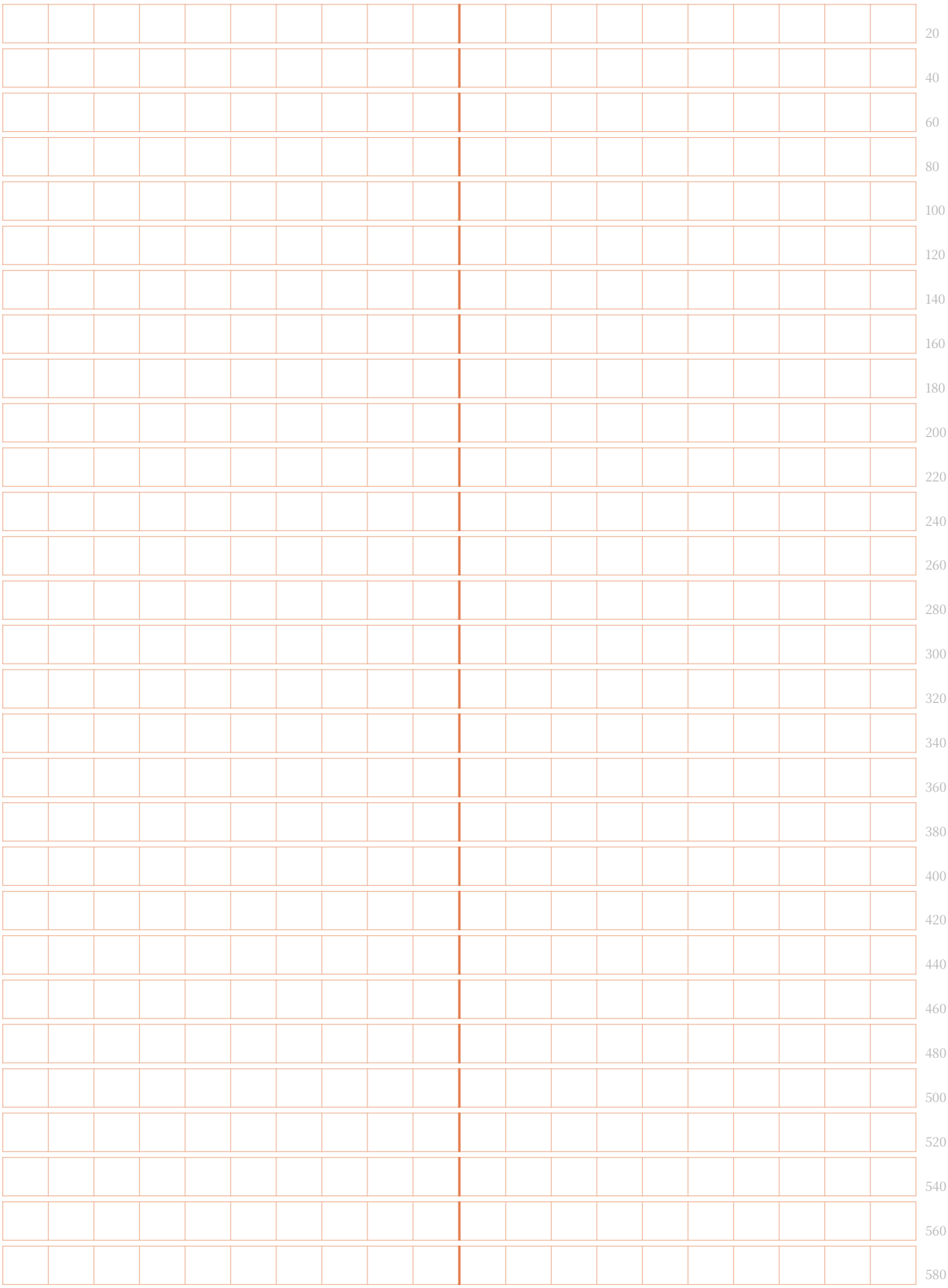
메모 **쓰기 전에 — 전체와 부분을 나누어 읽기**

물음	메모
(가)의 주장과 근거	
학과별로 읽으면	
전체와 학과별이 다른 까닭	
판정	

자료의 한계

연습 3 답안지 · 500자 내외 20칸 × 29줄 = 5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답안을 다 썼으면 먼저 스스로 채점합니다.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점수를 잃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세 번 넘어진다면, 그 자리가 바로 다음 수업의 과제입니다.

영역	배점	만점 기준	이럴 때 깎인다
내용	5	자료의 핵심(흐름·두드러진 차이·변화)을 정확한 수치로 읽었다(2). 자료와 제시문을 논제가 요구한 관계로 잇고, 자료가 보여 주는 만큼만 결론을 내렸다(3).	자료나 제시문을 거꾸로 읽으면 내용은 1점(다른 내용 감점은 더하지 않는다). 논제가 지정한 자료나 제시문 하나를 요구대로 쓰지 않을 때마다 −1. 자료의 핵심을 놓쳤다 −1. 수치를 틀리게 읽거나 계산했다(%와 %p의 혼동 포함) −1. 상관을 인과로 단정하거나 자료가 보여 주지 못하는 결론을 내렸다 −1.
구성	2	자료의 핵심과 제시문을 이어 논제가 요구한 결론(설명·근거·판정)으로 맺는 흐름이 분명하다.	수치를 차례로 늘어놓기만 했다 −1. 자료 해석과 제시문을 따로 써서 잇지 않았다 −1.
표현	2	수치를 정확한 말(배, %, %p)로 옮겼고, 문장이 정확하다.	10자 이상 그대로 옮긴 구절이 두 곳 이상 −1. ‘많이’, ‘크게’처럼 수치 없이 뭉뚱그렸거나, 논제가 요구하지 않은 의견·감상·당부나 자료에 없는 사실이 섞였다 −1.
형식	1	분량이 ±10% 안에 있고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다.	분량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원고지를 잘못 썼다 −1.

한 가지 잘못은 한 영역에서만 깎습니다. 수치를 틀리게 읽거나 %와 %p를 혼동한 잘못은 내용에서, 수치 없이 뭉뚱그린 서술과 답안에 섞인 의견·당부는 표현에서 깎습니다. 이 채점표는 바른에듀케이션 수업용 기준입니다. 대학별 실제 채점 기준은 『합격 포인트』 시리즈에서 확인합니다.

■ 제출 전 자기 점검

- ☐ 자료의 제목·단위·시점·대상을 먼저 확인했다. 무엇 가운데의 비율인지 보았다.
- ☐ 정태적 자료는 크기를 견주어, 동태적 자료는 흐름과 변화를 읽었다.
- ☐ 숫자를 하나하나 옮기지 않고, 전체 흐름과 두드러진 차이·변화 지점을 먼저 썼다.
- ☐ %와 %p, ‘~배가 되었다’와 ‘~% 늘었다’를 바르게 썼고, 계산을 다시 확인했다.
- ☐ 자료와 제시문을 알맞은 관계(인과·대등·상반)로 한 문장 안에서 이었다.
- ☐ 상관을 인과로 단정하지 않았고,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나누어 보았다.
- ☐ 제시문과 10자 이상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이 없고, 의견·당부나 자료에 없는 사실을 넣지 않았다.
- ☐ 논제가 요구한 결론으로 맺었고 분량을 지켰다. 공백을 포함해 세었고, 문단 첫 칸을 비웠다.

7 답안 비교와 해설

연습 3에 대한 세 학생의 답안입니다. 형광 표시는 제시문의 한 문장과 10자 이상(띄어쓰기 제외)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세 답안을 가른 것은 문장 솜씨가 아니라 〈표〉에서 **누가 어디에 지원했는지까지 읽었는가**였습니다.

상 · 10점 학생 A — 학과별로 나누어 읽고 까닭까지 밝힌 답안 공백 포함 462자

> (가)는 여섯 학과 전체의 합격률이 남성 44.5%, 여성 30.4%로 14%p 이상 벌어진다는 점을 들어 심사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에서 학과별로 나누어 보면 여섯 학과 가운데 네 곳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오히려 높다. A학과는 여성이 82.4%로 남성(62.1%)보다 20%p 넘게 높고, 여성이 낮은 C·E학과도 그 차이가 4%p를 넘지 않는다. 전체에서 차이가 커진 것은 남녀가 지원한 학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남성 지원자는 절반 넘게 합격률이 60%를 넘는 A·B학과에 몰렸지만, 여성은 1,835명 가운데 133명만 A·B학과에 지원했고 나머지는 합격률이 낮은 C~F학과에 지원했다. 어려운 학과에 지원한 여성이 많았으니 전체 합격률이 낮게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심사가 여성을 차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가)는 전체 합계만 보고 학과별 심사까지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내용 〈표〉를 학과별로 나누어 읽어, 여섯 학과 가운데 네 곳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더 높다는 점을 정확한 수치로 짚었다. 전체에서 차이가 커진 까닭을 지원한 학과의 차이(여성 1,835명 가운데 133명만 A·B학과에 지원)로 설명하고, 자료가 보여 주는 만큼만 판정했다.

구성 (가)의 주장 → 학과별 읽기 → 차이의 까닭 → 판정의 흐름이 분명하다.

표현 제시문 문장을 옮긴 곳이 없고, %와 %p를 바르게 썼다.

점수 내용 5 · 구성 2 · 표현 2 · 형식 1

더 나아지려면 자료는 여성이 왜 합격하기 어려운 학과에 많이 지원했는지 보여 주지 않는다. '이 자료로는 지원하기 이전 단계의 불리함까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한계를 덧붙이면 판정이 더 정확해진다.

중 · 5점 학생 B — 합격률을 모두 옮기고도 관계를 읽지 못한 답안 공백 포함 459자

> (가)는 1973년 가을 미국의 한 대학교 대학원 입학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다. 남성 지원자는 2,691명 가운데 1,198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44.5%였지만, 여성 지원자는 1,835명 가운데 557명이 합격해 30.4%에 그쳤다. 남성의 합격률이 여성보다 14% 높다. 〈표〉를 보면 A학과는 남성 62.1%, 여성 82.4%이고, B학과는 남성 63.0%, 여성 68.0%이다. C학과는 남성 36.9%, 여성 34.1%이고, D학과는 남성 33.1%, 여성 34.9%이다. E학과는 남성 27.7%, 여성 23.9%이고, F학과는 남성 5.9%, 여성 7.0%이다. 학과에 따라 여성의 합격률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다. 하지만 여섯 학과 전체로 보면 여성의 합격률은 30.4%로 남성보다 낮다. 따라서 입학 심사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의 주장은 타당하다.

내용 남녀 합격률의 차이를 '14%'로 써서 %와 %p를 혼동했다(−1). 지원자 수는 보지 않아, 남녀가 지원한 학과가 크게 달랐다는 자료의 핵심을 놓쳤다(−1). 여성의 합격률이 더 높은 학과도 있다고 스스로 써 놓고 '입학 심사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맺어, 자료가 보여 주지 못하는 결론을 내렸다(−1).

구성 (가)의 수치를 옮긴 뒤 〈표〉의 합격률을 학과 순서대로 늘어놓기만 했다(−1).

표현 제시문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구절이 여러 곳이다(−1). %와 %p의 혼동은 내용에서 깎았으므로 다시 깎지 않는다.

점수 내용 2 · 구성 1 · 표현 1 · 형식 1

하 · 2점 **학생 C — 맞는 수치만 골라 거꾸로 읽은 답안** 공백 포함 288자

> 요즘도 성차별은 심각하다. (가)를 보면 남성 지원자는 2,691명 가운데 1,198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44.5%였지만, 여성은 30.4%에 그쳤다. 〈표〉를 보면 C학과는 여성 34.1%로 남성보다 낮고, E학과도 여성 23.9%로 남성보다 낮다. F학과는 여성의 합격률이 7.0%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학과별로 보아도 여성의 합격률은 남성보다 낮다. 따라서 입학 심사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학은 하루빨리 성차별을 바로잡아야 하고, 우리 모두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용 〈표〉에서 여섯 학과 가운데 네 곳은 여성의 합격률이 더 높은데, 이를 '학과별로 보아도 여성의 합격률은 남성보다 낮다'로 거꾸로 읽었으므로 내용은 1점이다. 남성(5.9%)보다 높은 F학과의 여성 합격률(7.0%)까지 여성이 불리하다는 근거로 썼다.

구성 학과 세 곳의 수치를 차례로 늘어놓기만 했다(−1).

표현 제시문을 그대로 옮긴 구절이 여러 곳이고(−1),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논제가 요구하지 않은 감상과 당부다(−1).

형식 500자 내외 문항에 288자다. 범위(450~550자)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1).

점수 내용 1 · 구성 1 · 표현 0 · 형식 0

세 답안이 알려 주는 것

학생 C는 자기 결론에 맞아 보이는 수치만 골라, 오히려 반대를 가리키는 F학과의 수치까지 근거로 썼다. 자료를 결론에 맞추어 읽으면 자료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학생 B는 합격률을 빠짐없이 옮겼지만 지원자 수, 곧 누가 어느 학과에 지원했는지는 읽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옮긴 수치와 어긋나는 결론을 내렸다.

학생 A는 전체를 나누어 보고, 차이가 생긴 까닭을 수치로 밝힌 뒤 자료가 허락하는 만큼만 판정했다. 자료해석의 실력은 '숫자를 정직하게 끝까지 따라가는 눈'에서 갈린다.

단계 훈련 해설 · 독서율 표로 주장 뒷받침하기

• **활동 ①** 두 수치는 시점의 수가 다르다.

항목	단위	시점	정태적·동태적과 그 까닭
종이책 독서율	%	2015년·2025년	동태적. 두 시점이 있어 10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짧은 영상 시청 시간	분(하루 평균)	2025년	정태적. 한 시점의 연령대 비교만 할 수 있다.

• **활동 ②** ㄱ. 10대의 종이책 독서율은 10년 사이 27%p 줄었다(줄어든 비율로는 약 35%). ㄴ. 10대는 60대 이상보다 짧은 영상을 하루 82분 더 보며, 시청 시간은 약 4.7배다. ㄷ. 〈표〉의 네 연령대만 보아도 감소 폭이 10대 27%p, 20대 22%p, 40대 11%p, 60대 이상 5%p로 크게 다르다. 30대와 50대는 자료에 없어 '모든 연령대'라고 할 수도 없다.

• **활동 ③** 첫째, 짧은 영상을 오래 보는 연령대일수록 독서율이 크게 줄었다(10대 104분·27%p, 60대 이상 22분·5%p). 둘째, 2015년에 40대보다 17%p 높던 10대의 독서율이 2025년에는 1%p 차이로 거의 같아졌다.

• **활동 ④** '상관을 인과로'의 함정이다. 첫째, 〈표〉는 연령대 전체를 묶은 수치를 견준 것이라 같은 사람이 영상을 많이 보아서 책을 덜 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둘째, 영상 시청 시간은 2025년 값뿐이라 10년 동안 영상 시청이 늘었는지, 그 변화가 독서율의 변화와 함께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입시나 일처럼 다른 까닭이 함께 작용했을 수도 있다.

버릴 층위 글이 생긴 시기, 뇌의 부위에 관한 설명, 30대와 50대가 빠진 까닭. **한 걸음 더** '뒷받침하라'는 논제는 주장이 옳다고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료가 주장과 맞는 방향을 보여 준다는 데까지 쓰고,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함께 밝히면 오히려 설득력이 커진다. 활동 ⑤의 논제가 한계를 함께 묻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 독서율은 1년에 종이책을 한 권이라도 읽었는지를 잴 뿐, (가)가 말한 깊이 읽는 힘 자체를 재지는 않는다.

활동 ⑤ 예시답안 공백 포함 435자

(가)는 읽는 뇌가 쓰이는 방식대로 바뀌므로, 훑어보는 매체에 오래 머물수록 깊이 읽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본다. 〈표〉는 이 주장과 맞는 흐름을 보여 준다. 2025년 하루 짧은 영상 시청 시간은 10대가 104분, 20대가 86분으로 40대(41분)와 60대 이상(22분)보다 훨씬 길다. 지난 10년 동안 종이책 독서율도 10대가 27%p, 20대가 22%p 줄어 40대(11%p)와 60대 이상(5%p)보다 크게 떨어졌다. 2015년에 40대보다 17%p 높던 10대의 독서율은 2025년에 40대와 거의 같아졌다. 영상을 오래 보는 연령대일수록 독서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다만 〈표〉는 연령대 전체를 묶은 수치여서 같은 사람이 영상 때문에 책을 덜 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영상 시청 시간은 2025년 값뿐이라 두 변화가 함께 움직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연습 1 해설 · 설명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그림〉의 핵심(묶음과 차이): 옵트인 네 나라(4.25~27.5%)와 옵트아웃 일곱 나라(85.9~99.98%)로 뚜렷이 갈리고, 두 무리가 겹치지 않는다. 이웃 나라끼리도 제도에 따라 크게 다르다(독일 12%와 오스트리아 99.98%, 덴마크 4.25%와 스웨덴 85.9%).
- (가)의 원리: 사람들은 불편한 결정을 미루고 기본값을 그대로 두며, 기본값을 제도가 권하는 선택으로 여긴다.
- (가)로 본 차이의 까닭: 국민의 기증 의지나 문화보다 무엇을 기본값으로 정했느냐가 동의율을 갈랐다.
- (나)가 근거가 되는 까닭: 대대적인 설득에도 동의율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값의 힘이 설득보다 크다는 뜻이다.

버릴 층위 나라별 수치를 하나하나 옮기기, 온라인 실험의 세부, 1998년이라는 연도. **함정** 실질 동의율을 '기증률'로 읽어 '오스트리아 국민의 99.98%가 장기를 기증한다'고 쓰면 자료를 잘못 읽은 것이다. 옵트아웃 나라의 동의율은 거부 의사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일 뿐이다. 차이를 국민성이나 문화로 설명하면 (가)를 쓰지 않은 데다, 이웃 나라끼리의 큰 차이와도 맞지 않는다. **한 걸음 더** 실제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수로 보면 차이는 훨씬 작다. 같은 연구에서 다른 조건을 고려해 인구 100만 명당 실제 기증자 수를 견주니 옵트아웃 쪽이 약 16%(14.1명에서 16.4명으로) 많게 추정되었다. 동의율의 차이가 그대로 기증의 차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 자료가 말하지 않는 것이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435자

〈그림〉의 나라들은 제도에 따라 두 무리로 뚜렷이 갈린다. 기증 의사를 밝혀야 기증자가 되는 옵트인 네 나라의 실질 동의율은 4.25~27.5%에 머물지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증자로 보는 옵트아웃 일곱 나라는 85.9~99.98%에 이른다. 같은 언어를 쓰는 이웃 나라인 독일(12%)과 오스트리아(99.98%)도 차이가 약 88%p에 이른다. (가)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편한 결정을 미루고 기본값을 그대로 두며, 제도가 정해 둔 쪽을 권장 사항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 차이는 국민의 기증 의지보다 무엇을 기본값으로 정했느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이 분석을 뒷받침한다. 인구의 4분의 3이 넘는 1,200만 통의 편지로 기증을 알렸는데도 네덜란드의 동의율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만으로는 기본값의 힘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연습 2 해설 · 해석 비교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가)가 보는 수치와 결론: 지금의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배출량이 110억 톤으로 A국의 2.2배, C국의 약 3.9배인 B국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줄여야 한다.
- (나)가 보는 수치와 결론: 1인당 배출량(A국 15.2톤, B국 7.8톤, C국 2.0톤)과 누적 배출 비중(A국 25%, B국 14%, C국 3%)으로 보면 A국의 책임이 가장 크고 C국의 책임이 가장 작다.
- 두 해석이 갈리는 까닭: 같은 표에서 (가)는 효과를 따져 지금의 총량을, (나)는 공정함을 따져 인구로 나눈 양과 쌓인 양을 골랐다. 자료는 어느 기준이 옳은지 정해 주지 않는다.

버릴 층위 1992년이라는 연도,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같은 수사, 4분의 1과 네 배의 계산 예. **함정** 한쪽 해석만 쓰거나, 'B국이 가장 나쁜 나라다'처럼 어느 해석이 옳은지 판정해 버리면 논제를 벗어난다. 논제는 두 해석과 그것이 갈리는 까닭을 물었다. 〈표〉의 인구 칸을 보지 않으면 '인구가 많아 총량이 커 보인다'는 (나)의 지적을 설명할 수 없다. **한 걸음 더** 같은 자료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은 자료가 틀려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나누고 언제부터 더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이다. 분모와 기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숫자에 속지 않는 길이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435자

〈표〉에서 B국의 연간 배출량은 110억 톤으로 A국의 2.2배, C국의 약 3.9배다. 지금 내뿜는 양을 기준으로 삼는 (가)의 관점에서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줄여야 할 나라가 B국이다. 같은 비율을 줄여도 줄어드는 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는 결론이 달라진다. 1인당 배출량은 A국이 15.2톤으로 B국의 약 2배, C국의 7배가 넘고, 1850년 이후 누적 배출 비중도 A국이 25%로 가장 크다. 따라서 가장 큰 책임은 A국에 있고, 1인당 2톤인 C국의 책임은 가장 작다. 두 해석이 갈리는 것은 같은 표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골랐기 때문이다. (가)는 감축의 효과를 따져 지금의 총량을 보고, (나)는 책임의 공정함을 따져 인구로 나눈 양과 오랜 시간 쌓인 양을 본다. 자료는 숫자를 보여 줄 뿐, 어느 기준이 옳은지는 정해 주지 않는다.

연습 3 해설 · 평가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가)의 주장과 근거: 여섯 학과 전체의 합격률이 남성 44.5%, 여성 30.4%로 14%p 넘게 차이 나므로 심사가 여성에게 불리했다.
- 학과별로 읽으면: A·B·D·F 네 곳은 여성의 합격률이 더 높고(A학과는 20%p 넘게), C·E 두 곳은 여성이 4%p 안쪽으로 낮다.
- 전체와 학과별이 다른 까닭: 남성은 절반 넘게(51.5%) 합격률이 60%를 넘는 A·B학과에, 여성은 92.8%가 합격률이 40%에 못 미치는 C~F학과에 지원했다.
- 판정: 학과별 심사가 여성을 차별했다는 주장은 이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덧붙이면 좋은 한계: 여성이 왜 그 학과들에 많이 지원했는지는 자료가 보여 주지 않는다.

버릴 층위 학과마다 지원자 수와 합격률을 모두 옮기기, 1973년 가을이라는 시점. **함정** 합격률 차이를 '14%'로 쓰면 %와 %p를 혼동한 것이다(학생 B). 〈표〉를 '학과별로 보아도 여성이 낮다'로 읽으면 거꾸로 읽은 것이다(학생 C). 반대로 '성차별은 전혀 없었다'고 쓰면 자료의 범위를 넘는다. **한 걸음 더** 전체를 합친 결과와 나누어 본 결과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현상을 통계학에서는 '심슨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버클리 대학원 전체 학과를 분석한 비켈 등도 여성에게 불리한 학과는 드물었고, 학과별 결과를 제대로 합치면 오히려 여성에게 작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유리했다고 보고했다. 이름은 몰라도 된다. 전체와 부분을 나누어 읽는 눈이면 충분하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537자

(가)는 여섯 학과 전체에서 남성의 합격률(44.5%)이 여성(30.4%)보다 14%p 넘게 높다는 점을 들어 심사에서 여성이 차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로 학과별 합격률을 보면 결론이 달라진다. 여섯 학과 가운데 A·B·D·F 네 곳에서는 여성의 합격률이 더 높고, 특히 A학과에서는 여성이 82.4%로 남성보다 20%p 넘게 높다. 여성이 낮은 C·E학과에서도 차이는 4%p가 안 된다. 그런데도 전체에서 차이가 벌어진 것은 지원한 학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남성 지원자는 절반 이상이 합격률이 60%를 넘는 A·B학과에 지원했지만, 여성은 90% 넘게 합격률이 40%에 못 미치는 C~F학과에 지원했다. 합격하기 어려운 학과에 여성이 몰려 전체 합격률이 낮아진 것이다. 따라서 학과마다 이루어진 심사가 여성을 차별했다는 (가)의 주장은 이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가)는 전체만 보고 심사까지 단정했다. 다만 이 자료는 여성이 왜 경쟁이 치열한 학과에 많이 지원했는지 보여 주지 않으므로, 지원 이전 단계의 불리함까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VIII

자기견해진술형

제시문을 논거로 삼아 내 입장을 세우기 입장 선택 · 조건부 입장 · 반론 고려

자기 견해를 쓴다는 것은 좋아하는 쪽에 손을 드는 일이 아니라, 물음에 분명히 답하고 그 답을 제시문의 힘으로 떠받치는 일입니다. 출제자는 맞서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상황을 판단하거나, 반론까지 다루라고 요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논점을 잡고, 입장을 정하고, 제시문을 근거와 반론으로 나누어 쓰는 법을 손으로 익힙니다.

학습 목표

1. 논제와 제시문에서 논점을 잡고, 각 제시문의 주장과 논거를 갈라 정리할 수 있다.
2. 자기 입장을 한 문장으로 세우고, 지지 제시문은 근거로, 반대 제시문은 반론으로 쓸 수 있다.
3. 예상 반론에 재반론하고, 양쪽 다 옳다는 식으로 흐리지 않고 분명한 결론으로 맺을 수 있다.

이 단원의 흐름

1	왜 견해를 묻는가	대학이 자기 견해를 묻는 이유	194
2	핵심 해법	견해 진술 4단계 · 입장 세우기 · 제시문을 논거로 · 반론	195
3	시범	학교의 평가는 경쟁인가 협력인가	199
4	단계 훈련	어린이 출입 금지는 정당한가	202
5	실전	입장 선택 · 상황 판단 · 조건부 입장	205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내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기	214
7	답안 비교와 해설	상·중·하 답안 강평, 문항별 해설	215

1 왜 견해를 묻는가

지금까지 익힌 요약과 비교, 공통 쟁점 찾기, 적용과 분석, 논증의 평가, 문제 해결, 자료 해석은 모두 제시문과 자료를 정확히 읽고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견해진술형은 그 모든 힘을 한데 모아, 논점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세우고 제시문으로 떠받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대개 시험의 마지막 문항이고, 분량도 가장 깁니다.

대학이 이 능력을 묻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남의 글을 정확히 읽는 데서 멈추는 사람과, 읽은 것을 바탕으로 자기 판단을 세우고 책임지는 사람은 다릅니다. 대학이 보고 싶은 것은 번뜩이는 발상이 아니라, 맞서는 생각들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 내는 논리입니다. 견해가 없는 답안은 아무리 매끄러워도 이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 자기견해진술형 논제의 모습

논제의 형태	무엇을 요구하는가	유형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하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맞서는 두 입장 중 하나에 서서 근거를 대기	입장 선택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사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하시오.	원리를 담은 글로 사례를 판단하기	상황 판단
제시문을 바탕으로 ~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논점을 스스로 잡고 입장 세우기	논점 추론
자신의 견해를 쓰되,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하시오.	반론에 답해 입장을 단단히 하기	반론 고려

‘자신의 견해’, ‘자신의 입장’, ‘논하시오’, ‘논술하시오’가 논제에 나오면 이 유형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묻는 물음이므로, 답안에는 ‘나는 ~라고 본다’에 해당하는 문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채점자는 무엇을 보는가

항목	확인하는 것
논점 파악	무엇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지 정확히 잡았는가
입장의 명확성	어느 쪽에 서는지 한 문장으로 분명히 밝혔는가
제시문 활용	제시문을 요약하지 않고 근거와 반론으로 바꾸어 썼는가
반론 처리	맞서는 입장의 가장 센 논거에 답했는가
형식	정해진 분량과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는가

양쪽 다 옳다는 말은 견해가 아니다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으므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문장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 물음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자기 견해를 쓴다는 것은 한쪽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쪽에 서는 까닭을 밝히는 일입니다. 이 단원에서 기르는 것은 남의 말을 고르게 소개하는 솜씨가 아니라, 맞서는 생각 앞에서 자기 자리를 정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2 핵심 해법

이 단원에서 쓰는 말

논점	입장이 갈리는 물음. '학교의 평가는 경쟁을 북돋아야 하는가, 협력을 북돋아야 하는가'처럼 물음의 꼴로 적는다.
입장	그 물음에 대한 나의 답. '나는 ~라고 본다'의 한 문장으로 세운다.
지지 제시문	내 입장과 같은 쪽의 제시문. 그 논거를 내 근거로 끌어 쓴다.
반대 제시문	내 입장과 맞서는 제시문. 그 논거를 예상 반론으로 소개하고 답한다.
심층과 다각화	주장 → 예상 반론 → 재반론으로 깊이 파는 것이 심층, 개인·사회·제도처럼 여러 면에서 근거를 대는 것이 다각화다.
조건부 입장	'~한 경우에는 찬성, ~한 경우에는 반대'처럼 기준을 세워 가르는 입장. 기준이 분명하면 견해이고, 기준이 없으면 양시론이다.

(1) 견해 진술 4단계

단계	하는 일
STEP 1 논점 정리	논제가 논점을 주면 그대로 적고, 주지 않으면 제시문들이 함께 다투는 물음을 찾는다. 제시문마다 주장과 논거를 갈라 적는다.
STEP 2 입장 세우기	논점에 대한 답을 한 문장으로 정한다. 어느 쪽 논거가 더 단단한지, 사례가 어느 쪽을 받치는지로 고른다. 조건부라면 기준을 적는다.
STEP 3 논거 배치	제시문을 지지와 반대로 가른다. 지지 제시문은 근거로, 반대 제시문은 예상 반론으로 삼고, 반론의 가장 센 논거에 재반론을 준비한다.
STEP 4 점검과 서술	양시론·당위·자기 경험이 섞이지 않았는지 살핀 뒤, 논점과 입장 → 근거 → 반론과 재반론 → 결론의 차례로 쓴다.

논점이 논제에 없는 경우에는 Ⅲ단원에서 익힌 공통 쟁점 찾기로 물음을 세웁니다. 제시문이 셋 이상이면 먼저 같은 쪽끼리 묶어, 다투는 두 편으로 정리한 뒤 입장을 정합니다.

(2) 입장 세우기 — 물음에 답하는 한 문장

입장은 논점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어야 합니다. 물음이 '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가'라면, 대답도 그 물음에 '예'나 '아니요'로, 또는 분명한 기준을 세운 '~한 경우에는'으로 답해야 합니다.

수준	문장	판정
양시론	채식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급식의 효율도 중요하므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다.
당위	학교는 학생을 존중해야 하므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 입장은 있으나 근거가 구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입장	학교는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급식은 영양을 채우는 일이기 전에 학생이 자기 몸에 대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 물음에 답하고, 판단의 기준을 밝혔다.
조건부 입장	종교나 건강처럼 바꿀 수 없는 이유의 채식은 보장하되, 기호에 따른 선택은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급식은 공공의 비용으로 꾸려지기 때문이다.	○ 기준(바꿀 수 없는 이유)이 분명해 견해가 된다.

(3) 제시문을 논거로 — 요약이 아니라 근거와 반론으로

자기견해진술형에서 제시문은 소개할 대상이 아니라 쓸 재료입니다. 제시문을 차례로 요약하고 끝에 '나는 ~에 동의한다'를 붙이면, 요약 문항의 답안에 한 줄을 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같은 제시문이라도 어느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제시문	내 입장과 같다면	내 입장과 맞선다면
원리를 담은 글	그 원리를 내 근거로 삼는다. '(가)의 말처럼 ~이므로'	예상 반론으로 소개하고 답한다. '물론 (나)의 말처럼 ~일 수 있다. 그러나 ~'
사례를 담은 글	원리가 들어맞는 증거로 쓴다. '(다)에서 ~한 일이 이를 보여 준다'	그 사례가 생긴 까닭을 내 원리로 다시 설명한다. '(다)의 ~는 ~ 때문이지 ~ 때문이 아니다'
통계·조사	수치로 근거를 받친다.	수치가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을 짚는다. '다수가 ~라 해서 ~이 옳은 것은 아니다'

반대 제시문을 빼놓는 것은 가장 흔한 감점입니다. 논제가 '(가)와 (나)를 참고하여'라고 했다면 두 글 모두 답안에 쓰여야 하고, 맞서는 글은 반드시 반론의 자리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4) 반론과 재반론 — 가장 센 논거에 답하기

주장 → 반론 → 재반론으로 파고드는 이 과정이 용어표의 '심층'입니다. 예상 반론은 상대편의 가장 약한 말이 아니라 가장 센 말을 골라야 합니다. 약한 반론을 세워 쉽게 넘어뜨리면 채점자는 '진짜 반론은 피했다'고 읽습니다. 재반론은 반론을 부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론이 가리키는 문제를 내 입장 안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까지 보여야 합니다.

수준	문장	판정
허수아비	채식 선택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건강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건강은 중요하다.	×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세워 넘어뜨린 것이다.
부정만	비용이 든다는 반론이 있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 반론을 소개했을 뿐 답하지 않았다.
재반론	물론 두 가지 식단을 준비하면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나 기존 반찬 가운데 하나를 채식으로 바꾸어 두는 것으로도 가능하므로, 그 비용은 선택권을 포기할 만큼 크지 않다.	○ 가장 센 반론을 인정한 뒤, 그 문제를 내 입장 안에서 풀었다.

(5) 답안은 이렇게 짓는다

순서	쓰는 법
① **논점과 입장**	맞서는 입장을 한 문장씩 정리하고, 그에 대한 내 입장을 한 문장으로 밝힌다.
② **근거**	지지 제시문의 원리를 내 말로 바꾸어 근거로 삼고, 사례가 있으면 그 증거로 쓴다.
③ **반론과 재반론**	반대 제시문의 가장 센 논거를 반론으로 세우고 답한다.
④ **결론**	입장을 다시 밝히되, 처음보다 한 걸음 나아간 말로 맺는다. 당부나 교훈으로 맺지 않는다.

앞의 채식 선택권 문제에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글 (가)와 '급식은 공공의 식탁이므로 개인의 기호를 다 받아 줄 수 없다'는 글 (나)가 있다고 하고 짧게 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와 (나)를 참고하여 채식 선택권에 대한 견해를 쓴 짧은 답안**
>
> (가)는 식사도 학생이 자기 몸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라고 보고, (나)는 급식이 공공의 식탁이므로 개인의 기호를 다 받아 줄 수 없다고 본다. 나는 학교가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가)의 말처럼 무엇을 먹을지는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이고, 그 결정을 매일 무시당하는 학생은 학교가 자신을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말처럼 급식은 공공의 비용으로 꾸려지며 모든 기호를 받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채식은 기호가 아니라 신념이나 건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반찬 하나를 채식으로 바꾸어 두는 정도로도 보장할 수 있다. 공공의 식탁이라면 더욱 누구도 그 식탁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한다.

(6) 자주 빠지는 함정

함정	이렇게 피한다
양시론·양비론	'둘 다 일리가 있다',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아니다. 한쪽에 서거나, 기준을 세운 조건부 입장을 쓴다.
입장 없는 요약	제시문을 차례로 소개하고 끝에 '동의한다'를 붙이면 요약 답안이다. 첫머리에서 입장을 밝히고 제시문은 그 아래에 배치한다.
반대 제시문 버리기	내 입장과 맞서는 글을 쓰지 않으면 논제의 조건을 어긴 것이다. 반론의 자리에서 꼭 다룬다.
허수아비 반론	상대가 하지 않은 약한 말을 반론으로 세우지 않는다. 반대 제시문의 가장 센 논거를 고른다.
당위와 구호	'~해야 한다'만 되풀이하면 근거가 아니다. 왜 그런지를 제시문의 원리로 댄다.
자기 경험·바깥 지식	'내 친구가', '뉴스에서 보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뼈대는 제시문에서, 살은 그 원리를 적용한 생각으로 붙인다.
극단으로 밀기	남다른 견해를 쓰려고 '모두 없애야 한다'처럼 밀어붙이면 창의가 아니라 비약이다. 조건을 세워 선을 긋는다.
당부로 끝내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로 맺으면 입장이 흐려진다. 입장을 한 걸음 나아간 말로 되짚으며 맺는다.

(7) 입장과 논거를 드러내는 표현

쓰임	쓸 수 있는 표현	이럴 때 쓴다
논점 정리	(가)는 ~라고 보고, (나)는 ~라고 본다	첫머리에서 맞서는 입장을 정리할 때
입장	나는 ~라고 본다 / ~한 경우에 한해 ~해야 한다	물음에 답할 때
근거	(가)의 말처럼 ~이기 때문이다 / (다)의 ~가 이를 보여 준다	지지 제시문을 쓸 때
반론	물론 (나)의 말처럼 ~일 수 있다	반대 제시문을 세울 때
재반론	그러나 그것은 ~의 문제이지 ~의 문제가 아니다 / 그렇다면 길은 ~에 있다	반론에 답할 때
결론	따라서 ~ / ~은 ~이 아니라 ~이다	입장을 되짚으며 맺을 때

3 시범 — 학교의 평가는 경쟁인가 협력인가

시범 500자 내외

(가)와 (나)의 입장을 정리하고, (다)를 참고하여 학교의 평가가 어느 쪽을 북돋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300자 · (나) 324자 · (다) 292자 · 합계 916자

(가) 경쟁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오래된 동력이다. 달리기에서 옆 사람이 앞서 나갈 때 다리는 저절로 빨라진다. 학교에서 상대평가는 그 동력을 공부에 끌어들인다.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 때 학생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그 부족함을 메우려 애쓴다. 모두가 똑같이 칭찬받는 교실에서는 아무도 더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경쟁이 주는 긴장을 없애는 것은 학생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 사회에 나가면 어차피 경쟁은 피할 수 없다. 학교는 경쟁을 없애는 곳이 아니라 경쟁을 정정당당하게 치르는 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 경쟁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나) 상대평가 아래에서 한 학생의 성공은 다른 학생의 실패를 뜻한다. 그런 교실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동료가 아니라 넘어야 할 상대로 보게 되고, 아는 것을 나누기보다 감춘다. 한 교실에서 모둠별로 함께 문제를 풀고 서로 가르치게 했더니, 성적이 낮던 학생뿐 아니라 높던 학생의 이해도 깊어졌다는 보고가 많다. 남에게 설명하려면 자기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배움은 혼자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함께 넓히는 마당이다. 경쟁이 주는 긴장은 짧은 기간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나, 배움을 두려움과 묶어 버린다. 학교는 이기는 법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 협력 학습에 관한 교육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다) 지난봄 우리 반은 수학 시간에 네 명씩 모둠을 짜서 한 달 동안 공부했다. 모둠의 평균 점수가 오르면 모둠 전체가 점수를 받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잘하는 아이들이 불만이었다. 왜 내 시간을 써서 남을 가르쳐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설명을 하던 아이들이 '내가 이걸 제대로 몰랐구나'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반면 어떤 모둠에서는 한두 명이 모든 설명을 떠안고 나머지는 답만 받아 적었다. 그 모둠의 평균은 올랐지만, 답을 받아 적던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 이 교재가 새로 지은 장면

STEP 1 논점 정리

논제가 논점을 줍니다. '학교의 평가는 경쟁을 북돋아야 하는가, 협력을 북돋아야 하는가'입니다. (가)와 (나)는 맞서는 입장이고 (다)는 어느 쪽에도 서지 않은 사례입니다. 먼저 주장과 논거를 갈라 적습니다.

제시문	주장	논거
(가)	상대평가의 긴장이 학생을 키운다.	내 위치를 알아야 부족함을 메운다. 긴장이 없으면 아무도 나아가지 않는다. 사회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나)	평가는 협력을 북돋아야 한다.	경쟁은 아는 것을 감추게 한다. 남에게 설명하려면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가르치는 쪽도 깊어진다. 경쟁은 배움을 두려움과 묶는다.
(다)	(사례) 모둠 학습의 두 모습	설명하던 학생은 자기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몇몇이 설명을 떠안은 모둠은 평균이 올랐지만 나머지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함정 확인

(다)는 양쪽 모두에게 쓸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앞부분은 (나)를, 뒷부분은 (가)를 받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례를 한쪽에만 유리하게 잘라 쓰면 채점자는 나머지 반을 왜 외면했는지 묻습니다. 양면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더 단단합니다.

STEP 2 입장 세우기

어느 쪽 논거가 더 단단한지, 사례가 어느 쪽을 받치는지로 고릅니다. (나)의 '설명하려면 먼저 알아야 한다'는 (다)의 앞부분이 보여 줍니다. (가)의 '긴장이 없으면 나아가지 않는다'는 (다)의 뒷부분과 닿지만, 그 모둠의 문제는 긴장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 보이지 않은 데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협력'으로 정하되 (다)의 뒷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에 서도 좋습니다. 그때는 (다)의 앞부분을 '점수가 걸리자 애썼다'처럼 자기 원리로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입장	학교의 평가는 경쟁보다 협력을 북돋아야 한다.
판단 기준	배움의 깊이는 남과 겨룰 때가 아니라 남에게 설명할 때 생긴다.
(다)의 뒷부분	협력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몫이 드러나지 않게 짠 방식의 실패다.

STEP 3 논거 배치 — 지지와 반대로 가르기

자리	무엇을	어떻게 쓰나
근거	(나)의 원리 + (다)의 앞부분	설명하는 쪽이 깊어진다는 원리를 사례가 증명한다.
예상 반론	(가)의 가장 센 논거 + (다)의 뒷부분	긴장이 없으면 애쓰지 않는다. 실제로 답만 베낀 모둠이 있었다.
재반론	원인을 다시 설명	그 모둠의 문제는 협력이 아니라 몫이 보이지 않는 방식 탓이다. 모둠 점수에 개인의 설명 기록을 더하면 된다.
남은 반론	(가)의 '사회의 경쟁'	인정하되, 사회에서 끝내 필요한 힘으로 되받는다.

STEP 4 점검과 서술

쓰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입장이 한 문장으로 있는가, 반대 제시문 (가)가 반론의 자리에 있는가, 결론이 당부가 아닌가. 같은 입장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견해가 되기도 하고 요약이 되기도 합니다.

수준	문장	판정
양시론	경쟁도 협력도 필요하므로 둘을 적절히 섞어야 한다.	×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입장 없는 요약	(가)는 경쟁이 성장을 돕는다고 하고, (나)는 협력이 배움을 깊게 한다고 한다. 나는 (나)에 동의한다.	× 요약 끝에 한 줄을 붙였을 뿐 근거가 없다.
반대 제시문 버리기	(나)와 (다)에서 보듯 협력이 배움을 깊게 하므로 평가는 협력을 북돋아야 한다.	× (가)를 빼서 논제의 조건을 어겼다.
알맞음	평가는 협력을 북돋아야 한다. 설명하는 쪽이 깊어진다는 (나)의 원리를 (다)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긴장이 없으면 애쓰지 않는다는 (가)의 말도 옳지만, 답만 베낀 모둠의 문제는 협력이 아니라 몫이 보이지 않는 방식에 있다.	○ 입장, 근거, 반론과 재반론이 다 있다.

서술 논점과 입장 → 근거 → 반론과 재반론 → 결론의 순서로

예시답안 공백 포함 521자

(가)는 상대평가가 주는 긴장이 학생을 성장시킨다고 보고, (나)는 그 긴장이 배움을 두려움과 묶고 나눔을 막는다고 본다. 나는 학교의 평가가 경쟁보다 협력을 북돋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배움의 깊이는 남과 겨룰 때가 아니라 남에게 설명할 때 생기기 때문이다. (다)에서 설명을 맡은 학생들이 자기가 몰랐던 것을 깨달은 일은,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나)의 말을 그대로 보여 준다. 물론 (가)의 말처럼 누구나 같은 칭찬을 받는 교실에서는 애쓰는 학생이 없을 수 있고, (다)의 한 모둠처럼 몇몇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답을 베끼는 일도 생긴다. 그러나 이는 협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몫이 보이지 않게 짠 방식의 문제다. 모둠 점수에 개인의 설명 기록을 더하면 긴장은 남기고 두려움은 덜 수 있다. 사회에 경쟁이 있다는 (가)의 말도 옳지만, 그 경쟁에서 끝내 필요한 힘은 정확히 아는 것이고, (나)와 (다)가 보이듯 그 앎은 남에게 설명할 때 깊어진다. 학교는 그 힘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

답안의 문장	하는 일
첫째·둘째 문장	논점 정리와 입장: (가)와 (나)를 한 문장씩 정리하고 협력 쪽에 선다.
셋째·넷째 문장	근거: (나)의 원리와 (다)의 앞부분.
다섯째~일곱째 문장	반론과 재반론: (가)의 논거와 (다)의 뒷부분을 인정한 뒤, 원인을 다시 설명하고 대안을 보인다.
여덟째·아홉째 문장	남은 반론에 답하고 결론: 사회의 경쟁을 인정하되 끝내 필요한 힘으로 되받아 맺는다.

한 걸음 더 자기견해진술형의 채점에서 거듭 강조되는 것은 '제시문을 끌고 다녀야지 제시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답안은 제시문을 차례로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장을 먼저 세운 뒤 세 글을 근거와 반론의 자리에 나누어 앉혔습니다. 같은 제시문도 자리를 정해 주는 사람이 글의 주인입니다.

4 단계 훈련 — 어린이 출입 금지는 정당한가

단계 훈련 400자 내외

(나)와 (다)를 참고하여 (가)의 어린이 출입 금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단, 예상되는 반론을 함께 고려하시오. 아래 활동 ①~④를 차례로 해결한 뒤, 활동 ⑤에서 답안을 쓰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공백 포함 (가) 262자 · (나) 202자 · (다) 264자 · 합계 728자

(가) 한 식당이 입구에 '열 살 미만 어린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주인은 아이가 뛰다 뜨거운 음식에 데는 사고가 두 번 있었고, 다른 손님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런 식당과 카페가 늘면서 찬반이 갈린다. 한 조사에서는 어른 열 명 가운데 여섯이 '가게 주인의 자유'라고 답했고, 셋은 '아이와 부모에 대한 차별'이라고 답했다.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줄었다는 부모들의 호소와, 돈을 내고 조용히 쉴 권리가 있다는 손님들의 주장이 맞선다.

— 이 교재가 새로 쓴 기사(조사 결과는 가상의 것)

(나) 가게는 주인의 것이다. 어떤 손님을 받을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는 주인이 정한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촛불을 켜는 식당이 있듯이, 조용함을 파는 가게도 있을 수 있다. 손님에게는 그 가게를 고르지 않을 자유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도 주인이다. 위험을 아는 사람에게 그 위험을 피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면, 책임만 지우고 권리는 빼앗는 셈이다.

— 영업의 자유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을 이유로 문을 닫는 것이 차별이다. 소란을 피운 손님을 내보내는 것과,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아이를 아이라는 이유로 막는 것은 다르다. 모든 아이가 뛰는 것도 아니고, 뛰는 어른도 있다. 한 집단 전체를 미리 문제로 보는 안내문은 그 집단에게 '너희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조금씩 좁힌다. 불편을 줄이는 방법은 집단을 막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 차별 금지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STEP 1 **활동 ① 논점을 물음의 꼴로 쓰고, (나)와 (다)의 주장과 논거를 갈라 쓰시오.**

구분	주장	논거
논점		
(나)		
(다)		

STEP 2 **활동 ② 자신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쓰고, 그렇게 판단한 기준을 쓰시오.**

STEP 3 **활동 ③ 반대 제시문의 가장 센 논거를 예상 반론으로 쓰고, 재반론을 쓰시오.**

자리	메모
예상 반론	
재반론	

STEP 4 **활동 ④ 함정 찾기**

‘가게 주인의 자유도 중요하고 아이의 권리도 중요하므로,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 문장이 견해가 되지 못하는 까닭을 두 가지 쓰시오.

서술 **활동 ⑤ 400자 내외로 쓰시오.** 20칸 × 24줄 = 4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5 실전

이제 시간을 재고 혼자 씁니다. 묻는 방식은 입장 선택, 상황 판단, 조건부 입장으로 바뀌지만 할 일은 같습니다. 논점을 물음으로 세우고, 입장을 한 문장으로 정하고, 제시문을 근거와 반론으로 나누어 앉힌 뒤, 가장 센 반론에 답하고 분명한 결론으로 맺는 것입니다. 해설은 7절에 있으니 다 쓴 뒤에 확인하십시오.

문항	제시문	답안	시간	이번에 새로 요구하는 것
연습 1 입장 선택	3편 · 637자	500자	30분	맞서는 두 입장 가운데 하나에 서서 사례로 받치기
연습 2 상황 판단	3편 · 726자	500자	30분	두 원리로 한 사례를 판단하고 반론에 답하기
연습 3 조건부 입장	3편 · 724자	500자	30분	기준을 세워 선을 긋는 입장을 세우고 지키기

연습 1 · 입장 선택 500자 내외 · 제한 시간 30분

(가)와 (나)의 입장을 정리하고, (다)를 참고하여 온라인 익명 표현을 보장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약한 사람의 방패다. 회사의 부정을 알리는 직원, 괴롭힘을 고발하는 학생, 억압적인 나라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보복을 당한다. 익명성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입을 닫는 사람은 거친 사람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이다. 역사에서 권력을 비판한 많은 글이 가명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말의 가치는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느냐로 따져야 한다.

— 온라인 익명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나) 얼굴을 마주 보고는 결코 하지 않을 말을 사람들은 화면 뒤에서 쉽게 한다. 이름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익명의 댓글에 시달려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드물지 않다. 말할 자유는 소중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기 말에 이름을 걸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실명을 쓰게 하면 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 줄어든다.

— 온라인 혐오 표현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다) 한 온라인 게시판이 실명 등록을 의무화했다. 석 달 뒤 욕설과 비방이 담긴 글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회사의 내부 비리를 알리는 글과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 글도 함께 줄었고, 전체 글의 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운영자는 '깨끗해졌지만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실명을 쓰면서도 거친 말을 서슴지 않는 이용자는 여전히 남았다.

— 이 교재가 새로 지은 사례(수치는 가상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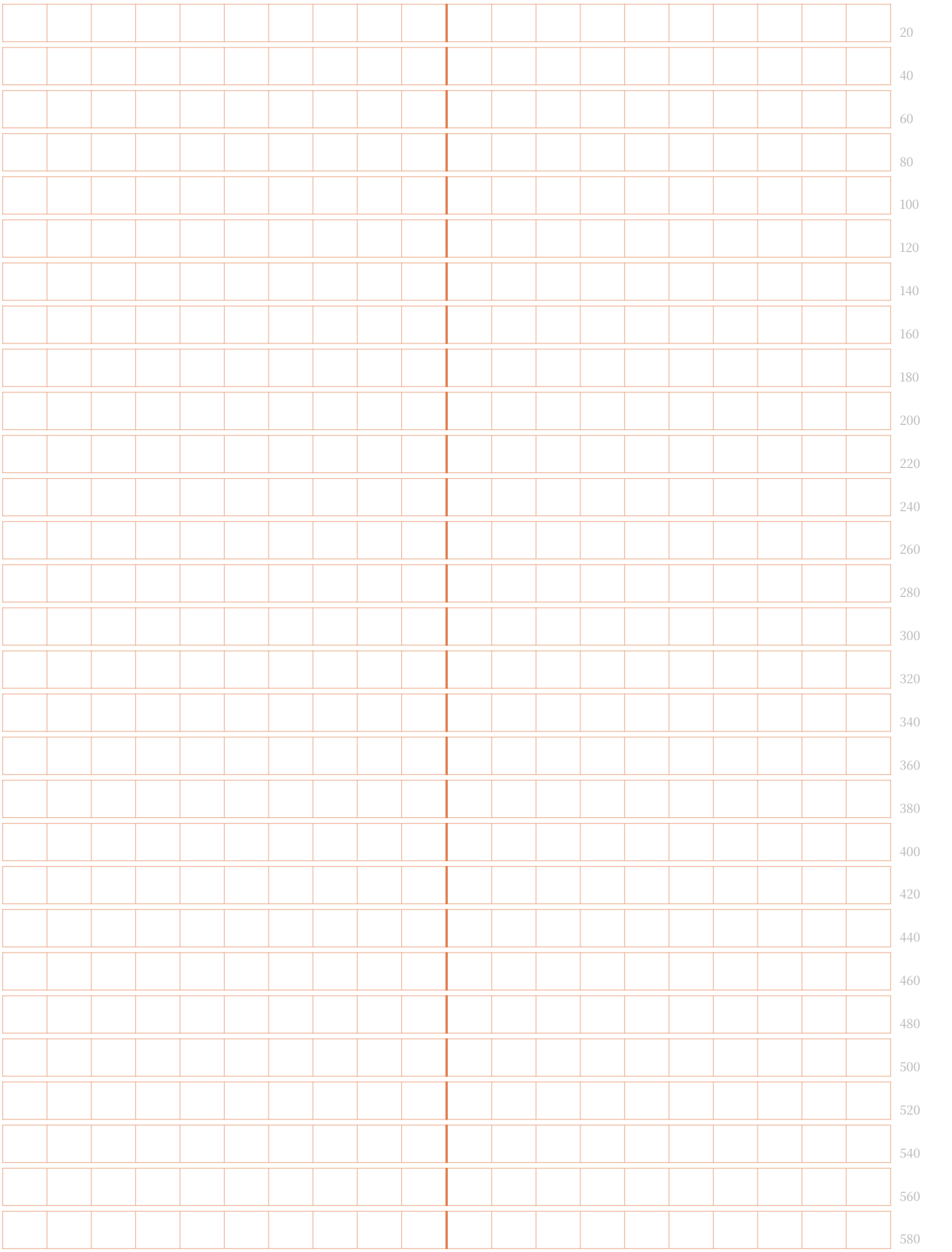
메모 **쓰기 전에 — 입장을 정하고 제시문을 앉히기**

물음	메모
논점과 나의 입장	
근거 (지지 제시문 + 사례)	
예상 반론 (반대 제시문)	
재반론	

결론 한 문장

연습 1 답안지 · 500자 내외 20칸 × 29줄 = 5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연습 2 · 상황 판단 500자 내외 · 제한 시간 30분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금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하시오. 단, 예상되는 반론을 함께 고려하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밀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일뿐이라고 보았다. 어떤 행동이 그 사람 자신에게만 해롭다면, 사회는 충고하고 설득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 그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 원리가 판단력이 여문 어른에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밀은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을 시험해 볼 수 있어야 사회 전체가 배우고 나아진다고 믿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택을 금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일이다.

— 밀의 『자유론』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글

(나)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늘 고르지는 않는다. 눈앞의 즐거움 때문에 먼 뒷날의 손해를 가볍게 여기고, 한 번 시작한 일은 그만두기 어려워하며, 남들이 하면 따라 한다. 담배와 도박이 그렇고, 요즘은 밤새 손에서 놓지 못하는 화면이 그렇다.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라면, 국가가 좋은 선택은 쉽게, 나쁜 선택은 어렵게 만들어 주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일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 주는 일이다. 뒷날의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사회가 손을 보태는 것이다.

— 온정적 간섭주의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다) 한 나라가 열여섯 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을 법으로 금지했다. 찬성하는 쪽은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불안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대하는 쪽은 또래와 이어질 통로를 잃고,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이 도움을 구할 곳이 사라진다고 걱정한다. 한 열다섯 살 학생은 이렇게 되물었다. '나를 지켜 준다면서 왜 나한테는 묻지 않느냐.'

— 호주의 2024년 법(2025년 12월 시행)을 바탕으로 이 교재가 간추린 사례. 학생의 말은 가상의 것

메모 **쓰기 전에 — 두 원리로 사례를 재기**

물음	메모
(가)로 보면 (다)는	
(나)로 보면 (다)는	
나의 입장과 판단 기준	
예상 반론과 재반론	

결론 한 문장

연습 2 답안지 · 500자 내외 20칸 × 29줄 = 5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500
520
540
560
580

연습 3 · 조건부 입장 500자 내외 · 제한 시간 30분

(가)와 (나)의 입장을 정리하고, (다)를 참고하여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해 세며, 제시된 분량의 ±10% 안에서 씁니다.

제시문

(가) 저작권은 창작자가 들인 노력과 창의성에 보답하려고 만든 제도다. 사람은 자기가 쓴 글과 그린 그림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어야 계속 창작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수많은 사람의 작품을 허락 없이 배워서, 몇 초 만에 그와 비슷한 작품을 쏟아 낸다. 그 결과물이 저작권을 얻는다면, 보상은 수십 년을 들여 그림을 익힌 화가가 아니라 단어 몇 개를 입력한 사람과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 돌아간다. 창작자를 지키려는 제도가 창작자를 밀어내는 데 쓰이는 셈이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에 사람의 권리를 줄 수는 없다.

— 저작권의 취지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나) 사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단추를 누르는 일에 무슨 창의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무엇을 언제 어떤 각도로 찍을지 고르는 것은 사람이었고, 오늘날 사진은 어엿한 예술이다. 인공지능도 붓과 사진기와 같은 도구다.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고, 수백 개의 결과 가운데 고르고, 다시 다듬는 것은 여전히 사람이다. 도구가 새롭다는 이유로 그 결과물에서 사람의 몫을 지운다면,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남의 손에 작품을 빼앗길 것이다.

— 창작 도구의 역사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재가 새로 쓴 주장문

(다) 한 학생이 인공지능 그림 프로그램에 '비 오는 날의 골목, 수채화풍'이라고 입력해 그림 수십 장을 얻었다.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색을 조금 바꾸고 전시회에 냈더니, 어느 화가가 자기 그림과 너무 닮았다며 항의했다. 학생은 그 화가의 그림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는 학습에 쓴 그림을 밝히지 않았다.

— 이 교재가 새로 지은 사례

메모 **쓰기 전에 — 기준을 세워 선 긋기**

물음	메모
(가)와 (나)의 주장과 논거	
나의 입장 (기준이 있다면 기준)	
(다)는 내 입장을 어떻게 받치나	
예상 반론과 재반론	

결론 한 문장

연습 3 답안지 · 500자 내외 20칸 × 29줄 = 580칸 · 10칸마다 굵은 선 · 오른쪽 숫자는 누적 칸 수

이름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걸린 시간 _____ 분 글자 수 _____ 자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460
480
500
520
540
560
580

6 채점표와 자기 점검

답안을 다 썼으면 먼저 스스로 채점합니다.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점수를 잃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세 번 넘어진다면, 그 자리가 바로 다음 수업의 과제입니다.

영역	배점	만점 기준	이럴 때 깎인다
내용	5	논점을 정확히 잡고 제시문의 주장과 논거를 바르게 정리했다(2). 입장을 분명히 세우고, 지지 제시문을 근거로, 반대 제시문을 반론으로 써서 재반론까지 했다(3).	제시문을 왜곡하거나 거꾸로 읽으면 내용은 1점(다른 내용 감점은 더하지 않는다). 논제가 지정한 제시문 하나를 빠뜨리거나, 옮기기만 하고 근거·반론으로 쓰지 않을 때마다 −1. 입장이 없거나 양시론·양비론에 머물렀다 −1. 반론을 세우지 않았거나 허수아비 반론에 그쳤다 −1.
구성	2	논점과 입장 → 근거 → 반론과 재반론 → 결론의 흐름이 분명하고, 제시문이 제자리에 쓰였다.	입장 없이 제시문의 내용을 차례로 늘어놓았다 −1. 결론이 없거나 당부·교훈으로 맺었다 −1.
표현	2	제시문의 원리를 자기 말로 바꾸어 근거로 썼고, 문장이 정확하다.	10자 이상 그대로 옮긴 구절이 두 곳 이상 −1. 자기 경험이나 제시문에 없는 지식을 근거로 삼았거나, 감정적 표현이 섞였다 −1.
형식	1	분량이 ±10% 안에 있고 원고지 사용법을 지켰다.	분량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원고지를 잘못 썼다 −1.

한 가지 잘못은 한 영역에서만 깎습니다. 입장을 세우지 않은 잘못은 내용에서 깎고, 그 빈자리를 당부로 메운 것은 다시 깎지 않습니다. 입장을 세우고도 당부로 맺었다면 구성에서 깎습니다. 입장 자체는 어느 쪽이든 감점하지 않으며, 그 입장을 제시문으로 얼마나 단단히 받쳤는지만 봅니다. 이 채점표는 바른에듀케이션 수업용 기준입니다. 대학별 실제 채점 기준은『합격 포인트』시리즈에서 확인합니다.

■ 제출 전 자기 점검

- ☐ 논점을 물음의 꼴로 잡았고, 제시문마다 주장과 논거를 갈라 정리했다.
- ☐ ‘나는 ~라고 본다’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고, 조건부라면 기준을 밝혔다.
- ☐ 지지 제시문은 근거로, 반대 제시문은 반론으로 썼다. 논제가 지정한 제시문을 모두 썼다.
- ☐ 반론은 상대의 가장 센 논거로 세웠고, 재반론은 그 문제를 내 입장 안에서 풀었다.
- ☐ 양시론·양비론, 당위와 구호, 자기 경험·바깥 지식이 없다.
- ☐ 제시문과 10자 이상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이 없고, 제시문의 원리를 내 말로 바꾸어 썼다.
- ☐ 결론이 당부가 아니라 입장을 한 걸음 나아간 말로 되짚는다.
- ☐ 분량을 지켰다. 공백을 포함해 세었고, 문단 첫 칸을 비웠다.

7 답안 비교와 해설

연습 3에 대한 세 학생의 답안입니다. 형광 표시는 제시문의 한 문장과 10자 이상(띄어쓰기 제외) 똑같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세 답안을 가른 것은 문장 솜씨가 아니라 **물음에 답하는 입장을 세우고 반론까지 다루었는가**였습니다.

상 · 10점 학생 A — 입장을 세우고 사례와 반론으로 받친 답안 공백 포함 520자

> (가)는 인공지능 결과물에 권리를 주면 창작자 대신 입력자와 회사가 보상을 받는다고 보고, (나)는 인공지능도 사진기처럼 도구일 뿐이며 고르고 다듬는 사람의 몫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가)의 입장에 선다. 저작권은 사람이 들인 애씀에 보답하는 제도인데, 인공지능의 결과물에는 그것을 만든 수많은 창작자의 노력이 허락 없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다)의 사례가 이를 보여 준다. 학생은 화가의 그림을 본 적도 없이 닮은 그림을 얻었고, 회사는 학습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학생이 한 일은 단어 몇 개를 입력하고 색을 바꾼 것뿐이다. 물론 (나)의 말처럼 사진도 처음에는 창의성을 의심받았다. 그러나 사진기는 남의 그림을 배워서 닮은 그림을 내놓지 않는다. 수백 개 가운데 고르는 일이 창작이라면, 전시된 그림 가운데 하나를 고른 사람도 창작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에는 저작권을 주지 말아야 하며, 회사는 학습에 쓴 작품의 창작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그래야 (가)가 말한 제도의 뜻이 지켜진다.

내용 두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가)의 편에 분명히 섰다. (다)의 사례를 근거의 증거로 썼고, (나)의 가장 센 논거(사진기도 처음엔 의심받았다)를 반론으로 세워 '사진기는 남의 작품을 배우지 않는다'로 답했다. 회사의 보상 의무까지 덧붙여 결론이 처음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

구성 논점과 입장 → 근거와 사례 → 반론과 재반론 → 결론의 흐름이 분명하다.

표현 제시문 문장을 옮긴 곳이 없고, 원리를 자기 말로 바꾸어 썼다.

점수 내용 5 · 구성 2 · 표현 2 · 형식 1

더 나아지려면 '고르는 일이 창작이라면 전시된 그림을 고른 사람도 창작자다'는 재치 있지만, (나)는 고르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듬는 일까지 들었으므로 조금 비껴간다. 학생이 실제로 보탠 손질이 얼마나 작은지로 되받는 편이 (다)에 더 충실하다.

중 · 5점 학생 B — 두 입장을 옮기고 조화로 끝낸 답안 공백 포함 458자

> (가)는 저작권은 창작자가 들인 노력과 창의성에 보답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인공지능 결과물이 저작권을 얻으면 보상이 화가가 아니라 단어 몇 개를 입력한 사람과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 돌아간다고 본다. (나)는 사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단추를 누르는 일에 무슨 창의성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오늘날 사진은 어엿한 예술이 되었듯이, 인공지능도 붓과 사진기와 같은 도구라고 본다. (다)에서 학생은 그림 수십 장을 얻어 하나를 골라 색을 조금 바꾸고 전시회에 냈다. 두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창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의 말도 맞고, 새로운 도구를 쓰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나)의 말도 맞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므로 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창작자와 인공지능 이용자가 서로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내용 (가)와 (나)의 요약은 정확하다. 그러나 '두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와 '서로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에 머물러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1). (다)의 사례를 옮기기만 하고 판단에 쓰지 않았다(−1). 반론을 세우지 않았다(−1).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것이라는 말은 제시문에 없는 추측이다(근거로 쓴 것은 아니므로 깎지 않는다).

구성 입장 없이 (가)·(나)·(다)를 차례로 늘어놓았다(−1). 마지막 문장은 당부이지만, 입장을 세우지 않은 잘못은 내용에서 이미 깎았으므로 다시 깎지 않는다.

표현 제시문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구절이 여러 곳이다(−1).

점수 내용 2 · 구성 1 · 표현 1 · 형식 1

하 · 2점 **학생 C — (가)를 거꾸로 읽고 당부로 돌아간 답안** 공백 포함 313자

> 요즘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 시대가 되었다. (나)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붓과 사진기와 같은 도구이며,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고 고르고 다듬는 것은 여전히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의 학생은 '비 오는 날의 골목, 수채화풍'이라고 입력해서 그림을 만들었으니 그 그림은 학생의 작품이다. 화가가 자기 그림과 닮았다고 항의했지만 학생은 그 그림을 본 적이 없으므로 베낀 것이 아니다. (가)도 창작자를 지켜야 한다고 하므로, 새로운 도구로 창작하는 학생도 지켜 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모두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내용 (가)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에 권리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를 '(가)도 새로운 도구로 창작하는 학생을 지켜 주라고 한다'로 거꾸로 읽었으므로 내용은 1점이다. (나)에 동의한다는 입장은 있으나, (다)에서 닮은 그림이 나온 까닭과 회사가 학습 자료를 밝히지 않은 사실은 외면했다.

구성 (나)를 옮기고 사례를 옮긴 뒤 곧바로 자기 생각을 붙였을 뿐 반론과 재반론이 없다. 입장은 있으나 근거·반론의 자리가 없어 제시문을 차례로 늘어놓은 답안과 다름없다(−1). (나)에 선다는 입장을 세우고도 마지막 문장을 당부로 맺었다(−1).

표현 제시문을 그대로 옮긴 구절이 여러 곳이다(−1). 첫 문장의 감상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은 근거 없음의 문제이지만, 내용은 이미 1점이므로 더 깎지 않는다.

형식 500자 내외 문항에 313자다. 범위(450~550자)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1).

점수 내용 1 · 구성 0 · 표현 1 · 형식 0

세 답안이 알려 주는 것

학생 C는 입장은 있었으나 (가)를 자기편으로 끌어 쓰려다 거꾸로 읽었고, 사례의 불리한 반쪽을 외면했다. 반대 제시문은 답해야 할 상대이지 내 편으로 끌어다 쓸 동료가 아니다.

학생 B는 세 글을 고르게 옮기고 '조화'로 맺었다. 고르게 소개하는 솜씨는 요약의 미덕이지 견해의 미덕이 아니다. 물음에 답하지 않은 답안은 아무리 공정해 보여도 견해가 아니다.

학생 A는 한쪽에 선 뒤 사례로 받치고, 상대의 가장 센 말을 꺼내어 답했다. 자기 견해의 실력은 '반대편의 가장 센 말을 피하지 않는 용기'에서 갈린다.

단계 훈련 해설 · 어린이 출입 금지는 정당한가

- **활동** ① 논점: 아이라는 집단 전체의 출입을 막는 것은 정당한가. (나)는 '정당하다'. 가게는 주인의 것이고, 손님은 고르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책임지는 사람이 위험을 피할 권리도 가져야 한다. (다)는 '정당하지 않다'. 집단을 이유로 막는 것은 차별이고, 아이와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좁히며, 불편은 행동에 책임을 물어 줄여야 한다.
- **활동** ② 예: '정당하지 않다. 사람을 행동이 아니라 속한 집단으로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당하다.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위험을 피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도 견해다. 어느 쪽이든 감점하지 않는다.
- **활동** ③ 예(정당하지 않다는 입장): 예상 반론은 (나)의 '책임지는 사람이 위험을 피할 권리도 가져야 한다', 재반론은 '위험을 피하는 길이 집단을 막는 것뿐은 아니다. 소란에 책임을 묻고 자리와 시간을 안내해도 피할 수 있다'이다. (가)의 조사는 반론으로 약하다. 정당하다는 입장이면 (다)의 '집단으로 막는 것은 차별'을 반론으로 세우고 '나이는 행동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드문 기준'으로 되받는다.
- **활동** ④ 첫째, 양시론이다. 둘 다 중요하다는 말은 둘이 부딪힐 때 어느 쪽을 택할지 답하지 않는다. 둘째, 당부로 끝난다.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누가 무엇을 양보할지 말하지 않는다.

버릴 층위 사고가 두 번 있었다는 세부, 촛불과 음악의 비유, 조사의 정확한 비율. **한 걸음 더** 이 논제는 '반론을 함께 고려하시오'가 조건이다. 반론은 반대 제시문에서 가장 센 것 하나를 고른다. 예시답안은 (나)의 '책임과 권리' 논거를 골랐고, 다수의 지지는 근거가 아니라 되받을 대상으로 썼다.

> **활동 ⑤ 예시답안** 공백 포함 412자
>
> 나는 (가)의 식당과 같은 어린이 출입 금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의 말처럼 그것은 아이가 한 행동이 아니라 아이라는 집단 전체를 미리 막는 일이고,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일상을 조금씩 좁히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말처럼 가게 주인에게는 분위기를 정할 자유가 있고, 사고의 책임도 주인이 진다. 그러나 조용한 가게를 만드는 길이 한 집단을 막는 것뿐인지는 의심스럽다. 소란을 피우는 손님에게 책임을 묻고, 아이가 있는 손님에게 자리나 시간을 안내하면 주인의 걱정도 덜 수 있다. (가)의 조사에서 어른 다수가 주인의 자유를 지지했다지만, 다수의 편함이 소수의 자리를 없애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가게는 주인의 것이지만 거리는 모두의 것이고, 아이도 그 한 사람이다. 따라서 금지보다 행동에 책임을 묻는 규칙이 바른 길이다.

연습 1 해설 · 입장 선택

반드시 들어갈 요소

- 논점과 입장: 온라인 익명 표현을 보장해야 하는가. (가)는 익명 보장을, (나)는 실명제를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한 문장으로 밝힌다.
- 근거: 지지 제시문의 원리와 (다)의 사례. 보장 쪽이면 '익명은 약자의 방패'와 고발 글이 줄어든 사실, 실명 쪽이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와 욕설이 줄어든 사실.
- 반론과 재반론: 보장 쪽이면 '익명의 말이 사람을 해친다'에, 실명 쪽이면 '힘없는 사람이 먼저 입을 닫는다'에 답한다. 결론은 입장을 한 걸음 나아간 말로 되짚는다.

버릴 층위 역사 속 가명의 예, 석 달이라는 기간, 운영자의 말. **함정** (다)는 양쪽 모두에게 증거를 준다. 앞부분만 쓰거나 뒷부분만 쓰면 사례의 반을 외면한 것이다. 실명 쪽이면 '실명을 쓰고도 거친 이용자가 남았다'에, 보장 쪽이면 '욕설이 눈에 띄게 줄었다'에 답해야 한다. **한 걸음 더** 예시답안은 '해치는 말은 말 자체를 기준으로 제재하면 된다'는 대안을 재반론에 넣었다. 반론이 가리키는 문제를 내 입장 안에서 푸는 길을 보이면 반론은 약점이 아니라 내 입장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539자

(가)는 익명이 약한 사람의 방패라고 보고, (나)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실명을 써야 한다고 본다. 나는 온라인 익명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가)의 말처럼 익명성은 약한 사람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부정을 알리는 직원과 괴롭힘을 알리는 학생은 이름이 알려지면 보복에 노출되고, 익명성이 사라질 때 먼저 입을 닫는 사람도 그들이다. (다)의 게시판이 이를 보여 준다. 실명을 의무화하자 욕설은 줄었지만 비리와 폭력을 알리는 글도 같이 줄었으며, 글의 수는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깨끗해진 대가로 조용해진 것이다. 물론 (나)의 말처럼 익명의 말은 사람을 해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다)에서 이름을 밝히고도 거친 말을 하는 이용자가 남았듯이, 책임을 지우는 길이 이름을 밝히게 하는 것뿐은 아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익명이든 실명이든 그 말 자체를 기준으로 제재하면 된다. 익명을 없애는 것은 거친 사람보다 힘없는 사람을 먼저 침묵시킨다. 말의 가치를 말한 사람이 아니라 말의 내용으로 따지려면, 이름을 묻기 전에 말을 보아야 한다.

연습 2 해설 · 상황 판단

반드시 들어갈 요소

- (가)로 보면: 소셜 미디어 이용은 남을 해치지 않는 선택이므로 금지는 그 사람을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일이다. 다만 (가)는 판단력이 여문 어른을 전제하므로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져야 한다.
- (나)로 보면: 사람은 눈앞의 즐거움에 흔들리므로 국가가 나쁜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
- 입장과 기준: 예시답안은 '정당하지 않다'에 서되,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것과 없애는 것은 다르다'를 기준으로 세웠다. 정당하다는 입장도 가능하며, 그때는 (다)의 '통로를 잃는다'에 답해야 한다.
- 반론과 재반론: 정당하지 않다는 쪽이면 '열다섯 살은 손해를 가늠하기 어렵다'에, 정당하다는 쪽이면 '묻지 않는 보호는 배제다'에 답한다.

버릴 층위 밀의 시대와 나라, 담배와 도박의 예. 실제 사례를 알더라도 제시문에 적힌 것만으로 판단한다. **함정** (가)를 '자유는 무조건 보장된다'로 읽으면 왜곡이다. (가)는 남을 해치는 선택에는 간섭을 허용한다. (나)를 '국가가 모든 것을 정한다'로 읽어도 왜곡이다. (나)는 나쁜 선택을 어렵게 만들자는 것이지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이 차이가 예시답안의 기준이 되었다. **한 걸음 더** 상황 판단형은 두 원리가 사례 앞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보인 뒤 입장을 세운다. 원리만 소개하면 적용분석형 답안이 되고, 원리 없이 사례만 판단하면 자기 의견에 그친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515자

(가)는 자신에게만 해로운 선택을 사회가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나)는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나쁜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고 본다. 나는 (다)의 금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나)의 말대로 청소년이 흔들리기 쉽다 해도, 금지는 좋은 선택을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 자체를 없애기 때문이다. (가)의 말처럼 남을 해치지 않는 선택을 통째로 막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을 믿지 않는 일이며, 또래와 이어지고 도움을 구하는 통로까지 끊는다. 물론 (나)의 말처럼 밤새 붙들고 있는 화면은 청소년의 잠과 마음을 해치고, (가)도 어른을 전제하듯 열다섯 살이 그 손해를 스스로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면 길은 늦은 밤 알림을 끄고 사용 시간을 보여 주는 것처럼 나쁜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데 있지, 계정 자체를 막는 데 있지 않다. (다)의 학생이 묻듯 당사자에게 묻지 않는 보호는 보호가 아니라 배제다. 흔들리는 사람을 지키는 길은 손을 잡아 주는 것이지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다.

연습 3 해설 · 조건부 입장

반드시 들어갈 요소

- 논점과 두 입장: 인공지능 결과물에 저작권을 주어야 하는가. (가)는 창작자가 아닌 입력자와 회사가 보상을 받게 되므로 반대, (나)는 도구를 쓴 사람의 선택을 보호해야 하므로 찬성한다.
- 입장: 찬성, 반대, 또는 기준을 세운 조건부 입장. 예시답안은 '사람이 실제로 선택하고 다듬은 만큼만'이라는 기준으로 선을 그었다. 학생 A처럼 (가)에 서는 것도, (나)에 서는 것도 좋다.
- (다)의 활용: 단어 몇 개와 색 손질이라는 작은 몫, 닮은 그림에 대한 항의, 회사가 학습 자료를 밝히지 않은 사실. 어느 입장이든 이 셋을 설명해야 한다.
- 반론과 재반론: (가) 쪽이면 '사진도 처음엔 의심받았다'에, (나) 쪽이면 '보상이 창작자에게 가지 않는다'와 '닮은 그림'에 답한다.

버릴 층위 수채화풍이라는 입력어, 전시회라는 장소, 수십 년을 들여 그림을 익혔다는 표현. **함정** '둘 다 일리가 있으므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양시론이다(학생 B). (가)를 '창작자를 지키자'로만 읽어 인공지능을 쓰는 학생도 창작자이니 (가)도 학생 편이라고 하면 거꾸로 읽은 것이다(학생 C). 조건부 입장을 쓸 때 기준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에 그치면 양시론과 다를 바 없다. **한 걸음 더** 조건부 입장의 힘은 기준에서 나온다. 예시답안의 기준 '사람이 보탠 만큼'은 (가)의 원리(사람의 창의성에 보답한다)에서 나왔고, (나)의 가장 센 논거(고르고 다듬는 것은 사람이다)까지 그 기준 안으로 끌어들였다. 상대의 논거를 내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조건부 입장은 양시론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견해가 된다.

예시답안 공백 포함 545자

(가)는 인공지능 결과물에 저작권을 주면 보상이 창작자 아닌 입력자와 회사에 간다고 보고, (나)는 인공지능도 사진기 같은 도구이므로 사람의 선택이 담긴 결과물은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사람이 실제로 선택하고 다듬은 만큼만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저작권은 사람의 창의성에 보답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의 학생은 단어 몇 개를 입력해 수십 장을 얻고 색만 조금 바꾸었다. 그 그림에서 사람의 몫은 그 선택과 손질뿐이므로, 그림 전체를 학생의 작품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물론 (나)의 말처럼 사진도 처음에는 의심받았고, 고르고 다듬는 것은 사람이다. 그러나 사진기는 남의 작품을 배워 닮은 것을 내놓지 않는다. (다)에서 닮은 그림이 나왔는데 회사가 학습 자료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도구가 남의 창작 위에 서 있음을 보여 준다. 결과물 전체에 권리를 주면 (가)가 걱정한 대로 보상이 뒤바뀐다. 따라서 사람이 보탠 부분만 보호하고, 회사에는 학습한 작품을 밝히고 그 창작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창작자와 새 도구를 쓰는 사람을 다 품는다.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바른에듀케이션